

진명 100년  
인물 100년



진명여자고등학교 총동창회





- 완 성 : 2005년 8월
- 사 용 : 2005년 9월 24일 (100주년 한마음 걷기대회 사용)
- 바 탕 : 붉은색 - 교화 (패랭이꽃)  
          금색실 - 귀하고 보배로움 (기에 새긴 글씨)
- 제 작 : 진명 미술인회



## C · O · N · T · E · N · T · S

### | 간행사 |

총동창회장 / 사공인숙 .....	04
--------------------	----

### | 축 사 |

진명여자고등학교 교장 / 이호준 .....	05
-------------------------	----

### | 진명 100년 |

• 진명의 옛주소와 현재주소 .....	08
• 옛교사 위치 .....	09
• 학교연혁 .....	10
•三一堂 (삼일당) .....	14
• 진명의 상징 (교표와 백선) .....	17
• 진명 교가 .....	18
• 진명의 건학 정신 .....	21
• 학교를 만드신 분 .....	22
• 엄순헌 귀비 .....	24
• 교조 엄준원 .....	26
• 이세정 교장님 .....	27

## | 인물 100년 |

• 나혜석 (3회) .....	38		
• 김오남 (17회) .....	47		
• 노천명 (20회).....	49		
• 박용경 (21회) .....	54		
• 손호연 (30회).....	57		
• 김재순 (34회).....	68	• 윤순희 (50회).....	145
• 이윤자 (35회).....	69	• 김청자 (52회).....	149
• 황윤석 (36회).....	71	• 홍양자 (52회).....	154
• 한양순 (36회).....	81	• 김현숙 (54회).....	161
• 한윤복 (39회).....	89	• 문정희 (55회).....	166
• 이현중 (39회).....	93	• 김경희 (55회).....	175
• 김희진 (41회) .....	96	• 박명숙 (57회) .....	176
• 이복자 (41회) .....	104	• 이선희 (58회).....	188
• 우복희 (46회).....	112	• 전미숙 (66회).....	196
• 황연대 (46회).....	116	• 유지나 (68회).....	199
• 박정란 (48회).....	125	• 허성녀 (68회).....	206
• 조경자 (49회).....	129	• 김순덕 (69회).....	212
• 박정자 (50회).....	134	• 김인숙 (71회) .....	218

# 간행사



총동창회장  
사공 인숙

교령(校齡) 100주년을 앞두고 진명 총동창회에서는 무엇인가 기록으로 남을만한 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동문 여러분의 생활과 사색을 기탄없이 기록할 수필집을 폭넓게 낼까 하다가 진명을 졸업하시고 사회에서 활동하셨거나 활동하고 계신 동문들의 보람있는 삶을 후배들에게 본보기로 남길만한 분들을 뽑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각계 각 분야에서 여성사에 빛나는 업적을 남긴 분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분은 입법부에서 혹은 사법부에서 어떤 분은 예술분야에서, 의료분야에서, 학교재단의 장(長)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유명한 작가분들 혹은 체육계에 종사한 분, 무용계, 음악계에서 이름을 떨친 기라성 같은 분들이었습니다.

미처 진명 인물사(史)에 올리지 못한 분들도 많습디다만 시대순으로 학교를 설립하신 조선말 고종황제의 귀비(엄순헌)를 비롯하여 나라가 누란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어려운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민족의 얼을 심기에 여념이 없으셨던 교장선생님과 진명의 거룩한 뜻을 받은 선배님과 동문 여러분들의 업적을 다시 되짚어보면서 만감이 교차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진명이란 울안에서 황족의 대우를 받으며 곱게 키워진 사학명문의 재원들이었습니다.

진명이 배출한 훌륭한 동문님들의 행적을 찾아 꼭 기억해야 할 30여 분 중 작고하신 분에서부터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여기에 실으려 합니다. 이 책에 미처 올리지 못한 많은 훌륭한 동문들은 다음 기회로 미루면서 이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수고를 해주신 고미자 씨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여뻐 보이주시고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3월

# 축 사



진명여자고등학교  
교장 이 호 준

개인의 영광을 넘어 값진 귀감으로 삼고자

오늘 문득 세월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대 역사에서 가장 어려웠던 100년의 세월은 우리 민족사에는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의 세월이었습니다.

순수 민족자본으로 설립된 진명이 걸어온 길은 이나라 교육의 현장이요, 민족 정신의 바탕이 되어 부덕을 갖춘 단정하고 예의 바른 여성으로 3만 여 동창생은 진명의 귀중한 자산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이 책에 실린 34인은 오직 자신의 삶을 한곳에 몰두하고, 정진하며 꾸준히 사신 자랑스런 분들입니다.

21세기를 향해가는 이정표적 역할을 해 줄 분들이기에 이분들을 실어 지나온 100년 동안에 한 획을 긋는 일을 뜻있는 일이라 생각하며 이 책을 발간하는 총동창회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 세계는 끝없는 변화와 치열한 경쟁과 부단한 노력없이 생존할 수 없는 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특히 교육의 몫은 매우 중요하며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는 일은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동창님들이 이룩한 훌륭한 삶을 본보기로 삼아 자라나는 진명의 후배들에게도 용기와 희망을 주어 그들이 가일층 노력해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 깊은 일에 동창회에서 발간한 진명 100년 인물 100년의 간행을 축하하며 아울러 기쁨을 전하는 바입니다.

다시금 동창회의 무궁한 발전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 3월



진명  
100년

(1906년~2006년)



## 진명의 옛주소와 현재주소

- 한성부 북순화방 제54통 4호  
(漢城府 北順化坊 第54統 4戶)
- 경기도 경성부 창성동 67번지  
(京畿道 京城府 昌成洞 67번지)  
(1914년 4월 1일) 조선총독부 경기도 고시 7호에 의함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성동 67번지  
(서울特別市 鍾路區 昌成洞 67번지)  
(1946년 10월 1일) 현재 주소 목동(本洞)으로 이전
- 서울特別市 양천구 목동 927-6번지 (1989년 8월 25일)



옛교사 위치

진명은 도성안의 행정구역상 북부(北部)에 속함.

백악을 향하여 좌측에 창의문(彰義門 일명 자하문) 동남쪽에 청와대가 위치함.

청와대 서쪽에 육상궁(毓祥宮)이 있고 육상궁에서 정남(正南)으로 경복궁 영추문(迎秋門) 가까이에 진명이 자리잡음.

진명이 자리잡은 순화방 창성동은 비교적 민가가 많은 곳이었음. (뒤에는 푸른 백악, 서쪽으로 인왕산, 동쪽으로 경복궁, 청와대, 남으로 남산을 바라보며 자랑스럽게 세워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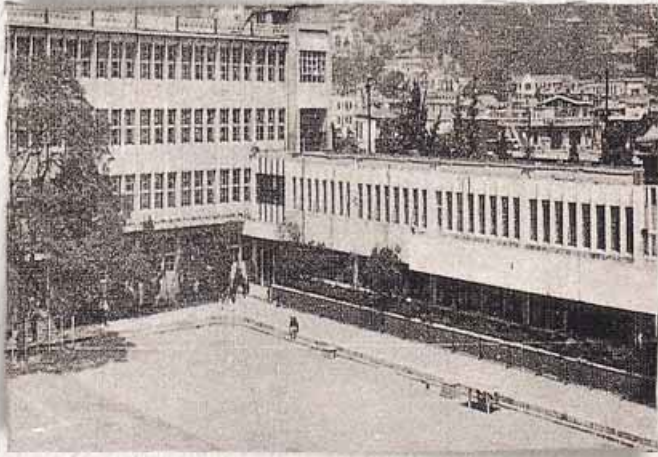


## 학교연혁

- 1905년 3월 엄준원 선생 달성위궁에 사숙을 설치하다.
- 1906년 4월 11일 엄순헌 귀비께 학교대지를 하사받다.
- 1906년 4월 21일 엄준원 선생이 진명학교를 설립하고 제1대 교장으로 취임하다.
- 1907년 5월 엄순헌 귀비께 약 200만 평의 전장(田庄)을 하사받아 본교 재산을 만들다.
- 1908년 6월 3일 칙령 제62호 사립학교령에 의하여 새로 교칙을 제정하고 학부의 인가를 받다.
- 1912년 4월 6일 본교 기본 재산으로 재단법인 진명여학교 인가를 받아 동재단이 진명여자고등보통학교와 진명여자보통학교를 유지 경영하다.
- 1928년 4월 1일 진명여자보통학교와 경성여학원을 폐지하고 진명여자고등보통학교만을 경영하다.
- 1938년 3월 1일 제2대 교장에 엄주명 선생이 취임하다.
- 1940년 7월 30일 제3대 교장에 이세정 선생 취임. 엄주명 이사장 취임하다.
- 1947년 9월 1일 교명을 진명여자중학교로 고치고 신교육 제도에 의하여 수업연한을 6년으로 연장.



▲ 1908년 옛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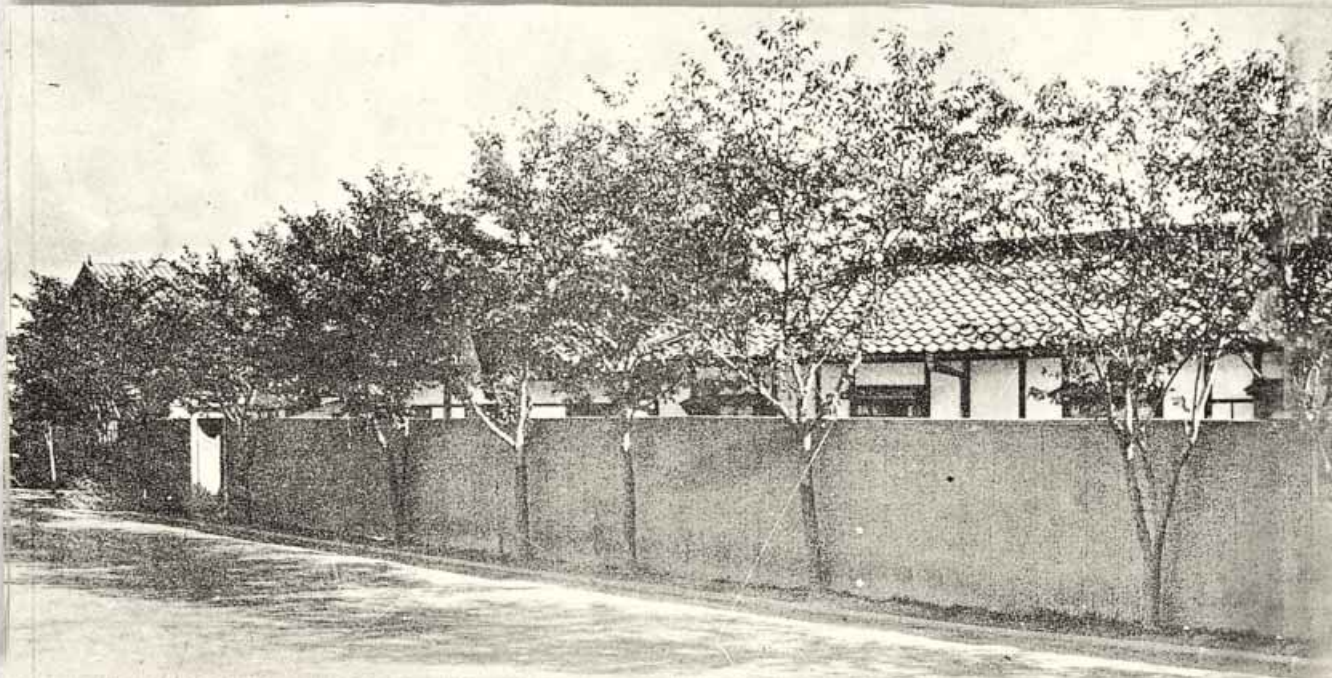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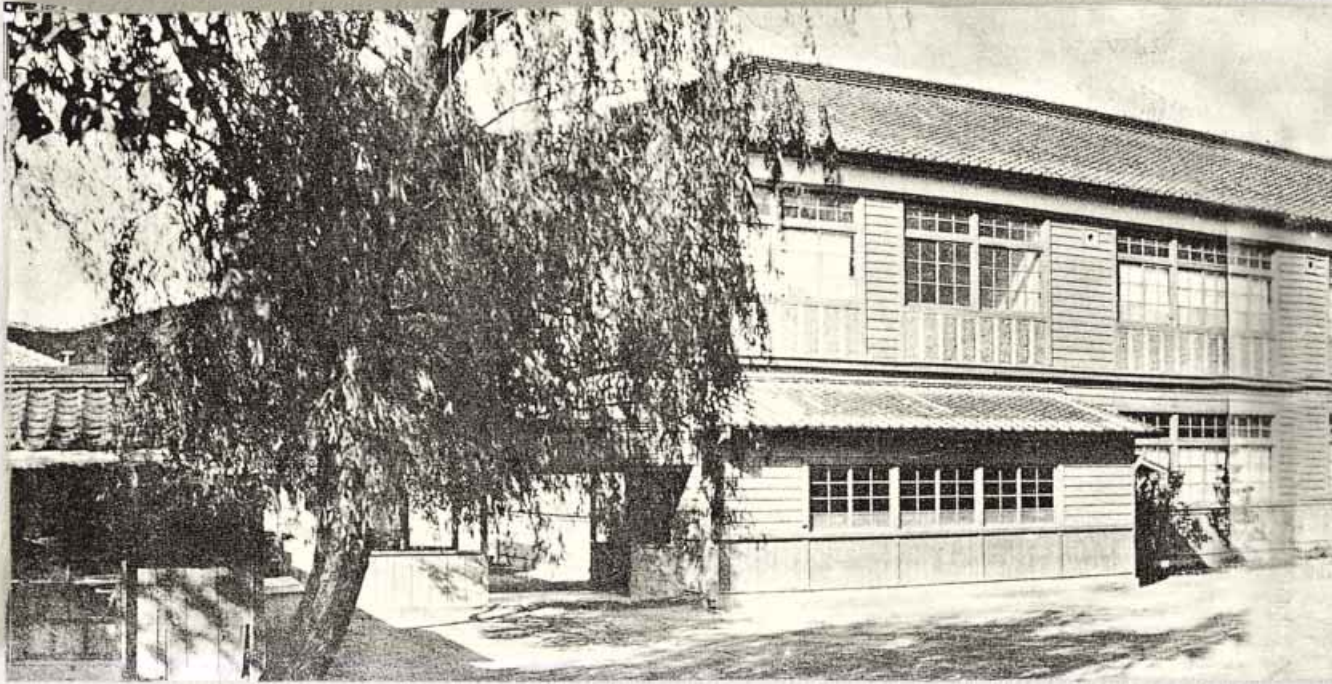


▲ 창성동에 위치했던 구교사 (1968년~1989년)



▲ 서울 목동에 위치한 현재의 진명여고 (1989년 8월 25일 이전)

- 1950년 6월 1일 신교육법에 의하여 진명여자중학교를 진명여자고등학교와 진명여자중학교로 개편하고 수업 연한을 각각 3년으로 변경하다.
- 1951년 5월 14일 6. 25 동란으로 부산시 보수동 가교사에서 임시 수업을 개시하다.
- 1953년 9월 24일 서울 본교에서 수복식 거행하다.
- 1961년 10월 1일 제4대 교장에 박용경 선생이 취임하다.
- 1976년 5월 26일 박영준 이사장 취임하다.
- 1982년 3월 26일 제5대 교장에 김필순 선생이 취임하다.
- 1983년 3월 29일 엄정섭 이사장 취임하다.
- 1987년 2월 28일 진명여자중학교를 폐교하다.
- 1989년 8월 25일 종로구 창성동에서 양천구 목동 신축 교사로 이전하다.
- 1990년 4월 21일 제6대 교장에 진기정 선생이 취임하다.
- 1991년 10월 1일 제7대 교장에 김종빈 선생이 취임하다.
- 1994년 10월 10일 변기호 이사장 취임하다.
- 1995년 2월 21일 엄정섭 이사장 별세하다.
- 1995년 10월 1일 제8대 교장에 임재욱 선생이 취임하다.
- 1996년 1월 17일 제4대 박용경 교장 별세하다.
- 1999년 12월 제9대 교장 양준 선생 취임하다.
- 2003년 제10대 교장 홍문자 선생 취임하다.
- 2005년 9월 1일 제11대 교장 이호준 선생 취임하다.



▲ 학교전경 1919년~1949년 기숙사 전경



▲ 1949년~1964년



## 三一堂 (삼일당)

### 진명 교육의 정수

이세정 교장님 작사 / 조상현 선생님 작곡

진실로 터를 잡고 창의로 집을 지어 삼천만 같이 살자  
삼일당은 우리집 삼일당은 우리집 삼일당 만세 만만세

- 삼일당 노랫말

三一堂은 삼일정신의 상징  
진명교육의 기반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뜨거운 열정을 다하여  
헌신하는 여성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교육의 정수로 삼은 집.

따라서 三一精神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려면

- ▶ 진실(眞實)
- ▶ 협조(協調) = 진명교훈
- ▶ 창의(創意)

하여야 한다고 지도함.



▲ 삼일당 (강당) 전경. 1958년 10월 27일 낙성식 후 개관함.

- 6.25 동란으로 피난사(1950~1953) 부산 보수동에서 보수연을 베푼 장소
- 수복후 창성동 강당의 당호를三一堂이라 명명함.
- 1953년 6월 8일 휴전조약을 반대하던 전날(밤 10시 40분) 공산당 적기가 폭탄 11개를 서울에 맹폭하여 1개는 운동장에 또 1개는 강당에 직격 대파됨.
- 1956년 2월 8일 강당, 신축, 교사 증축을 위한 기성회 발족  
삼일당 공사는 대림산업 주식회사. 설계는 종합건축연구소 이천승 씨가 함.
- 1956년 5월 19일 강당 기공식 거행
- 1956년 11월 27일 강당 상량식을 거행
- 1958년 4월 1일 우여곡절 끝에 공사 다시 시작
- 당호는 이승만 대통령이 쓰고 개관 Tape는 영부인이 꿆으심
- 1959년 3.1당 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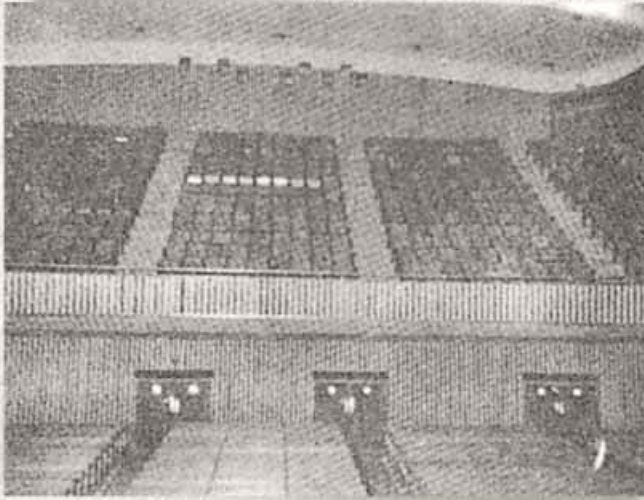


▲ 삼일당을 준공하고 (당호 : 이승만 대통령 글씨)

### • 진명 제3호(1958. 9. 17) 강당 낙성사 중에서

- 삼일당은 어느 한 사람의 힘에 의해서 이룩된 것이 아니라, 학교장, 재단이 사장, 학부형, 졸업생 등 진명 전체가 한 덩이가 되어 순전히 "진명" 스스로가 이 시설을 이룩한 삼일정신의 뜻입니다(自主 自立 정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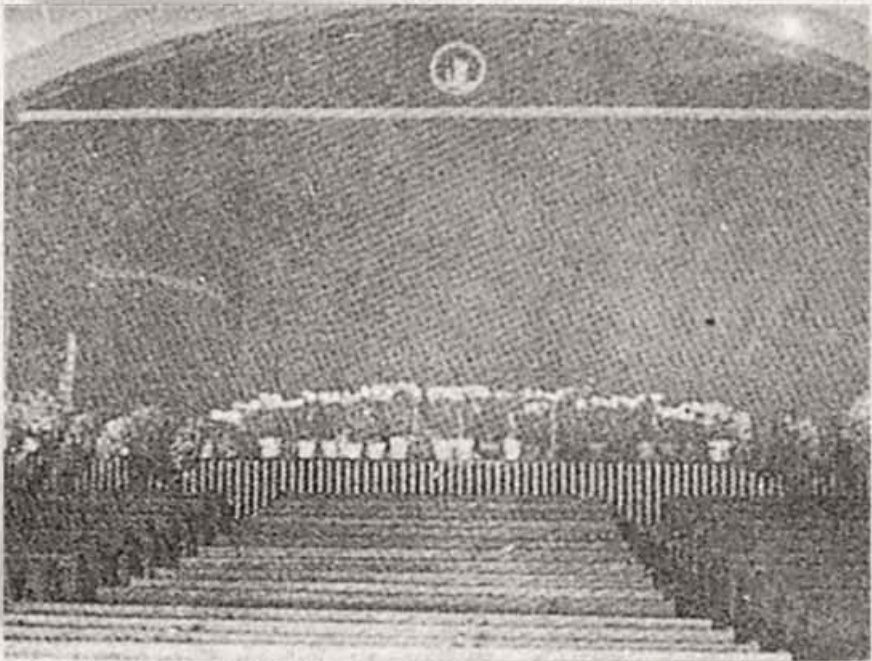
(삼일당에서 첫 졸업식을 한 횟수는 48회가 행운을 누렸음)



▲ 삼일당 객석



▲ 삼일당 복도



▲ 삼일당 무대

진명의 상징 (교표와 백선)

| 배지 |



◀ 진명의 옛 교표

- 제정 : 1935년 4월 22일 개교 30년을 기념하는 뜻으로 제정
- 도안제작 : 일본 동경 미술학교에 의뢰
- 재학생 중 우수작품을 선택 제작한 것임.
- 교표의 의미 : 명경(明鏡) : 거울  
치타(齒朶) 투줄기 (치타는 서초(瑞草)로 어려움을 건뎛 이긴다는 뜻)
- 진명 두 자를 치타가 받들고 있는 모양  
울고 그림을 분명히 하고 사람의 거울이 되라는 뜻  
1935년 4월 22일~1945년 8월 15일 이후 (10년간 사용)



▲ 왼쪽 가슴에



▲ 청색과 백색이 어우러진 백선

- 제정 : 1948년 9월 4일(학교의 상징으로 발표함)
- 도안제작 : 서울대 미대 이순석(李順石) 교수님의 도안  
(등대, 돛단배, 파도 모양, 둘레의 17개의 劃片(획편)은 광채를 뜻함.
- 교표의 의미 : 덕을 쌓고 학업을 닦아서 나의 빛으로 거레와 온누리를 밝게  
비추며 굴함없이 전진한다. (進德啓明, 進德修業, 盡聰明)

### | 백선 |

- 백선 : 순결(進)과 정직(明)을 표현함(치맛단에 들렸음).
- ※ 엄귀비께서 하사하신 전장(田庄)에 세워진 학교의 순서대로 양정은 한줄 진명은 두줄 속명은 세줄로 두루게 되었다고도 함.
- ※ 현재는 왼쪽 가슴에 붙임



▲ 치맛단에 백선

### 진명 교가

세우신 고마운 뜻 고이고이 받들어 / 온누리 밝혀주는 바른 길, 빛이어라  
따뜻한 가르치심 마음에 닦고 갈아 / 이 세상 온 집안의 소담한 꽃이어라.  
집안을 돌보고老를 보살피는 / 그 뜻이 참사람의 올바른 길이어라.

옛교가 노랫말

- **교가제정** : 1939년 4월 21일 개교 33주년에 제정
- **작사·작곡** : 영친왕비께서 동경음악학교에 작사와 작곡을 부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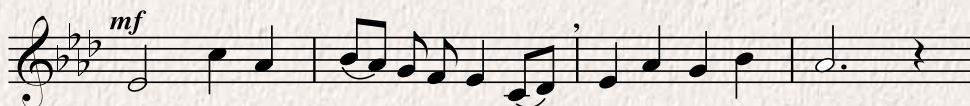
## 교 가

씩씩하고 아름답게

박종화 작사  
나운영 작곡



1. 역 사 깊 은 자 - 핫 - 골 진 - 명 - 의 배움 집  
2. 별 과 같 은 삼 - 천 - 만 겨 - 레 - 를 속 에 서  
1. 역 사 깊 은 자 - 핫 - 골 진 - 명 - 의 배움 집



뒤 에 는 푸 - 른 백 악 옆 - 에 는 경 무 대  
우 리 는 뽕 - 히 어 진 진 - 명 의 학 도 라  
지 혜 는 맑 - 고 맑 은 구 - 슬 이 되 기 라



봄 - 가 - 을 여름 겨 - 울 이 곳 에 배 워 수 러  
인 - 생 - 의 높은 향 - 기 고 이 지 녀 서 어 질  
봄 - 가 - 을 여름 겨 - 울 이 곳 에 배 워 수 러



한 - 저 - 봉 우 리 우 리 기 상 일 세 오  
고 도 찬 - 란 하 게 내 겨 레 받 들 세 오  
한 - 저 - 봉 우 리 우 리 기 상 일 세 오



- 오 - 배 달 의 딸 진 명 이 거 라 오



- 오 - 배 달 의 딸 진 명 이 거 라

- 1949년 5월 28일 발표 (현교가)
- 가 사 : 온유함, 지혜로움을 지닌 진명의 기상과 정서를 표현함.
- 작 곡 : 쾌활한 분위기 속에 간직한 우아함이 드러남.

# 진명 응원가

씩씩하게  
*moderato*



인 왕 산 맑은정 기 북 악 의 높은 영 기



한 - 몸 에 담뱃지 - 녀 싸 우 는 우리선 - 수



그 이 름 그 - 정 신 은 진 명 이 라 네



나 가 자 우리선 - 명 이 기 자 우리선 - 수



play play play 우리진명 play play play 진명 play



## 진명의 건학 정신

진명(進明)은 1906년(光武 10年) 4월 21일에 개교한 이래, 기본 교육 방침을 당시 한국의 시대성과 사회성에 적합한 부덕함양(婦德涵養)에 두고, 온량 정숙(溫良貞淑), 질소근검(質素勤儉)을 강조하였다.

이에 여성 교육은 덕육(德育)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는 관념(觀念)이 진명의 창립 이념(創立理念)으로 8.15해방까지는 전통적인 유교(儒敎)의 정신을 지도 이념으로 하였다(유교의 정신지도는 마음의 지도수업).

이는 덕(德)이 없는 지(智)는 부박(浮薄)한 인간형을 만들기 쉽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하여 진덕수업(進德修業)에 진총명(盡聰明)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교명이 '진명(進明)'이 되었던 것이다.

국권(國權)을 상실(喪失)하여 이민족(異民族)의 압제(壓制) 밑에 있었기 때문에, 품성(品性)을 도야(陶冶)하고 부덕(婦德)을 함양하여 학업을 연마하는 것이 그 압제를 이겨내는 길이었으며, 이것이 또한 피압박(被壓迫) 민족의 인간적 굴욕을 벗어나는 길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교육 이념을 기본으로 하여 1936년부터 품성도야를 위한 5대 덕목 즉 「장자존경(長者尊敬)·근로호애(勤勞好愛)·질소검약(質素儉約)·온량정숙(溫良貞淑)·책임존중(責任尊重)」을 선정하였으며, 이 덕목이 바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중심이 되었다.

그후 중국 대륙에서 중·일(中·日)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던 1939년에, 진명칠훈(進明七訓)을 제정하여 학생 지도의 기본으로 하였다. 그리고 학생 지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 七訓(長者尊敬·溫良貞淑·勤勞力行·質素儉約·時間利用·責任尊重·至誠奉仕)을 학년별로 덕목을 나누어 실천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정치·사상의 색채에서 벗어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자 하는 인간 교육의 기본형이기도 하였다.

이 교훈 철칙이 그대로 진명의 교풍(校風)이자, 진명이 추구하는 인간상(人間像)이 되었다. 그로 인하여 경술국치(庚戌國恥) 후에 일본(日本)의 식민지 통치로 사회적 인 역경과 파란(波瀾)이 많았건만, 진명은 시세(時勢)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고 조용하게 정의감(正義感)과 인내성(忍耐性)이 강한 그리고 협동(協同)·봉사(奉仕) 정신이 투철한 인간을 교육하는 여성의 전당(殿堂)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 학년별 실천 중심(1910년) 칠훈(七訓) 지도

- 1학년    장자존경 · 근로호애                      • 2학년    질소검약 · 온량정숙
- 3학년    시간이용 · 책임존중                          • 4학년    지성봉공

## 학교를 만드신 분

### | 엄순헌 귀비(고종황제의 계비) |

- 이은(李垹) 영친왕의 母妃(모비)  
(국권이 흔들리는 모습을 비통하게 절감하고 교육에 뜻을 두시어 국가의 초석을 튼튼히 해야한다고 깨닫고 교육 사업에 힘쓴 선각자.)
- 순헌 귀비는 시호(諡號)이다.
- 8세 때 입궐 민비의 시위 상궁이셨고
- 1895년 민비시해사건 이후 아관파천으로 고종을 가까이 모시게 되었다.
- 1897년 아들 李垹님을 낳아 貴人(귀인)으로 봉작되시다(경선궁에서 기거하심).
- 1907년 12월 아들 李垹님이 11세에 일본에 불모로(일본 유학이란 미명아래) 잡혀감으로 충격과 비통 속에 세월을 보내시다.
- 1911년 7월 20일 덕수궁 낭조당에서 58세를 일기로 서거하셨다.
- 1911년 8월 2일 청량리 영휘원에 안장되시다.  
신위는 덕안궁에 모시다(8월 4일 시호를 내리심).
- 1929년 육상궁으로 합사하였다.

### | 엄준원 초대 교장님 |

- 진명여학교를 설립(엄귀비와 남매지간)
- 유년에 한학(漢學)을 수학(修學)하시고 등과(登科)의 기회를 기다리다 1891년 무과에 등제(登第), 관직에 오르셨으며 교육에 뜻을 두고 학교를 설립할 때까지 관직에 계시었다. 1906년 진명여학교를 설립한 뒤에는 차츰 관직에서 물러나 교육에 전념하셨다.

인품이 고결하고 애국충정이 강하시고 민족에 또한 두터운 분이시다.

개교한 뒤에는 학생들에게 친아버지와 같이 온정과 애정으로 교육하셨고 민족의 자주사상과 개화사상을 일깨우며 부덕을 갖춘 여성양성에 힘쓰신 분이시다.

### | 여메례 황(余袂禮 黃) 여사 |

신 여성(개화한 여성)

진명여학교 설립에 실무적인 주역을 한 분.

- 1874년 경북 의령 출생. 기독교에 관심이 많았으며 한성(지금의 서울)에 올라와
- 1892년 이화학당에 입학하였다(1년간 스크랜턴 여사에게서 수학함).
- 1893년 보구(普救)여학교로 옮겼고(기독교적인 신교육을 받으며 한국여성교육에 뜻을 두게 되었다.)

- 1900년 보구여학교 교사가 되어 간호술, 전도사업을 하면서 명성황후의(민비) 통역으로 활약하였다. 보구여학교 회장, 여자청년회 회장을 하면서 기독교 전도와 여성계몽사업에 전심노력하였으며 엄귀비와 엄준원 선생과 친히 지냈다 (특히 후진교육에 관한 문제를 많이 의논함).
- 1905년 황하방(정동), 달성위궁에 사숙을 설치 교육을 시작하였고
- 1905년 일본 교육 현황 시찰차, 동경, 경도 등 여행하였으며
- 1906년 4월 진명여학교를 개교하면서 총교사(總敎師)가 되었다(여권신장을 강조 : 학생지도에 힘씀).
- 1910년 이후에도 수년간 재직.  
재단에 일본인이 학교운영에 관여하자 교사직을 사임하였다.



▲ 감나무(교목)

# 엄순헌 귀비



- 1854년 아버지 엄진삼의 장녀로 태어나셨다.
- 1859년 아기 내인으로 입궁하셨다. 이후 고종황제의 정실이신 중전 민비를 측근에서 모시는 시위 상궁이기도 하셨다.
- 1895년 8월 20일 일본공사 미우라 고로의 흥계로 일어난 을미사변으로 명성황후가 시해를 당하셨다. 엄비는 궁밖으로 쫓겨나셨다가 명성황후가 별세 후 닷새 만에 고종의 명으로 다시 궁궐로 들어오게 되셨다. 을미의병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자 정부에서는 친위대를 보내 진압하는 한편 의병 해산을 종용하기도 했으며, 전국적인 반일 운동에 놀란 일본은 궁궐을 수비하고 있던 정찰대를 파견해 의병운동진압에 나섰다. 고종은 이 틈을 타 러시아 공사 베베로와 이범진 등 친러파의 권유를 받아들여 세자와 함께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다. 이를 '아관파천'이라 하는데 이때 러시아 공사관에 고종의 수리를 맡아 들어간 여인이 엄비셨다.
- 1897년 엄비와 고종 사이에서 아들인 영친왕이 태어나셨다.
- 1900년 귀인에서 순빈으로 봉해지셨다.
- 1901년 계비로 책립되셨다.
- 1903년 황귀비로 진봉되셨다.
- 1906년 여성교육에 관심을 가져 내탕금으로 진명여학교와 숙명여학교를 설립하셨다. 이외에 양정학교 설립에도 중심적인 역할을 하셨다.
- 1907년 엄비의 아드님이신 영친왕께서 황태자로 책봉되셨다.

영친왕께서는 이토히로부미에 의해 일본 유학이라는 명목 하에 인질이 되어 일본에 끌려가셨다.

- 1911년 7월 20일 덕수궁 남조당에서 58세를 일기로 서거하셨다.



일본인들은 한일합방이 이루어지자 재실재산 정리국의 직제를 신설, 궁실소유의 모든 재산을 국유화 하려 하였다. 엄준원(엄귀비와 남매지간) 선생과 여메례황(명성황후의 영어통역을 맡았던 분) 여사가 엄귀비께 여성교육의 필요성을 역설, 학교설립을 하시도록 진언하자 엄귀비께서 두분께 학교설립을 일임하시다.

- 엄비께서 1906년 여성교육을 위한 학교설립에 뜻을 전하시고 두분께 교지를 하사하시다(광무10년).
- 학령에 이른 일반 가정의 여성을 수용, 보통교육부터 실시하시다.
- 엄비께서 학교교육에 필요한 자원 공급 및 진명, 숙명 두 학교의 발전에 큰 관심을 가져 수시로 장학 금품을 수여하시다.
- 처음이자 운영을 무료로 하는 만큼 운영의 어려움이 있자 학교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교지를 하사한 것이 학교의 기본 자산이 되다.

## 교조 엄준원



자는 영숙, 호는 의석, 본관은 영월이다.

- 1854년 3월 26일 내부협판 엄진일 씨와 증 정부인 양천 허씨의 아드님으로 탄생하였다. 후에 증 찬정 엄진삼 씨에게 입양된 엄순헌 귀비와 남매간이었다.
- 1890년 무과에 등제하시어 관직에 오르셨다.
- 1899년 정삼품에 오르시어 한성부판윤 군부협판을 역임하셨다.
- 1903년 육군참정이 되어 이 후, 군제의정관, 참모부 제이국장, 헌병사령관등을 지내시고, 정2품 훈이등에 오르셨다.
- 1906년 진명을 세우고, 진명의 제1대 교장이 되셨다.
- 1908년 보통과 제1회 졸업생을 내시고, 유치과, 예비과, 중등과를 설치하셨다.
- 1910년 국치의 경술합방으로 인하여 관직생활에서 물러나셨다.
- 1916년 강당을 신축하셨다.
- 1917년 창성동 구교사의 국관 전신인 목조 2층의 교사를 신축하셨다.
- 1932년 개교 30주년 기념식과 전락호를 개최하셨다.



▲ 진명 1회 졸업생

러일전쟁 후 동양의 패권을 잡은 일본이 우리 민족에게 위협을 가해 드디어 한일합방으로 비운을 맞아 우리나라는 더욱 암담한 시대 상황에 직면하여 여자의 존재란 집안에 유폐된 한낱 가치없는 대상이었다. 교조께서 「치마를 둘렀으나 여자가 아니다. 하시며 여성교육을 강조, 「국력이 약해진 이유가 민족의 무지에 있다.」 「여자도 교육받고 배워야 한다」고 역설하시다. 엄교조께서는 여메레황 여사의 협력을 받아 달성위궁 사저에 사숙(사립교)을 세우시다(1905).

귀비께 학교설립에 관한 진언을 올렸고(엄교조와 여메레황) 엄주익 선생(양정의숙 설립자)과 여메레황 여사의 도움으로 1906년 진명을 창립, 1대(代) 교장이 되시다.



## 이세정 교장

진명여고 3代교장  
1925~1961 진명여자 중·고등학교 교장  
1962~1972 일성고등공민학교 교장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으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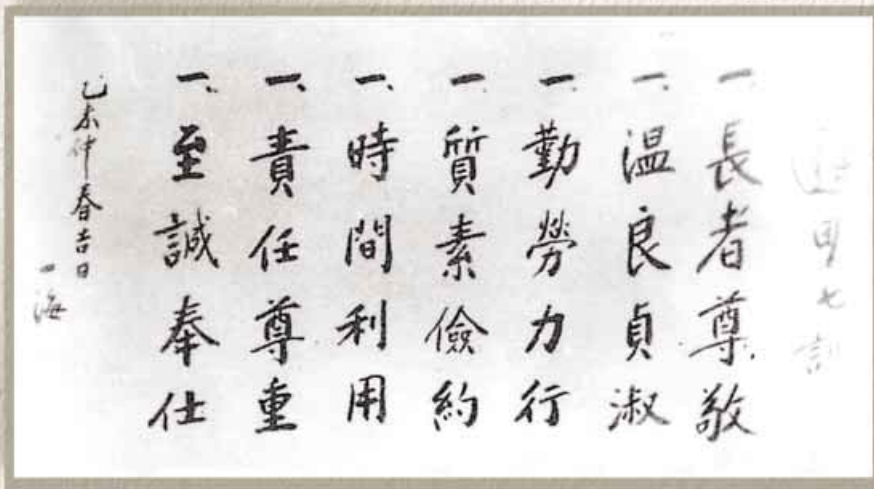


▲진명 교훈 (을미년에 쓰심)

### 제3대 교장 李世楨 선생님

**일해** (一海) 이세정(李世楨) 선생님께서는 진명에 부임하여 평교원으로 8년, 교두(敎頭)-지금의 교감-로 4년 11개월, 부교장(部敎長)으로 2년 5개월, 합하여 15년 4개월만에 제3대 교장으로 임명되었다.

1895년 7월 13일 서울에서 탄생하여 1914년 3월 경성고등보통학교 부설 교원 양성소를 졸업하고 개성 제2, 서울의 매동, 수송공립보통학교의 선생님이로 약관(弱冠)에 교육계에 투신하였다. 주시경(周時經) 선생이 경영하는 조선어 연구원을 졸업하고 뒤에 일본 와세다 대학의 교외생으로 문학과를 졸업한 것을 보면 선생님의 가정은 청빈하였고, 출발부터 그리 넉넉치 못한 가정형편인 것으로 보여지며 조선어 연구원을 졸업한 사실은 곧 선생님의 민족사상의 일면을 짐작할 수 있겠다. 뒤이어 조선공업실업학교(뒤의 경기상고)를 거쳐서 진명에서 교장으로로서 5.16혁명 정부에서 공포한 교육



▲ 이 七訓이 그대로 진명校風이자 진명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교육하는 기본이 되었음

임시 특례법에 의하여 정년제 퇴임을 하기까지 36년간을 봉직하였다. 대한교육연합회 정관계정의원, 상임이사, 부회장, 고문(14년간 재임), 대한교육연합회 공제회 창설위원, 이사장, 고문(10년간 재임) 문교부 재단연합회 창립위원, 이사, 회장, 고문(23년간 재임), 그리고 한글학회 감사로 1945년 8월에 취임하여 1972년 운명할 때까지 일을 하셨으며 이 밖에 학교 재단 이사, 체육계 등 여러 공직에서 활동하셨고 선생에 대한 세평(世評)은 한결같이 “진실로 참다운 교육자”로 유명하였다.

#### 진명학교와 이세정 선생님-

이는 마치 대성(大成)학교와 도산(島山) 선생, 오산(五山)학교와 남강(南岡) 선생과 같이 비유하신 학계의 원로(元老) 학자가 계시지만, 실로 이세정 선생님은 한국 여성교육의 기저(基底)를 마련하셨고 새로운 교육의 풍토를 조성(造成) 발전시킨 교육계의 거성(巨星)이었다.

진명학원이야말로 이세정 선생님의 신념과 피와 땀에 의하여 축조된 불멸의 용광로라고도 할 수 있다.

그 분은 진실(眞實), 협조(協調), 창의(創意)의 삼덕(三德)으로 교육의 이념을 세우시어 교훈으로 삼아 실행에 옮기셨고 교사 3잠(箴)을 설정하여 교사의 사명감과 교직의 참뜻을 깨닫게 하여 교사의 인격 수양, 자세 확립을 시도하였다.

이같이 투철한 교육 이념하에 주도면밀한 계획, 철두철미한 실천을 강조, 언제 어디서나 “백년 살 것 같이 계획하고 내일 죽을 것같이 일하라”고 지도하였다.

일해(一海)라는 당신의 호(號)도 발음으로 풀어 “일하라”의 뜻이라고 유머어도 하면서 “나한테는 일하지 말라는 소리가 제일 듣기 싫다”라고 말 씀하였다. 그 분은 물욕(物慾)은 전혀 없으셨으나 일에 대한 욕심은 굉장 하였다.

일정치하(日政治下)에서의 민족적인 수모(受侮)의 세월 속에서나, 8.15 해방 직 후의 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오로지 교육의 정립(定立)만을 위해 고군 분투하였 고, 6.25사변 후에는 진명 반공일(反共日)을 제정하여 학생들에게 바른 국가관 과 뜨거운 민족애(民族愛)를 불어 넣어 주었다. 사변 때 파괴된 강당을 재건함 에 있어서도 외부의 도움을 결코 마다 하고 오로지 진명 가족들만의 힘으로 완 공하고는 3.1당이라 명명(命名)하였다.

이 3.1당이야말로 자주적이고도 민족적인 승엄한 정신을 표상(表象)한 것으로 이 민족의 역사와 함께 길이 길이 살아 남을 것이다.

더욱이 교훈(校訓)으로 설정한 진실, 협조, 창의의 정신을 “감나무”를 통하 여 구현(具現)하였다.

교정(校庭)에 선 감나무의 감을 완전히 다 익을 때까지 따지 않음으로써 진 실된 마음을 키워 주었으며 그 감을 판 수익을 호조회(互助會)에 넣어 학생 을 돕는 일에 씀으로써 협조적인 태도를 권장하였다.

혹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거나 터지는 경우에는 “감님이 낙상(落傷)을 하 셧다. 입원을 시켜야겠다”라고 희화적(戲畫的)인 교훈으로 일깨웠다.

진명 운동회는 또한 장안에서 유명했다. 비록 좁은 운동장이었지만 학생들 의 절도있는 행동(즉 음악에 맞추어 행동함), 창의적인 프로그램 등으로 당 시 모(某) 교장 선생님은 체육과 직원들을 대동하고 “수업료도 없이 예술전 시회를 보고 배울 수 있으니 영광이다”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 운동 회의 모습이야말로 창의(創意) 정신의 결정체(結晶體)였던 것이다.

또 졸업생들의 결혼 주례를 맡을 경우는 독창적인 성혼서약서(成婚誓約書) 를 손수 써서 남녀가 함께 날인(捺印)하게 하였으며 손수 예비 신랑, 신부에게 웨딩마치에 발 맞추기, 맞절하기까지도 지도했다. 극히 작은 일에서부터 소홀함이 없는 이교장 선생님은 청소할 때면, 걸레 빠는 법부터 지도하였다. “걸레는 양동이에서 바로 빨면 물이 많이 낭비된다. 대야에 물을 따라 걸레 를 빨고 이 걸레는 네 번 접어서 여덟 번 사용해라”

이처럼 작은 일까지 철저하였으며 교구(校具)에는 구입 연월일과 가격까 지 기입토록 하였고 근검·절약하며 검소한 생활 습관을 길러 주기에 심혈 을 기울였다.

집회시(集會時)에는 항상 사부동(四不動)의 자세를 통하여 강인(強靱)한 정

신력과 체력 연마에 힘썼으며 공사(公私)의 분별이 엄격하나 개인적으로 대해 줄 때에는 10남매를 거느리신 어버이답게 따스한 미소로 끝없이 다정한 분이였다.

재물(財物)에 욕심이 없는 분으로 일생동안 청렴 결백하게 오로지 고매(高邁)한 교육 일념(一念)으로 몸 바쳐 사신 분이다.

부인의 회갑 기념으로 온 가족들이 평원정(平遠亭)상도 마련하였고 자손들의 면학(勉學) 분위기 조성에도 전념하였다.

진명에서 정년 퇴직을 한 후에도 불우한 청소년을 위하여 일성(一醒)고등 공민학교의 교장으로 교육사상을 몸소 실천하면서 은자(隱者)의 생활로 여생(餘生)을 마치셨다.

국민훈장 **무궁화 훈장**을 마지막으로 수상하시고 1972년 2월 17일 향년 77세에 타계(他界)하였고 각계 각층의 깊은 애도(哀悼)와 오열(嗚咽)속에 사회장(社會葬)으로 성대히 모셔졌다.

교육계의 귀감(龜鑑)이고, 시대적 지도자이며 사회 생활의 개척자인 일해(一海) 이세정 선생님의 크신 유훈(遺訓)은 대한민국의 교육에 찬연히 빛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진명 75년사에서 발췌

| 진명의 건학정신(창립정신) |

교명 : 진명(進明)

進德修業에 盡聰明하여야 함의 뜻

(덕을 쌓고 학업을 닦아서 나의 빛으로 겨레와 온 누리를 밝게 비추며 굴함이 없이 전진한다)

| 교풍의 확립 (1936) 품성도야를 위한 5대 덕목 제정하다 |

여성 교육은 덕육을 기본으로 한다는 진명의 창립이념이었으므로 전통적 유교(儒敎) 정신을 지도 이념으로 하였다.

- ① 장자존경(長者尊敬)
- ② 근로호애(勤勞好愛)
- ③ 절용애인(節用愛人) 학생지도 방안
- ④ 온량정숙(溫良貞淑)
- ⑤ 책임존중(責任尊重)

**| 시대배경 : 국권상실(1910. 8. 29) |**

한일 합방이 되자 일본의 압제 통치 밑에서 교육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어려움이였다.

학생지도는 품성도야, 부덕함양, 학업연마가 오직 일본의 압제에서 이겨내는 길이며 피압박 민족의 인간적 굴욕을 벗어나는 길이라 생각하였다.

**교훈제정(1939)하다 (직접 일해께서 쓰시어 교훈을 제정하다)**

**| 교훈칠칙(七則) |**

- 학생지도 중점지도 덕목(학년별로 덕목을 나누어 실천함)

- ① 장자존경(長者尊敬)                      ② 온량정숙(溫良貞淑)
- ③ 근로호애(勤勞好愛)                      ④ 질소검약(質素儉約)
- ⑤ 시간이용(時間利用)                      ⑥ 책임존중(責任尊重)
- ⑦ 지성봉공(至誠奉公)

**| 교훈 七則(칠칙)이 진명의 교풍(校風)이며, 진명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기르는 근본이 되다. |**

제정배경 : 일본 식민지 통치하에 사회적 역경과 수많은 시련에서도 시세(時勢)에 흔들리지 않고 정의감과 인내성이 강한 협동, 봉사 정신이 투철한 여성의 전당으로 우뚝 설 수 있었으며 진명의 교육은 “3대를 교육하는 도장”이라는 평을 받았고 진명 교육은 “믿을 수 있는 교육이다”라는 신임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딸이 있는 집은 서울에 있는 진명여학교를 보내기를 원하였다.

**| 교장(校章), 교기(校旗), 교가(校歌)를 만들다 |**

(3대 一海 이세정 교장님의 창의적이며 감각적인 진명의 상징, 교장(Mark), 교가, 교기를 만들다.



**| 교장(校章)(Mark badge) : 1948. 9. 4 발표함. |**

등대, 돛단배, 파도모양, 17개의 획편(劃片)

동근 테두리 둘레의 광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교수님의 도안 : 이순석(李順石) 교수님

뜻 : 덕을 쌓고 학업을 닦아서 나의 빛으로 겨레와 온우리를 밝게 비추며 굴함없이 전진한다. - 진명건학정신

# 교 가

씩씩하고 아름답게

박 중 화 작사  
나 운 영 작곡



1. 역 사 깊 은 자 - 핫 - 골 진 - 명 - 의 배 움 집  
 2. 별 과 같 은 삼 - 천 - 만 겨 - 레 - 를 속 에 서  
 1. 역 사 깊 은 자 - 핫 - 골 진 - 명 - 의 배 움 집



뒤 에 는 푸 - 른 백 악 옆 - 에 는 경 무 대  
 우 리 는 뿔 - 히 어 진 진 - 명 의 학 도 라  
 지 혜 는 맑 - 고 맑 은 구 - 슬 이 되 거 라



봄 - 가 - 을 여 름 겨 - 울 이 곳 에 배 위 수 러  
 인 - 생 - 의 높 은 향 - 기 고 이 지 녀 서 어 질  
 봄 - 가 - 을 여 름 겨 - 울 이 곳 에 배 위 수 러



한 - 저 - 봉 우 리 우 리 기 상 일 세 오  
 고 도 찬 - 란 하 게 내 겨 레 받 들 세 오  
 한 - 저 - 봉 우 리 우 리 기 상 일 세 오



- 오 - 배 달 의 딸 진 명 이 거 라 오



- 오 - 배 달 의 딸 진 명 이 거 라

| 교가(校歌) | 1945. 5. 26 발표

- 작 사 : 월탄 박종화 선생님  
(온유함, 지혜로움을 지닌 진명의 정서와 기상 표현)
- 작 곡 : 나운영 교수(연세대 교수)  
(쾌활한 분위기 속에서 간직한 우아함이 드러남)

<교가>

1. 역사 깊은 자학골 진명의 배움집 뒤에는 푸른 백악 옆에는 경무대  
봄-가을여름-겨울 이곳에 배워 수려한 저 봉우리 우리 기상일세
2. 별과 같은 삼천만 겨레들 속에서 우리는 뿔-히어진 진-명의 학도라  
인-생-의-높은향-기 고이 지녀서 어질고도 찬-란하게 내겨레 받들세
3. 덕과 몸을 닦아서 보름의 둥근 달 지혜는 맑고 맑은 구슬이 되거라 봄  
가을 여름 겨울 이곳에 배워 수려한 저 봉우리 우리 기상일세

후렴 : 오-오-배달의 딸 진명 이거라 오-오-배달의 딸 진명이거라

| 체육 교육지도 |

자세교육 : 정상보(正常步) 교육지도  
“걸음 잘 걷는 진명학생”

서울 장안에서 여학생들이 걸어가는 걸음걸이를 보고는 “아 저 학생은 진명여자고등학교 학생이다”하고 한 눈에 알아볼 정도로 지도하였다.

1930년 이후부터 본격적이고 체계적으로 체육교육을 지도하였다.

매일 3교시 후 교사와 학생전원이 운동장에 모여 행진을 통한 정상보 훈련을 하였다. 겨울에는 20分, 기타 계절에는 30分간, 우천시에는 강당에서 체조를 하여 그 결과 뒤에서 걸음 걷는 모습만 보면 진명학생임을 한 눈에 알아 볼 정도로 알려졌다.

특히 학생들에게 체육 기술지도(1인 1종목 습득)을 하였는데 소개하면

- 1학년 : 전기연습(全技연습:일반경기에 대한 체험을 얻게 한다)
- 2학년 : 일기연습(一技연습:점차 종목을 선택하여 일기정진지도를 한다)
- 3학년 : 운동호애(운동好愛:규율, 협동, 인고의 덕을 배양한다)
- 4학년 : 건강보국(健康報國:여성 건강이 국민 체위에 중대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시킨다)

이상과 같이 철저한 지도를 통해 당시에 진명은 정구와 육상에도 뛰어난 전적을 보였으며 후에 탁구, 농구에도 큰 성과가 있었다.

특히 농구지도교사로는(11회 백림올림픽 대회에 출전한 국가대표선수) 이성구 선생이 진명 농구를 지도하였고(1934년 진명에 취임), 진명의 탁구는 당시(1960~1970)에 조정자, 황률자, 이신자와 같은 선수가 국위선양하였고 진명 탁구를 지도한 이경호 코치와 이기영선생님.

진명의 육상에는 김상용 교사(윤리교사)가 육상선수를 훌륭히 지도하여 아시아 육상경기연맹에서는 물론 일본 친선경기 등 각 경기마다 우수한 성적을 기록하였다(1960~1980).

무용에도 뛰어나 현재 현대 무용계에 진명인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으며 박명숙 교수(경희대), 전미숙 교수(한국 예술 종합대학 무용원 원장) 등이 세계 현대 무용사전에 등재되었다.

현대무용 지도교사였던 김정옥 선생님(후에 수도사대 교수가 되심)의 지도가 큰 바탕이 되었다.

知·德·體(지·덕·체) 어느 것 하나 소홀함이 없이 오직 교육에 전념하였으며 그 외에도 훌륭한 선생님들을 모셔서 교직원으로(교사로) 함께 하였는데 기억되는 분으로 후에 대학으로 가서 교수님이 된 분으로 유원호 님, 강성호 님(이화여대), 김동길 님(연세대, 국회의원), 조상현 님(음악협회 회장, 국회의원)등 여러분들이다. 선생님께서는 항상 철저한 교육을 통해 지(知)적인 진명인을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인 분이시다.

### | 이 교장님의 평원정 가정교육 |

일해 선생께서는 교육자답게 10남매를 키움에 있어서도 남다른 자녀교육관(子女教育觀)이 있었다. 남자 5형제에게는 친절과 용기(勇氣)를, 다섯 자매에게는 자애(慈愛)와 헌신(獻身)을 강조하였지만, 이들딸을 구별하여 교육하지는 않았다. 이들이든 딸이든 사람을 위한 생활, 창의적인 능력을 기르는 생활, 검소하고 인내하는 생활, 그리고 화목과 지혜(智慧)를 통해 모든 생활을 지탱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또 가정에서 무엇보다 교육의 근본이 되는 도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통의 미를 회복하여 고매(高邁)한 정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였다. 그렇지만 현실감이 떨어진 사고(思考)나 행동은 지양(止揚)하였다. 식견(識見)과 능력(能力)을 갖추에 있어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덕목을 익히게 하되 문화와 예술 감각을 지닌, 그러면서도 항상 비전(vision)을 간직한 다기능의 능력자가 되도록 하였다.



가족 간의 일은 댁들의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는 일부터 화분 물주기, 방과 창문 청소, 식사 준비와 설거지, 구두 닦기 등의 일을 서로 분담하여 하도록 지도하였다. 특히

“기소불욕 물시어인(己所不欲 勿施於人)  
항구저기 물구어인(恒求諸己 勿求於人)”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며, 항상 모든 것의 책임을 자신에게 찾고 다른 사람에게서 찾지 말라”는 논어(論語) 제12편 ‘안연(顏淵)’ 2장과 제15편 ‘위령공(衛靈公)’ 20장에 나오는 구절을 통해, 결코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 자신을 다스려 나가며, 항상 자신의 일을 다 할 것을 자녀들에게 강조하였다.

**| 후손들의 모임-평원정회·한바다회 |**

가족 간의 우애와 화합을 강조해 왔던 일해 선생님께서는 변창하는 자손들을 바라보면서 정기적인 가족 모임이 필요함을 느끼고 있었다. 마침 막내 사위의 건의(建議)로 평원정회(平遠亭會)가 탄생되었다(교장님 사모님 회갑연을 비롯하여 시작되었다).

평원정이란 일해의 사택(舍宅) 당호(堂號)를 딴 것으로, 이는 ‘모나지 말고 꺼지지 말고 평탄하게 영원히’ 라고 하는 의미와 ‘멀리 멀리 펼쳐진 수평선을 바라보며’ 라는 의미가 있다.

평원정 모임은 1961년 4월에 시작하여 1999년 3월까지 450여회에 이르렀다. 지금은 성혼(成婚)한 3세(世) 들까지 일해의 호를 따 「한바다 모임」이라는 명칭으로 모이고 있다. 「한바다 모임」은 60여 명의 중형제들이 서로 상호상조하며 이 사회의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1961년도부터 1990년까지 평원정상을 수상한 진명 학생의 수는 35명에 이른다. 가족 모두가 얼마나 진명을 사랑했는가를 여실히 알 수 있다.

일해의 가족은 진명인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일해가 사랑한 모든 학생들을 일해만큼이나 찾아다니며 사랑을 쏟았다.

일해는 진명에서 교장으로 정년 퇴임한 후,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버려지다시피한 학원으로 갔다. 즉 ‘일성(一醒) 고등공민학교’의 교장으로 취임하여, 무보수로 불우 청소년 교육을 위해 10년간 봉사를 했던 것이다.

‘일성’ 학교는 제대로 시설이 갖추어진 학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해는 집안에서 쓰던 책상과 책, 시계, 가재 도구를 비롯하여 심지어는 부채와 겹까지도 수시로 학교로 가지고 갔다. 가족들도 그런 일해의 교육 열정을 이해하고 뒷받침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유훈-1971년 가을 쓰시고 72년 2월에 돌아가심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며, 항상 모든 것의 책임을 자신에게서 찾고 다른 사람에게서 찾지 말라』

- 논어 제12편 안연 2장과 제15편 위령공 20장 -

일해는 ‘일성’ 학생들이 열악한 조건과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는 것으로 인해 사기(士氣)가 꺾일세라 일반 학생들처럼 운동회도 개최하였는데, 대부분 도시락을 싸오지 못하는 학생들이었으므로 운동회는 오후 1시에 개최되었다. 이때 부인 정명숙 여사는 늘 학생들에게 줄 인절미를 만들어 왔고, 따님들은 빵과 과일을 분담해서 마련해 왔다.

[一海李世楨 그 발자취 중에서]

- 진명재직 : 36년(1925~1961)

- 일성고등공민학교 : 10년(1962~1972 돌아가시는 날까지)

「아버님 계신 곳에 일 있었고 일이 있는 곳에 아버님 계시었다」

= 용인 묘소 비문 중에서 =

### 이세정 교장님

- 1895년 7월 13일 서울에서 이경문(李敬文) 씨의 독자로 출생
- 1901년 3월~1911년 3월 이운(怡雲) 서당에서 한문 전수(專修)
- 1911년 3월 26일 서울 매동(梅洞) 공립(公立) 보통학교 졸업
- 1912년 6월~1913년 6월 최남선(崔南善), 유명민 선생 지도로 조선 역사와 서양사 강좌를 수업(受業)  
유 근, 김교현 선생 지도로 조선 상고사와 단군 문화사를 배움.
- 1913년 3월 주시경(周時經) 선생 지도하에 조선어 연구원 1년 과정 수료
- 1914년 3월 23일 경성고등보통학교 부설 교원 양성소 졸업
- 1917년 4월 1일 일본 와세다대학 문학과(교외생) 졸업
- 1917년~1920년 조선 공립 보통학교 훈도(교사)로 임명되어 개성 제2보통학교, 서울 매동보통학교, 서울 수송보통학교 교편을 잡으심.
- 1920년~1923년 경기도 교원양성소 강사
- 1923년~1925년 경기공립상업학교 교유(教諭)
- 1925년~1961년 진명여자보통학교 교두(教頭)(지금의 교감)
- 고등보통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 그리고 진명학원 이사
- 1963년~1972년 일성(一醒)고등공민학교 교장으로 별세하시기까지 재임하심

[一海 이세정 그 교육과 발자취 중에서]

인물  
100년





## 나혜석 (제3회)

최초의 여류화가 1호

졸업생 7명 중 1분

인상주의 회화를 최초 시도, 도입 제작한 작가

**문화관광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서양화가이며 여권운동의 선구자이신 정월 나혜석(晶月 羅蕙錫 : 1896~1948) 선생을 2000년 2월에 문화인물로 선정하였다.

나혜석 동문은 우리나라 여성으로서는 일본 도쿄의 여자미술학교에서 유화를 공부한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이다. 1921년 서울에서 처음으로 개인전시회를 열었으며, <자화상>, <스페인풍경>, <파리풍경> 등의 작품을 남겼다. 동문은 단지 화가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시대감각으로 소설·시 등의 문필 활동까지 하여 1918년 뚜렷한 여성의식을 보여주는 소설 「경희」를 발표한 **근대최초의 여성작가**이며, 3·1운동 때 만세운동에 참여하고 중국 안동현(현재의 중국 단둥시)에서는 외교관 김우영의 부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독립운동가들의 편의를 돌본 **민족주의자**이기도 하였다. 나혜석 동문은 소위 '나혜석과 최린의 연애사건'으로 인해 이혼을 하였고, 현모양처가 여성의 모범상으로 굳어버린 시대에 봉건적인 사회관습에 도전한 **여성운동가**였다.

여자도 사람이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리고 글을 썼으며 조선여성의 진보에 대한 자의식을 뚜렷하게 가지고 봉건적이고 인습적인 관념의 억압성을 비판하여 시대를 앞서 살아갔던 나혜석 동문은 이제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여성이 인간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진지하게 던진 근대사의 여성 선구자이다.  
- 선정 배경 인용

- 출생지 : 경기도 수원군 수원면 신평리(4남매 중 장녀)
- 부 : 나기정 씨(시흥군수, 용인군수 역임. 개화시대에 적극 순응한 개화가정)
- 모 : 최시의 씨의 따님이시다.
- 성장 : 1910년 수원삼일여학교를 졸업하고

1910년 9월 서울 진명여자고등보통학교 입학하였다.

(학업성적 : 국어, 수학, 역사, 도화(미술), 음악, 체육 모두 만점-당시 신문 기사에까지 기재됨.)

[인상주의 회화를 최초 시도, 도입 제작한 작가]

| 자화상 |



- 야수파적인 성향 -  
1928. 캔버스유채 60×48cm

### | 「일본에서」 동경유학시절 |

- 1913년 3월 28일 진명여자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오빠 나경석 씨(당시 일본 동경고등공업학교 유학 중)의 권유로 동경여자미술전문학교 입학-서양미술 전공 한국 최초의 서양여류 화가가 되었다.
- 1914년 「이상적 여인」 근대 여권을 주장하는 글을 쓰다.
- 1917년 연인 최승구가 폐결핵으로 사망, 비탄에 빠졌으며 너무 상처가 컸다.
- 1918년 동경여자미술전문학교를 졸업하다.

### | 일본에서 한국으로 |

- 귀국하여 함흥 영생중학교, 서울 정신여학교에서 미술교사로 교단에 섰고, 여자계(동경刊) 2월호에 소설 「경희」 발표(우리나라 페미니즘 문학의 선두) 하였으며, 동경유학시절 생소한 문화에 발을 디딜 수 있었던 것은 부모의 개화정신과 대지주의 딸로 경제적인 뒷받침이 컸다.
- 1919년 독립운동에 적극참여  
3.1운동에 적극참여하여 박인덕, 신준려, 신마실라, 김활란, 김마리아, 황애시덕 등 이화학당 지하실에서 비밀회합을 가졌고 5개월간 옥고를 치루다.  
8월 4일 경성지방법원에서 김우영씨(남편)가 나혜석의 법정변론을 맡았다.

### | 결혼생활 |

- 동경 유학시절에 알고 지냈던 김우영씨와 1920년 결혼하다.
- 김우영(3년 전 상처 두 번째 결혼)
- 1921년 첫 개인전 개최(작품 70여 점 발표)
- 장녀 나열 출생.
- 1922년 제1회 조선 미술전에 「봄」, 「농가」출품하다.

### | 만주생활 |

- 1923년 일본 외무성 관리가 된 남편을 따라 만주생활을 하는 동안 활발한 미술작품활동을 한 시기였으며 미술에 열중하였다.
- 1924년 장남 출생 「일년만에 본 경성잡감」 발표(개벽 7월호)
- 1926년 단편소설 「원한」 발표 5회 선전에 「천궁」으로 특선하다.

### | 세계일주여행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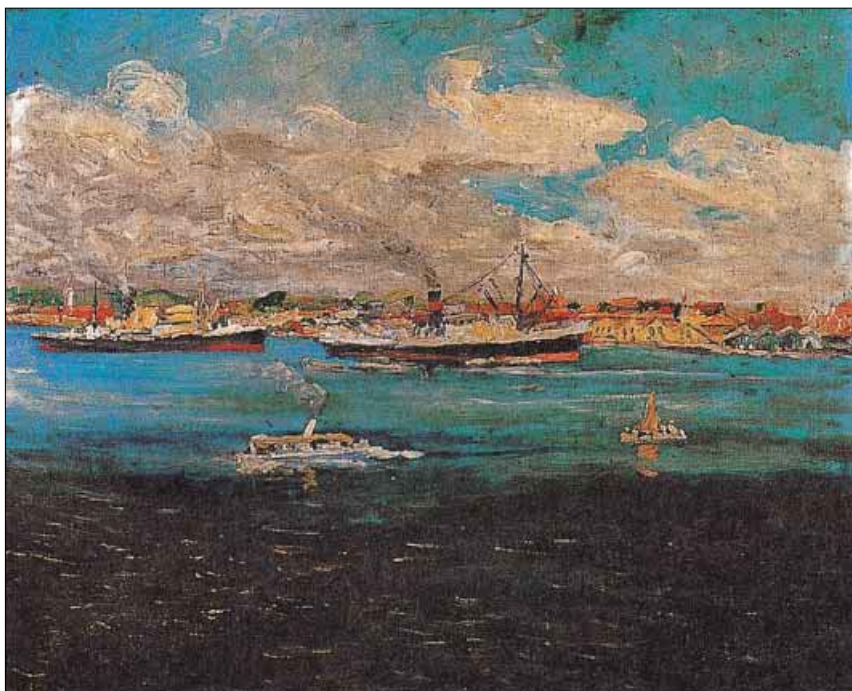
- 1927년 6월 19일 남편 김우영씨와 함께 시베리아 철도로 16개월간 세계일주여행 8개월간 파리에서 체류-최초의 유럽 미술유학생 「이중우」를 만나다.

| 파리풍경 |



1927~1928 목판화유채 235×33cm

| 스페인 풍경(스페인 항구) |



37×44cm

### | 불행의 시작 |

- 1928년 파리에 거주. 북미,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지를 여행하며 미술관, 박물관 유럽의 동물, 사회구조를 견학하는 동안 여행스케치에 열중하다.  
\* 최린(천도교를 주도하며 중추원 참의)과의 만남 : 노름빚으로 파리로 피신해온 최린과 교제하다.
- 1929년 연초에 대서양을 건너 미국에 도착. 각지를 여행 후 태평양 횡단 여객선으로 부산 도착(3월 12일)하여 시댁인 동래(부산)에서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다.  
- 구미 여행 중 그린 유화와 스케치로 귀국 개인전을 개최하다.  
1930년 6월초 파리에서 본 것, 느낀 것 등을 수필 「대조」에 발표하다.  
- 파리에서 최린과 밀애한 일이 문제되어 남편과 갈등이 깊어지다.
- 1931년 최린에게 보낸 편지사건으로 김우영씨와 이혼하다.
- 제10회 선전에서 「정원」으로 특선 「작약」「나부」입선
- 1932년 제11회 선전에 「소녀」「창가에서」「금강산 만상전」을 출품하다(일시 일본에 갔다 봄에 동경에서 귀국하다).
- 1933년 봄-서울 수송동에서 여자미술학원 개설 연구생 모집하다.
- 1934년 7월호(삼천리)에 「여인독거기」발표
- 8, 9월 2회에 걸쳐 (삼천리)「이혼고백장」발표하다.  
- 1933년 이후 미술활동 중단 집필에만 열중 -
- 1935년 10월 24일 「조선관 전시장」에서 근작 소품 200점 전시했으나 실패하다.  
- 정신적으로 좌절함
- 1936년 소설 「현숙」발표. 삼천리호(12월호) - 처참해진 육신을 이끌고 수덕사, 해인사를 오가며 안착을 못하다.
- 1937년 실의와 좌절 속에 김일엽 스님(시인)을 찾아 수덕사로 가다.
- 수덕사를 나와 김우영(남편)을 찾아갔으나 경찰을 동원 멀리 추방당하다.
- 「다술사」그림 : 말년의 행적을 추정할 수 있는 작품이다.

### | 종말기 |

- 1938년 해인사를 오감. 고(고)란 불명을 받음.
- 「해인사의 석탑」「수원의 호숫가」 말년의 작품
- 1939년 극도의 정신쇠약, 착란 증세, 언어장애, 수족의 마비증세가 오다.
- 1941년 화가 「이승만」씨의 집에서 맡겨둔 판화 6점을 찾아 사라져 버리다.
- 1944년 10월 22일 서울의 청운양로원에 수용되다.
- 1945년 안양경성보육원 농장을 떠나다(오빠의 선처로 보육원에 수용되었다가).
- 1948년 12월 10일 원효로 소재 시립병원 「자혜원」에서 무연고자(행려)로 사망  
(병원기록엔 나혜석-53세 가량이라 적혀 있음). (현 용산경찰서 자리)

| 무희 |



1927~1928 캔버스의 유채(41×33cm)

자녀 : 장녀와 장남은 현재 미국에 거주  
차남은 독일에 거주(3남 1녀였으나 제일 큰 아이는 죽음)

문필활동 : 소설 - 3편  
시 - 20편  
수필 - 60편

미술활동 : 1921년 첫 개인전 개최  
선전 1회에서부터(1922년)  
1933년까지 미술활동을 하였음.  
만주시절 세계여행시절에 미술활동이 가장 왕성했던 시기다.  
- 프리다 칼로와 나혜석 그리고 까미유 끌로델에서 발취 -

### 수 필

#### 제목 : 여인 독거기 (獨居記)

나를 그토록 위해 주는 고마운 친구의 집 근처.  
돈 2원을 주고 토방을 얻었다. 빈대가 물고 벼룩이 뜯고 모기가 갈린다.  
어두컴컴한 이 방이 나는 싫었다.  
그러나 시원하고 조용한 이 방이야말로 나의 천당이 될 줄이야.

사람 없고 변함 없는 산중 생활이야말로 싫증나기 쉽다.  
그러나 나는 이미 3년째 이런 생활에 단련을 받아 왔다.  
그리하여 내 기분을 순환시키기에는 넉넉한 수양이 있다.  
나무 밑에 자리를 깔고 드러누워 책 보기, 울 가에 평상을 놓고 거기  
발을 담그고 앉아 공상하기.  
때로는 물에 뛰어들어 헤엄치기, 바위 위에 누워 낮잠 자기, 풀 속으로  
다니며 노래도 부르고, 가경을 따라가 스케치도 하고, 주인 딸 동리 처  
려를 따라 버섯도 따라 가고, 주인 마누라 따라 콩도 꺾으러 가고, 동  
자(童子) 앞세우고 참외도 사러 가고, 어슬렁어슬렁 편지도 부치러 가  
고, 높은 베개 베고 소설도 읽고 전문 잡지도 보고, 뜻뜻한 방에 배를  
깔고 엎드려 원고도 쓰고, 촛불 아래 편지도 쓰고, 때로는 담배피어 물  
고 희망도 그려보고, 달 밝거나 캄캄한 밤이거나 잠 아니 올 때 과거도  
회상하고 현재도 생각하고 미래도 계획한다.  
고적이 슬프다고

아니다 고적은 재미있는 것이다.  
 말뱃이 아쉽다고  
 아니다 자연과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나는 평온무사(平穩無事)하고 유화(柔和)한 성격으로 변할 수 있었다.

그러기에 촌사람들은 내가 사람 좋다고 저녁 먹은 후는 어린 것을 업고 옹기  
 종기 내 방문 앞에 모여 들고, 주인 마누라는 옥수수며 감자며 수수 이삭이  
 며 머루며 버섯을 주워서 구메구메구메 끼어 먹이려고 애를 쓰고, 일하다가  
 한참씩 내 방에 와 드러누워 수수께끼를 하고 허허 웃고 나간다.  
 여기 말하여 둘 것은 3년째 이런 생활을 해본 경험상 여자 홀로 나의 집에  
 들어 상당히 존경을 받고 한 달이나 두 달이나 지내기가 용이한 일이 아니  
 다. 더구나 임자 없는 독신 여자라고 소문도 듣고 개암이 하나도 들어다보  
 는 사람 없는, 젊도 늙도 않은 독신 여자의 기신(寄身)이라.

우선 신용 있는 것은 남자의 방문이 없이 늘 혼자 있는 것이요, 둘째로는 낮  
 잠 한 번 아니 자고 늘 쓰거나 그리거나 읽는 일을 함이요, 셋째로 딸의 머  
 리도 빗겨 주고 아들의 코도 씻겨 주고 마루 걸레질도 치고 마당도 쓸고 때  
 로는 돈푼 주어 엮도 사 먹게 하고 쌀도 팔아 오라 하여 떡도 해 먹고 다림  
 질도 붙잡아 주고 빨래도 같이 하여 어디까지 평등 태도요 교가 없는 까닭  
 이다. 그럼으로 그들은 때때로

“가시면 섭섭해 어떻게 하나.”

하는 말은 아무 꾸밈 없는 진정의 말이다. 재작년에 외금강 만산정에서 떠  
 날 때도 주인 마누라가 눈물을 흘리며 내년에 또 오시고 가시거든 편지하셔  
 요 하였으며, 작년에 총석정 어촌(漁村)에서 떠날 때도 주인 딸이 울고 쫓아  
 나오며

“아지미 가는 데 나도 가겠다.” 고 하였고, 금년 여기서도

“겨울 방학에 또 오세요.”

간절히 말한다.

오면 누가 반가워하며 가면 누가 섭섭해하리 하고 한숨을 짓다가도 여  
 림마다 당하는 진정한 애정을 맞볼 때마다 그것이 내 생애 무슨  
 상관이 있으랴 하면서도 공연히 기쁘고 만족을 느낀다.

- 이혼 3년(1931년 이혼)후 작품  
 (『三千里』, 1934. 7)

## [선전(조선미술전시회)에 수상 경력]

- 주로 조선미술전시회에 출품함 -

### ■ 선전

#### • 1회 전람회

「봄이 오다」「농가」출품 3등상 수상

#### • 2회 전람회

「봉황성의 남문」 4등상 수상

「봉황성」 입선

#### • 3회 전람회

「가을의 정원」 4등상

「초하의 오전」 입선

#### • 5회

「천후궁」 특선

「중국촌」 입상

#### • 7·8회 유럽 여행중

출품은 못함.

#### • 9회

화가촌 「작가의 야심작」-파리에서

#### • 10회

「작약」「나부」「정원」

#### • 11회

「소녀」「창가에서」

- 선전에서 더 이상 작품을 볼 수 없음.

### 1935년 삼천리 2月號에 나혜석의 유언

「4남매의 아이들아 에미를 원망치 말고 사회제도와 도덕과 법률과 인습을 원망하라 네 에미는 과도기의 선각자로 그 운명의 줄에 희생된 자였느니라...」

-「신생활에 들면서」에서



## 김오남 (제17회)

시조(時調) 시인

한국문학사에서 시조 부흥운동에 참가한 최초의 시조시인

### 한국문학사에서 시조 부흥운동에 참가한 최초의 시조시인

#### 김상용(金尙鎔) 시인의 여동생

**시인은** 1906년 4월 14일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에서 태어나 1927년 3월 23일 진명여학교를 졸업하였다.

재학시절에는 학업이 우수하였고 1920년 4월 28일 영친왕 이은씨와 이방자 여사의 결혼기념으로 발족한 “이왕가어경사 기념회”를 발족, 각 여자고등보통학교에서 최우수 졸업생 1명씩을 선발하여 시상하였는데 진명 재학생 중 4년간 계속 1위를 한 학생에게 졸업시 기념상패와 장학금이 부상으로 수여되었다.

1927년 3월 김오남 시인에게서 수상했고 31년에 박용경 4대 교장이 수상하였다.

1930년 일본여자대학 영문과를 졸업하고 조선일보사에 입사, 1931년 5월 진명여자고등보통학교에 교사로 취임하였다.

1933~1943년까지 영어교과를 담당하는 한편 기숙사 사감으로 학생지도에 심혈을 기울였다.

수도여고 재직까지 교직생활을 합하면 총 20년간이다.

특히 시조(時調)에 관심을 가지고 1930년경 일어난 시조 부흥운동에 많은 활동을 하였으며 시조집으로는 아래와 같다.

#### | 주요 저서 시집 목록 |

- 시조집 <김오남시조집> 성동공고 1953
- 시조집 <심영(心影)> 동인문화사 1956
- 시조집 <여정(旅情)> 문원사 1960

### | 시조부흥운동 |

최남선(崔南善), 이광수(李光洙), 정인보(鄭寅普), 이병기(李秉岐), 이은상(李殷相) 선생 등이 주도하였는데 여류 문학가로서는 유일하게 가담하였으며,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많은 작품을 발표하여 주목을 받았다. 그의 작품은 유·불·도 사상에 기초한 전통적 경향을 보이고, 여류 시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섬세한 서정성 대신에 생의 무상함, 숙명, 은둔, 허무적 방랑 등을 주제로 하고 있다. 최남선이 연시조 작법을 제창한 후 시조 시인들이 그 형식을 많이 따랐지만, 그만은 계속 단시조를 고집하였다.

- 참고문헌 「漣川郡誌」, 연천군, 987. 작성자 연천군에서 인용.

### 〈여류시인〉 소개

1920년대 : 김명순(金明淳), 김원주(金元周), 라혜석(羅蕙錫)이었고  
1930년대 : 노천명(盧天命), 모윤숙(毛允淑), 김오남(金午男), 백국희(白菊嬉), 장정심(張貞心), 주수원(朱壽元) 이었다.

-편집자주-

## 원 망

깊은산 찾아들어  
점동새 되랑이면  
가슴에 맺힌 한을  
울어풀어 보련마는  
티끌에 사람몸 되어  
어이할 길 없어라.

매몰타 정이 없다.  
사람아 말을 마소  
속된 무리 속에  
마음 붙일 곳이 없어  
평생을 울고 갔다고  
간뒤 적어 주시오.

김오남 님의 시조 중에서



## 노천명 (제20회)

흰 저고리에 남색치마  
 흰 버선을 즐기던 시인 노천명  
 - 우리 문학사에서 1930년대를 대표한 시인 -

### 자 화 상

**대사** 한치 오픈 키에 두치가 모자라는 불만이 있다.  
 부엌부엌한 맛은 전혀 잊어버린 얼굴이다.  
 몹시 차 보여서 좀처럼 가까이 하기를 어려워한다.  
 그린 듯 술한 눈썹도 큼직한 눈에는 어울리는 듯도 싶지만은-  
 전시대 같으면 환영을 받았을 삼단 같은 머리는  
 클림지한 손에 예술품답지 않게 얹혀져 가냘픈 몸에 무게를 준다.  
 조그마한 거리낌에도 밤잠을 못자고 괴로워하는 성미는 살이 머물지 못하  
 게 학대를 했다. 꼭 다문 입은 괴로움을 내뿜기보다 혼히는 혼자 삼켜 버리  
 는 서글픈 버릇이 있다.  
 세 온스의 살만 더 있어도 무척 생색나게 내 얼굴에 쓸데가 있는 것을 잘 알  
 지만 무디지 못한 성격과는 타협하기가 어렵다.  
 처신을 하는데는 산도야지처럼 대답하지 못하고 조그만 유언비어에도  
 비겁하게 삼가한다.  
 대처럼 꺾어지는 질망정 구리모양.  
 휘어지기가 어려운 성격은 가끔 자신을 괴롭힌다.

- 제1집 산호림 중에서 발췌

### | 생의 시작 |

1911년 황해도 장연군 전택면 비석리 281번지에서 태어났다.  
 어릴때 이름은 기선 영세명(가톨릭)은 베로니카이다.  
 형제로는 오빠 기철 씨 언니 기용 씨가 있으며 언니 기용 씨와 매우 가깝  
 게 지냈고 기용 씨는 시인의 학업, 생계를 돕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1917년(6세때) 홍역을 앓았고 발진이 일주일이면 시작되나 20일이 경  
 과해도 발진이 없어 노루피를 먹이며 극진히 간호하여 죽는 줄 알았던 시

인이 살아나자 “하늘이 주신” 명이라 하여 천명(天命)이라 하였다.  
 남동생을 보기 위해 아버지는 시인을 하이칼라와 남장을 시켰으며 시인은 학교에 가기 꺼려하였고 결석을 하곤 했다고 한다.  
 1919년 서울로 이주하여 체부동 이모댁 가족과 임시로 살았다.  
 1920년(9세) 창신동 81번지 2호로 이사하여, 진명보통학교에 재입학하였다.



▲ 1934년 3월 10일, 이화여전 졸업식

1923년(12세) 진명보통학교 3학년 재학중 언니 기용씨가 변호사 최두환씨와 결혼하게 되자. 학자금과 생계를 전담하다.

1926년(15세) 진명보통학교 5학년 재학중 김정고시에 합격. 진명보통학교를 졸업하다.

그해 4월 진명여자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다.

공병우 박사의 부인인 이용희 여사와 4년간 같은 반에서 같은 옆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기연을 맺었고 학급석차는 4, 5위를 하였으며 100m 달리기 선수였다.

1930년(19세) 어머니 김홍기 여사 타계(어려서 동양고전을 읽어주며 문학적 소양을 쌓게 해준 분)

3월 30일 20회로 진명여자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4월에 이화여전 영문과에 입학하다.

이화여전에서 변영로, 김상용, 정지용 시인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다.

1934년(23세) 3월 10일 이화여전 졸업. 조선중앙일보 학예부 기자로 입사.

이화여전 기숙사를 나와 하숙생활을 시작하였다.

1937년(26세) 조선·중앙일보를 사직하고 북간도의 용정, 이두구, 연길 등 여행길에 오르다.

1938년(27세) 산호림(첫 시집) 49편 수록



▲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왼쪽 끝이 노천명

- 출판기념회 : 김상용, 정지용, 변영로 씨 등이 주선하여 남산동 경동 Hotel에서 출판기념회를 화려하게 열었으며 노시인은 분홍치마 저고리를 화려하게 차려 입었다고 한다.

\* 극예술 연구회 가입, 안톤체흙의 작품「앵화원」에서 「라프네스카야」부인의 딸 아나로 출연하다.

공연에 구경온 보성전문학교 **김광진** 교수와 만나 사랑하게 되었다. 노시인의 집안에서도 이 사실을 알자 혼수감을 마련 약혼을 시켰다. 김 교수는 본 처와 이혼하려 고향에 갔으나 수속기간이 늦어져 이혼을 못하였다.

그 뒤 김 교수는 노시인과 관계를 끊고 기생 왕수복과 함께 월북하였다. 유진오의 단편소설 「이혼」이 발표되면서 노시인의 연애사건이 유명해졌다. 1945년(34세) 2월 25일 제2시집 「창변」 매일신보사 출판부에서 간행하였다.

1948년(37세) 「산딸기」를 10월 20일 간행하였다(38편 수록)

1950년(39세) 6.25사변 발발

피난을 못한 노시인은 문학가 동맹에 가입. 우익문인을 체포하는 일을 도왔다.

9.28 수복이 되자 10월에 반역 문인으로 서울시경 수사본부에 잡혀 서울, 부산 등지에서 옥살이를 하였다.

영오의 몫으로 21편의 시를 썼다.

1951(40세) 4월에 이헌구, 김광섭 등 문인들의 석방운동으로 출옥하여 뉘우치는 자세로 부산 중앙성당에서 가톨릭에 입교 영세명을 받았다.

1953년(42세) 제3시집 「별을 쳐다보며」(희망출판사) 40편의 시를 발표하였다.

1945년 「창변」 해방과 6.25동란의 커다란 역사적 변혁을 치른 후 나온 시집.

(6.25는 스스로 이나라 최고의 지성 그룹임을 자부하던 그에게 심한 고문과 협박으로 심신장애가 올 정도로 고초를 겪었으며 전시하에(6.25) 허술한 감옥에서 짐승 같은 옥살이를 해야했다.)

### | 생의 끝자락 |

시인은 1956년 「이화 70년사」를 집필하면서 건강을 잃게 되었고, 1957년 3월 7일 재생불능성 빈혈로 길 위에 쓰러져 청량리 위생병원 1호실에 입원하였고 생활이 어려워 치료비를 위해 벽에다 원고지를 대고 글을 써야 할 정도였다.

1957년 6월 15일(돌아가기 전 날) 모운숙 시인이 미국을 가게 되자 배웅차 김포공항을 나가 배웅하며 “죽을 것 같다”는 말을 남겼으며 다음날 6월 16일 새벽 1시 30분 누하동 자택에서 영면하다.

※ 6.25의 부역으로 시인 자신에게 슬픈 반점을 안고 고독하고 외로운 일생을 마감했다.

「힐 오후」

태양이 싸늘하니 부서지는 병상 위  
 무섭게 자리잡은 나의 공포여  
 엄숙한 눈동자로 창밖을 내다본다.

아무도 동행해 줄 수 없는 이 길에서야  
 나 종일 성모 마리아를 찾는구나  
 항시 함께 계셔주는 이 있거늘  
 나 모르게 살아온 고독한 날들

아무도 나와 같이 해주지 않을 때  
 말없이 옆에서 부축해 주는 이-  
 인자하신 어머니 성모 마리아여.

- 그의 병상시 -

노천명 시인의 제4집 '사슴의 노래'는 시인 사후 1년만인 1958년 6월 15일에 발간되었다.

- ※ 「산호림」 「창변」에서 볼 수 있었던 감상어나 절제, 수용의 자세에서 「별을 쳐다보며」 「사슴의 노래」에서는 거칠고, 살벌하고, 불안하고 초조에 시달린 모습들이 시속에 담겨있다.
- ※ 격랑기역사의 중심부를 사슴처럼 고고하고 외롭고 연약하게 살다간 시인 시인의 삶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못내 가슴이 아파온다.



## 박용경 (제21회)

진명여고 4대 교장

**1961년** 10월 1일 제4대 교장으로 취임한 박용경(朴容卿) 교장 선생님은 본교 보통학교를 거쳐 진명여자고등보통학교 21회 출신으로 일본나라(奈良)여자고등사범학교를 졸업한 후, 춘천고등여학교에 1년 여 봉직하다 모교 진명에서 돌아가는 날까지 온 생애를 한 길에서 불사르신 분이다. 교조(校祖) 엄준원 선생님의 뒤를 엄주명 선생(2代)께서 이으시고, 다시 이세정 선생님이 제3대 교장 선생님이 계시다가 박용경 선생님께서 제4대 교장직에 취임하심으로써 본교 졸업생이며 본교 졸업생으로 최초의 여성 교장 선생님이 탄생한 것이다.

1911년 5월 강원도 철원에서 배영(培英)학교를 운영하던 박관병(朴觀秉)씨의 2남 2녀 중 막내딸로 태어났다. 몇 년 후, 3.1 운동이 일어나 민족자주 독립의 절규(絶叫)와 함성(喊聲)이 온 강산을 뒤흔들 때였다.

오라버니들이 철원지방의 기미 독립 운동의 선봉에 선 이유로 일경(日警)에게 구금(拘禁)되므로 박교장 선생님께서는 어머님을 따라 중국 상해로 망명하였다.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지내며 끝없는 망국(亡國)의 한(恨)을 달래었다. 인성(仁成)학교와 프랑스계 패밀리 스쿨(Family School)을 다니다가 끝내 고국에의 강렬한 그리움으로 홀로 가족들과 헤어져 광막한 중국 대륙을 등질 때, 어머님께서는 육영(育英)의 큰 뜻을 펴지 못하신 아버님의 유지(遺志)와 오라버니들의 자주 독립 정신을 이어 나갈 것을 간곡히 당부하셨다 한다.

단신 귀국하여 진명을 찾아 왔을 때, 제1대 교장선생님이신 엄준원 선생님의 온정(溫情)으로 입학이 허락되기까지 연 사흘을 교문에서 버티었다니, 오늘날 박교장 선생님께서 갖은 풍상(風霜)을 겪으면서도 한 길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한 의지(意志)와 집념(執念)을 엿볼 수 있겠다.

4대 교장으로 취임한 이래, 박교장 선생님은 재단의 어려움이라든가, 그밖에도 여성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술한 운영상의 난제(難題)들을 거뜬히

이겨 내서 오늘의 진명을 키워 왔고 자칫 현모양처 위주의 교육에서 경시(輕視)되기 쉬운 학력 증진(學力增進)을 위해 불철주야(不撤晝夜)로 고심하고 노력하였다.

특히 박교장 선생님은 취임한 이래, 노후(老朽)한 학교 시설을 현대식 건물로 신축, 개축하는 어려운 일을 수행하였다. 재단(財團)의 형편은 학교 건물을 신축할 처지가 되지 못하였으나, 확장(擴張)되는 교세(教勢)에 비하여 학교 건물이 너무 후락(朽落)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학교 건물을 신축, 개축해야만 했다. 그리하여, 학교장으로 취임한 이래, 약 10년간 서관, 남관, 본관 등 연건평(延建坪) 2,047평 6합의 현대식 건물을 신축하여, 그야말로 무(無)에서 유(有)를 만들어 내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을 이루어 놓음으로써 본교를 평준화(平準化) 대열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공적이 헛되지 않아 국민 훈장 목련장, 서울시 문화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진명의 운명이 곧 당신의 운명이라고 믿고 살아온 박교장 선생님.

박교장 선생님은 늘 「비굴과 겸손의 참뜻」을 일깨워 주었고, 「청결하고 정숙한 문화인」의 긍지를 심어 주었다.



▲ 여 교장 선생님들의 첫 미국 시찰(1955년 1월 5일) 왼쪽부터 첫 번째 이세정 교장, 네 번째 박용경 교장(당시교감)

교내외로 허다한 행사 때마다 준비된 원고도 없이 식사(式辭)며 기념사(紀念辭)를 할 땐 그 비상하신 언어 구사력(驅使力)이며 논리정연한 이론(理論)에 아연해질 때도 있었다.

그리고 앉을 자리 설 자리를 가려서 행동하라는 박교장 선생님은 「정중동(靜中動)」, 「진선미성건부강(眞善美聖健富強)」을 강조하며, 여성의 에티켓이며 인간의 소속감(所屬感), 소속의 기쁨과 안정감을 피력하면서 노작(勞作)의 참뜻까지도 깨우쳐 주려고 힘써 왔다.

**박용경 동문**

- 1911년 4월 26일 강원도 철원에서 출생
- 1923년 6월 30일 상해(상하이) 한인교민 인성소학교 제4학년 졸업
- 1923년 9월 1일 상하이 더 인스티튜트 오브 홀리웨일리(프랑스계) 여고 제1학년 입학
- 1925년 6월 21일 진명여자보통학교 제4학년 입학
- 1927년 3월 20일 진명여자보통학교 제5학년 수료
- 1927년 4월 1일 진명여자고등보통학교 제1학년 입학
- 1931년 3월 19일 진명여자고등보통학교 제4학년 졸업
- 1931년 4월 10일 일본나라(奈良)여자고등사범학교 가사과 제1학년 입학
- 1935년 3월 24일 일본나라여자고등사범학교 가사과 제4학년 졸업
- 1935년 4월 22일 춘천공립고등여학교 교유 취임
- 1936년 5월 25일 진명여자고등보통학교 교사 취임
- 1949년 4월 18일 대학입학자격 검정위원 위촉받음
- 1951년 4월 20일 중고등학교 교수요목 제정위원 위촉받음
- 1952년 12월 12일 미국교육사절단 교육행정강습
- 1953년 1월 26일 진명여자고등학교 교감으로 취임
- 1955년 1월 5일 미 국무성 초청. 미국교육시찰(3個月)
- 1957년 10월 30일 교수요목 제정심의회의위원 위촉받음  
국정교과서용 도서편찬 심의위원 위촉받음
- 1961년 10월 1일 진명여자중고등학교 교장 취임
- 1996년 1월 17일 별세



## 손호연 (제30회)

한국 유일의 단가(短歌) 작가

### 단가(短歌)란

5·7·5·7·7 음률로 구성된 정형시.  
일본인에게 31자의 슬프고 아름다운 인간의 정서와 느낌을 함축해 담아내는 그릇으로 인식되고 있다. 백제시대(1400년 전)에 우리가 일본에 전해준 시(詩)다.

**고이즈미** 수상(일본)이 세 번이나 최초의 한일정상회담 연설에서 언급한 손호연(1923~2003) 시인은 유일한 한국인 단가(短歌)시인이다.

시인은 진명여학교를 졸업하고 일제 때 일본 사가미여자대학에 유학하던 중 당시 최고 고전 문학가였던 사사키 노부쓰나를 통해 단가에 입문했다. 유학 시절을 제외하곤 평생을 서울 종로구 필운동 90번지에서(200년이 넘는 한옥) 살면서 시를 써 왔는데 일본에서 더 유명하다.

고이즈미 수상은 손동문의 시를 인용한 뒤 “한국과 일본에서 활약해온 손시인의 시를 최근에 접하게 됐다”며 “다툼없는 나라가 되기 바라는 시심은 손시인만의 것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국민의 희망이요 바람”이며 저도(고이즈미 수상 자신) “손시인의 정신을 마음에 새기고 한일 우호 발전에 힘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60년동안 2000여편의 단가를 지었고 일본 제일의 출판사 고단샤에서 시집 6권을 냈다. 단가 최고 권위자인 나카니시 스스무 교토 예술대 총장으로 부터 “일본인들이 흉내낼 수 없는 한국인의 감정을 담아낸 국경을 초월한 노래”라는 격찬을 받는 등 ‘명인(名人)’ 칭호를 얻었다. 98년에는 단가의 대가로 천황의 초청을 받았으며 2000년엔 한국 대통령 문화상, 2002년엔 일본정부 문화표창 한글판 ‘호연연가’ 출간(이승신 역), 2005년 8월 15일 ‘일본에 핀 무궁화’ 손호연 다큐가(TV) 방영, 2005년 9월 13일 동경에서 ‘손호연 다큐시사회’가 열렸다.

## 「시인의 붓끝」

편집자 주 : 일본 굴지의 출판사인 고단샤가 창립 70주년 특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1300년 전의 만엽집에 버금가는 현대판 소화 만엽집을 출판하였다. 그 전집에 6.25 전쟁을 읊은 손 여사의 노래 다섯 수가 수록되어 있는데 앞의 다섯 수는 그것이고, 뒤의 노래들은 가인에 의해 우리말로 번역된 단가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몇 수들을 모아본 것이다.

### [소화 만엽집에 실린 5수의 시]

같은 조상을 가지고 총검을 들고 섰네  
여기를 경계 삼아.

끝없는 흥망의 역사의 조국이어  
또 써 넣어야 하나, 삼팔선이라고.

방공호 속, 앓은 채로의 시체를  
넘고 넘으며 나는 나아가네.

하나 뿐인 약혼 반지 양식으로 바꾸어  
폭격의 며칠, 목숨을 유지하다.

발길이 떨어지질 않네  
여장한 남동생을 감싸안고 감시지구 빠져 나가며.

### [한글로 번역된 단가 중 일부]

한 길로 걸어왔지요  
역사는 변해도 계속 노래를 지으며

붉은 태극선을 좌우로 흔드시는  
어머니 하얀 손에 비취 반지 반짝이고.

지난 날의 그대가 생각이 나네  
꽃뚫자리 마루에 펴고  
더위를 식히던 저녁 한때.

같은 높이로 눈은 쌓이네  
키 큰 향아리 옆 작은 단지 위에도.

들장미 뽀족한 가시 위에 내리는 눈은  
찢리지 않으려고 사뿐히 쌓이네.

가느다랗게 눈에 내리는 비도 냇가에 내리는 비도  
동그라미 그린다. 그 허무한 동그라미를.

눈을 뜨면 바로 아침 뉴스를 보네  
삼팔선에 이상은 없는지.

분단의 조국 비록 영토는 작지만  
통일을 꿈꾸며 써가네, 대·한·민·국 이라고.

내 조국의 깃발은 무슨 서러움에 우나  
바닷 바람에 만국기는 나뭇끼고.

구만리 멀고 먼 거리지만  
분단된 북녘보다 더 가까운 밤 하늘의 별무리.

남과 북 서로 오고 갈 날 멀지 않건만  
그 통일 보지 못하고 가신 님이여.

상수리 도토리 떡갈나무는 이미 물들고  
그 사이로 보였다가 안보이는 다람쥐.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삶인가  
그 길을 헤메일 때 나는 그저 뜰만 거니네

편집자 주 : 시인 구상 형에게 무궁화에 대한 서문을 찾아보아 달라고 부탁하였더니 그가 보내준 시 가운데 이색적인 일본 단가가 2수가 있었다. 단가는 일본의 전통적 정형시로 우리나라의 시조와 비슷한 것이다. 그런데 한국 여성인 저자가 [무궁화]라는 노래집을 출간하였는데 그 속에 서울 남대문 옆에 서있는 무궁화를 읊은 것이 2편 들어 있었다. 고맙기도 하고 또 이색적이기도 하여 서투른 번역으로 여기 수록하여 두기로 하였다.

36년 동안 일본 통치의 호된 시련을 이겨내고서 광복을 맞이한 한국인의 심정을 꽃핀 무궁화에 부쳐서 아주 깨끗하고 고요하게 표현한 특이한 시라 하겠다. 만발한 무수한 무궁화, 꽃송이마다 한국인의 심성이 서리었다고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은 시인이 아니고서는 가져볼 수 없는 마음의 세계라고 하겠다.

### [무궁화]

돌문을 단장한 승례문의 무궁화  
숨 죽이며 이 날을 기다려 왔네

천신만고 비바람을 겪어 내고  
활짝 핀 송이송이 겨레의 얼 서리네<유달영 역>

### | 짧게 쓰는 굵은 연보 |



- 1923년 10월 부 손흥구의 와세다 법대 유학 중 모 장복순의 사이에 동경에서 태어나 곧 귀국함.
- 1940년 3월 서울 진명여고 졸업(1940)(30회)  
졸업 직후 영친왕의 비(妃) 이방자 여사 장학생으로 동경제국여자대학에 유학, 여기서 일본 고전 문학의 대가인 사사키 노부즈나 선생에게 ‘일본의 것이 아닌 한국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노래하라, 중도에 멈추지 말라’는 가르침과 함께 단가를 처음 접함. ‘마음의 꽃’(心の花)(사사키 노부즈나 발행)이라는 단가집에 손호연의 단가 ‘태극 부채선’이 부채의 삽화와 함께 처음 실림.

### 붉은 태극선 흔드는 어머니의 하얀 손 비취반지는 반짝거리고

- 1943년 일본 사가미 여자대학 가정과를 졸업함. 귀국하여 서울 무학여고에서 약 2년간 가정학을 가르침. 동시에 꾸준하고 활발히 창작 활동을 하며 단가집 발간을 준비
- 1944년 12월 21살 그의 이름을 딴 첫 번째 단가집 「호연가집」을 냄.
- 1945년 8월 22세의 나이. 조국의 광복을 맞다.
- 1947년 4월 이윤모 선생(당시 상공부 과장)과 결혼.
- 1950년 6월 한국전쟁으로 3년여의 부산 피난 생활을 체험함. 결혼 반지를 팔아 끼니를 이을 정도의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도 계속하여 한국전쟁중 일상을 단가에 담음.
- 1958년 6월 일본 최고의 출판사인 고단샤에서 우리나라 국화에서 이름을 딴 두 번째 가집. 「제1무궁화」를 펴냄.  
모진 비바람 속 참고 또 참으며 피고 또 핀 겨레의 심성과 상통하는 꽃
- 1968년 6월 45세, 고단샤에서 세 번째 가집, 「제2무궁화」를 펴냄.
- 1978년 55세의 만학의 나이에 만엽집과 일본 고전 문학을 연구하기 위해 다시 일본으로 감.

- 1979년 3월 쇼와여자대학 대학원에서 고전학을 공부함.
- 1980년 5월 일본 고단샤에서 네 번째 가집 「제3무궁화」를 펴냄.
- 1982년 3월 세이조대 대학원에서 일본 고전문학을 공부함.  
일본단가의 최고 권위자인 나카니시 스스무 선생과 함께 단가의 고향이 옛 백제임을 연구함.
- 1983년 11월 부군의 급서(急逝)로 인생 최대의 불행을 겪음.  
단가 창작에 의지하여 시련을 견디며 헤아릴 수 없는 통곡의 늪에서 빠져나옴.
- 1990년 11월 부군 서거 7년 만에 부군과의 이별을 읊은 불후의 다섯 번째 가집 「제4무궁화」를 일본 고단샤에서 펴내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키며 대가의 반열에 서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함.

그대여 나의 사랑의 깊이를 떠보시려 잠시  
두 눈을 감으셨나요.



아오모리현에 세워진 시비

- 1997년 6월 손호연 시인의 단가에 감명을 받은 일본인들의 손으로 일본 아오모리현에 시인의 단가가 새겨진 시비(歌碑)가 건립되어 필운동 생가의 흙을 가져다 뿌리고 무궁화와 벚꽃 30여수를 심으며 평화를 기원함.

이웃해 있고 가슴에도 가까운 나라되라고 무궁화를 사랑하고  
벚꽃도 사랑하네

절실한 소원이 나에겐 하나있지  
다툼없는 나라와 나라가 되라는



- 1998년 1월 일본 최고의 궁중 단가낭송 행사에 '배청인'으로 참석  
일본의 신년 왕실의 첫 번째 행사로 왕실 모든 가족(천황, 황후, 황태자, 공주 등)  
그해의 주제를 정하여 지은 단가를 낭송하는 일본 최고의 궁중 '신년 가회시의의'에 배청인(최고 대가의 위치에서 이들의 단가를 들어주는 자격)의 특별 초청을 받음.  
외국인으로서 처음으로 초청되었고, 한복을 입고 입장한 이날, NHK-TV는 전국에 생중계하여 지은 단가

「경사스런 날 맞추어 치마 저고리 지어 입고 맴시 있게 걸어 볼까나」  
라는 단가를 발표해, 일본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김.

- 1998년 4월 일본 아오모리현으로부터 아오모리현 홍보 특사로 위촉됨. 이를 계기로 아오모리의 상징인 온천 관광 포스터에 손호연의 단가가 한국어와 일어로 게재됨.

「뒤돌아선 그대 맨살에 끼얹는 물은 물안개 피어 오르며 아련히 보이네.」

- 1998년 5월 일본 고단샤에서 여섯 번째 단가집 「제5무궁화」가 출판됨.

고국을 멀리 나의 노래비는 서도다.  
이웃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다정히 지내라고

- 1998년 5월 사가미(相摸)여자대학의 강연 ‘나의 노래 인생-홀로 땀 마라톤 선고와 같이’
- 모교를 빛낸 이로 선정됨.
- 1998년 10월 일본 전국에서 단가를 전공한 많은 관련 인사가 참석하는 일본의 대축제인 ‘다카오까 만엽축제’에 대가로 특별 초청받아 한국어를 병용하여 단가를 낭송함.

「치마 저고리 곱게 단장하고 나는 말한다. 백제가 남긴 그 옛 향기를」  
「도래한 백제 왕족의 피가 흐르고 있겠지 만엽제 날 밤에 만난 사람이여.」



- 2000년 10월 한국 문화의 날, 한일문화교류의 공로로 대통령으로부터 화관 분화 원장을 수여 받음.
- 2001년 5월 일본인 키다데 아키라(일본 국제관광진흥협회 유치부장)씨에 의해 손호연 일대기와 500여수의 단가가 함께 실린 전기집, 「풍설의 가인, 손호연의 반세기」가 일본 고단샤에서 출판됨.
- 2002년 1월 일본 아오모리현의 2002년도 테마인으로 선정되어 아오모리의 상징인 온천 포스터의 인물로 선정, 단가와 함께 게재됨.

「해질 무렵 갯벌의 온천 김오르며 드러나고 천의 갈매기 불러들어 춤추네」

- 2002년 5월 옛백제의 도움 부여의 구드레, 백마강과 부소산성, 낙화암, 고란사 방문



- 2002년 10월 11일 「호연연가-짚레꽃 뽀족한 가시에 내리는 눈은 찢리지 않으려고 사뿐히 내리네」가 손호연, 이승신에 의해 샘터사에서 출간.  
2년에 걸쳐 시인과 시에 담긴 이야기를 깊이 교감하고 작업하여 2000여수의 단가 중 무궁화에서 사랑의 시, 백제의 단가까지 268수의 단가를 한글과 일어를 같이 엮어 한국에서 처음으로 출간.
- 2002년 10월 9일 일본 정부로부터 한일문화교류의 공로로 「문화상」을 수여 받음.

- 2002년 10월 11일 한글로 된 최초의 단가집 「호연연가」를 출간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문인들이 서로 조우하는 출판기념회 자리에서 ‘나는 지금 행복의 절정에 있어요’

‘지난 밤 험했던 눈바람 그치고  
동녘 하늘 밝아오며 아침 해는 떠오른다’  
한줄의 시로 벽찬 감회를 낭송하다.

- 2003년 11월 22일 80세 의 일기로 별세
- 2004년 11월 22일 1주기 추모 낭송음악회에서 김남조, 김종길, 김후란, 문정희, 최승호 시인을 비롯한 한국의 대표적인 시인들과 문인들, 가신 후 시인의 시를 통해 처음 만남을 갖고 아쉬움 속에 그의 사랑과 평화의 단가를 함께 낭송
- 2005년 8월 15일 손호연 TV 다큐 「일본에 핀 무궁화」 방영(이승신 기획)
- 2005년 9월 13일 동경에서 「다툼없는 나라와 나라가 되어라」라는 제목으로 다큐 시사회

### | 호연연가 |

「짚레꽃 뽀족한 가시위에 내리는 눈은 찢리지 않으려고 사뿐히 내리네」  
(단가집 제목)

손호연 지음, 이승신 엮음, (2002, 샘터사)

「호연연가」는 2000여수가 넘는 시인의 단가 중에 손호연 시인과 시인의 장녀인 이승신 님이 다시 정성스럽게 골라 2년 동안의 고진 노력 끝에 한글로 처음 펴낸 단가집으로 「호연연가」는 인생의 섬세함과 뭉클한 감동을 전해줍니다. 이 짧은 한 줄의 시로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일상의 이야

기를 짧지만 점점 깊은 곳으로 이끌어 내어 거칠어진 우리의 마음에 눈처럼 살포시 와닿는 애정어린 시인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2002년 10월 출판된 이 책은 **한글로된 손호연 시인의 첫 번째 단가집**으로 그간의 대표작과 미발표된 새로운 단가를 한글과 일어로 동시에 실어 한국인, 일본인 모두가 함께 볼 수 있는 단가집입니다.

### ● 시인의 글

만일 나에게 재능이라고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미력하나마 단가를 지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주신 것으로 큰 연못의 깊은 바닥에 묻혀, 지상에서 싹이 트기까지 반세기 남짓한 세월이 걸렸습니다. 예술에는 국경이 없었지만 내가 선택한 단가의 길은 국경 아닌 국경이 앞을 가로막아서 어두운 마음으로 오랜 세월을 보냈습니다.

1945년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독립이 되었지만 예속된 시절 마음의 상처는 쉽사리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본 전통시’라는 ‘전통’에 거부감을 갖고 우리는 단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동족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단가를 왜 나만이 겁도 없이 뛰어들어 쓰게 되었을까? 단가를 계속 지을 것인가? 아니면 그만둘 것인가?’

이 갈등은 거의 매일 하루 종일 반복되었고 50여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해방 전과 80년대, 두 번의 일본 유학 길에 올라서 일본 선생님 두 분에게 가르침을 받았는데 공교롭게도 한 번은 한국 특유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라는 당부를 받았고 한 번은 만엽집은 백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단가를 지으려면 백제의 옛 땅과 백마강을 찾아볼 것을 권유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뇌를 완전히 벗어버리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불과 60여년 전의 일로 **아오모리 현 룩가쇼무라에 나의 노래비(詩碑)**가 세워진 후의 일입니다.

생각하면 지나간 몇 해, 나에게서는 아주 명예로운 일련의 사건들이 연속되어 일어났습니다. 노래비 건립, 일본 궁중가회의 초청, 일본 헌정회관에서 특강, 다가오까 만엽제 초대, 한국 정부로부터 문화훈장 수여 등 연달아 강연과 행사가 열렸습니다. 일본 내에서 이국인이 쓴 단가에 대한 반응은 매우 높았고 우리나라 매스컴도 전과는 달리 일본에서 오는 나의 정보를 신속히 그리고 비교적 큰 활자로 다루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단가의 참된 감칠맛을 알게 되는 것도 전도요원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단가의 근원이 우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향가임을 알게 될 것이고 그 보물단지 외도 같은 단가를 다시 닦고 가다듬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 믿습니

다. 나는 홀로 시작한 단가 작업이지만 비판적인 타인의 눈길을 의식하지 않고 계속 인내하면서 모두가 그 맛을 알게 되는 날을 기다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던 에피소드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6.25 동란 후, 국내가 안정될 무렵 나는 <제2무궁화>가집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일본어로 된 가집이지만 모국의 나라꽃 ‘무궁화’를 가집의 제목으로 정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먼저 일본에 주재한 적이 있던 원로 시인에게 한 권의 책을 직접 증정했습니다. 시인은 잠시 책을 펴본 다음 이렇게 나무랐습니다. ‘일본어로 가집을 낼 만한 재능과 열의가 있다면 앞으로는 우리나라 고유의 시조에 관심을 가지시오.’ 나는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출판기념회 날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축사를 누구에게 부탁하는 것이 좋을까 하다가 한일사전 편집장을 지낸 김 선생께 청했으나 역시 기대에 어긋났습니다. 등단 즉시, 긴장된 어조로, ‘나라가 독립되고 긴 세월이 지났다. 우리나라에는 세상에 자랑할 만한 한글이 있지 않은가, 자랑스러운 시조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좀 바꾸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등에는 진땀이 났고 회상에는 냉랭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한국 국민으로서 자각 없는 나에 대한 사랑의 채찍임에 틀림없다고 넓은 마음을 갖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연말이 다 된 어느 날, ‘세모의 후회’라는 제목으로 일본의 이름있는 잡지에 글을 썼으니 국회의사당 도서관에 가서 보라는 편지를 그에게서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으로 기억됩니다. ‘해방 후에도 비록 일본어로 단가를 쓰지만 만일 한일 운동경기가 있다면 손 선생은 분명히 모국 편이 되어서 박수를 칠 것입니다.’

격려와 칭찬대신 마음 상한 에피소드를 들자면 한이 없지만 나는 그저 단가 쓰는 게 좋아서 마음의 상처를 곧 잊고 다시 쓰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는 머리 아픈 글 그만 쓰고 건강에 전념하라며 연약한 나를 위로해줍니다. 나의 건강을 진심으로 염려해 주는 분도 고맙지만 내 시집을 손에 든 즉시 밤새워 다 읽었다고 감격한 나머지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 저편에서 격려해줄 때면 마음의 구름이 사라지는 듯합니다.

또 이런 인상적인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소학교를 서울에서 같이 졸업한 일본 동기동창들이 일본에서의 나의 강연이 끝나자 내 앞으로 와서는 정중히 인사를 하고 ‘학창시절에는 참으로 실수가 많았습니다.’ 하며 사과를 하고 싶어서 동경에서 한 시간 이상 걸려 상모여대 강연장에 들으러 왔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차별당했던 동기생에 대한 수십 년 전의 나의

의식은 눈 녹듯이 녹아버리고, 그간의 민족 대립도 활짝 문을 열게 된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단가에 열중한 지 어언 60여 년. 나는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거기다 오랜 기간 병과도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를 쓰는 것에 의지하여 투병이라고 하는 혹독한 시련을 견디어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입원 중에도, 집에 있을 때에도, 졸음에 취할 때에도, 혹은 꿈속에서도 시를 지으려고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졸졸 흐르는 물소리가 들리는 산골 마을의 풍경을 보면 남편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남편이 돌아간 다음부터 지금까지 쓴 시들을 모두 돌아본다면 확실히 나의 생사관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남편의 뒤를 쫓아가려고 하는 마음도 해를 넘김에 따라 변화하고 살기 위한 구실을 찾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나카니시 스스무 선생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거기에는 내가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쓰여져 있어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프랑스 작가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중 한 구절을 인용한 다음과 같은 글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죽은 자로 생각지 말라. 산 자가 있는 한 죽은 자는 살아있는 것이다. 손 여사가 살아있는 한 이윤모 선생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손 여사는 이 선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살아간다는 것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끼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단가의 좋은 점은 무엇일까?** 나는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서도 왜 단가에 대한 애착을 끊지 못할까? 같이 즐기는 단가의 노래 친구 하나 없이 외딴 섬에 유배된 양 고독감에 쌓여 일생을 마치게 될 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단가와 나의 운명적인 만남은 쉽게 끊으려야 끊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노래 씨앗을 내 생명이 있는 한 소중히 가꿔야 한다는 사명감이 새삼 불타게 됩니다. 고난이 연이어진 내 모국 동쪽의 마음의 등불이 되는 시를 쓰고 싶습니다.

활짝 피어나는 무궁화처럼.

장구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못 다 배운 모국어보다는 조금 익숙한 일본어로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은 일본에 전하고 일본의 좋은 점은 우리나라에 알리는 마음으로 나는 평생 가집을 출판해 왔습니다.

그간 우리의 이야기를 담아 많은 단가를 일본에서 발표해왔지만 이제 압

축된 단가를 아름다운 우리말로 옮겨 정작 그것을 진정 공감해줄 우리 독  
 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으니 여간 즐겁고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본 단가를 외국어로 옮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지  
 만 이번에 주요 골격의 시들을 골라 우리 말로 번역을 시도해 보았습니  
 다. 엄마인 나보다 훨씬 문학적 소질이 있고 의욕도 뛰어난 장녀 승신(承  
 信)에 힘입어 역사 이래 처음으로 한글판 단가집을 한국의 샘터사에서 출  
 간하게 되어 저는 지금 행복의 절정에 있습니다.

지난 밤 험했던 눈바람 그치고  
 동녘하늘 밝아오며  
 아침 해는 떠오른다.

2002년 여름 손호연(孫戶妍)

### | 작품집 |

「호연가집」 「제1무궁화」 「제2무궁화」  
 「제4무궁화」 「제5무궁화」 「전기집」

The soho(종로구 필운동 90번지) : 이곳은 손 동문께서 50년간 살며 시(詩)를 써온  
 곳으로 그의 문학코너가 있다.  
 대표 : 이승신(손 동문의 장녀)

- 편 집 부 -

## 김재순 (제34회)

성심수녀원 한국 관구장

성심여자대학교 총장

가톨릭대학교 부총장

진명 교훈상 진실상 수여(1990)(10년에 1번 3분께만 드리는 상)

### | 학력 및 경력 |

- 1944년 3월 진명여자고등학교 졸업
- 1947년 9월~1951년 9월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화학과 졸업 이학사
- 1951년 9월~1954년 3월 숙명여자고등학교 교사
- 1954년 5월~1955년 6월 미국 위스콘신주 마운트메리대학 조교
- 1955년 9월~1957년 6월 미국 위스콘신주 마케트 대학원 화학과 이학석사
- 1957년 9월~1958년 1월 미국 로체스터 성심여자고등학교 교사
- 1958년 1월~1960년 9월 미국 켄우드 성심수련원 수련자
- 1960년 9월 15일 성심수녀원에서 첫 서원
- 1960년 9월 서울 성심여자고등학교 교사
- 1964년~1973년 성심여자대학 화학과 조교수, 부교수, 교수
- 1972년~1978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유기화학 박사과정 이학박사
- 1973년~1975년 8월 성심여자고등학교 교장
- 1975년~1983년 성심여자대학 학장
- 1979년 6월~1979년 8월 미국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육행정 연수
- 1979년 9월~1980년 1월 안식년(6개월)
- 1987년 3월~1990년 2월 성심수녀원 한국 관구장
- 1993년 3월~1997년 2월 성심여자대학교 총장 및 가톨릭대학교와 통합 후 가톨릭대학교 부총장

본인이 사양하여 프로필만 실었습니다



## 이윤자 (제35회)

전국 주부교실 중앙회 회장, 前(전) 11, 13대 국회의원  
 서울특별시 여성단체 연합회 회장  
 한나라당 상임고문  
 2006년 100주년 2회 교훈상 협조상 수상

**동문**은 1945년 진명을 졸업하고 경성여자사범(현서울대사대)에서 수학하였다. 그 당시 약관 35세 여성으로 서울시 교육위원회 장학사로 발탁되어 한국교육계에 신평의 주역이었다.

여유 있는 푸근한 품모의 인자한 어머니다. 여성의 사회성개발, 봉사정신 함양, 지역사회의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전국 16개 시·도지부 산하에 234개 시·군·구 지회에 30여만 회원의 자발적 참여로 주부대상의 평생 교육진흥사업, 소비자사업, 사회환경개선사업, 환경보전사업, 에너지절약사업, 식생활사업, 불우이웃돕기사업 등 전개와 월간 “주부교실”을 발간하는 대한민국 최대 여성단체의 중심인물로 진명 3대 이세정 교장님의 4녀 이시다. 부군(강길수 박사, 서울대 명예교수)과 3녀(용진, 용선, 용미)의 가정에서 이른바 현모양처이시다.

이윤자 동문의 투명한 비전과 투철한 추진력은 한국사회가 그를 영원한 현역으로 아끼는 이유이다.

### 이윤자 동문

#### | 학력사항 |

- 11대, 13대 국회의원(문교공보위원)
- 문교부 교육정책 심의위원
- 민주정의당 여성분과 위원장
- 민주정의당 중앙위원회 부의장
- 민주자유당 제3사무부총장
- 민주자유당 상무위원회 부의장
- 민주자유당 당무위원
-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 위원
- 경제기획원 소비자정책 심의위원
-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 공동대표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 조직위원
- 한국소비자보호원 이사·고문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

- 한나라당 상임고문
- 소비자단체협의회 이사
- 나라살리기통장갓기 범국민운동본부 대표
- 국민연금발전위원회 위원
- 공연윤리위원회 심의위원
- 언론중재위원회위원 겸 감사
- 진명학원 이사
- 농림부식품안전자문단위원회 위원장
-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위원
- 서울시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 재단법인 서울여성 이사
-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 위원
- 월간 “주부교실” 발행인
-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위원
- 물가안정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대학교동창회 이사
- 서울시 민원 심의위원회 위원
- 생활환경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서울시정 자문위원
-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
- 친환경 농업발전위원회 위원

전국주부교실중앙회의 부설운영기관

- 소비자상담센터 전국 49개소 개설
- 광진여성인력개발센터
- 필동어린이집
- 순천조례종합사회복지관

| 저 서 |

‘밝은 내일로’ (1988): 전국주부교실중앙회 발행, 천풍인쇄주식회사 인쇄

| 상 훈 |

- 면려포상(1960년1월 1일)
- 국민훈장 목련장(1980년 4월 15일)
- 국민훈장 모란장(1998년 12월 3일)



## 황 윤 석 (제36회)

여판사 1호 황윤석

**1961년** 4월. 4.19혁명 이후(60년) 사회는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을 정도로 시끌벅적 했다. 날이 밝기가 무섭게 학생들의 혁신이다, 용공이다, 장면 정권은 무능력하다는 등 도무지 어느 주장이 옳은지 분간할 수 없는 혼란의 구호와 살벌한 대치 상태에서 빚어지는 충돌로 인하여 사회의 모든 기능들은 아예 마비 상태나 다름없었다. 특히 4.19혁명 1주년을 맞아 19일과 20일은 전국적으로 각종 이유를 내건 데모 시위가 밤늦게까지 벌어졌다. 이런 소용돌이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 기미가 보이던 21일 라디오에서는 충격적인 뉴스를 발표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판사 황윤석(黃允石)의 의문사였다. “우리나라의 홍일점 여판사 황여사가 20일 밤 약명미상의 약물을 먹고 서울 신당동 432번지 770호 자택에서 중태에 빠진 것을 발견하고 오늘 오후 국립의료원으로 긴급히 옮기던 중 절명하였습니다.” 다음날 각 신문들은 경쟁이라도 하듯이 인쇄 활자 크기를 달리하여 사회면을 뽐뽐하게 채웠다.

- 홍일점 여판사 황윤석 여사 타계 -
- 황윤석 여판사 의문의 피살체로 발견 -
- 미모의 황판사, 32세의 아까운 요절 -

황윤석 판사의 시체는 오탁근 부장검사의 지휘아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해부되었다.

황윤석 판사의 시체해부 결과 밝혀진 것은 베나드릴이라는 약물이 검출되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국민들은 검찰의 그러한 발표에도 불구하고 틀림없이 시체 속에서 치명적인 약물이 나왔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였다. 남편 손정현 씨의 주장에 의하면 황윤석 판사는 생전에 감기 때문에 베나드릴을 복용하였다고 했다.

이렇듯 황윤석 판사의 사인 규명이 뚜렷해지지 않자 향간의 관심도는 흥미

롭게 높아지고 있었는데, 때마침 5.16군사 쿠데타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발생하는 바람에 깜박 묻혀버리고 말았다. 아무튼 우리나라 최초의 여판사가 커다란 족적 하나쯤 남길만한 32세의 나이에 석연치않은 의문의 요절로 물의를 일으킨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은 여성단체에서 황윤석 장학회를 설립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여판사가 된 황윤석 판사를 추모하여 사법고시 준비생들을 돕고 있다는 점이다 (황윤석 추모장학회).

### | 성장 그리고 죽음 |

#### 서울에서 출생

사학자 황의돈 님의 따님으로 집안분위기는 매우 엄격했다. 아버지의 영향을 받고 자라 진명여중·고등학교(1946. 6.22 36회 졸업)시절에는 철학과 문학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아버지의 권유로 법학을 전공하게 되고 자신도 당시의 사회분위기로 보아 여성의 능력을 펼치기에는 법조계가 가장 낫다고 판단해 판사의 꿈을 키웠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1952).

서울지방법원 여판사로 임명(1954) **우리나라 최초의 여판사가 되었다.** 당시 최고의 직장인이었던 은행원 손정현 씨와 결혼하였고, 민사 단독 재판할 정도로 명성을 쌓았으며 1960년 세계여성 법률가 회의에 참석하여 한국여성의 존재를 널리 알릴 뿐 아니라 1961년 여성문제 연구회 실행위원회 선임,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여 한참 열심히 일하던 황윤석 판사는 1961년 4월 20일 갑자기 세상을 떠나 많은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을 남겼다. 아직까지 사고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황윤석 판사가 우리나라 여성운동의 역사와 법조계에 남긴 발자취는 아직 살아서 숨 쉬고 있다.

- 숙명여자고등학교에서(1960년) 선구(先驅)여성으로 표창하다.

#### 〈편집자의 말〉

2005년 5월 18일 모교 100주년을 맞을 준비로 아침 10시부터 동창회관에서 회장단 회의를 하였다. 100년간 진명이 배출한 기라성 같은 졸업생 중 제일 처음 회의에서 뽑힌 분이 황윤석 판사였다. 지금도 어려웠던 사법고시에서 당당하게 젊은 나이로 우리나라 최초의 여판사가 되셨던 분! 그리고 32세의 젊은 나이에 요절한 아까운 선배님!

학창시절 선배들의 모범적인 성공의 본보기로 일해(一海) 이세정 교장선생님께서서는 항상 황판사를 꼽으셨다.

드디어 5월 22일 일요일 황석연 변호사(남동생)님과 통화가 되었다. 자료를 가지러 간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굳이 동창회관으로 자료를 가져다 주신다고 하신다.

동창회관을 가르쳐 드렸고, 오래 전에 작고한 황판사님의 유족이시므로 그 분을 맞을 준비차 바빠 동창회관으로 갔다.

오전중에 방문을 하신다는 약속을 정확히 지키시어 1층 현관에 계시었다.

1층에 내려가니 황판사님의 상반신 큰 사진과 쓰신 논문을 전해 주셨다. 사진을 보는 순간 이 분이 대한민국 여판사 1號(호)시라니 감개무량하다. 여기에 실린 원고는 황석연 변호사께서 가져오신 것으로 예원사(1958)에 실린(남녀평등에 이상있다)라는 황판사님의 글이라 소개한다.

## 「男女平等」에 異狀있다

男女·夫婦·父母는 平等하여야 한다

女性の 立場에서 關心을 갖는다

우리나라의 새로운 민법안이 전국민의 다대한 주시리에 국회에 상정되어 제일독회(第一讀會)를 완료하고 현재 제2독회에 들어가 축조심의중에 있다. 이 민법안중에는 법전편찬위원회에서 기초하여 단기 四二八七 年 十月 二十六일에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초안)이 있고 이정부안(이하 초안이라함)에 대한 민의원법제사법위원회 민법심의 소위원회의 요강(이하 條正案이라함)이 있다.

민법은 국민의 사생활관계를 직접 규율(規律)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그 범위가 정말 넓고 그 방법이 상세 치밀함을 요하며 그 미치는 바 영향이 직접 전국민에게 발현하는 것이며 또한 개정 개폐(改廢)가 용이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참으로 국가의 중대사로서 조금치라도 소홀히 넘길 수 없는 일인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민법전의 제정에 당하여 우리들 국민의 한사람으로 더욱 여성인 입장에서 전혀 관심을 가지지않고 지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민법안중 특히 여성에게 관련이 밀접한 친족 상속법을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친족상속법은 일정 당시의 법률이므로 일정의 쇠사슬로부터 해방되어 민주독립한 대한민국이 오늘날까지 일정시

의 법률을 계속 사용한다는 것은 독립국가로서의 체면상 수치스러운 일이며 또 한편 현행 친족 상속법은 주로 관습법(慣習法)으로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관습을 적용하고 있는 형편이므로 하루하루 오늘날 20세기 민주사회의 실정에 적합하고 민주헌법인 대한민국헌법정신에 입각한 친족 상속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민주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 憲法에 나타난 平等精神

친족 상속법의 초안 또는 수정안중 여성에 관련되는 조항을 논하기전 우선 우리나라 헌법을 살펴보면 헌법전문에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중략)… 모든 사회적 폐습(弊習)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체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중략)…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할 것을 결의하고 (중략)… 이 헌법을 제정하다』고 선언하고 동법 제5조에서는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 각인의 자유평등과 창의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하여 이를 보호하고 조정하는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국민에 대하여 자유평등을 법률상 정치상 최대한도로 보장할 뿐만 아니라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국가 권력으로써 경제적 약자를 될 수 있는대로 보호하고 경제적 강자의 지나친 자유가 국민의 경제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를 제한 또는 금지함으로써 균등의 원칙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으며 또 제8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며,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국민평등의 대원칙을 선언하였고 제20조에서는 『혼인을 남녀동권을 기본으로 하고 혼인의 순결과 가족의 건강은 국가가 특히 보호한다』고 규정하여 남녀불평등으로 인한 남존여비사상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여 적극적으로 혼인에 있어서의 남녀평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혼인입법에 있어서 순수하여야 할 대원칙을 선언하고 있어 우리나라 헌법은 어떠한 선진적 민주국가의 헌법에도 뒤떨어지지 않는 진보적인 헌법인 것이다.

이 헌법은 국가의 기본적인 만큼 어떠한 법이라도 기본법인 헌법의 규정에 배반되는 법이 있을 수 없고 만약 이러한 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법은 위헌으로서 효력을 발휘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친족상속법을 제정함에 있어서도 헌법의 규정 내지 헌법정신에 배치되는 입법을 하여서는 안될 것이며 만약 헌법에 위반한 입법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국민국가의 민주주의 정신을 파괴하고 국민의 복지와 자

유를 제한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 것이므로 어디까지나 민주헌법에 입각한 입법이 되기를 바랄뿐이다.

### 戶主制度는 封建的이다

그러면 본론에 들어가 민법초안 및 수정안 중 우리들 여성에 특히 관련이 깊은 조항을 대략 살펴 보기로 하겠다.

민법안 중 가장 중요한 문제는 호주제도에 관한 문제라 하겠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호주제도라는 것이 확립되어 있어서 한집안에는 반드시 한남자가 호주가 되어 그 가족을 통솔 또는 부양하고 제사와 그 집안의 재산을 이어 받았던 것인데 이러한 호주제도는 옛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 제도를 인정하고 있고 초안도 이것을 인정하여 현행법의 호주제도를 조금 개축하는데 그쳤을 뿐이다. 호주제도는 봉건적 대가족제하에서 가장인 호주가 가족들의 생활까지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 존재의의가 있다 할 것이지만 오늘날의 우리사회의 실정은 가족이 호주의 지배하에 단일적으로 생활하는 경우는 드물다 할 것이므로 호주제도를 인정할 의의가 별로 없는 것이다.

좀더 상세히 호주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들춰보면 첫째로 호주제도를 인정한다는 것은 남녀평등을 이념으로 삼는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일이다. 즉 우리나라가 인정하는 호주제도는 원래가 남자손만을 중심으로하는 남계혈통주의에 기인하여 만들어진 것으로서 남성에 한하여 호주권을 인정하고 여성에게 인정치 않음으로써 남성의 권리를 여성의 그것에 비해 한층 더 강화시키는 특권이었으며 민주이념을 깨뜨리는 온상이었던 것이다.

호주된 남성은 가족된 자에게 명령하며 반대로 가족된 자는 호주에게 복종하여야하며 때로는 그 명령이 남용되어 가족들에 대한 불합리한 압박으로 나타나는 일이 너무나 많았으며 또 그로 인한 비극이 우리들의 생활 주변에서도 수없이 일어났던 것이다(여성의 가족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둘째로 초안에서 인정하고 있는 호주제도는 현실적 가족공동생활과는 동떨어진 호적용지(戶籍用紙)면상의 형식적인 존재라고 하겠다. 왜냐하면 초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것 즉 ① 호주는 가족이 혼인하여 여자를 출생하였을 때 호적에 입적시킴에 있어 동의하는 권리(초안 제七七六조 제一항) ② 가족을 부양할 의무(동 제七八九조) ③ 미성년자인 가족이 혼인 또는 입양(入養)할 때 동의하는 권리(동제七九〇조) ④ 가족이 살아야 할 장소를 지정하는 권리(동제七九一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實際生活上, 不可欠의 制度는 아니다.

그 내용을 다시 분석하여 본다면

①의 경우 혼인외에서 출생한 자녀 즉 서자녀를 호적에 올리는데 대하여 시까지 호주가 동의를 해야만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아버지와 자녀들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서 너무 심한 간섭이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는 오히려 처의 동의를 얻어 입적케하는 것이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또는 일부일처 혼 주주의 원칙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타당한 일이라 하겠다.

②의 경우 호주가 가족을 부양할 의무를 규정한 것은 일본의 구 민법에서 인정한 가독상속(家督相續)에서와 같이 호주에게 재산을 단독적으로 상속시키는 경우에는 그 의미가 있다 하겠으나 초안에서와 같이 호주에게 재산의 단독상속을 인정치 않는 경우에는 그 의미가 희박하다.

즉 초안은 가족에도 재산상속권을 인정하고 호주에게는 가족이 상속할 수 있는 재산 상속분 보다 그 비율을 높이하어 호주로 하여금 가족을 부양하게 하는 의무를 지우게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초안이 일반가족보다 호주상속인에게 그 재산상속분의 비율을 조금더 높여서 많이 상속케 하는 것은 호주와 가족의 구별을 없이하어 재산을 동일하게 상속케하고 호주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 의무를 없애게하는 것 보다는 효과상 나으리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가족관계를 번거롭게 하고 재산상속에 있어서도 곤란한 문제를 야기할 뿐인 것이다.

혹자는 호주에게 부양 의무를 인정치 않는다면 가족의 생활의 보장을 기하지 못할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는 일이 있는데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부모나 노약한 부모를 부양하는 자녀를 법률상 부양 의무가 없음에도 생활이 빈곤한 친족들을 부양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법률상 부양 의무가 있고 없고를 가려서 하는 것은 아닐 것이므로 이것은 법률문제라기보다 하나의 도덕문제이며 우리 사회의 전통문제인 것이다.

③의 경우 미성년 즉 만 二十세에 달하지 못한 자가 혼인을 하는데 호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한 것은 혼인은 혼인당사자를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집안을 위한 것이라고하는 봉건시대의 혼인관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으며 「혼인은 남녀동권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한 헌법정신에도 어긋나는 일일 것이다.

④의 경우 초안은 성년자인 가족이 호주의 의사에 반하여 주소나 기소를 정할 때는 호주로부터 부양받을 권리를 잃게되는 것인데 이러한 호주의 거소지정권은 가족의 활동을 억압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

며 헌법에서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인정한 정신에 배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 그외에도 호주제도는 우리들의 실생활과는 합치하지 않는 형식적인 제도에 흐를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친부모와 같이 살고 있다손치더라도 호적상 친자관계가 없으면 호주권에 복종할 필요가 없게되며 실제로는 혈연관계가 없는 사이라도 동일호적내에 있으면 호주권에 복종하여야 하는 것이다.

셋째로 호주제도는 친권제도가 발달하기 전에는 친권도 포함한 제도로서 필요한 제도였지만 오늘날은 친권제도가 발달하여 어버이로서 자녀들에 대한 교육, 부양 감호(監護)의 권리의무는 확립되어있는 까닭에 호주제도를 없애더라도 친권으로 충분히 자녀들에 대한 교육, 부양 감호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보아온 바와 같이 호주제도는 우리들의 실제생활에 있어 없어서는 안될 불가결의 제도라고는 말할 수 없다.

#### 夫婦別産主義라는것(부부별산주의)

다음은 혼인관계에 관한 점을 훑어 보겠다.

첫째로 초안은 동성동본의 혼인을 원칙으로 금하고 다만 조상의 계통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만을 예외로 하였는데 (초안 제八〇二, 이는 남계혈통주의(男系血統主義)를 존중하는 나머지 남계혈족간에는 직계간은 물론 방계(傍系)간에 있어서도 백촌간이라도 혼인할 수 없다고하는 결론을 가져오게하는 것이나 이와 같은 광범위한 동성동본의 혼인을 금지하는 것은 오늘날의 사회에 있어서는 이미 그 합리적 근거를 잃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우생학적 견지와 종래의 도덕적 전통을 참작하여 일정 범위의 근친혼만을 금지하고 동성불혼에 관한 명문금지는 이를 폐지하여야 할 것이다(수정안에서는 동성불혼의 관습법을 폐지한 것을 규정하였음).

그러나 동성동본의 혼인을 인정한다는 것은 결코 동성동본간의 혼인을 장려하고자하는 뜻은 아닐 것이다. 동성불혼의 규정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비극이 없도록하자는 일종의 구제책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동성동본이지만 하등의 친족관계가 없는 남녀사이에 애정이 맺어진 경우 다만 동성동본이라는 이유로써 혼인을 금지한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일일 것이다.

둘째로 부부간의 재산관계에 관한 규정에 있어 초안은 부부일방의 혼인 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각 특유재산으로 한

다. 그리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夫)의 특유재산으로 인정한다(초안 제八二二조)고 규정하여 부부 별산(別産)주의(부부간의 재산을 전혀 분리하여 그 귀속은 물론 관리 수익에 대하여서까지 개별적으로 행하는 주의. 이에 반대되는 주의에 부부동체주의가 있다)를 채택하여 부부간의 실질적 평등 특히 부부관계의 파탄이 발생하는 경우에 있어서 공평을 기한점은 처의 특유재산을 인정하나 부는 처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사용수익을 할 수 있는 현행 관습법에서 한걸음 진보한 규정이라 하겠으나 부부의 어느 편에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는 재산에 있어서도 이를 부의 특유재산으로 할 것이 아니라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부는 처의 내조의 공이 있어 비로소 완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부부에게 똑같이 분명치 않은 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진실로 공평한 일일뿐만 아니라, 만약 처가 자기의 재산일지라도 자기의 재산임을 입증못하거나 부의 재산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한 때는 부의 재산으로 취급되므로 처에게 불리한 규정인 것이다.

#### 離婚과 財産分與請求權問題(이혼과 재산분여청구권 문제)

세 번째로 이혼배우자에 대한 재산분여청구권에 관하여 보건대, 법전편 찬위원회에서 결정된 원 요강은 이에 관한 규정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초적에 있어서나 수정안에서도 이를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써 이혼을 당하는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을 나누어주는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재산분여청구권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약한 지위에 놓여있는 이혼 후의 처의 생활을 보장하며 처의 이혼자유를 확보하는 점으로 보아서 종래의 부양료나 위자료 청구권과 실질상 차이는 없다하더라도 그의 본뜻은 이혼자의 생활이 곤란할 때 이것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옛날의 배우자로서 그 인권을 존중히 여기는데 대한 보장이며 부부재산제의 반영인 점에서 부양료청구권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다.

또한 배우자가 혼인생활중에 얻은 재산중에는 처가 남편에 대해서 한일의 대가가 마땅히 포함되므로 이것을 이혼할 때 내조한 아내에게 돌려주어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남성의 경우에 비하여 불리한 처지에 놓이기 쉬운 이혼여성의 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혼배우자에게 재산분여청구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넷째로 협의(協議) 이혼의 절차에 관한 규정인데 협의이혼은 재판상 이혼과 달라 부부간에 이혼할 의사가 합치 되었을 때에는 간단히 신고서 일매를 호적지(戶籍地)에게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신고주의를 초안은

취하고 있으나 이는 가정내의 분쟁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뜻에서 환영할 만한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성으로는 경제적, 사회적 강자인 부가 약자인 처를 일방적으로 축출하는데 이용되고 있어 간단한 신고주의는 여성에게 대단히 불리한 제도이므로 이혼당사자의 자유의사를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특히 약자인 처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혼 신청과 동시에 양당사자를 출두케하여 부부의 의사가 진실로 이혼을 원하는가를 확인한 후 이혼케할 수 있는 신청주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 父優先主義는 時代思潮에 逆行한다

다음에 친권의 문제를 보건대 초안은 친권행사에 관하여 현행법과 같이 부(父)를 제일차로하고 모(母)는 부가 없거나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제이차적으로 행사하게 하는 부우선주의(父優先主義)를 (초안 제九〇—조II) 취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부우선주의의 친권행사제도는 시대사조에 역행하는 구 시대의 유물로서 헌법이 규정하는 남녀평등의 원칙안에 포함되어있는 부모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부모가 자녀를 교육 감호 부양하는 권리의무의 행사는 부와 모간에 차별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은 재산상속에 있어서의 문제인데 그중 피상속인의 처의 재산상속분에 관한 점을 보면 초안은 호주상속인 내지 법정추정 호주상속인의 상속분을 제외한 잔여재산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과 공동 상속인으로서 균분상속한다(초안 一〇—七조)고 규정하였는데 이에 대한 수정안에서는 피상속인의 처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 상속인이 될 때에는 남녀식의 상속분의二分의 一로 하고 직계존속과 공동 상속인일 때에는 남자의 상속분과 균등으로 한다고 수정하고 있어 동 수정안의 처의 상속분은 자녀가 있을 시에는 처에게 전혀 재산상속을 인정치않은 현행법에 비하면 매우 유리하다고 할 수 있으나 아직도 경제적 약자이며 일생의 반려로 망부(亡夫)와 고락을 같이하여 온 유처(遺妻)에 대하여 너무나 섭섭한 대우라고 하지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처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을三分의 二로 처의 상속분을三分의 一로하고 직계비속이 없고 직계존속만이 있을 때는 전재산의三分의 二로하여 처의 상속분을 인상함으로써 처가 타인에게 의뢰하지않고 독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자력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또 초안은 처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게 되며 직계존속이 없는 때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처가 부의 재산을 단독상속하며(초안 제1010조) 이에 반하여 처가 사망한 경우에 부는 처의 유산에 대하여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는 그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균분(均分)상속하나 직계비속이 없으면 처의 존속(친정부모)이 있더라도 그를 제외하고 부가 처의 전재산을 단독 상속한다(초안 제1009조)고 규정하였으나 이점도 부와 처의 상속권의 차이점이라 하겠다.

이상 친족상속법안중 여성에게 관련이 깊은 점을 들어 개관하였는데 여기에서도 논한 것 이외에도 혼인의 성립에 있어 법률혼인주의만을 취한 점이라든지 양자에 관한 문제라든지 유류분(遺留分)의 문제 등 중요한 문제가 많다.



## 한양순 (제36회)

연세대 교수 · 서울 YWCA 회장  
12대 국회의원  
한국 사회체육센터 이사장

**동문은** 체육인(體育人)이요 정치인(政治人)이다. 휘(諱)는 양순(良順)이요 장로 기석(長老 琦錫)의 3남 2녀중 차녀(次女)이고 용교(容敎)의 손녀이며 질경공 치형(質景公 致亨)의 17대 손녀로 어머니 함평 이순희(咸平 李順嬪)는 운서(雲瑞)의 따님이다. 동문은 1929년 9월 20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진명여고(46년) 졸업, 1950년 이화여자대학교 체육학과를 졸업하고 진명, 수도여고 교사(敎師)를 거쳐 1957년 연세대학교 교수(敎授)로 임명(任命)되었으며 한국여성체육발전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1962년 자카르타, 1966년 방콕, 1970년 방콕, 1982년 뉴델리 아시아경기대회 여자선수단 감독을 맡았으며 1972년 문헌, 1984년 LA올림픽대회 때도 여자선수단 감독을 맡아 많은 공적(功績)을 남겼다.

연세대학교에 몸담으면서 1971년 주부교실중앙회 초대회장, 1973년 한국여성체육회장, 1978년 대한체육회 이사, 1981년 평화통일정책 자문위원회



▲ 제10회 아시아 경기대회

위원, 1982년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 1983년 서울 YWCA 회장 등을 맡으면서 여성(女性)의 체육진흥(體育振興)은 물론 사회진출(社會進出)에도 획기적(劃期的)인 기틀을 마련하였다.

1985년 제12대 국회의원이 되어 정계(政界)에서도 크게 활약(活躍)하였고 1990년 한국사회체육학회 회장, 1993년 연세대학교 교육과학대학 학장을 지냈으며 1994년에는 단국대학교 명예 교육학박사의 학위를 받았다.

1995년 2월 정년퇴임(停年退任)하고 동년 12월 국제올림픽(IOC)여성스포츠위원회 위원, 한국사회체육센터 이사장, 연세대학교 체육교육과 명예교수로 일해왔다. 1986년 한국사회체육센터 이사장직을 맡은 후에는 「인류는 스포츠를 통해 하나가 된다」는 소위 「Sports for all」운동을 폭넓게 전개하면서 일반직장인들간에 농구·수구 대회를 창설해 사회인들의 체육 활동을 장려해왔다.

이와 같이 바쁜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오래전부터 청주한씨 중앙종친회 고문을 맡기도 하였다. 동문의 공(功)을 기려 정부에서는 대한민국 체육훈장 거상장, 국제올림픽(IOC) 공로회장을 수상하였으며 대한민국 체육훈장 청룡장이 추서(追敍)되었다. 1996년 7월 미국방문 중 뇌출혈로 쓰러진 후 샌프란시스코 스탠포드대학 부속병원에서 40여일간 의식을 잃은 채 누워있다 동년 9월 21일 사망하였다(향년 67세). 동년 10월 2일 연세대병원에서 한국사회체육센터장으로 치루어 졌으며 세인(世人)들은 한국여성체육계의 「큰 별이다」라고 애석(哀惜)해 했다. 금릉군금릉공원묘원(金陵郡金陵公園墓苑)에 안장(安葬)하였다. 자녀(子女)는 부군(夫君) 경주 최무기(慶州 崔武起)와의 사이에 1남 1녀를 두었다(최세만·최선명).



▲ 사마란치 IOC 위원장과 함께



▲ YMCA 회장단과 회원들

### 사랑하는 제자에게

미영아

미영이의 편지를 읽으면서 치마로 둔갑한 아버지의 바지, 구제품 브라우스, 버선발에 운동화를 걸치고 수금원 가방 같은 것을 든 내 옛 학창시절이 상기되었다. 성장된 미영이의 모습을 생각하면 나의 옛 모습을 발견하는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사랑스런 편지를 잘 보았다. 그때 노교수 한 분이 열 손가락을 활짝 펴시면서 “지금은 이렇게 많은 꿈을 안고 그것이 꼭 실현되리라고 믿겠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하나씩 하나씩 줄어들 것입니다. 포부는 크게 갖되 그것이 모두 실현되지 못한다고 해서 실망하지는 맙시다. 그 중 가장 귀중한 것 하나, 둘만 성공할 수 있다면 그것은 큰 수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시던 교수님의 말씀이 상기되는구나. 꿈과 낭만, 그리고 사색과 고민이 있기에 젊음이란 귀중한 것-그것이 없는 젊음이들에게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니. 미영아, 꿈이란 현실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에 때로는 실망도 하고 좌절감에 절규하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겠니. 그것은 결코 무관심이나 무감각이나 무기력, 무책임에서 오는 것은 아니라고 믿는다.

미영아, 흔히 기성세대와 젊은이들 간의 갈등이 화제가 되지. 너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하지 말라’는 말에서 해방되는 것이라고 술회했지만 정말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저항감만을 간직하고 캠퍼스를 떠나야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서글픈 일이다. 결코 그 책임은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화가 부족했던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미영아, 여자들의 화제가 30대 전에는 모이기만 하면 고부간에 문제에 초점을 두어 젊은이를 이해 못하는 시부모를 원망하고 내가 시어머니가 됐을 때는 이해 많고 자비로운 시어머니가 될 것을 다짐한다. 그러나 그런 우리도 이제는 며느리에 대한 불만이 화제의 중심이 되어 가고 있구나. 이런 것이 아닐까. 결국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데서 계층간의 갈등은 커져만 가고 허물 수 없는 두터운 벽에 싸인 듯 서로가 불신만 하는 악순환을 거듭하는 것 같구나.

미영아, 며칠 전 미국에서 찍은 S교수님의 사진 속에서 Y군을 발견하고 놀랐구나. Y군은 말이다. 재학 당시 가장 애를 먹이던 학생이었다. 하루는 설득하다 못해 손을 잡고 오후 11시 넘어 세브란스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던 그 학생이 이제는 모 언론기관의 특파원이 되어 의젓한 사회인으로 또한 가장으로 성장한 모습을 보니 대견하기만 했다. 여러 자식들 중에서 가장 마음 아프게 한 자식이 항상 부모들의 마음에 걸리듯 학교가 어떤 소용돌이 속에 말려들 때마다 그 학생의 모습은 나의 뇌리에서 사라진 날이 없었으니까.

성장한 미영아, 대학은 학문 연구·직업교육·인간교육을 시키는 곳이다. 그러나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교육이라고 나는 믿고 있다. 어떠한 인간상을 창조하느냐 하는 것 말이다. 올바른 인생관과 가치관만 정립된다면 앞으로의 인생은 스스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길러진다고 본다.

가끔 남의 일에 더 많은 관심을 쏟고, 내 뜻이 아니라 남의 말에 흔들거려 뒤를 돌아보고 좌우를 훑어보는 사람이 있다. 멍칫할 만큼 낙오자가 된다. 자기의 목적을 향해 결눈질하지 않고 부지런히 노력해야 한다. 결코 남과 타협도 협력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히 주어진 24시간을 누가 더 보람 있고 알뜰하게 소비하느냐 하는 것이다.

미영아, 특히 우리 사회에는 모든 면에서 여자에게 불리하구나. 그러기에 ‘여성의 해’가 마련됐는지는 모르나 그것은 결코 남자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여자가기 때문에 양해 받으려는 우리 스스로의 나태와 안일주의가 ‘여자이니까’ 하는 어휘를 낳게 한 것은 아닐는지. 미영아, 같은 교실에서 같은 학문을 연마한 우리 스스로

가 낙오자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의식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사회적인 대우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느껴진다.

미영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는 보람을 가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영이는 그 어려운 경쟁을 뚫고 연세에 받을 붙였다고 본다.

미영아, 나는 낱말 중에 '답다' 라는 말을 가장 좋아한다. 그것은 그 사람이 자기의 구실을 다했을 때 붙여지는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여학생답게, 남학생답게, 어머니답게, 아내답게 등등 적어도 연세인은 연세인답게 독수리의 기상과 같이 어느 곳에서나 왕 중의 왕 구실을 해야할 것이다.

미영아, 인간은 세 가지 투쟁을 한다고 하더라. 하나는 말이다. 인간과 자연과의 투쟁이요, 둘째는 인간과 인간의 투쟁이요, 셋째는 자기와의 투쟁이란 다. 나는 스승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한 평범한 여자로서 자식을 낳고 가정을 갖고 사회 생활을 하는 미영이보다 이 세상에 먼저 태어난 선배의 입장에서 내 생애를 돌이켜보면 세 번째의 자신과의 투쟁이 가장 어려운 것 같다. 그것은 한 인간의 마음속에는 항상 선과 악이 공존하기 때문인 것 같다.

미영아, 빅토르 위고의 명작 <레 미제라블>을 읽어봤겠지. 주인공인 장발장의 일생이 아마 한 인간이 자기와의 투쟁을 잘 표현한 작품이라고 생각된다. 인간은 그와 같이 누구나 선할 수도, 악할 수도 있단다. 다만 그가 처한 환경,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으로,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되는 것 같다.

미영아, 남을 속일 수는 있어도 자기는 속이지 못하는 것, 자기 스스로 부끄럼 없는 삶을 위해 노력해야지. 특히 이 사회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욱 많은 인내와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지. 인간 관계란 주고받는 위치에 있단다.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은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희생 속에서 참된 보람과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겠지. 많은 것을 받아 빚지는 부담감보다 우리는 어머니의 참사랑으로 주는 것에서 만족을 찾고 참는 데서 용서하고 이해하는 기쁨을 알아야 할 것 같구나.

높고 맑은 가을 하늘 아래 연세의 숲은 더욱 아름답구나. 마음 살피는 이 계절에 더욱 성장하고 더욱 아름답기를 바란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아쉽구나.

- 한양순의원 1주기 추모집에서 -(1997)

한양순 동문

| 학력사항 |

- 1946년 진명여고 졸업(36회)
- 1950년 이화여대 체육과 졸업
- 1979년 미국 앤티크대 텍사스대학원 석사
- 1983년 독일 다이시카대 수료
- 1983년 캐나다 콩코르디아대
- 1994년 단국대 명예교육 박사
- 1950년 6월 진명여자고등학교 교사
- 1951년 9월 수도여자고등학교 교사
- 1954년 9월 이화여자대학교 강사

| 경력사항 |

- 1950년 6월 진명여자고등학교 교사
- 1951년 9월 수도여자고등학교 교사
- 1954년 9월 이화여자대학교 강사
- 1957년~1973년 연세대 교육과학대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 1961년~1984년 서울 YWCA 이사, 회장
- 1962년 2,4,5,6,9회 아시아경기 여자선수단 감독
- 1966년 2월 대한체육회 지도자분과위원회 위원
- 1967년 8월 문교부 국정교과서 감수위원
- 1968년 4월 대한체육회 사회체육위원회 부위원장
- 1969년 2월 한국여성체육학회 전무이사
- 1969년 서울시 체육회 이사
- 1971년 1월 한국체육학회 이사
- 1971년 전국주부교실중앙회 초대회장
- 1971년 1월 대한체육회 사회체육위원회 위원
- 1972년 민헌올림픽 여자선수단 감독
- 1972년 2월 레크레이션 아카데미 지도자양성 위원장
- 1972년 3월 서울시 체육회 사회체육위원회 부위원장
- 1972년 4월 상공부 공업표준심의회 위원
- 1973년~1985년 연세대 체육교육과 교수
- 1973년~1989년 한국여성체육학회 회장

- 1975년 연세대 여학생 처장
- 1975년 문교부 체육중학교 교과과정 심의위원
- 1975년 12월 한국일보 신인체육상 심사위원
- 1978년 대한체육회 이사
- 1980년 국민체육진흥재단 이사
- 1982년 KOC 상임위원
- 1983년~1985년 서울 YWCA 회장
- 1983년 4월 한국사회체육센터 이사
- 1983년 4월 서울시 의료심사조정위원회 위원
- 1983년 6월 서울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1984년 LA올림픽 여자선수단 감독
- 1984년 7월 한국사회체육센터 재단이사
- 1985년 4월 88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위원
- 1985년 4월 대한체육회 여성체육위원회 위원장
- 1985년~1888년 제12대 국회의원(민정당, 전국)
- 1985년 SKOOC 위원
- 1985년 민정당 여성정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1986년 2월 한국여성체육학회 회장
- 1986년 3월 KBS올림픽방송 자문위원회 위원 겸 KBS올림픽 부위원장
- 1986년 7월 올림픽조직위원회 개폐회식기획단 위원
- 1986년 유네스코 체육·문화분과위원회 위원
- 1986년 9월 민정당 직업공무원제도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 1986년 한국사회체육센터 이사장
- 1987년 민정당 중앙위원회 여성2분과위원장
- 1987년 88서울올림픽대회 운영협의회 위원
- 1987년 2월 민정 여성실 자문위원
- 1987년 2월 올림픽 문화예술행사 기획 전문위원
- 1989년~1995년 2월 한국여성스포츠 회장
- 1990년 사회체육학회장
- 1990년~1995년 연세대 체육교육과 교수
- 1992년 EXOP 개폐회식 기획위원장
- 1993년 연세대 교육과학대 학장

- 1993년 8월~1996년 9월 문화체육부 자문위원
- 1994년 2월 단국대 명예교육학 박사
- 1995년 2월~1996년 9월 연세대 명예교수
- 1995년 2월~1996년 9월 제6대 여성정책심의위원회 민간위원, 대한체육회 이사
- 1995년 12월~1996년 9월 국제올림픽위원회 여성분과위원

장남 최세만(崔世晩) 1956년 12월 27일

장녀 최선명(崔善明) 1959년 4월 4일

### | 상 훈 |

- ▶ 대한민국 체육상(연구부문)/1976년 4월
- ▶ 국제스포츠체육 및 레크리에이션 공로상/1985년/미국 보건체육학회
- ▶ 연세대 남녀공학 50주년기념 공로상/1996년 5월 17일
- ▶ 미국 보건체육회 공로상국민의장체육훈장 청룡장/1996년

### | 저서/논문 |

- ▶ 레크리에이션의 이론과 실제(상, 하)
- ▶ 여러 나라의 민속무용
- ▶ 사회체육개론
- ▶ 사회체육지도론



## 한 윤 복 (제39회)

2번의 국회의장을 지낸 8선의원 이만섭 국회의장 부인  
 경향신문사 문화부, 조사부 기자 (1952~1957)  
 진명총동창회 상임고문

### “내조의 큰 공(功)”

**국회의원** 8(選)에 국회의장을 2번이나 역임하신 이 의장님은 파란만장한 가시밭길을 헤치며 40년의 최장수 정치인생의 끝을 마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있는 일로 여·야 의원들의 기립 박수와 환송을 받으며 국회 본회의장을 떠나는 모습은 근래의 정치사(史)에 보기도문 흐뭇한 정경으로 기록된 일이다.

“양심을 속이지 말고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아버님의 말씀과 선거유세 때마다 청중들이 깔고 앉을 헌 신문지를 유세장에 들고 다니시며 손수 나누어 주시던 어머니의 지극한 아드님 사랑, 그리고 “한 평생 조용히 내조를 아끼지 않았던 내 아내 때문에 오늘날의 내가 있다”고 늘 잊지않고 말씀하신다고 하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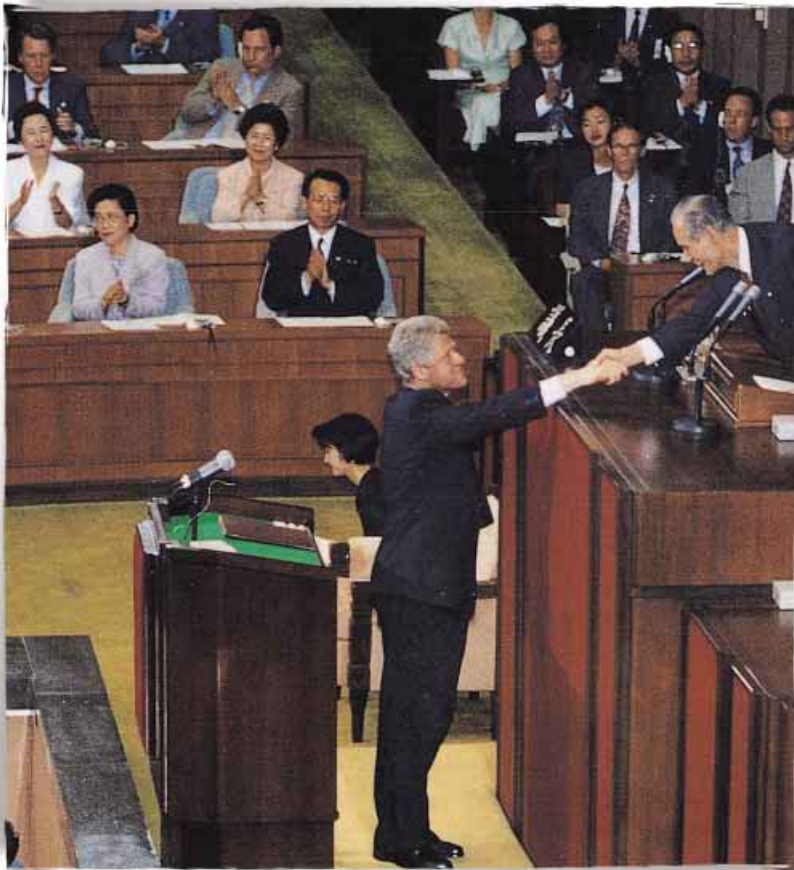
▲ 1993년 7월 10일 클린턴 미국 대통령 국회 방문 당시 동반한 힐러리 여사와 환담하는 동문 한유복.

또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장이 당적을 이탈하고 여·야를 초월하여 중립적(中立的)인 국회운영을 과감하게 함으로써 삼권분립(三權分立)의 토대를 확립하여 입법부(立法部)의 위상을 높이고 이나라 정치의 고질적 병폐인 날치기를 물리친 의장님으로 너무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요즘 일요일 교회나 가족모임에 의장님과 나들이 갈 때 나는(한 동문님) 택시를 이용할 때가 많습니다. 택시 기사분들이 의장님을 알아보곤 ‘오늘 의장님을 모시니 영광입니다. 그렇게 오래 정치를 하시면서 정치를 바르게 소신껏 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존경합니다.’라며 굳이 택시 요금을 받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나는 그럴 때마다 아내로서 행복감을 느낍니다.’ 하신다.

이 의장님과의 만남에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

이 의장님께서 연세대학시절 돈 한푼 없는 고학생으로 일찍 신문기자였던 한 동문님과 첫 만남 때 커피값이 없어서 걱정하던 차에 아내가 다방을 나



▲ 1993년 7월 10일 국회를 방문하고 연설을 끝낸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국회의장서의 저자와 악수하고 있다.



가면서 선뜻 차값을 내는 것을 보고 “이만하면 됐다”하고 결혼을 결심하였다고 하신다.

이 의장께서는 웃으시며 “커피 한 잔에 내가 팔려 왔다”고 농담을 하시곤 웃으신단다.

이 의장님께서 정치활동을 하실 때 동문께서는 뒤에서 기도하면서 “올바른 길을 걸어 나라에 누가 되지 않고 또 가족에게 훌륭한 아버지로서 지켜달라”고 기원하셨고 불의(不義)에 맞서 생명을 걸고 투쟁할 때도 “가정은 내가 지킬테니 소신을 굽히지 말고 당당하게 하세요”라고 격려했다고 하신다.

70이 넘으셨지만 너무 곱고 거침이 없으신 동문님.

방송국 아나운서의 소개로 만나서 1년 교제 끝에 결혼하여 아드님 한 분에 따님 한 분 손자·손녀 6명을 두시고, 성모님을 사랑하시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가정을 이루신 동문님.

진명여학교 학창시절을 회고하시면서 100m, 200m, 단거리 육상선수로서

특히 100m는 전국에서 1등을 하신 전적이 있으며(서울 장안에서 가장 유명했던 이화여고 단거리 선수를 물리침) '핸드볼도 진명의 대표선수로 맹활약을 했어요' 하신다.

이 모든 것이 진명인으로서 「진실」「협조」를 참담게 일깨워주신 모교의 덕분이라 잊지않고 말씀하신다.

한평생 나라를 위해 애쓰신 노년의 아름다운 동문님의 가정에 건강하심과 다복하심을 진심으로 빌었다.

- 편집부 -





## 의당 이현중 (제39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우수상 (199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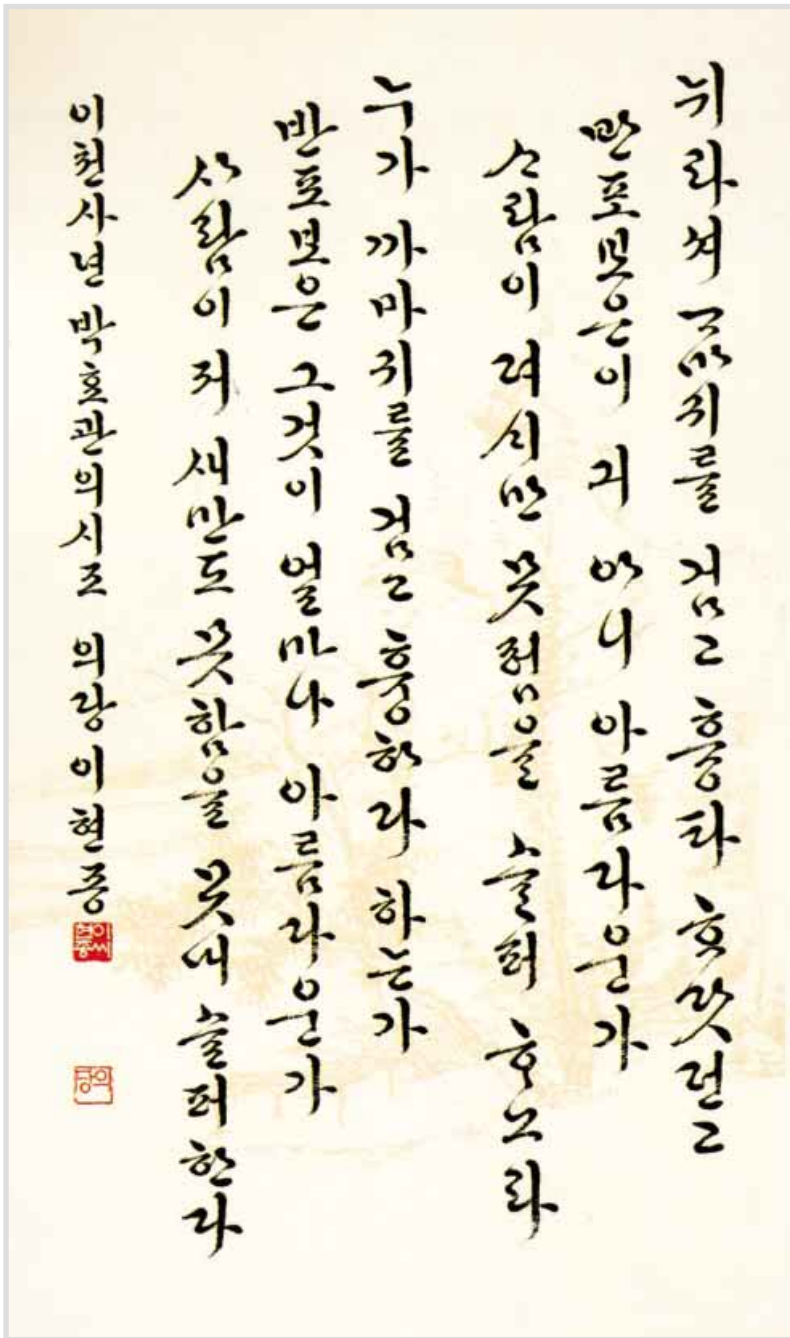
대한민국 미술대전 초대작가, 운영위원, 심사위원 역임

### 정갈함과 엄숙함이 어울린 부드럽고 온화함의 극치를 이룬 한글 사랑

#### 한글사랑과 함께한 한평생 글씨체는 「궁체」를 30여년간 고집한 필력

**키예**는 어려서부터 아버님께서 필묵을 가까이 하심을 보았고 또 일곱 오라버니들이 붓 잡는 모습을 생활의 일부분으로 보아 오면서, 초등학교에 입학하여서는 서도(書道)라 하여 정규 수업으로 한문서예 공부를 했으며, 진명여자중학교에 입학하여서도 시간에 일몽 이흥기 선생님(고종 때 궁중 사부님)으로부터 한문서예를 배웠고, 이세정 교장 선생님의 목조건물의 뼈격거리는 복도에서의 소리 안내며 걷기 교육(일명 뼈격 복도 교육)이 노력과 인내를 필요로 하는 서예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 후 남편 추원(錐圓)이 떠나고 향로를 잃고 방황하던 때, 친구의 권유로 한글 궁체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주변에서 이끌어 주시던 여러 스승께서는 저의 등대가 되시고 오늘날까지 30여년 동안 끊임 없이 불을 밝혀 주셨습니다.

서예를 시작하면서 때로는 붓을 던져 버리고도 싶었고, 또 때로는 냉장고의 음식이 썩어 나갈 정도로 몰입하기도 하며, 여러 고비를 지냈습니다. 마음이 방황할 때, 글씨가 썩어질 것 같지 않은 상태에서도 힘들게 붓을 잡고, 종이를 채워 가다 보면 어느새 평온을 찾곤 하였습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글씨를 쓰고 보면, 어느새 그 기쁨이 글씨 속에 흘러 들어, 얼마 후에 그 글씨를 대하고 보면 사진을 보는 것처럼 그때의 즐거움을 다시 떠올릴 수 있습니다. 또 글씨를 쓰노라면 좋은 글을 많이 접할 수 있고, 글씨로 표현된 인생의 결정체와 같은 훌륭한 문장을 끊임없이 만나고, 옮겨 적기도 하고, 작품으로 일구어 내다 보면 마음의 수양도 많이 됩니다.



붓글씨는 다른 예술분야와는 다르게 재주와 재능보다는 인내와 노력이 우선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현대의 ‘빨리빨리 사조(思潮)’에 맞지 않게 느리고, 어찌면 미련스러울 정도로 반복도 합니다.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요즈음의 어린이, 청소년들이 서예에 몰두하는 시간은 거의 없고 설혹 있다 하여도 오래 가질 못합니다. 서예를 함으로써 노력과 인내심을 길러 정서적인 안정과 정신의 풍요로움을 갖게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바른 자세로 먹을 갈고 글씨에 몰입하는 부모의 모습은 공부하는 자녀에게 공감대를 이루어 가는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붓글씨 공부는 굳이 상대가 없다 하더라도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아실현(自我實現)의 가장 좋은 작업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나를 중요하게 여기고 나를 이겨 가며, 한 점 붓 끝에 마음을 모을 때 스스로를 믿는 자중자애(自重自愛)의 주체(主體)도 생겨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인생을 정리해 가는 시점에서 서예인으로서 큰 자리에까지 오른 제 자신을 돌아 보며 함께 해온 서예인생에 많은 사랑과 감사를 느낍니다.

2005년 11월 씬

작품세계

의당은(39회) 궁체를 중심으로 한 흘림체, 편지글에서 읽혀지는 글씨 모양을 평생 고집한다.

30여년이 넘게 한글쓰기에서 궁체를 고집하여 쓰면서 문하생도 많이 배출했다.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우수상(1992)을 탄 이래로 대한민국 미술대전 초대작가, 운영위원, 심사위원을 역임했으며 서예분과위원, 이사(2004), 갈물 한글 서예회 11대 회장이다.

글씨를 쓸 때는 습관적으로 정갈함을 우선하며 스스로를 점검함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의당의 글씨는 흐트러짐이 없으며 언제나 깔끔하고 말쑥한 글씨체다.

적당히 넘어감 없이 그대로 지켜져서 궁체의 고유한 형상적인 전통이 이어져 오늘에 이른다 하겠다.

의당의 글쓰는 자세는 언제나 여유가 있다고 서예 평론가 정충락 선생은 평한다.

그래서 친근감이 일고 글씨에서도 여유와 친근감을 더할 수 있는 것은 형상의 구성에 내재된 엄격한 태도와 부드러운 성품이 친근감을 느끼게 함은 우연이 아니라.

위축되거나 내세우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당당할 수 있는 개성이 뚜렷하고 분명한 값진 글씨를 쓴다는 점

네 너를 그리슬와우니 너 산 최동생 남 이숙호윤이 라  
 이니시여 거츠르신들 영의 잔위를 호형이 아큰시외이 라  
 너시라드 너은 흥되 너쳐라 영의 변기러시니 기러시니 잇가  
 라드 허를드 천안 업스 이라 불히마 리신려 술은트분려 영의  
 니 이 나르를 호아 니즈시니 잇가 아스 님하 드랑드르사 리오늘서

내가 너을 그리쳐서 오를 면서 지냈는데 산의 최동생과 나는 비슷함이라  
 지산날 나르를 오함은 이들의 말이 지짓이을 철지신명겨서는 여설것이이니라  
 너이 하도 너라 한곳에 가느 실어라 영의 키양보시라 영의 기런이가 누구이시니까  
 자로곳도 죄도 전혀 없습니가 라 만스 사랑의 참언이었습니가 라 슬픈도라 영의  
 님이 나르를 벌써 잇으셨스니이까 아스 님이여 라시금 크금정을 들으시어 사랑하스서

이현삼년 고려가사의 하나로 너시랑 정서의 정공과 정을 쓰는 의랑이 현종

에서 높은 경지에 달한 의당만의 세계를 이룩했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남의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닌 스스로가 정한 조형의식의 전개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글씨야말로 의당의 정숙함이 배인 작품의 결정체일 것이다.



## 김희진 (제41회)

무형문화재 매듭장 제22호  
개교 90주년 교훈 창의상 수상

### “우리의 전통 매듭은 균형과 질서의 미학이에요”



**42년간** 매듭장인의 삶을 총정리하는 대형 전시회가 2004년 10월 7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렸다.

동문계서는 국화매듭, 잠자리매듭, 거북매듭, 석씨매듭 등 38가지의 우리 고유의 매듭을 복원하였고 끈짜기(多繪)와 상여용 매듭 등 구전(口傳)하여 오던 매듭의 기술 관용어들을 비로소 이론적으로 체계화 하였다.

“난 명주실이 좋아요. 누에가 생명을 바쳐 뽑아낸 실이라 그런지 명주는 염색을 하면 빛을 안으로 품어요. 명주끈을 반으로 접어 두 가닥을 만들고 그것을 질서있게 엮은 다음 양손의 균형을 맞춰 한 끝에 조여야 좌우대칭 앞뒤가 똑 같은 매듭이 나오지요. 우리 전통 매듭을 ‘균형과 질서의 미학’ 이라고 자칭하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올해로 26년 전통을 이어온 뜻깊은 매듭을 연구, 발전해온 한국매듭연구회는 동경, 뉴욕, 파리와 15회의 국내 전시전을 가졌고 평생 손수 염색하여 엮어 만든 매듭작품 133점과 수집품 157점 등 수백 점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하여 2층 기증관에 11점이 전시되고 있다.

### 나의 매듭 人生

#### 균형과 질서의 미학

**나의** 어린시절 추억들은 무지개처럼 눈부신 빛깔과 함께 피어난다.

어머니께서 치마저고리는 물론 안고름, 속치마까지 배색이 잘 맞게

손수 물들여 지어 입히시던 정성스러움 속에서 자랐다. 어머니께서는 속치마도 연분홍, 연노랑, 연연두 등 오련하게 엷은 색으로 물을 들여 겹치마 색에 맞게 받혀 입히셨다.

우리 할머니의 명주 다듬이질 솜씨는 주변의 감탄과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여름이면 모시치마에 옥색물을 들였다.

할머니와 소곤소곤 마음 맞추며 물들이시던 어머니.

옥색 치마에 남끝동, 자주고름을 단 흰색 명주저고리를 받쳐입고 머리에는 조바위를 곱게 눌러 쓴 품격있는 할머니의 모습이 난 좋았다.

앵두씨를 발라내고 꿀에 재워 두었다가 내가 오는 것을 보고 물을 부어 시원하게 타 주시던 화채에는 사랑이 가득했다. 나를 미소로 지켜봐 주시던 할머니.

지금 생각해 보면 나는 안목이 높은 할머니, 어머니 두 분의 빈틈없는 살림 솜씨와 그 보살핌 속에서 그리고 근엄하기 이를 데 없던 아버지의 엄격한 가정교육을 받으며 호강스럽게 유년기와 소년시절을 보냈다





김희진 동문

- 1945년 해방, 북한의 공산체제를 벗어나
- 1946년 서울로 온 가족이 이주  
해주 수양여중(首陽女中)에서 진명여중(進明女中)으로 전학하였다.  
고 3때 독일어 선생님은 미학을 권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 1953년 수복 후 부산 피난지에서 서울로 돌아와서는 문학전집 시집을 읽으며  
공부에 대한 좌절감을 달래다.
- 1956년 가회동 성당에서 영세를 받고 율리안이라는 영세명을 받다.
- 1957년 양재, 편물, 자수, 목각 등 여러 분야에 인정을 받게 되었다.
- 1962년 수공예품 전시회에서(서울시 주최) 목각액세서리 40여 점 출품이  
대성황리에 끝났고 TV 「여성살롱」에 출연하였다.
- 1963년 매듭장 정연수 선생과 만나다  
(그의 댁에서 상여에 다는 유소를 처음 보게 됨).

- 1964년 3월 하회탈이 국보로 지정되면서 하회탈에 늘이는 끈을 제작하게 되었다. 1월 남원으로 끈짜는 법을 배우러가서 담양, 순창, 운봉 등 장날에 재래식 일용품들을 접하게 되었는데 담양에서는 죽세공품, 순창에서는 자수(베게미구리), 운봉에서는 목기장을 보게 되었다.
- 1965년 매듭에 관한 원고 청탁을 받았으며 매듭 표기는 영문표기로 완성하였다.
- 1966년 민속공예전에 출품(덕수궁 박물관)하다=봉술노리개, 허리끈, 도장집, 색동딸기술 노리개, 전복술(후수술)
- 1968년 정연수 선생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43호 매듭장)를 쓰라는 부탁을 받고 제출하여 기능 보유자 22호로 지정받음.



외도래 매듭



도래 매듭



귀도래 매듭



연봉 매듭



가락지 매듭



생쪽 매듭



삼정자 매듭



장구 매듭



매화매듭



딸기술



붕술



방아이술



낙지발술



끈술



방울술



후수술



금전지술



진술

- 1969년 제3회 동아공예대전에 「매듭벽걸이」 1쌍 출품하다  
(끈들을 만들어 김희진 다회틀을 탄생시키다).
- 1970년 제4회 「동아공예대전」 원 다회로 목걸이 한쌍을 출품하다.
- 1971년 제5회 「동아공예대전」에서 모시발을 배경으로 「벽걸이 삼작」으로  
만든 유소가 대상을 받다.
- 1972~93년 문화재 전문위원으로 위촉받다.
- 1973년 「김희진 전승공예 연구원」을 열다
- 1974년 「매듭과 다회」 저서. 광명출판사에서 출판, 출간하다. 대만 국립 고궁박

- 물관 초청방문. 도쿄(일본)로 가서 끈짜기를 배우다(광다회의 기초).
- 1975년 숙대, 덕성여대 의류학과 출강하다.
- 1976년 가톨릭 미술가 전시회에 참여하였고 동경 국립미술관에서 한국매듭에 대한 특강을 하다.
- 1977년 네덜란드 헤이그 마드르담에서 한국전통공예 구조전에 참가하다.
- 1978년 「인로왕번」제작하다.
- 1980년 「한국매듭연구회」개원하다.  
6월 개인전(2회)을 열다(경북궁 국립민속박물관).  
9월 보스턴(미국) 박물관에서 「한국미술오천년」프로에 특별전시와 실기강좌를 하다.  
12월 KBS, MBC TV에 매듭실기강좌를 방송하다.  
호암의 침상, 유소장식을 제작하다.
- 1981년 2월 존타클럽(전문직 여성들의 범세계적 봉사활동기구) 회원으로 활동하다. 4월 호주 방문하다.  
워싱턴 스미소니언 박물관에서 「한국미술오천년전」개막식에 전시회와 실기 시범을 보이다.  
10월 한국의 집에서 「제1회 회원전」을 열다.
- 1982년 이진희 문공부장관으로부터 감사패를 받다.
- 1982년 9월 「회원전」을 열다(제2회 신세계 미술관).
- 1983년 「회원전」을 열다(제3회 문예진흥원미술관)
- 1984년 4월 「회원전」(제4회 문예진흥원)  
5월 3일 교황님의 서울 도착(제의영대 4벌을 만들다).  
10월 14일 한국 103위 시성식에 참여차 로마로 출발하다.
- 1985년 제5회 「회원전」(문예진흥원)을 열다.  
파리 전시회 준비에 착수하다.  
한국, 프랑스 수교 100주년에 즈음하여 파리로 출국하다.
- 1986년 피에르가르덴 미술관에서 제3회 개인전을 열다.
- 1987년 회원전을 열다(제7회 문예진흥미술회관).
- 1988년 대학생을 위한 겨울, 여름방학 특강을 시작. 현재까지 이른다.  
4월 회원전(8회) 열다. 독일 브레멘에서 위버제 박물관 초청.  
4번째 개인전을 5월 29일~6월 26일까지 열다.  
88올림픽 문화축제에(COEX) 한국전통자수 매듭전을 열다.  
1989년 9월 44차 성체대회 때 자신이 만든 교황님의 제의와 매듭을 보며 감격하다.
- 1990년 4월 진명교훈상 창의상을 받다.  
「회원전」(10회 문예진흥원 미술관)

- 1991년 청와대 실내장식에 쓰일 작품을 주문받다.
- 1993년 2월 14대 김영삼 대통령 취임식 휘장, 제작 주문을 받아, 「한마음」 병품을 제작하다.  
10월 이집트 국립 카이로 공예박물관에서 6번째 개인전을 하다.
- 1996년 예용해 전집 발간하다.
- 1997년 예용해 선생 전집 6권 완결로 출판기념회를 갖다.
- 1997년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관을 정부에서 강남구 삼성동에 마련하다.
- 1998년 12월 국새에 다는 인수와 국새보를 제작하다(행자부 요청).
- 1999년 우리 연구회 20주년 기념전시회를 개최하다.  
조선 선조 37년~대한제국까지 매듭장 259명, 다회장 845명 김희진님의 함자로 다례를 지내다.  
연구회 해외 회원전을 한국문화원에서 열다.
- 2000년 5월 「매듭 2000」 국제학술대회에서 실기강습을 하다.
- 2001년 9월 북경. 공예미술 박물관에서 매듭의 美(미)를 첫선 보이다.
- 2002년 서울시립미술관 개관기념전에 「한민족의 색과 빛」에 작품을 출품하다.  
이어 일본에서 순회전시회를 열다.  
「나무아미타불번」(사명대사의 물건)과 유소를 고중에 따라 제작하다.  
7월 「재미있는 매듭」 교재 발간(초·중등 학생용)하다.
- 2003년 1월 초·중등 교사 직무연수를 하다.  
5월 「한국 전통장신구와 공예」  
- 특강을 하다(삼성예술아카데미에서).  
6월 순례여행을 다녀오다(성베네딕도 수녀원)  
8월 9일 한국 매듭연구회 회원전 개최하다.
- 2004년 7월 운라 유소를 제작 기증했다(국립중앙박물관 소장).

## 참 고

### | 다회(多繪) |

- 원시시대 : 짐승가죽, 초목의 넝쿨을 사용하여 질기고 튼튼한 끈을 만드는데 3가닥, 4가닥으로 땀아 엮은 끈.
- 조선시대 : 짜는 끈을 다회라하며 끈 만드는 작업을 “다회친다” 하였다.

\*광다회의 기본이 되는 12사(絲) 이상의 기법이 단절된 상태였으나 김희진 장인에 의해 재현되었다.

### | 유소(流蘇) |

- 둘레가 둥근 끈목인 동다회로 매듭을 맺고 그아래 술을 드리하는 장식이다. (다회, 술, 매듭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유소가 제작된다.)
- 사용처 : ㄱ) 일상생활용품에 발(문)걸이, 등(燈)가구, 가마(운총용)
  - ㄴ) 무기류 : 화살통, 검(칼)
  - ㄷ) 악기류 : 박(拍), 대적(大笛)
  - ㄹ) 번(幡) : 불보살의 위엄과 덕을 상징하는 깃발

### | 매듭 |

- 엮고, 맺고, 짜는 섬유 제작의 기본조직  
(사냥, 낚시 등 생존에 필요한 도구제작에 쓰이거나 몸을 가리거나, 글자, 숫자를 대신하여 의사 전달의 방법으로 기록을 남기는데 활용하다가 운반, 농경, 의장(儀章) 등으로 그 용도의 폭을 넓혀 의식용, 장식용, 공업용 매듭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 | 술 |

- 다회와 매듭의 구성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것이 술의 역할이다.  
(다회, 매듭, 술의 세 가지가 조화롭게 합쳐져서 아름다운 유소와 노리개가 완성된다)

### | 국립중앙박물관 2층 기증실에 전시된 동문님의 작품은 (용산소재) |

- |                  |                   |
|------------------|-------------------|
| • 발(문발)걸이        | • 진주주머니           |
| • 백옥장도노리개        | • 장생무늬를 수놓은 주머니   |
| • 대삼작 노리개        | • 봉황무늬를 수놓은 약주머니  |
| • 밀화 신선 그림 노리개   | • 장생 무늬를 수놓은 안경첩  |
| • 삼선주 노리개        | • 매미 모양을 수놓은 향주머니 |
| • 말꼬리로 만든 경석 노리개 |                   |



## 이복자 (제41회)

대한민국 미술대전(서예부문) 초대작가  
경기 서예대전 초대작가  
묵향회 초대작가  
단원 미술제 2004년 안산 조직위원

### 한글사랑의 예술

쓰름과 새김의 예술로서의 한글서예



**이복자** 동문은 음악(서울 음대 기악과 피아노 전공)이 전공이었지만 장년(壯年)부터 시작한 한글사랑은 만년(晩年)에 이르러 글씨, 그림, 음악, 문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예술의 경지를 넘나들며, 승화된 그만의 예술세계를 이루어 내었다.

눈실 이복자 동문은 1933년 종로구 신문로에서 태어난 서울 토박이이다. 진명여고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에 피아노를 전공하였다.

진명 3代 이세정 교장님의 따님으로 교육자 가정에서 성장하였고 어릴 때부터 한문과 습자를 익히며 자랐다.

동문은 한국 전각의 대가였던 철농 이기우 선생의 누이동생이다.

어린시절 초기과정부터 오빠 철농선생의 서예로부터 훈습되고 전각을 직접 배우기도 하였다.

아버지 일해 이세정 교장님은 한글학자로 주시경 선생의 제자였고,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회장을 하였으며, 진명여고 교장을 지냈고, 오빠인 철농 선생은 한글 전각을 처음으로 시작한 분이다.

특히 철농의 글씨공부의 선생이었던 무호 이한복 선생은 진명여고의 미술교사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많은 지도를 받았다. 당시 이한복 선생은 동경미술학교를 졸업하고 돌아온 한국 서화계의 엘리트로서 전각계의 태두 오세창 선생과도 교유하던 관계로 1944년에 위창에게 소개 정식 제자가 된 분이 철농이다. 철농이란 호도 오세창 선생께서 내려준 것이라 한다.

초기 철농의 전/예는 이한복 선생의 영향을 받았으나 위창으로부터 전각을 배우고는 전각의 장법에 영향을 받아 철농만의 독특한 현대적 조형어법을 터득하게 된다.

위창과 철농 그리고 문하생으로 서/화/각을 겸하고 있는 김양동, 윤양희, 김순옥, 김창배, 이종목, 눈실 이복자 동문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눈실 동문의 전각작업에서 돌과 나무 뿐만 아니라 석고, 흙, 우드락 등 다양한 재료를 통해 새김의 예술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경우도 철농 선생의 예술정신과 무관하지 않다.

눈실 동문은 큰 오빠인 철농 선생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으며 자랐고 오빠를 따라 전시장을 자주 찾고 어깨너머로 서예와 전각을 익혀오다 장년에 한별 신두영 씨에게 입문, 본격적으로 한글 서예를 공부하여 작가로서 오늘에 이르렀다.

연령에 걸맞지 않을 만큼 의외로 참신한 작품이 많다.

동양의 서화예술(서예/문인화/전각)은 필묵에 의해 연주되는 소리없는 음악이다. 필획이 선에 의해 처음 만들어지는 서예와 전각은 음악적 추상성과 매우 닮았다고 한다.

눈실 이복자 동문은 체험적 깨달음을 지녔다.

태묵 창립전에 출품한 한글 작품 「오늘」은 시의 내용과 형식의 조화는 물론 작품제작에서 액자표구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배려를 하는 분이다.

2003년 출품한 「다듬이 소리」는 한글의 새김과 현대수묵 추상화의 합성이었다. 일종의 끌라쥬기법과 선염방법을 차용하고 있는 새로운 시도였으며 조금도 어색해 보이지 않는 대담한 표현이었다.

낙관의 처리도 수직의 「다듬이 소리」자행과 90도 방향의 가로로 새겨 놓았다. 노익장을 과시하는 파격적인 작품이다.

## | 눈실의 작품세계 | (인사동 라메르 개인전)

### 1) 한글서예

전통적이고 섬세한 궁체와는 달리 남성적인 활달함이 돋보이는 궁체 위주의 갈물계열이 아닌 고체/판본체의 응용이 대부분이다.

### 2) 새김의 예술

새김의 예술로서의 전각과 그것을 확대, 재해석한 작품들이다. 돌에 새긴 전통풍의 인장은 장법과 도법에서 철농(이기우 선생)의 영향이 많이 남아있다.

석고와 흙, 우드락에 크게 확대해서 새긴 한글작품(혹은 한자)들에서는 다양한 조형 어법이 발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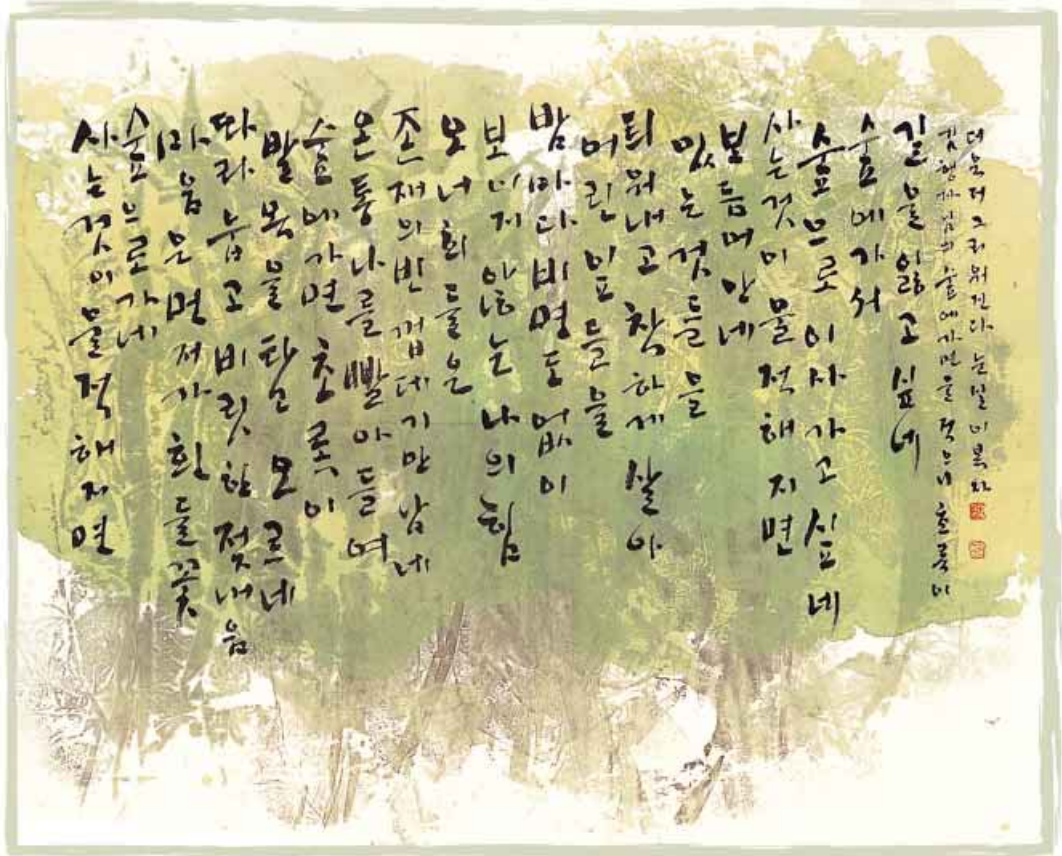
한글의 고어(옛말 古語)를 사용하거나 전각의 회환법 등을 써서 독법(讀法)에 구애되지 않고 문자를 새기고 있다.

특히 하얀 우드락에 양각으로 직접 새긴 작품들에서는 확대된 한글자모의 그림자에 의해 생긴 성과 물성의 질감에서 오는 정갈한 맛을 읽을 수 있게 한다.

더러는 그 위에 화선지를 발라 더욱 따뜻한 느낌을 자아내게 한다.

### 3) 재료와 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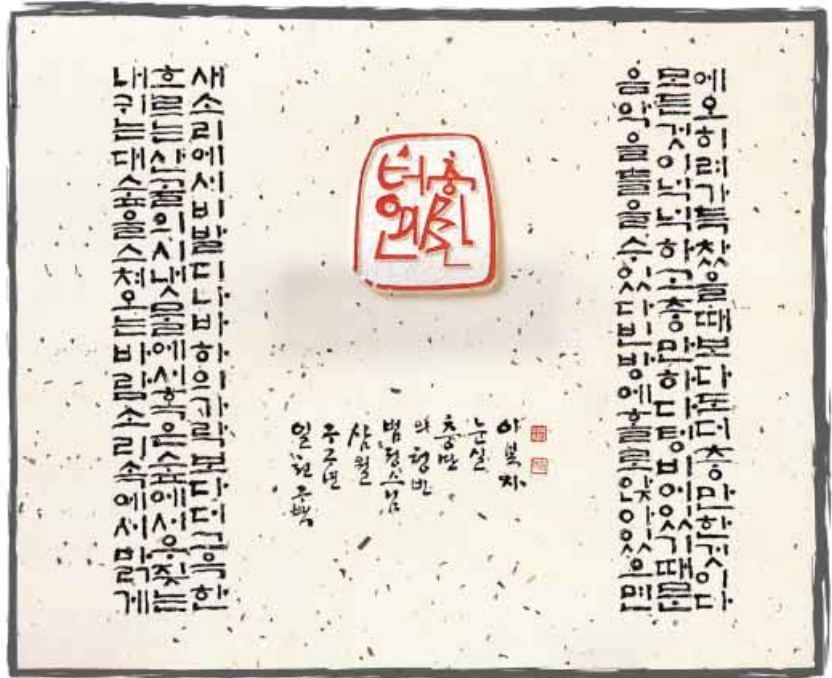
① 종이위에 농묵과 담묵이 중첩된 글쓰기로 이루어진 서체 추상계열작품



- ② 쓰고 새기는 것을 혼용하거나 재료를 혼합하고 있는 현대 수묵화 형식의 작품
- ③ 새김에 의한 문자구성이나 문자쓰기의 배경에 그림이나 무늬를 첨가하고 있는 작품 등이다.

눈실 동문은 젊은 예술가들처럼 호기심이 많은 작가이다. 모필과 철필을 함께 쓸 뿐만 아니라 화선지와 검은 먹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는다. 재료의 종류에 따라 기법도 달라질 수밖에 없으니 자연 부지런하지 않고는 작품제작이 불가능하다. 작가의 실험정신은 개성적인 작품을 창출하기 위해 좋은 것이다. 그러나 시험의 결과가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 위에서도 지적하였듯이 같은 ‘새김의 예술’이라도 기법에 따라 결과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는 것이다.

하나의 예로 필자가 사용하기 시작한 ‘서체추상(Calligraphical Abstract)’과 기존 미술용어로 사용되어 온 문자 추상과는 그 형식과 방법에 있어 엄



연히 다를 것이다. 서체추상은 씬의 예술로서 문자(혹은 서체)를 표현한 추상작품이고, 문자추상은 문자(혹은 기호)를 화학적 방법으로 그리거나 구성(혹은 디자인)한 것을 말한다. 눈실의 작품 가운데도 이 두 가지 추상이 혼재하고 있음을 본다.

태목전집 · XII 이복자에서 발췌

월간 <서예문인화> 2004년 12월호 서예평론가 정충락 선생의 서평을 발췌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궁체도 쓰고, 흘림체도 쓰고, 판본체로 쓴다는 점.

둘째, 전각(철농 이기우 선생의 영향으로 전각을 함).

셋째, 각자(刻字)예술로 나무, 현대섬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재료의 어울림과 적당한 색상의 터치가 아름다우며 서체의 자유로움, 재료의 자유로움, 서사의 자유로움, 내용선택의 자유로움이 한꺼번에 어우러져 한글에 대한 사랑이 적극적으로 형상화된 증거”라고 평하였다.

2005년이 한글 반포 559주년이다. 한글을 사랑하는 애호가에게 많은 가르침을 준 눈실 동문이다.

철농 선생으로부터 전각을 지도받고 있는 작가



## 이복자 동문

- 雅號 : 눈실, 한얼, 수산(壽山)
- 1933년 서울 출생
- 1945년~1952년 진명여자고등학교
- 1952년~1956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 피아노전공

## | 개인전 |

- 2004년 10월 27일~11월 2일 (갤러리 라메르, 서울)

## | 그룹전 및 기획초대전 |

- 1990년~2004년 목향회(세종문화회관)
- 1997년 제9회 대한민국서예대전(과천 현대미술관)
- 1997년 경기서예대전초대전(경기도 문화예술회관)
- 1998년~2001년 경기미술새로운지평전(경기도 문화예술회관)
- 1998년 대한민국서예대전 초대작가전(서울시립미술관)
- 1999년 대한민국서예초대작가전-미협, 서협, 서가협 합동(예술의전당)
- 1999년 한국종교서예인협회 남북교류전(경주 비엔날레)
- 1999년 대한민국서예대전 초대작가전(서울시립미술관)
- 1999년 한붓전(경기도 문화예술대전시실)
- 1999년 별망서예술제(경기도 단원미술관)
- 1999년 대한민국통일서예대전(베를린스판디우치타텔라박물관)
- 1999년 한국서예뉴밀레니엄전(예술의전당)
- 2000년 대한민국서예새천년사이버전
- 2000년 평화통일사이버초대전(한국서협광주지부)
- 2000년 목향회90클럽그룹전(세종갤러리)
- 2001년 아름다운한글서예(미국하와이대학교 특설전시실)
- 2001년 대한민국미술대전 초대작가전(서울시립미술관)
- 2001년 안산미협전(경기도 단원미술관)
- 2001년 아름다운한글서예(백악예원)
- 2001년 2001년세계서예전 북비엔날레특별전「천인천자문」
- 2001년 경기여성작가초대전(경기도문화예술관)
- 2001년 대한민국통일서예초대전(예술의전당서예관)
- 2002년 태묵전(백악예원)
- 2002년 동아시아필묵정신전(예술의전당)
- 2002년 묵의향연전(경기도수원미술관)
- 2002년 대한민국부채그림전(일산호수공원 꽃박람회장)
- 2002년 대한민국미술대전 초대작가전(서울시립미술관)
- 2002년 2002월드컵개최기념안산미협전(경기도단원미술관)
- 2002년 경기미술새로운지평전(경기도문화예술관)

夫物동해가 에르른민루이사늘그있나래양갈이그시웃는영원한불사신이라고그난을막  
 차그일어치라빛나는비일이중연하진신.참참합법불법법아름답나과나다어자우외경  
 의와사랑의에오래거리피연사여가능의는없고비는말쓰고이저레잘살게하옵스치느  
 부신해와갈과별들을과미와이늘느치근그과안개적올망졸망한신들과강과마과나  
 우도화련한천지창조창조의거르하고신비한뜻을느가강히어길것이라외기벌한마  
 리나비한쌍세상돌아가는일어아강곳어없이청청것꽃가르를빨고있고말마나느절절한체  
 제나이것이신의창뜻이그경화다그인원하는것바로이것이그영생도멸망도게가짓  
 는것나원로지우도게가짓는것화안그의만세일지르기전의인간의본상본연이로돌아  
 가자아게게여더러은진혹추게치연꽃처럼인어오르다한말의부자 때

自笑營生薄而難長眷客坐  
 從藜藿貧來任固窮誰謂聊堪  
 席攬筆後摩空峇峽心在  
 鮑松院風

錄梅月堂詩笑浮生兼度吟  
 乙亥新嘉壽山李福子題

- 2002년 경기미협초대전(경기도문화미술회관)
- 2002년 단원미술대전(경기도단원미술관)
- 2002년 대한민국통일서예초대전(예술의전당)
- 2003년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부문초대작가전(예술의전당)
- 2003년 태목2003(물파아트센터)
- 2003년 세계서예전 북비엔날레특별전 「한글서예의새지평전」
- 2003년 묵향회초대작가전(백악예원)
- 2003년 태목한글전(물파아트센터)
- 2003년 묵향회전(시민회관)
- 2003년 물파아트센터기획 「한글대표작가전」(물파아트센터)
- 2004년 태목국제전(예술의전당)
- 2004년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부문초대작가전(예술의전당)
- 2004년 묵향회여류초대전(경인미술관)

### | 수상경력 |

- 1990년 제22회 신사임당기념대회(한글부 1등상)
- 1990년~1996년 제2회, 제4회, 제8회 대한민국서예대전 입선
- 1995년 제7회 대한민국서예대전 특선
- 1997년 제33회 경기서예대전 특선
- 1997년 제9회 대한민국서예대전 우수상

### | 기타경력 |

- 1989년~1990년 예술의전당(서예연구반, 서예전문반) 수료
- 1991년 서예논문집 「한글자형의 공간배분에 있어서 종선문제」  
5인 공동연구(예술의전당)
- 1995년~1996년 조형문제연구반(예술의전당서예관)
- 2001년 서울대학교 「치의학박물관」 현판 제작
- 2003년 안산지방검찰청개청기념작품 제작
- 2000년 제19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부문 심사위원
- 2000년 제6회 고양시행주미술서예대전 심사위원장
- 2001년 제2회 경기도노인회호대회 심사위원
- 2002년 단원미술대전 심사위원장

### | 현재 |

- 대한민국미술대전(서예부문) 초대작가
- 경기서예대전 초대작가
- 묵향회 초대작가
- 「단원미술제 2004 안산」 조직위원



## 우복희 (제46회)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장  
 의과대학 부속병원 동대문병원장, 의과대학 부속병원 목동병원장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장 의무부총장 퇴임  
 現 이화여자대학교 재단이사  
 2006년 개교 100주년 2회 교훈상·진실상 수상



- 1938년 서울에서 출생하여 1957년 진명여고를 졸업하고(46회) 1963년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를 역임. 동대문병원 산부인과 과장으로 재직했으며 국내 산부인과학회의 발전을 주도한 주역이다. 우원장은 산부인과 초음파 진단·내시경을 이용한 산부인과 질환·수술 등에 밝은 분이다.
-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졸업한 본교 출신으로 6代(대) 의료원장(1996년 3월)이 되었고 의무부총장으로 선임(1996년 8월)되는 등 우원장의 활약은 실로 방대하였다.
- 목동병원의 노후화된 의료시설 교체
- 첨단기기 도입
- 우수 의료 인력 충원
- 열린 경영 체제 구축

- 교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
  - 강서·양천구 지역환자 이·회송(移·回送)
  - 매주 1회 건강교실 운영
  - 영세민 노인을 위한 순회 무료진료
  - 쾌적한 분위기의 병원환경 개선
  - **목동-동대문** 양 병원의 의료원 체제를 굳히고 의대 평가에서 우수 의대로 평가를 받게 되었다(1996년).
- 특히 동대문병원 원장 재직시(1994) 대학병원으로는 처음 야간 진료시대를 열어 5월 2일부터 직장인의 경우 퇴근 후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환자 위주의 경영정책을 실천하여 양질의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훌륭한 의료경영인이다. 가장 괄목할 일은 임상 교학과장 재직시 1984년부터 매년 무의촌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 1995년부터 2003년에 이르기까지 농어촌 지역 및 강서구 가양동·등촌동·신정동 등의 종합복지관에서 고령의 생활보호 대상자들에게 무료진료 봉사를 전개 지역주민과 그늘진 이웃에게 인술을 통한 참사랑을 실천한 참 의료인이다.



**| 산부인과 전문의로서의 공적, 산부인과 학회 발전에 기여한 우원장 |**

- POST법을 이용한 인공임신을 처음으로 성공한 분이며(POST : 골반강 내 생식세포 주입법)
- **초음파분야 학문·기술적 발전의 장(場)을 마련** 회장직을 맡아 초음파기기에 관한 심도있는 연구결과 발표회 개최, 국내연구 수준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한 장본인이다(초음파 진단의 경우 : 장비이용과 시술이 편리해 경제적이면서도 방사선 노출이 없고 인체에 안전하다).
- **초정밀 컬러 도플러를 이용** 고위험 임신부에서 태아의 기형과 건강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으며 경질 초음파의 개발로 자궁 및 난소와 부속 장치의 해상도가 크게 향상돼 부인과 질환의 활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 골반중앙진단 뿐 아니라 불임 및 체외수정 프로그램에서도 경질 초음파가 없으면 안될 정도로 진단 및 치료의 중요보조수단으로 임상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추세다.

우원장은 산부인과 초음파 진단 내시경을 이용한 산부인과 질환·수술 등에 밝은 분이다.

**우복희 동문**

**| 학력사항 |**

- 1957년 2월 진명여자고등학교 졸업
- 1963년 2월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1963년 3월 대한민국 의사 국가고시 합격
- 1968년 2월 이화여자대학병원 인턴, 레지던트 과정 수료
- 1968년 7월 대한민국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 취득
- 1971년 9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 1974년 9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대학원 박사학위 취득

**| 경력사항 |**

- 1968년 3월~1975년 2월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전임강사
- 1975년 3월~1979년 2월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조교수
- 1979년 3월~1984년 2월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교수
- 1984년 3월~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1984년 3월~1988년 2월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임상교학과장
- 1988년 3월~1994년 2월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 주임교수
- 1988년 3월~1996년 2월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동대문병원 산부인과 과장

- 1991년 9월~1996년 2월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동대문병원장
- 1996년 3월~2002년 1월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목동병원장
- 1996년 3월~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장
- 1996년 8월~ 이화여자대학교 의무부총장

### | 활동사항 |

- 1963년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졸업하고, 1974년 박사학위를 취득
- 대한산부인과학회 11회 학술상 수상
- 이화여대병원에서 교수와 의사, 대외적으로는 대한산부인과학회 부회장
- 대한성병학회 이사
- 대한기독병원협회 이사
- 대한병원협회 감사
- 한국태아의학회 부회장
- 대한주산의학회 이사
- 대한폐경학회 이사
- 대한산부인과 내시경 학회장
- 대한산부인과 초음파학 회장 등

### | 수상내역 |

- 한국기독교 환경대책협의회 환경대청상 수상(생활환경부문 금상)  
(1995년 1월 23일)
- 자랑스런 진명인 상(2001년 4월 21일)

폭넓은 활동을 전개하여 의료단체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 황연대 (제46회)

한국 장애인 복지진흥회 부회장  
진명 교훈상(협조상 수상 1990년)  
IPC(국제장애인올림픽)황연대 극복상제정자

### 인생 불구를 극복시켜 주신 사랑 나와 진명 그리고 이세정 교장선생님

1950년 6.25사변 후, 1953년 피난지에서 서울로 환도하면서 역사와 전통을 사랑하는 진명여중(進明女中)에 편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편입학하던 날 일생(一生) 잊지 못할 사연이 생겼습니다.

다리를 절면서 교무실 앞을 지나는데 어느 선생님께서 “애, 너 누구냐?”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세 살 때 소아마비(小兒麻痺)에 걸려, 당시 초등학교(國民學校) 면접 시험장에서, 일본인(日本人) 교장 선생님이 “다리가 왜 그러냐?” “네, 소아마비입니다.” 그랬는데도, 1m(미터) 정도 마룻바닥에 흰선을 그으면서 “뛰어 보라” 했을 때, 어린 마음에 놀랍고, 무섭고, 답답해, 그냥 그 자리에서 울어 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안내하던 상급생 등에 업혀 쫓겨나고, 기어 이 초등학교 입학부터 거절당했던 아픔이 있었던 저였기에, “너 누구냐?” 하시던 그 선생님의 질문은 저를 몹시도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네, 오늘 편입학한 학생입니다.”

“누가 너를 입학시켰니?”

그 순간 아버지께서 교장실에 계실 것 같은 급한 마음으로 교장실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놀라서 또 울며 들어갔었지요.

“아버지! 어느 선생님이 ‘너 누가 입학시켰느냐’고 그러셔...”

그 순간 언론인 기질이 강하셨던 아버지께서 자식의 아픔을 비이성적(非理性的)으로 토해 내시듯 “교장 선생님! 이 학교는 키도, 눈도, 코도... 똑같은 사람만 뽑는 학교인지 모르고, 부족한 자식 데리고 와 죄송합니다. 입학을 취소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때 교장선생님께서 전후 사정을 이내 파악하시고, 부드러운신 음성으로 “황(黃)선생님, 고정하십시오” 그러시고는 저의 등을 쓰다듬어 주시면서 “걱정 말아라,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지 다리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다

리 아픈 것이 무슨 상관이나? 열심히 하거라.” 인자하시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당시 진명 50년 전통이라 불구자가 뽑힌 것은 제가 처음이고, 그 다음 구루병(구루病)인 신온자(申溫子) 언니가 또 편입되어 입학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진명이 얼마나 역사와 전통을 중시하는 학교였는지, 저의 일화(逸話)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하교 후 효자동(孝子洞) 종점으로 전차를 타려고 걸어가는데, 길 가던 군인 줄병이 “어! 저런 것이 진명이야? 진명도 다 되었군...”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저런 학생도 진명이네 ...’ ‘어, 진명이야?’

그런 소리를 들을 때는, 어느 정도 이해하며 들을 수 있었는데, “진명이 다 되었다는...” 표현에는 어찌할 줄 몰라, 두 다리가 그냥 땅에 붙어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아, 내가 진명의 명예에 누(累)를 끼치는 학생이란 말인가?”

부모님께는 속상하실까봐 말씀도 드리지 못하고, 그 날 밤부터 심한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긴 시간 고통의 심연(深淵) 속에 빠졌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고뇌 끝에, “아니다, 주위가 무심코 내뱉는 소리에, 진명이 전통과 명예가 있는 학교로 인정받는 학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학교에 입학할 허락해 주신 교장선생님이 계신데.... 내가 좌절하고 낙오자가 되어야 하나? 힘을 내고 다시 일어서서 10년, 20년 후 진명의 이름을 빛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하는 생각이 들자, 툭툭 털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 때 그런 힘이 솟아나게 된 것도,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지 다리로 하는 것 아니니까 아무 염려 말아라” 하시며 입학시켜 주실 때, 인자하게 말씀하신 감동이, 저로 하여금 아픈 상처를 빨리 씻을 수 있게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걸음이 늦으니, 항상 남보다 일찍 움직여야 된다는 강박 관념이 있는 데다, 그런 일을 당한 후에는 의식적으로 사람을 피해, 일찍 학교에 가는 습성이 붙게 되었습니다. 마침 교장 선생님께서 사택에서 나오시며 저를 보시고는 “연대, 일찍 오는구나? 춤지? 아버님 안녕하시고?” 하시면서 등을 두드려 주시면 다시 힘이 생기곤 했습니다.

저는 지금 60이 넘는 나이에 장애인을 위한 일을 하면서 될수록 많은 장애

인에게 따뜻하게 손이라도 한 번 더 잡아주고 쓰다듬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교장 선생님께서 전수(傳授)해 주신 사랑인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시험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저의 수험번호가 131번임을 아시고는 “앞으로 해도 3.1 정신 뒤로 해도 3.1 정신, 독립정신” 하시면서 숫자 하나라도 강한 교육 정신을 불어넣어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제가 일구어 놓은 정립회관(正立會館)의 전화번호도 1237~8, 전화국장께 부탁하여 받았습니다.

번호만이라도, 장애인 인생(人生)이 칠전팔기(七顛八起)하는 정신이라야 살아갈 수 있다는 강한 의지(意志)를 키워나가기 위해서 였습니다. 진명 졸업 후 의과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정초에 아버님과 동생과 함께 교장 선생님께 세배(歲拜)를 갔었는데, “내가 교육계에 36년 있었지만, 졸업 후 아버지와 세배 다니는 졸업생은 처음이다” 하시면서 세뱃돈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세뱃돈을 받았던 기억도 좋은 추억입니다.

제가 어른이 된 지금 장애인들이 세배 올 때, 적은 세뱃돈이라도 돈을 주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장 선생님에 대한 추억을 생각하곤 합니다. 1963년 의대 졸업 후, 이대(梨大) 부속병원에서 인턴(intern)할 때 저는 첫 월급 500원을 타서 그 당시 짬으로 길게 엮어 만든 줄달걀 열 줄을 사가지고 교장 선생님이 사시는 적선동(積善洞) 덕에 첫인사를 갔습니다. 마침 선생님께서 부재중(不在中)이시라, 뵈지 못하고 병원으로 돌아왔는데, 다음 날 저는 또 놀랐습니다.

계란 일곱 줄(?)하고 많은 수의 통조림 깡통을 자전거 배달로 다시 보내셨던 일입니다. 가끔 그때 일을 생각하는데, 왜 하필이면 달걀을 사 가지고 갔을까? 웃음이 납니다.

아마도 제판엔 교장 선생님 덕에는 항상 손님이 많이 오시니까, 아니면 인턴 급식 때 계란 후라이(fry) 하나만 나오면 둥근달 떴다고 좋아하던 시절이라, 귀한 음식 같은 생각이었기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계란과 통조림을 되돌려 보내시고는 전화로 “병아리 의사 선생님이나? 인턴하기 얼마나 힘이 드냐? 오늘은 무슨 좋은 일을 했니?” 하시면서, 제가 병원 생활에 적응하기까지 큰 힘이 되도록 격려 전화를 자주 주셨습니다. 그 일이 가장 잊혀지지 않습니다.

인턴을 마치고 세브란스(Severance)병원의 소아 재활원(再活院) 의사로 있으면서, 소아마비가 완치될 수 있는 병이 아닌 것을 깨닫고, 차라리 그들이 교육 받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일에 앞장서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소아마비의 사회권의 운동을 계획·실천하면서, 여

러 가지 일을 교장 선생님께 의논드리러 세브란스 병원업무를 끝내고 제기동(祭基洞)까지 찾아 뵈러 간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몇월, 며칠, 몇시 누구 만나, 무슨 일을 의논했는데 출발지와 도착지 시간을 쓰고, 택시비는 얼마 들고... 모든 기록을 남기고 다니거라” 조목조목 현안에 대해 설명해주 시곤 하셨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도록 도와주신 결과로, 오늘의 「한국 소아마비 협회 정립회관(正立會館)」의 초석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죄송스럽게 생각되는 것은 제자가 자문을 구하고자 늦은 밤에 찾아 뵈더라도, 12시 통금(通禁)시간 안에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11시경에 손수 나오셔서, 당시 시발 택시를 잡아 주시면서 “세브란스 병원으로 잘 모시게...” 하시고는 택시비까지 넉넉히 차(車) 안에 넣어 주시던 일입니다. 참으로 교장 선생님께 사랑받았고, 여러 가지로 빚을 많이 지고 산 제자가 저 같습니다.

끝으로, 1966년 4월 19일 지금의 한국소아마비협회 정립회관을 설립하는 일의 기초 단계에서부터, 한 제자가 사회에 출발하는 일을 위하여, 얼마나 깊숙히 그리고 섬세하게 직접 관여하여 주셨는지를 당시의 기록을 통해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간호사 해외 파견을 주도하면서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신 서독(西獨·West Germany)의 소아마비 의사 이수길 박사를 회장으로 추대하고, 각계(各界)의 소아마비 전문가로 이사회가 구성되면서, 후원 신문사인 한국일보사(韓國日報社)의 류광열 선생님, 윤중현 편집국장님(編輯局長)이 함께 자리를 해 주셨을 때의 일화(逸話)입니다.

「1966년 1월 19일(水) 태화관(泰和館)에서」

7시경으로 모임 약속 시간을 알려 드렸는데, 이세정 교장 선생님께서 6시 5분 전에 벌써 오셨단다. 너무도 고맙고 미안스러운 마음.

**윤(尹)국장님** 앞으로 이 일이 비교적 낙관적이라 볼 수는 있겠지만, 이수길 박사가 독일(獨逸=西獨)에서 얼마큼 활약하시는가에 따라 성패(成敗)가 달려 있습니다. 독일에서 100만불(萬弗)을 책임지시고 하신다면, 한국일보 1면 톱에 실리고, 사설(社說)을 보장하고, 메아리 난(欄)도 보장하겠습니다.

**이박사** 닥터(Dr.) 황(黃), 나를 이렇게 시키려고 끌어넣었군. 그럼 나 회장 자리 물려줄게. 하지만 내가 10만불은 해 보겠습니다.

그때 이세정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제의하나 하겠습니다. 이박사께서 이 일을 시작하실 때는 그만한 각오와 능력이 있으시니까 일을 시작하신 것이요. 어렵히 그것을 하실 텐데, 새삼 무얼 말씀드리겠습니까?”

**일동** 폭소

**이박사** 아니, 이교장 선생님께서는 윤국장님보다 한 단수가 더 높으십니다.

**윤덕진 박사** 그럼, 그래서 감투가 큰 것이고, 감투 값은 해야되는 것이야. 더도말고 10만불만 해보내라구.

이 때 이 교장 선생님이 또 말씀하시길... “회장이 10만불이면, 부회장(副會長)은 적게 잡아 국내에서 5만 불은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때 소아마비 연장자(年長者)이신 윤덕진 부회장님께서 짙으신 표정(表情)과 함께 놀라시는 분위기.

부회장이신 윤국장님이 회장에게 10만 불 해 오라고 말씀하시다가, 이제는 화살이 윤국장님께 던져진 셈이니까 그러셨으리라.」

짧은 이 기록에서 새삼 교장 선생님의 깊고 크고 넓은 뜻을 다시 새기게 됩니다.

긴 세월 신체적으로 약한 제자가 사회의 일을 이루는 데까지 사랑과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결과, 저는 미약하나마, 저의 손길이 필요한 이 땅의 장애인들에게 힘이 되고자 나름대로 선공후사(先公後私)의 정신으로 살고 또한 노력해 왔습니다.

진명 개교 90주년 기념 행사(1996. 4. 21)에서 처음 제정하여 졸업생에게 주신다는 교훈상(校訓賞 : 진실·협조·창의)중 “협조상”을 받았습니다. 많은 졸업생 중에 제가 그 상을 받은 일이 참으로 고마웠고, 그제서야 ‘진명 명예에 누를 끼치는 졸업생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에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더구나 제가 어려운 시련을 당하고 있을 때 받은 상이라 더욱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988년 서울 장애인 올림픽(Olympic) 대회 때부터 “황 연대 극복상(The Whang, YounDai Prize For Overcoming Adversities)”을 제정하여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 상(賞)은 1988년 봄 한국 여성 언론인 「주부 생활」에서 “오늘의 여성상”으로 선정되어 받은 상금을 “국제 장애인 올림픽 위원회(The International Paralympic Committee: IPC)”에 기증하여 그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제정된 것입니다.

이 상은 4년마다 있는 장애인 올림픽을 통하여 국적·민족·이념·종교·경기 성적 등에 관계없이 「장애극복의 의지를 가장 잘 보여준 선수」 남·여 각 1인에 수여되고 있습니다. 1992 바르셀로나(Barcelona, Spain)·1996 애틀랜타(Atlanta, USA)의 장애인 올림픽에서도 이 상은 수여되었는데, 그 목적은 두 말할 것도 없이 “세계의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려는 데”에 있습니다.

이렇게 진명의 명예를 위해 또 인류를 위해 보상하며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이, 모두 교장 선생님의 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교와 온 인류를 사랑합니다.

## ‘황연대 극복상’에 독일 슈미트·남아공 시튜(2004년)

### 장애인올림픽 폐막식서 황연대 극복상 시상



▲ 28일 저녁에 열린 제12회 아테네장애인올림픽대회 폐막식에서 거행된 황연대 극복상 시상식.  
(사진제공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황연대 극복상은 ‘경기성적과 국적, 인종, 종교, 이념에 관계없이 장애극복 의지를 통해 세계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 선수’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88년 서울장애인올림픽 때 제정됐다(아테네장애인올림픽에서는 33개국 54명이 수상자 후보신청을 냈다).

29일 오전 2시30분(한국시간)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폐막식에서 한국 장애인복지진흥회 황연대 부회장은 두 선수에게 ‘황연대 극복상’을 수여하고 부상으로 장애인올림픽 로고가 새겨진 순금 20돈짜리 메달을 전달했다.

### 2004년 수상자

#### 남아공 최초의 흑인여자 금메달 리스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자넬 시튜는 육상(투창) F54/55부문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여자부문 황연대 극복상을 받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자벨 시튜.  
(사진제공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열두 살 때 폐결핵으로 척수손상을 입어 휠체어를 사용하게 된 그는 2000년 시드니장애인올림픽에 첫 출전, 투창부문 F54부문에서 세계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남아프리카 최초의 흑인 여자 금메달 리스트이기도 한 그는 어려서부터 척박한 환경에서 혼자 훈련을 해왔으며, 이번 아테네장애인올림픽을 위해 요하네스버그로 이주하여 코치와 트레이닝을 해왔다.

그는 불우한 형편 속에서도 장애를 극복하고 투창부문 세계 신기록을 세움으로써 선수들에게도 많은 귀감이 되고 있다. 그는 또한 재치와 유머를 겸비, 동료에게도 인기가 높은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

### “장애인계 발전하려면 상생의 정신을...” 복지진흥회 황연대 부회장 퇴임식서 당부

“그동안 이렇게 성대하게 퇴임식을 가져보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황연대 부회장이 미리 준비한 퇴임사를 시작하기 전 단상에 올라 꺼낸 말이다. 짧은 이 한마디는 약 40년간을 장애인계에서 지낸 황 부회장의 삶이 그리 순탄치 않았음을 짐작케 해 퇴임식 참가자들의 가슴을 안타깝게 했다.

세브란스병원, 정립회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무궁화전자 등을 거쳐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에 이르기까지 황 부회장은 장애인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면서 적지 않은 시련과 아픔을 겪었던 것이 사실이다. 황 부회장은 11일 오후 교통회관 12층 파노라마뷔페에서 가진 퇴임식에서 지난 삶을 이렇게 소회했다.



▲ 장애인복지진흥회 황연대 부회장이 또박또박 퇴임사를 읽어내려 가고 있다.



▲ 퇴임사를 마친 황연대 부회장이 직원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있다.

“되돌아보면 황무지나 다름없던 장애인계에서 뜻을 함께 해준 여러분과 장애인들이 있었기에 소신을 갖고, 때로는 무모할 정도의 신념과 열정만으로 약착같이 일해 왔습니다. 장애의 아픔을 가진 당사자로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운명적으로 뛰어 들었던 곳이기 때문에 40년이 지난 오늘 이 자리는 남다른 감회를 갖게 합니다.”

이어 황 부회장은 “이제, 장애인복지진흥회에서의 7년여의 임기를 통해 본인의 임무를 어느 정도 완수했다는 홀가분한 심정으로 부회장직을 마치게 됐습니다”라고 전했다. 장애인계 대선배로서 장애인계의 발전을 위한 조언 한마디 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최근 장애인복지와 관련해 입법논의가 활발해지고, 장애인 당사자들의 권리 의식이 장애인계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계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장애인, 비장애인을 떠나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주는 상생의 정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장애인계가 진정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늘 이점을 염두에 두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박또박 퇴임사를 읽어 내려간 황 부회장은 장애인복지진흥회에서의 역할과 관련해 “아쉬움과 많이 남는다”고 전했다. “제 자신 장애인복지진흥회를 떠나며 좀더 주어진 현안에 매진하지 못한 점 많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만, 재직 기간 중 여러분의 도움으로 체육업무의 문화관광부 이전과 전국장애인체전 순회 개최의 성공적 정착, 그리고 3번의 하계·동계 장애인올림픽대회 참가는 소중한 성과이자 잊을 수 없는 추억이기도 합니다.”

일각에서 일고 있는 장애인복지진흥회에 대한 곱지 않은 시각에 대해서는 “훗날 정당하게 조명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하며 장애인복지진흥회 직원들을 격려했다.

“88서울장애인올림픽 이후, 우리는 수많은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오늘의 발전과 성과를 이뤄왔습니다. 일각에서는 그간의 진흥회 역할에 대해 회의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만, 그 부분 훗날 시간이 흐른 뒤 정당하게 조명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부디 자긍심을 갖고 자신의 분야에서 변함없는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날 황 부회장의 퇴임식은 약 20분간 간략하게 진행됐다. 장애인계 주요 인사들을 초청하지 않은 채 행운의 열쇠 전달, 감사패 전달, 기념촬영 등의 프로그램으로 직원들과 함께 조촐히 치렀다. 한편 황 부회장의 뒤를 이어 주창림 건설본부장이 부회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 황연대 동문

- 진명여자고등학교 46회
-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세브란스병원(연세대) 소아재활원 의사
- 한국소아마비협회 정립회관 초대 관장
- 황연대 극복상 제정자 (세계 장애인 올림픽)
- 한국 장애인 복지진흥회 부회장
- 진명 교훈상(협조상 수상(1990년))



## 박정란 (제48회)

현 한국방송작가협회 이사장  
방송작가

### 오십년 전, 저는 진명여고 일학년생이었습니다.

#### 오십년이면 반세기...

반세기라는 시간을 생각하면 마치 전생(前生)인양 까마득한데 여고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면 신기하게도 그 긴 시간이 마술처럼 반세기를 뛰어넘어 내 눈앞에 와서 그리고 내 귓가에 와서 미풍처럼 아른거리니 신기합니다.

소풍을 갔을 때 아이스케키를 파는 소년에게서 얼음을 얻어 남자 선생님들 뒷목덜미에 얼음을 넣는 장난을 했다가 다음날 박용경 교감선생님께서 누구라는 지칭은 안 하시면서 현숙해야 할 여고생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하느냐고 호되게 야단을 치시던 일, 살벌하기 그지없는 월요일 학도호국단 사열식 때 눈동자도 움직이면 안 되는 상황인데도 강영숙 선생님의 예쁜 양단 한복을 보면서 나도 나중에 저렇게 입어야지 엉뚱한 상상을 하던 일... 별명이 해골일 정도로 무서웠던 훈육주임이면서 영어 선생님이셨던 김재홍 선생님이 어물어물 영어 해석을 하는 나에게 작가가 그렇게 밖에 해석을 못 해...? 하시면서 농담처럼 꾸짖으시던 일..., 선생님은 문예반이었던 나를 작가로 불러 주셨는데 정말 선생님 말씀처럼 나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진명교육은 여고시절 내내 나에게 서로 상충된 두 가지를 느끼게 했습니다. 1950년대니까 많이 봉건적이었던 시절이지요. 그때 서울 장안의 평판이 진명여고생은 만머느리 감으로 데려간다고 할 만큼 부덕을 가르치는 학교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의 덕목보다 더 철저한 다른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더운 염천이고 영하의 엄동설한이고 상관없이 월요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운동장에 도열했던 학도호국단 사열식 그리고 매년 6월 8일을 진명 반공일로 정하고(진명 강당이 폭격을 맞았던 날) 해마다 6월 8일이면

전교생이 태극기를 들고 시가행진을 했던 것은 대단히 특별한 교육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군인정신에 가까울 만큼 철저한 애국정신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 [또 다른 한 가지]

그 시절 본관 건물은 무지 낮은 목조 건물이었습니다. 학교를 부수고 다시 지을 수도 없는 일이니까 우리는 먼저 대청소를 했습니다. 먼저 복도의 때를 벗기었습니다. 그리고 이세정 교장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모든 학생들이 집에서 콩자루를 하나씩 만들어 왔습니다. 마른 콩을 콩콩 짚어 자루에 담아서요.

그 콩자루는 때를 벗긴 마루에 문질러 기름을 먹이는 것에 쓰였습니다. 마치 자기 집 대청 마루에 기름을 먹이듯이요. 우리는 날마다 복도에 무릎을 꿇고 앉아 콩자루를 문질렀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 반드시 좌측통행을 해야하고 절대로 뛰어서는 안되고, 좁과장을 하자면 외국 영화에 나오는 수녀원 학교 절반은 될 만큼 엄격했습니다.

### [기억나는 일 또 한 가지]

진명 반공의 날이 있을 만큼 강당을 폭격 당했던 일이 아픈이던 우리 학교에 삼일당이라는 그 당시 서울 장안에서 제일 크고 현대적인 강당이 지어졌을 때 일입니다.

그때 [진명]이라는 학교 신문이 처음 창간되었고 초대 기자였던 우리는 다른 학교를 찾아가서 그 학교 교장 선생님께 삼일당 개관 축하 메시지를 부탁드리는 일을 임명받았습니다. 출발하기 전 이세정 교장선생님께서서는 직접 처음 교장실 노크하는 것부터, 인사하고, 용건 말씀드리고, 다시 인사하고 교장실 나오는 과정을 하루종일 입에서 쥐가 나도록 반복 또 반복 연습을 시키셨던 기억입니다.

학교 성적만이 최고 평가 기준인 지금의 현실을 생각해 보면 그때 진명 교육은 참으로 엄격한 교육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진명에서 작가의 꿈을 키웠습니다. 그때 드라마 작가는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고 소설가가 될 생각이었습니다. 3학년 때 이화대학 여고생 문학콩쿠르에 단편 소설을 응모해 당선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 4년에 직장생활 6년 동안 소설가의 꿈을 까맣게 잊고 살다가 문득 내가 작가의 꿈을 가졌던 생각이 났고 일년 여의 습작기간을 거쳐 저는 소설가가 아닌

드라마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송작가로 36년 동안 작품을 써왔습니다.

요즘은 앞으로 내가 연속극을 몇 편이나 더 쓸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근래 몇 년 동안 일일연속극을 계속 써왔는데 일주일에 써내야 할 원고량이 원고지로 350매, 한 달이면 1400매의 원고를 최소 6개월에서 8개월간 쓴다는 것은 저는 가히 살인적이라고 말합니다. 주말 연속극일 경우는 매주 240매 정도의 원고를 6개월 이상 써야합니다. 작가는 병이 나도 안되고 집안에 일이 있어도 안됩니다. 이 많은 양의 원고를 써내려면 그런 일이 있어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6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간단한 감기몸살 외에 큰 병이 나거나 집안에 큰일이 있어서 원고를 펑크 낸 적이 없었다는 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며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씩 무서워집니다. KBS 일일연속극 [어여쁜 당신]이 끝난 지 지금 2개월이 좀 지났는데 내년에는 일일연속극은 무리일거라는 생각을 하고 원고량이 좀 적은 주말 연속극을 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드라마를 공기나 물이나 식품에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오염된 공기나 물이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것처럼 드라마는 우리의 정신세계를 보이지 않게 오염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량식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가 도덕교과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드라마 작가의 딜레마입니다. 시청자 그리고 시청률이라는 잣대가 작가를 압박하고 시청자나 시청률이 반드시 좋은 작품을 원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좋은 작품, 좋은 시청률 이것이 방송작가 그러니까 방송작가인 제가 반드시 잡아야하는 두 마리 토끼입니다.

그 동안 작품을 써 오면서 내 작품의 가장 큰 주제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구원이었습니다. 내가 쓴 대부분의 드라마 엔딩은 새로운 시작 아니면 새로운 인생을 향해 떠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울밑에 선 봉선화]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새로운 땅 서울을 향해 떠나는 것으로 끝났고 [내일 잊으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지만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고 [소문난 여자] [노란 손수건] 거의 해피 엔딩이라기 보다 절망을 딛고 일어서는 또 다른 의미의 해피 엔딩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앞으로도 제 드라마는 그렇게 끝날 것입니다.

## 박정란 동문

- 현 한국방송작가협회 이사장
- 1959년 진명여고 졸업
- 1963년 이화대학 국어국문학과 졸업
- 1968년 KBS 라디오 단막극 [잉태] 당선
- 1969년 MBC 라디오 단막극 [소년] 당선

### | 작 품 |

- KBS [동심초] [여자의 강] [미망인] [딸이 더 좋아]
- MBC [엄마의 얼굴] [재회] [내일 잊으리]
- SBS [사랑의 향기] [엄마의 깃발] [곰탕] [새끼] [사랑해 사랑해]

### | 수 상 |

- 1991년 [울밑에 선 봉선화] 방송작가상
- 1991년 [울밑에 선 봉선화] 백상예술대상
- 1991년 [울밑에 선 봉선화] 한국방송대상
- 1994년 [사랑의 향기] SBS 작가상
- 1996년 [곰탕] Worldfest Huston 특집극 부문 수상
- 1998년 [새끼] 백상예술대상
- 2000년 [백정의 딸] ABU(Asia Pacific Broadcasting) 대상
- 2001년 [백정의 딸] Worldfest Huston 대상



## 조경자 (제49회)

2000년 제38회 대한민국체육상 공로분야 수상  
[現]대한탁수협회 부회장, 새천년민주당 국정자문위원

###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 하자 어떤 일이든 끝마무리를 잘 하자

**이제** 제 나이 60이 훨씬 넘은 이때 진명에서 공부했던 일들이 꿈처럼 지나갑니다.

학창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으로는 월요조회(정신조회) 시간이었습니다. 겨울철 눈이 오면 발판으로 여럿이 눈을 밀며 치우던 일과 퐁퐁 언 운동장에서 조회를 서고 교실에 들어와 운동장을 내려다 보면 학생들이 섰던 자리는 줄 서있는 모습대로 발자국이 녹아 있었습니다.

발은 퐁퐁 얼고 난방용인 마세크탄은 빨리 열을 오르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추위를 이기며 인내심과 참을성을 길렀고 그 당시는 몹시 괴로웠지만 후일에는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습니다.

창고의 좁은 연습실에서 밤늦도록 연습을 강행하여 전적이 날로 좋아지고 진명의 탁구가 세계에 알려질 때 전교는 축하를 해주었고 환영을 받았으며 늘 행복했습니다.

당시의 탁구부장 이기영 선생님, 박용경 교감님, 강연숙 선생님께서는 각 별히 저에게 배려해주셨고 용기를 북돋워 주셨지요. 학교 다닐 때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진명은 다른 학교와 달라서 재봉실에는 재봉틀이 한 반 학생수만큼 구비되어 있었는데 재봉시간은 연이어 3시간이나 되었습니다.

실제로 재봉틀에 앉아 박거나 재단을 하며 직접 실습을 하였으며, 특히 임영복 선생님은 수예를 담당하셨는데 그 선생님은 예체능 계열의 학생이라고 봐 주지를 않는 무서운 분이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수예를(작품을) 못해오면 사정없이 혼을 내셨고 수예를 제 날짜에 안해오면 0점 처리를 하셨습니다.

교과시간이 많다보니(운동선수의 형편으로는) 숙제가 많았는데 국내외(國內外) 시합을 다녀오면 해야할 숙제가 굉장히 밀리곤 했어요.

어쩔 수없이 2~3개월 치 숙제를 단 사나흘 동안 밤을 새며 했었지요. 곱게



▲ 탁구부 세계제패를 하고 이경호 코치, 조경자, 황율자 선수와 함께

정성드려 잘 하지는 못했지만 끝내 완성은 했습니다. 그런데 임용복 선생님께서 제 작품을 다른 반에 가지고 가서서 “조경자는 외국에 시합을 하러 다니는데도 가장 먼저 완성을 했다.” 하시는 거예요. 저는 잘 만든 작품이 아니라 부끄러웠지만, 아직까지도 내 작품을 보여주신 임선생님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쿡쿡’ 웃음이 절로 납니다.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것은 올림픽 부단장으로 시드니에 갔을 때 남북한이 손을 잡고 동시 입장을 할 때는 정말 가슴이 뭉클했으며 국제대회에 주전(主戰)으로 세계 25회 탁구선수권 대회에서 단체전 은(銀)메달을 딸때의 감격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운동선수로 살면서 가장 힘들고 괴로웠던 일이 있다면 목표를 위해 고된 훈련을 해야 하였고 일단 정상에서면 정상을 지키는 일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탁구선수 「조경자」란 위치에서 어느 곳을 가든 말과 행동을 조심스럽게 해야 했으며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산다는 것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선수 생활을 끝내고 은퇴하고도 대한체육회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여야 하며 맡은 책무를 책임지고 수행해야 하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혹시 제 행동 때문에 여성체육인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이런저런 이유로 아직도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항상 긴장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긴장하는 삶은 건강 등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영향과 활력을 주고 있다고 좋게 생각합니다. 어린 나이로 고등학교 2학년부터 선수생활에서 일찍 영광을 누리 보았고 사랑을 받은 모교에 대한 자부심을 결코 잊을 수 없으며 진명인으로서의 긍지를 지니고 살고 있습니다.

## 진명 탁구부를 세계 속에 우뚝 세운 이경호 코치님

### | 진명과 인연 |

당시 진명 탁구부장 이기영(李起榮) 선생이 나의 근무처인 남선 전기(南鮮電氣)회사(현재 한국전력<韓國電力>)로 찾아와서 진명 탁구부(進明卓球部) 코치(coach)를 맡아달라고 간청한 것이 계기가 되어, 나는 현역선수의 몸으로 1955년 5월 코치 생활로 뛰어들었다.

코치로 부임했던 당시 진명 탁구부는 창단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선수수도 소수였을 뿐더러 별로 잘하는 선수도 없는 요람기였다. 효자동(孝子洞) 본교 남서쪽 한구석 가사 실습실 옆에 불과 30평 남짓한 판잣집에서, 우리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계절 쉬는 날없이, 방과 후 4시부터 통행금지 1시간 반 전인 오후 10시 반까지 심혈을 기울여 미친 듯 연습 또 연습에 정성을 다 쏟았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진명은 대회에 출전한 지 2년도 안되어 중요대회에 입상하게 되었고, 2년 3년째 가서는 각종 전국 대회를 제패(制覇)하게 되었으며, 드디어 국제대회(國際大會)에서 진명 전성기(全盛期)를 구가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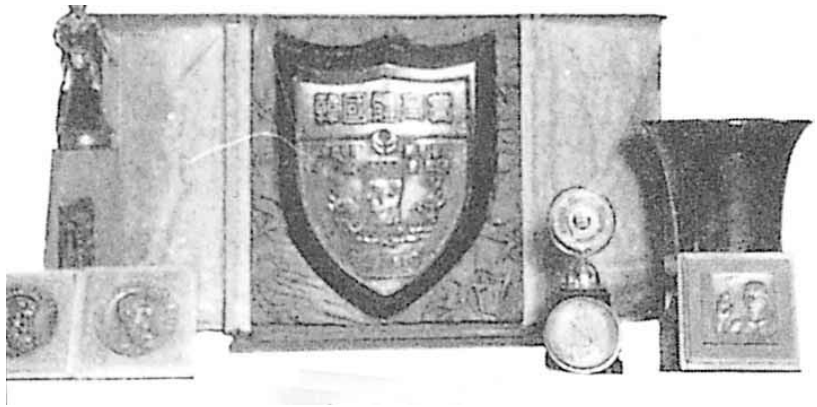
▲ 이신자 전 탁구 국가대표의 부친 現 진명 총동창회 부회장 부친

1958년 동경(東京) 아시아 올림픽(Olympic) 경기대회에서는 진명의 조경자(曹敬子) 선수가 개인전에서 전년도 세계 선수권자를 물리치고 준결승까지 당당히 고등학교 1학년생으로 3위에 입상하여 크게 기염(氣焰)을 토하였다. 그 후 계속 전성기를 거쳐 1959년 4월 독일(獨逸) 도르트먼트(Dortmund) 세계 선수권 대회 선발전에 전력을 경주한 결과, 3차 예선전을 통하여 진명에서 조경자 1위, 황율자(黃律子) 2위로 한국(韓國) 대표로 선발되어 세계대회에 첫 출전하는 영광을 안게 되었다. 장은경(張恩卿)은 4위로 입상하였으나, 팀 전력 구성상 아깝게 탈락하였다.

이 세계대회 단체전에서 애뜻한 17세의 어린 단발머리 고등학생이 가슴에 태극기(太極旗)를 달고 분전하는 조정자 선수의 모습은 실로 눈물겨웠다. 그의 대 활약은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나는 이때 국가(國家)대표 코치(coach)로 진명의 주력군을 이끌고 어느 때보다도 전의에 불타 있었다. 이 세계 제패는 구기(球技) 종목 중 우리나라 사상(史上) 처음 있는 일로, 온 나라는 감격과 환호로 들끓었다. 이 환희와 기쁨과 감격은 영원히 잊을 수 없으며, 평생 탁구에 몸바친 경기인으로서 큰 행운이요, 영광이기도 하였다.

온 거래의 환영 속에 귀국하여 약 1개월에 걸쳐 전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전 시민들의 환호와 꽃다발 속에 카 퍼레이드(car parade)를 벌리며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또한 청와대(靑瓦臺)에서는 선수들을 초청하시어 선수들의 노고를 치하하시고, 국가의 명예를 온 세계에 떨친 쾌거를 찬양 하심과 동시에 친히 고귀한 국민훈장(國民勳章)까지 내려주셨다. 이는 진명 탁구 창설 이후 불과 4년 미만에 이룩된 성과로서, 일사불란 피나는 맹훈련과 ‘하면 된다’는 필승의 전의(戰意)에서 얻은 소중한 선물이었다.

### | 우승배 |



- 이경호 코치-탁구
- 이성구 농구협회 회장-농구
- 김상영 前 진명 윤리교사-육상 (1960~80년도까지 지도 교사님들)

- 편집부 제공

## 조경자 동문

- 1940년 7월 29일 전남 진도 출생
- 1958년 제3회 동경아시아게임 탁구단체전 2위, 개인전 3위
- 제25회 도로트몬트세계탁구선수권대회 단체 2위
- 제5회 한국체육상 수상(서울신문사 체육발전기여 부문)
- 세계선수권대회 단체전 세계 2위
- 프랑스오픈대회 단식 우승
- YWCA보건체육위원회 위원
- 물망초, 주부클럽, 미소의 집 운영
- 1985년 대한탁구협회 이사
- 1992년 대한민국 체육훈장거장상 수상
- 1992년~1998년 한국여성스포츠회 회장
- 1998년 바르셀로나올림픽선수단 여자감독
- 1996년 대한올림픽위원회(KOC) 상임위원
- 1998년~2002년 대한체육회 부회장
- 2000년 시드니올림픽한국선수단 부단장
- 2000년 제38회 대한민국체육상 공로분야 수상
- [現]대한탁구협회 부회장, 새천년민주당 국정자문위원



▲ 탁구부 일동



## 박정자 (제50회)

연극인

2006년 개교 100주년 교훈상 · 창의상 수상

### 80세까지 공연할 터

“관객은 나의 힘”

**연극**이란 과연 어떤 직업인가?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까지 몸이 오그라드는 걸 체험하기란 쉽지 않은데, 그렇게까지 느끼는 연극배우란...

난 연극배우를 권투선수에 비유한다. 사각 링에서 잠시라도 한눈을 팔고 있으면 상대의 주먹이 날아와 눈을 찢을지 코피를 터뜨릴지 모르는 한 찰나도 긴장하지 않으면 안되는...



▲ (엄마는 오십에 바다를 발견했다)중에서 2005년 산울림 극장에서 : 선살에 초연 후 4번째 무대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 연극이라는 통로에서 길을 잃는 것.

**당신의 대표작은?**

- 페드라(1962, 1999) 2번 공연

**꽃봉지회**

- 우리나라에서 박정자만 가진 개인연극배우 후원회

**| 해방과 6.25 사변의 소용돌이 속의 어린시절 |**

박정자(朴正子)는 1942년 3월 12일 1남4녀 중 막내딸로 태어났다.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다. 광복을 전후한 혼란기, 6.25의 아수라장 속에서 어머니 혼자의 몸으로 다섯남매를 키우느라 온갖 고초를 감내했다.

고향인 소래 포구는 인천에서 가까운 바닷가 작은 마을이다. 여덟살 때 (1950) 전쟁이 나면서 힘든 유년기를 보냈다.

**| 처음 연극을 본 박정자 |**

오빠 박상호 씨(극단 신희 멤버)를 따라 연극을 볼 기회가 많았다. 일곱살 때 부민관에서 「원술랑」을 본 것이 기성극단의 연극을 처음 본 것이었고, 동양극장, 인천 애관극장 등에서 연극 공연을 보았으며 시공관에서 공연했던 「춘향전」은 오빠의 도시락을 가져다 준다는 핑계로 열 두번이나 보았다.

대학에 입학할 무렵 오빠(박상호 씨)의 영화제작 현장에서 스태프 노릇을 하기도 했고 오빠의 책상에 쌓인 시나리오(scenario)를 일차로 심사하는 것도 그녀의 몫이었다.

**| 진명여고 시절 |**

서대문 소재 미동초등학교 졸업 후 창성동에 있는 진명여학교에서 6년동안 공부했다.

학창시절 연극경연대회에 나가고 싶어했으나 학교측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대신 합창부와 무용부에서 활동했고 웅변도 곧잘 했다.

특히 무용부에서 한국 무용을 배워 부채춤·칼춤도 열심히 했으며 공부보다 특별활동에 열성이었다. 국어와 세계사를 좋아했고 수학은 지독하게 싫어했다.

활달한 성격 탓에 친구도 많았고 총각선생님들을 짝사랑하기도 했다.

### | 대학을 중퇴하고 성우의 길로 |

1963년 동아방송국이 개국하면서 전속 성우를 모집했다. 박정자는 150대 1의 경쟁을 뚫고 성우시험에 합격했다. 당시 이화여자대학에서는 학생이 방송출연을 하는 것을 적극 반대하여 며칠밤을 새며 고민 끝에 결국 대학을 포기하였다. 박정자 특유의 목소리는 바로 어머니로부터 물려 받았다. 어머니는 이야기를 할 때 상황에 따라 변화무쌍한 음성을 구사하곤 했다. 그 어머니의 영향으로 대학은 포기한 채 성우의 길에서 연극 배우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 | 극단 「자유」와 함께 |

1966년 4월 극단 「자유」가 창단되었다.

1950년대를 전후하여 「여인 소극장」동인으로 참여했던 이병직 씨는 극단을 재건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자 새로 극단을 창단하기로 하고 「민중극장」소속이던 김정옥씨와 손잡고 극단 「자유」에 참여하였다.

나옥주, 김혜자, 함현진, 최상현과 TV에 출연하던 배우로 김용림, 윤소정, 김관수 등 탤런트가 합세하였다.

창단작(作)은 「따라지의 향연」이었고 주인공을 맡았던 최불암 씨는 호평을 받았고 박정자는 하녀 베티나역을 맡아 주목을 받았다.

박정자는 흑인 창녀를 위한 고백(1969) 원제 「한 수녀를 위한 진혼곡」에서 흑인 하녀 ‘난시’ 역을 맡았는데 그 역으로 한국 연극 영화상, 우수연기자상을 수상했다.

### | 이색적인 공연장 카페 데아드로 |

카페라는 어휘조차 낯설기만 했던 시절!

카페에서 공연을 한다는 것은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1969년 4월 1일 ‘세계 연극의 날’에 개관 Tape를 끊었다.

충무로 1가 24번지에 자리잡은 곳으로 100석 정도의 원형무대가 마련된 소극장이었다.



▲ 김정옥과 함께

개관 공연작(作)은 김정옥씨 연출의 ‘대머리 여가수’였는데 3개월간의 장기 공연을 했다.

고급스런 공연문화를 바라던 지식계층들에게는 신선한 문화적 충격이었다.

특히 ‘햇빛 밝은 아침’은 군부대 공연을 갔다 현재의 부군을 만나 열애 끝에 결혼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25세의 소위 출신인 이지송(남편)씨를 박정자 나이 29세에 만났다. 그들은 휴가때 창경원과 비원 사잇길을 걸었는데 ‘봄비’, ‘안개 낀 밤의 데이트’, ‘세월이 가면’을 큰 소리로 불렀고 사랑을 굳혀갔다.

1970년대 극단 「자유」의 최고 문제작은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리」(명동극장)은 최인훈(소설가)작(作)인 희곡으로 시적인 대사와 무대 지문이 파격적인 것이었다. 평강공주역에 채진희, 온달역에 추송웅, 온달모(母)역에 박정자가 출연하여 관객에게 매우 깊은 인상을 남겼다.

1971년 박정자는 이 작품으로 동아연극상을 수상했다.

온달모(母)를 할 때 첫아이를 가진 만삭의 몸으로 평강공주 앞에 5분 이상 엎드려 있는 장면에서는 너무 숨이 차올라 뱃속의 아기에게 너무 미안했다고 한다. 박정자와 추송웅은 극단 「자유」에서 가장 호흡이 잘 맞는 배우였다.

### | 집단 창조작업 |

집단 창조란 연출자와 배우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끌어들이며 작품을 새롭게 구성해 가는 것이다.

창(唱), 무용, 샤머니틱한 의식, 시(詩), 유행가, 사물놀이, 상여소리, 장타령, ‘범벅타령’. 유행가중에는 ‘단장의 미아리고개’, ‘대전부르스’, ‘가슴아프게’,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초혼’, ‘님의 침묵’, ‘통행금지 오분전’ 등이 연극에 삽입됐다.

박정자는 이 스타일이 맘에 들었다.

무엇보다 배우를 존중하고 배우의 생각이 작품에 반영되는 과정은 놀라운 체험이었다.

### | 해외공연 |

80년대 접어들면서 극단 「자유」는 해외 나들이가 잦았다.

한 번은 일본 북해도에서 오키나와까지 일본 열도를 돌며 곧 바로 유럽으로 떠나야 할 때도 있었고 프랑스의 한 지방공연에서 옛 귀족의 성을 숙소로 제공받기도 했고, 파리·바르셀로나에서는 콘도에서 생활하기도 했다.

바르셀로나에서 「피의 결혼」은 아주 열광적인 반응을 얻었다.

### | 위기의 여자 그 이후 |

1986년 박정자는 「위기의 여자」를 통해 대변신의 계기를 맞게 된다.

1985년 극단 「산울림」이 대한민국 연극제에 출품한 「하늘만큼 먼 나라」에 출연하면서 극단 「산울림」과 더욱 가까워졌다.

1986년 산울림 소극장은 개관 1주년을 맞아 시몬느 드 보바르의 「위기의 여자」를 기획하고 있었다.

어느날 KBS 복도에서 우연히 임영웅 씨와 마주쳤을 때 「위기의 여자」에 알맞은 여배우를 뽑아 달라고 박정자에게 부탁했다. 그녀는 농담처럼 '박정자는 안되나요' 라고 하자 거리가 멀다고 임영웅씨는 딱 잘랐다.

박정자는 자존심이 상했고 며칠 뒤 임영웅씨는 대본을 내밀며 박정자에게 무조건 다음날부터 연습을 하자고 제안했다.

「위기의 여자」의 주인공 '모니끄' 는 22년의 결혼생활동안 남편과 자식을 위해 봉사했는데 '모니끄' 가 40대 중반에 접어든 어느날 남편이 애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고 남편으로부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고백을 듣게 된다.

공연 1시간 40분동안 관객들은 주인공 '모니끄' 와 같은 마음으로 관람했으며 연일 만석이었고 무려 6개월의 긴 공연이었다.

박정자 자신에게도 위기기 찾아왔다.

그녀의 남편도 모니끄의 남편처럼 화를 잘 내고 난폭해지기까지 했다.

남편(이지송 씨)이 찾아오지 않는 객석은 쓸쓸했다.

그네들의 위기감은 더해갔고 「위기의 여자」폐막일이 다가오는 어느날 극단 후배가 문을 박차고 들어오며 '진짜 모리스가 왔어요' 라고 외쳤다. 남편앞에서 그녀는 더욱 긴장했고 너무 긴장해서 떨면서 공연을 마쳤다 한다.

1988년 「웬일이세요 당신」은 박정자 자신의 발상으로 처음 시도한 모노 드라마였다.

공연을 하면서 순간적으로 대사를 잊어 수치심과 그 치욕을 오래 잊을 수가 없다 한다.

어떤 작품보다 이 작품은 힘들었다.

그러나 것처럼 고통스러웠던 시간에 대한 보상으로 최초로 백상예술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1991년 6월에 막을 연 「엄마는 오십에 바다를 발견했다」는 무려 8개월간 장기 공연을 했으며 5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그 작품은 그해 서울연극제 자유참가자 부분에서 최우수 작품상, 최우수 연출상, 최우수 주연상, 최우수 번역상을 수상했다.

### | 한국 최초의 배우로 우뚝서다 |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극단 「자유」와 「산울림」과의 인연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여 폭넓은 변신을 한다.

### | 신의 아그네스 | (1992)-실험극장, 4월부터 10월까지(7개월간)

박정자는 미리엄 수녀원장 역을 맡았다.

근엄하고 권위적인 종교인을 뛰어넘어 인간적이고 부드러운 면모를 나름대로 자연스럽게 연기했다.

한 번은 손숙씨와 친분이 있는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대선을 앞두고 공연을 보러온 적이 있었다.

무대 위로 김대중 후보를 찍으려는 기자들이 몰려 들었다.

그때 박정자는 ‘신성한 무대를 마구 짓밟는 무법자들은 당장 나가’ 라고 호통을 쳤으며 그날 저녁 김대중 후보는 저녁을 샀다.

### | 그 자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1994)-학전소극장 |

이 연극에서 관객들이 제일 즐긴 장면은 살인직후의 회상장면으로 재즈풍의 노래를 멋지게 불렀다. 그녀의 광기는 소름끼치도록 무섭고, 어린아이처럼 유치해지고 가수 뻘치게 세련된 음성으로 배우로서의 神技(신기)가 넘쳐났다.

### | 11월의 왈츠(1994) |

50대의 이혼녀가 스무 살의 연하인 남자와 운명적인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다. 1인극의 단조로움을 탈피하려 노래와 춤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집단 창조 작업은 위대한 작업이다).

‘립스틱 질게 바르고’, ‘시노메모르’, ‘4월이 가면’, ‘허무한 그날’, ‘페드라’, ‘사랑의 테마’ 등 5곡의 노래를 불렀다. 이 공연은 40~50대의 주부 관객들이 몰려들어 백칠십오석을 꽉 채우는 열기로 행진을 계속했고 평소에 자신있게 부르는 노래를 생동감있게 라이브 반주를 하고 객석을 완전히 장악했으며 펜사인회를 갖기도 했다.

### | 테레사의 꿈(1995) |

1994년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년 후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시어머니의 부음을 듣고도 어쩔 수 없이 공연은 계속했다.

시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공연을 시작했는데 극중에 대사가 막히는 일이 벌어졌다.

일단 관객들에게 미안하다는 양해를 구하고 막 뒤로 가서 대본을 보고 나와 막힌 부분부터 다시 진행했다.



▲ <따라지의 향연>에서 사용한 소품.

물론 자신의 상황을 알렸고 박정자의 인간적인 모습에 관객들은 위로의 박수를 보냈다.

### | 이해랑 연극상 수상(1996) |

연극계 최고의 배우에게 수상하는 '이해랑 연극상' 수상.

### | 그여자 억척어멈(1997) |

대학로 학전 블루 소극장에서 4개월간 공연.

박정자는 이 작품에서 정말 다양한 모습을 표출한다.

군화에 단추풀린 블라우스 자락을 허리에 질끈 매고 공연하는 모습은 과연 억척 배우 다웠다.

### | 년센스(1998) |

뮤지컬이다.

연기경력 33년만에 처음이었으나 까마득한 후배들 못지않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어 부분부분의 대사를 바꾸기도 하고 다른 수녀들보다 가장 유머가 돋보이는 역할을 수행했다.

넌센스의 수녀원장은 지금까지 해온 배역중 가장 코믹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 | 페드라(1999, 극단 「자유」 ) |

전처의 아들을 운명적으로 사랑하게 된 라신느의 대표적 비극으로 여배우들이면 한번쯤 도전해 보고 싶은 명작이다.

김정옥 씨는 「페드라」에 특유한 굿 양식을 끌어들었다.

연출가는 「페드라」가 보다 섬세하고 나약한 여성상을 원했다.

박정자가 강하게 연출하니까 상대역도 강해져서 급기야는 너무 격양된 피곤한 연극이 되었다. 그러나 박정자는 그녀에게 가장 화려한 배역이었고 자신을 위한 하나의 선물이었다고 생각한다.

### | 세 자매(2000, 극단 「산울림」 ) |

안톤체홉이 1900년대 쓴 작품으로 손숙, 윤석화와 함께 출연하여 세 배우의 열연, 앙상블이 조화를 이룬 작품이다.

### | 에쿠우스(2001, 실험극장 ) |

정신과 의사역인 다이사트로 출연하였다.

1991년 「신의 아그네스」에 출연한 이래 그토록 하고 싶던 정신과 의사역인 「에쿠우스」를 통해 소원 성취한 셈이다.

그녀는 그동안 「에쿠우스」에서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 | 에필로그 |

박정자는 40년 가까이 연극만 해왔다.

연극 무대에서 조금만 알려지면 TV로 진출하는 다른 배우들에 비해 그녀의 똑심과 집념은 남달랐다.

그녀를 오래 지켜봤던 이병복(자유극단)씨는 그녀를 기관차에 비유한다.

발차할 때 울리는 기적소리는 기차를 탄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며 긴 여운을 남긴다. 그녀는 극단 「자유」에서나 무대에서나 기관차 같은 존재였다고, 그녀가 좋아하는 공간은 분장실과 자동차안이다.

분장실(산울림 분장실)은 ‘삶은 오직 존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공간이고 자동차는 완전히 혼자 있는 공간이어서 좋다’ 한다.

배역은 데뷔 초기부터 극단 「자유」에서 어머니, 할머니를 단골로 맡았다.

연령의 제한없이 배역을 넘나들고 조역, 단역도 마다하지 않았다.

박정자는 지금까지 150여 편의 연극에 출연했고 8000일 이상 공연했다.

그녀를 자주 수식하는 ‘카리스마’란 단어도 어느덧 좋아하게 되었다. 남

처럼 뛰어난 미모를 지니지도 않았고 이제 더 이상 젊지도 않은 그녀에게 카리스마는 일종의 무기처럼 여겨진다.

가끔 “어떻게 그렇게 징그러울 수가 있어?”라는 평을 듣는데 그녀에겐 최상급의 찬사다.

무서울 정도로 징그러울 정도로 배역을 소화한다는 그 말이 배우에겐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그녀는 앞으로도 결코 연극을 쉬지 않을 것이고 소름 끼치도록 징그러운 카리스마를 잃지 않을 것이다.

80, 90이 되도록 말이다.

## 박정자 동문

### | 프로필 |

- 연극배우
- 1942년 3월 출생
- 1961년 진명여자고등학교 졸업, 1961년 이화여자대학교 신문학과 입학
- 2004년 8월 이화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부 명예졸업
- 극단 ‘자유’ 동인, 62년부터 현재까지 무대 활동
- 현 한국영상자료원 이사
- 현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단 이사
- 현 서울연극협회 연극인 복지재단 대표

### | 출연작품(대표작) |

#### 〈연극〉

- 피의 결혼(1964~1985)
-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랴(1970)
- 백양 섬의 욕망(1985)
- 위기의 여자(1986)
- 굿나잇, 마더(1990)
- 대머리 여가수(1991)
- 엄마는 오십에 바다를 발견했다(1991)
- 신의 아그네스(1992)
- 햄릿(1993)
- 11월의 왈츠(1994)
- 그 자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1994)
- 그 여자, 억척어멈(1997)

- 년센스(1998년)
- 페드라(1999년)
- 에쿠우스(2000년)
- 19 그리고 80(2003년)
- 그 외 130여 편

### 〈라디오〉

- 국군방송 <5분 실화극> 해설, 7920회 출현(1977년~2003년)

### | 주요수상내역 |

- 동아연극상
- 백상예술대상
- 이해랑 연극상
- 극평가 그룹상
- 서울시 문화상 등 수상

### | 수상연보 |

- 1970년 백상예술대상
- 1970년 동아연극상, 서울문화대상
- 1972년 백상예술대상
- 1975년 동아연극상
- 대중상 여우주연상
- 영화연극상
- 1985년 대중상 여우조연상
- 1986년 백상예술대상
- 동아연극상 <하늘만큼 먼 나라>
- 서울 극평가 그룹상 <하늘만큼 먼 나라>
- 1987년 서울 극평가 그룹상 <위기의 女子>
- 동아연극상 <위기의 女子>
- 백상예술대상 <위기의 女子>
- 1988년 한국연극 예술상
- 1990년 백상예술대상-대상 <굿나잇, 마더>
- 1991년 서울 연극제 최우수 주연상 <엄마는 오십에 바다를 발견했다>
- 사랑의 연극잔치 여자 주연상 <엄마는 오십에 바다를 발견했다>

- 1996년 이해랑 연극상
- 1998년 서울시 문화상
- 2000년 자랑스러운 언론홍보영상인상(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 2001년 자랑스러운 진명인상(진명여자고등학교 총동창회)
- 2001년 MBC 문화방송 <명예의 전당> 헌액

### | 출판 |

- 1993년 “사람아 그건 운명이야”, 박정자, 예음출판사
- 2002년 “연극배우 박정자”, 김미도, 연극과 인간
- 2002년 “얘들아, 무대에 서면 신이 난단다”, 최자영, 산하출판사

### | 출판영화 |

- <육체의 약속>, <흙>, <이어도>, <금병매>, <총녀> – 감독 김기영
- <장마>, <옛날 옛적에 휘어이>, <말미잘> – 감독 유현목
- <낮은 데로 임하소서>, <과부춤> – 감독 이장호
-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 감독 조문진
- <한네의 승천> – 감독 하길종
- <자녀목> – 감독 정진우
- <만다라> – 감독 임권택



## 윤 순 희 (제50회)

학교법인 송의학원 이사장  
이화여대 총동창회장

2001년 송의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 전문대 재단이사장으로 취임하였고,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장, 갈보리교회 후원회장, 자랑스러운 진명인상을 수상하였고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인으로 선정되었다.

교육계는 물론 적극적인 사회활동과 봉사정신을 발휘하여 진명인의 이름을 드높이고 있는 동문

### 참교육

“역사 깊은 자학골” 교가를 부르던 진명여고를 생각할 때마다 내 기억 속에는 3가지가 떠오른다.

첫째는 내 중·고등학교의 등하교 길이다. 지금도 그 길을 가끔 지나가곤 하지만 그 시절에도 나는 늘 청와대를 지나서 학교를 가야했다. 한쪽은 청와대와 다른 한쪽은 경복궁 뒷문이 있어서 가로수 양편에 늘어선 은행나무가 주는 정취는 지금이나 그때나 같지만 하루 두 번씩 그 길을 따라 계절이 바뀌는 것을 늘 체험했다. 봄에는 연두색의 새순이 돋아서 금방 앞으로 펼쳐 나오고 곧 짙푸른 무성한 잎으로 여름이 되었음을 알리고 다시 노란잎으로 옷을 갈아입어 가을로 접어들어 얼마 안 되어서 그 무성했던 잎은 모두 보도 위에 수북이 쌓이는 그 길을 6년 동안 다녔다. 한참 감수성이 예민했던 그 시절에 자연이 주는 무한한 사랑과 진리를 알게 했다.

이제는 옮겨진 목동에서의 정취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사랑하는 후배들에게는 보여줄 수 없지만...

둘째는 진명여고 하면 이세정 교장선생님이 생각난다.

가장 중요한 시기에 참 스승이시고 자상하시고 여성교육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셨던 진정한 교육자이셨던 그분에게 교육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큰 행운이라고 생각된다. 나는 교장실 청소를 매주 하곤 했는데 청소검사를 받을 때면 우리는 긴장했다. 분명 깨끗이 다 한다고 했지만 자세히 보시고는 창살

틈에 있는 먼지를 보시고 내 손을 붙잡아 내 손가락으로 먼지를 찍어서 내 얼굴에 찍던 생각이 날 때면 가끔 혼자서 웃는다. 얼마나 한 가지 일을 해도 철저히 해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신 것이 후일 내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셋째로 내가 송의 이사장으로 취임할 때 내가 이 자리에 올 때까지 가장 생각나는 두 분이 계신다. 한분은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이시고 또 한분은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이셨던 민병찬 선생님이다. 그때 진학지도를 하실 때 나는 이화여대 국문과에 희망을 했는데 선생님께서는 교육과가 어떠냐고 권면하셔서 교육을 전공하게 되었다. 대학 4년을 통해서 또한 후일 다시 도전해서 교육행정학을 배웠을 때에도 “교육”이란 무지에서 앞으로 깨달아가는 과정이 얼마나 귀하고 위대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고 교사를 할 때나 가정에서 4남매를 키울 때나 현재 교육계에 몸담고 있을 때 이 모두가 교육과를 택했다는 것에 대해 단 한 번도 후회해 본적이 없음에 감사드린다. 한 人生의 진로를 지도할 때 얼마나 선생님의 지도가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이다. 나는 친구에게 가끔 내 인생에서 교육과를 선택한 이야기를 하곤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는 나보다 더한 감동으로 민병찬 담임선생님 이야기를 했다.

이유인즉 운동을 잘했던 운동부 친구인데 진로상담에서 의과대학을 가겠다고 했는데 선생님께서는 속으로는 황당하셨겠지만 전혀 내색 없이 이유만 묻고는 잠시 기다리라고 한 뒤 모든 학생의 상담을 마친 후 이야기를 나눌 때 두 번째 원하는 대학은 미술과이며 이유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설명을 다 들으신 후 아주 다정하게 해부도 할 수 있고 그림도 그릴 수 있는 과가 있는데 하시면서 생물과를 권유하셔서 오늘날 자기가 생물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나눌 수 있었다.

선생님의 자상하고 친절함 배려로 자존심 다치지 않고 극복지르지 않고 우리의 약한 마음 감싸 안아서 이렇게 멋진 진로상담으로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주신 민병찬 선생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아울러 오늘의 모든 젊은 교사들에게 스승의 지표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본다.

진명에서 받은 교육은 얼마나 철저했으며 살아있는 교육이었는지 1991년 모교 졸업 30주년 행사를 우리 동창들은 롯데호텔에서 갖고 이튿날 용평으로 버스를 대절해 1박 2일의 여정으로 35~45명이 함께 떠났다. 다 도착 후 내리는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맨 뒷 자석에서부터 비닐 큰 봉지속에 휴지와 쓰레기를 치우면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깜짝 놀란 나는 서로 웃으며 기쁨으로 이일을 마무리 했다.

용평콘도에 도착해 회장을 맡고 있던 나는 몇 가지 당부의 말을 했는데(그 당시 핸드폰이 없었던 시기) 콘도에 있는 전화사용을 금했다. 나중 주인에게 금전적 피해를 생각해 모두 공중전화 쓸 것을 부탁했는데 공중전화는 먼 거리에 배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그것을 어기지 않는 것을 보고 너무나 우리 동창들이 귀하고 아름다워 보였으며 진명에서 받은 교육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모교 교육에 대한 자부심을 안고 돌아왔다.

나는 오늘날 교육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삶을 체험하고 있다. 어린 유치원에서부터 초·중·고·대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현장을 맡으면서 어떻게 하면 좀더 나은 환경과 좋은 선생님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설정할 수 있을까 매일 고민하며 실천하려고 하고 있다. 그 중 몇 가지만 치중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첫째로 밝고 건강하게 키우고 싶다.

하나님 앞에 받은 달란트가 다 각기 있고 발달과정도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 남과 비교하지 않고 키울 때 어린 아이들이 마음에 상처받지 않고 시기심이 없이 건강한 심성으로 일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둘째로 모든 일을 스스로 하므로 책임감 있는 사회인으로 키우고 싶다. 조급해 하지 말고 기다려주는 지혜가 필요하다(이른 시기에 피는 꽃과 늦은 시기에 피는 꽃이 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며)

셋째로 성실하게 자기 일에 온 힘을 다 할 수 있게 키우고 싶다.

미래에 대해 계획하며 오늘 것을 내일로 미루는 습관이 들지 않게 이 3가지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모두는 밝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길러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매일 매일의 기도 시간을 갖는데 그때 기도하는 것이 나라와 민족에 대한 기도와 우리 학생들에 대한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또한 오대양 육대주에 있는 사업장에 대한 기도와 4남매의 가정과 그리고 12명의 손주들에 대한 기도와 이웃에 대한 기도가 있다.

이들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위해서,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성품으로 자라기를, 좋은 스승을 만나 행복한 학교생활이 되기를, 좋은 친구를 만나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이웃과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한다.

이 글을 마치면서 나 자신의 삶을 뒤돌아 볼 때 비교적 성공한 삶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내 삶이라고 말하고 싶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깊은 감사를 드린다.

### 윤순희 동문

#### | 학력사항 |

- 1961년 2월 10일 진명여자고등학교 졸업
- 1961년 3월 2일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입학
- 1965년 2월 22일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2003년 9월 성균관대학원 교육행정 수료

#### | 경력사항 |

- 1965년 5월 1일 서울 문창국민학교 교사 발령
- 1967년 6월 15일 서울 문창국민학교 의원 사직
- 1990년 1월~1990년 12월 이화여자대학교 햇불회 회장
- 1991년 2월~1993년 2월 진명여자고등학교 50회기 동창회장
- 1995년 2월~1997년 7월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동창회장
- 1999년 4월~2001년 4월 학교법인 송의학원 이사
- 2001년 4월 9~현재 학교법인 송의학원 이사장
- 2003년 3월 17~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장

#### | 상벌사항 |

- 1997년 5월 30일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이화인” 선정
- 2002년 4월 21일 진명여자고등학교 “자랑스런 진명인” 선정



## 김청자 (제52회)

Mezzo soprano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독일 가곡 연구회 “리더크라이스” 회장

2006년 개교 100주년 2회 교훈상 · 창의상 수상

### 1970년 스위스 베른 Opera 극장에서 한국인으로 처음 무대에 데뷔하다.

#### 내가 주님을 만나기까지

**한달전** 나홀로 걸친 녹음을 끝낸 후 비록 몸은 지쳐 있었지만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일을 해낸 성취감에서 오는 기쁨이 있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강하게 온 것은 이제 나의 모든 것을 이 세상에 들어낸 것 같은 두려움과 동시에 느껴보는 자유로움이었다. 나의 몸과 마음 속 가득히 채워져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이 열기를 밖으로 뿜어냈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 자유로움에 취한 채 아침마다 묵상 속에 우면산을 다시 찾았다. 가을빛으로 단장한 나뭇잎 사이를 뚫고 다가오는 강렬한 빛의 아름다움에서 주님의 현존, 그 분의 사랑을 뜨겁게 느낄 수 있었다. 만일 그 분이 아니셨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이런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었을까?

11살에 고향인 춘천에서 영세를 받고 그 곳에 계셨던 아일랜드 신부님들의 배려로 성당에서 피아노와 오르겐을 배우고 성가를 부르게 된 것이 내 음악 삶의 시작이었다.

그 후 독일에 가게 된 것, 또 그 곳에서 공부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이 독일 신부님과 수녀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가능했었다. 1970년 나의 재능을 인정받아 한국인으로서 처음으로 유럽무대에 데뷔했고 1972년 귀국하여 국내에서도 명예와 인기를 얻었다. 1978년 더 큰 무대를 향한 나의 욕망은 다시 고국을 떠나게 했고 독일의 청중들의 갈채와 찬사는 나를 흥분시켰다. 그 갈채를 얻기 위해 나는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살아야 했다.

그렇게 갈망하던 세계의 무대가 나를 찾고 열광했지만 나의 마음속엔 늘 공허함이 있었다. 명예를 위해 사랑을 포기하고 사는 슬픈 여인의 모습이

었다. 1982년 런던에 있는 연주를 위해 탔던 비행기 안에서 아들 다니엘의 아빠를 만남으로써 나는 새로운 삶의 전환기를 맞게 됐다. 사랑하고 싶고 아이도 낳고 싶었다. 그래서 40살에 아들을 낳고 그 어떤 갈채보다도 더 큰 감동 속에서 엄마가 되고 평범한 남자의 아내로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게 되었다. 물론 계속 노래도 불렀지만 나의 욕망을 많이 접어둔채 가정 생활에 충실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다. 거의 10년을 세상 속에서 너무 즐기며 살았다. 나의 하느님을 까맣게 잊은 채...

1994년 한국 종합예술학교에서 초빙 교수로 와달라는 제의를 받고 남편의 반대를 무릅쓰고 오랫동안 접어두었던 “자아실현”이라는 욕망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기에 고국으로 달려왔다. 나는 재질있는 젊은이들을 가르치면서 기쁨과 보람을 느끼며 나의 결정이 옳았다고 스스로 위로하고 있었



▲ 왼쪽에 두번째 김청자, 박용경교장, 조상현 교수.

다. 1년에 4번 독일로 오가며 나의 일과 가정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다. 그러나 하느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듯이 내 욕망의 성취와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남편의 사랑을 잃은 나는 슬픔과 좌절로 비틀거렸고 기쁨과 희망만을 기대하고 돌아온 나의 고국생활은 한국적인 음악 풍토에 적응할 수 없는 나를 더욱 고독하게 만들었다.

50평생 그렇게 앞만을 바라보고 달려온 내가 이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느낌이었다. 내 자신이 만들어놓은 “나”라는 좁은 공간에 명예욕, 이기심, 우월감, 아집, 위선 등으로 가득채워 숨을 쉴 수 없이 고통스러웠다. 바로 그 때 고통이 은총으로 변하는 강한 힘을 느끼며 나는 내가 쌓아놓은 담을 부수고 광야로 뛰쳐 나왔다. 그것은 너무도 조용한 빈들이었다. 나를 짓눌렀던 무거운 옛 옷을 벗어던진 나의 모습은 한포기의 풀보다 더 연약한 존재였다. 그러나 그곳엔 내가 일생동안 추구해왔던 “아름다운 것”, “안락한 것”, “영원한 것” 그 모든 것을 지니신 가장 위대한 나의 주님이 서 계시지 않은가! 그 분은 나의 심장까지도 녹여내실 뜨거운 사랑으로 나를 감싸주셨다. 바로 이것이었다! 내가 그토록 숨가쁘게 온 세상을 떠돌며 찾아 헤맸던 것은 그 분의 사랑이었다. 그 분의 말씀과 사랑으로 새 옷을 갈아입은 나는 자유스러워졌다. 이제 나는 나에게 배움을 얻고자 하는 젊은이들에게 진리를 말할 수 있으며 사랑을 가르칠 수 있게 됐다. 아무리 혼란 시대를 살더라도 결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정의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 다시는 주님의 손을 놓지않고 그 분이 이끄시는 “더 높은 곳”을 향하여 가리라.

나의 삶을 통해 항상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신 하느님께 나의 감사와 찬미는 그치지 않을 것이며 나의 온 마음으로 드리는 이 찬양이 오직 하느님께 영광이 되고 또 찬양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히 내려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이다.

### 김청자 동문

- 1944년            춘천태생
- 1963년            진명여고 졸업 후 독일 유학
- 1964~1968년    독일 아우스브르크시 레오폴드 모짜르트 음악원에서 피아노와 성악 전공, 졸업
- 1968~1971년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에서 리드오라토리오, 오페라 전공, 졸업

- 1970~1972년 스위스 오페라단과 재학 당시 계약이 되어  
오펜 바하의 “호프만의 이야기”, 모짜르트의 “티토왕의 자비”,  
차이코프스키의 “유진오네긴” 등에서 주연
- 1972년 귀국 독창회 이후 수많은 독창회와 지방 순회공연  
오페라 비제의 “카르멘”, 베르디의 “돈칼로”,  
모짜르트의 “휘가로이 결혼” 등에서 주연  
중앙대학교와 연세대학교에서 재직
- 1978~1982년 독일 칼스루에 오페라단과 계약되어  
슈트라우스의 “그림자 없는 여인”, 바그너의 “니벨룽의 반지”,  
“트리스탄과 이졸데”, 베르디의 “아이다” 등에서 주연
- 1980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바그너의 “지그프리드”에 출연
- 1981년 이태리 나폴리에서 같은 오페라에서 출연
- 1982년 스위스 쥐리히에서 바그너의 “로엔그린”에서 주연  
런던 로얄앨버트 홀에서 “메시아” 공연
- 1982~1987년 독일 뒤셀도르프 오페라단과 계약되어 베르디의  
“일트로바토레”, 슈트라우스의 “엘레트라”, “살로메”,  
비제의 “카르멘” 등에서 주연
- 1985년 이태리 로마 방송교향악단 초청으로 헨델의 “에프타” 연주
- 1987년 오스트리아 잘쯔브르그에서 리스트의  
오라토리오 “크리스트” 연주
- 1988년 독일 5개 도시 순회 독창회  
(베를린, 함부르크, 프랑크 프르트, 뒤셀도르프, 뮌헨)
- 1989년 함부르크와 슈투트가르트에서 베르디 “레퀴엠” 연주
- 1990년 베를린 도이치 오페라에서 푸치니의 “나비부인”에서  
스즈끼로 출연
- 1991년 아욱스브르그에서 무소르그스키의 “보리스고두노프” 출연  
뉴른베르크에서 굴록의 “아울리스의 이피게니아” 출연  
Helmut Deutsch의 반주로 독일 가곡, 한국 가곡 CD 취입
- 1992년 뮌헨에서 드보르작의 “스타바트 마테르” 연주
- 1993년 서울 오페라극장 개관기념공연  
홍연택 가곡 “시집가는 날” 출연 독일 쾰른에서  
베르디의 “가면 무도회” 출연  
뉴욕에서 독창회
- 1994년 독일 슈투트가르트 교향악단과 말러 교향곡 3번 연주  
독일 막데부르그 교향악단과 말러 교향곡 2번 연주  
한국 오페라단에서 비제의 “카르멘” 공연

-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 기념초청공연 “춘향전”에 출현(글로리아 오페라단)
- 2004년 12월    감사의 노래(60년 삶을 함께한 분들께 드리는 노래)
- 1994년~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초빙교수로 재직중  
독일 가곡 연구회 “리더크라이스” 회장

**지나가** 시간들이 결코 덧없이 보낸 세월이 아니었고 또 어떤 사소한 일들도(좋은, 나쁜) 저의 성장을 위해 꼭 필요했던 것임을 알게 되었으며, 지금 제가 서있는 이곳, 이 모습이 결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삶이 더욱 더 경이롭게 느껴진답니다.

저는 60년 삶을 통해 많은 것을 얻었고 또 많은 것을 놓았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제가 품고 놓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열정」이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후반부를 시작하면서 또 다른 여정을 준비해야 하는 이때, 모든 것을 다 놓아야 한다면 이 「열정」만큼은 놓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 삶의 원동력이 되어 제가 가야하는 길의 동반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아무리 험한 길이었어도 저는 걸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야 저는 압니다. 그 「열정」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를... 그것을 알기까지 60년이 걸렸으니 이제 저는 기뻐하며 저와 함께 걸어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감사의 기쁨을 나누어야겠습니다. 저는 음악을 통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하느님의 은총을 받았으니 이 「음악」을 통해 보답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04. 12. 12(일요일)

「60년 삶을 함께한 분들께 드리는 감사의 노래」

-인사말 중에서-



## 홍양자 (제52회)

이화여대교수  
한국올림픽위원회(KOC) 부위원장  
KOC올림픽 아카데미 위원장  
대한배구협회 부회장, 세계배구연맹(FIVB) 이사

### | 배구 선수 생활 |

중 1때 키가 반에서 세 번째로 크다는 이유로 신체육 선생님(신현순 교장 선생님)과, 유체육 선생님(고 유기정교수님)께 테스트를 받고 배구선수가 되었다. 노트정리를 항상 잘해서 그 공책을 국어 선생님께서 반 전체에게 돌려가며 보여주었던 정명자는 공부도 반에서 1·2 등을 했다. 그 친구도 배구선수 되었고, 반장이었던 이순자, 수예시간에 늘 잘해서 칭찬을 받는 김용희, 그리고 윤화자, 우리는 모두 배구선수가 되어 늘 친하게 지냈다. 6교시 수업이 끝나면, 체육관이 없어 운동장에서 연습을 했는데 서브를 넣다가, 스파이크를 하다가 온실 유리를 깨서 온실담당 생물 선생님께 불러야 단맛고 혼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한번은 아이스끼끼를 입에 물고 운동장을 뛰어야 하는 벌을 받았다. 운동을 한 후 허기가 저서 교문 앞 대영빵집에서 사과와 빵 그리고 아이스끼끼를 배구부 친구들과 사다먹다가 혼육 선생님한테 들켰다.

용희는 빵을 먹다 걸려서 빵을 물고 화자는 사과 먹다 걸려서 사과를 물고 운동장을 뛰었고, 나와 명자는 아이스끼끼 먹다가 걸려서 아이스끼끼를 물고 뛰었다. 나중에는 아이스끼끼가 녹아 옷에 흘렸고 드디어는 막대기만 물고 운동장을 뛰게 되었다.

또 한번은, 운동선수 전원이 (농구, 배구, 정구, 탁구) 합숙을 했다. 이세정 교장 선생님께서 직접 선두 지휘를 하시고 공크기 순서대로 교실 한방에서 교실바닥에



▲ 국제스포츠대학연맹학술위원

잠을 재우셨다. 운동선수에게는 정신 훈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과부하 운동은 물론, 힘든 청소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 저녁에는 선수들의 교양을 쌓아야한다시면서 한자가 많이 섞인 신문을 운동부 순서대로 읽히게 하셨다. 식사시간에는 떠들었다고 카레라이스가 담긴 양은그릇을 물고 모두 벌을 받은 적도 있었다.

운동을 하고 배는 고프는데 코앞에 밥그릇을 물고 벌을 받는 모습은 설명을 안 해도 상상이 갈 것이다.

나는 이렇게 고 3까지 진명에서 배구선수로 성장하였다. 선배언니들은 운동하며 공부하고, 공부하며 운동하는 선수생활과 학교생활을 모범적으로 하였다. 아직도 배구부 모임을 갖고 늘 서로를 믿고 의지 하며 형제들처럼 지내고 있다. 선배언니들의 모범적인 선수생활과 학교생활을 후배들이 배웠고, 공부와 운동을 어느 한쪽 소홀히 하지 않았다. 가장 모범적인 선배는 정천경 선배였다. 반에서는 반장이었고, 전교에서 대대장을 했었고, 진명 바른 자세상 까지 받으며, 운동도 잘하셨고, 공부도 반에서 1등을 하셨던 정천경 선배의 모습은 후배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셨다. 그 당시에 배구 선수 선배들은 모두 공부를 잘하셨고, 운동도 잘 하셨다. 우리 동기나 후배들도 공부와 운동을 모두 잘 하는 편에 속했다.

### | 이세정 교장님 회고 |

50년 말, 60대 초 체육문화는 남성위주였고 유감스럽게도 승문 사조 등의 전통적 가치관은 체육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형성하여 체육활동의 기피 및 경시풍조를 조성했던 때였다. 특히 여자가 운동을 하면 장래성이 없다는 것이 통념화 되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여졌던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세정 교장선생님께서서는 여성체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셨고 여성 체육에 대한 부정적 관념을 긍정적으로 전환토록 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진명체육” 속에서 강조 하셨다.

어느 학교도 해 낼 수 없는 절도와 아름다움의 체육대회를 그 좁은 운동장에서 치러냈고, 부족한 체육시설과 좁은 학교 공간속에서도 각 중 운동부를 육성하셨다. 조회시간에는 학생들을 칭찬 해주고 표창하는 기회를 늘 가졌다. 수학 경시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 학생과 더불어 운동 시합에 나아가 우수한 성적을 거 둔 선수들을 전교생 앞에서 칭찬 해 주시고 격려 해 주셨다.

이와 같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대우를 해 주시므로써 운동선수들의 자존감을 높여 주셨다. 이세정 교장선생님은 학교체육 강화를 통



▲ 아시아 스포츠 연맹 집행위원회 AWG MEETING

하여 진명 학생들에게 올바르게 바람직한 체육의 가치관을 정립 시킴으로써 성인에 이르기까지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추구하도록 지도 해 주신 분이시다. 모든 선생님들께서 운동선수들에게 잘 해주셨지만, 특히 중 2, 중 3때 연거푸 담임을 맡아 주셨던 박우선(세계사) 선생님과 고 1, 고 2때 계속 담임을 맡아 주셨던 이정숙 선생님(국어) 도 고마우신 선생님들로 기억된다. 연속해서 같은 한 선수를 맡아 주시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진명에서의 배구 선수생활은 승부 지상주의 외에는 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지금과는 달리, 학업과 운동을 병행 하면서 운동을 통하여 나 자신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었고, 학교 내의 활동에서 배울 수 없는 여학생으로서의 사회적 참여 기회를 넓힐 수 있었으며 이것은 나의 여권 신장의 길을 여는 의미를 일깨워 주었고, 글로벌시대에 대비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밑거름이 된 것이다. 즉, 진명 체육은 여성의 힘을 재인식하게 하였으며 과거 유교의 폐쇄적인 사고방식을 깨뜨려 나가는 획기적인 의식구조 개선에 앞장 선 교육이었다고 생각된다.

### | 학업생활 |

1967년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동구여자 상업고등학교에서 체육교사 생활을 시작했다. 직장인으로서의 첫 출발이었던 그 곳에서 열성적으로 열심

히 일했다. 학생들이 많이 따랐고, 나는 학생들이 좋아서,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냈고 늘 학생들과 함께 했다. 그 덕분에 지금도 애 엄마가 된 졸업생들이 학교로 찾아오곤 한다. 첫 정이라서 그런지 남다른 정이 느껴진다. 딱 1년을 그 곳에서 보냈고, 1년 후 모교 진명에서 교사 생활을 하였다. 그 후 일본에 교환 학생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다. 운이 좋은 편에 속하는 나는 모든 게 감사하다는 생각으로 살아간다.

그 당시에 여자가 유학을 간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아버지께서 의사로서 큰 병원을 하셨기 때문에 부유한 환경 속에서 유학을 갈 수 있었다. 일곱 형제 중 남자 형제 셋이 각 분야에서 저명한 의사가 되었고, 하나는 사업가로, 여자 형제 셋은 모두 이화여대의 동문이 되어, 각자의 반듯한 길을 가고 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이다. 사실 유학을 결심 한 것은 1967년 12월 (동구여상 재직 시) 겨울 방학 중 일본에 체육 대학 시찰 팀에 끼여서 갈 기회가 생겼다. 각 대학 교수님들과 함께 일본 주요 체육 대학의 연구실들을 중점적으로 둘러 보았다. 그 때에 유학을 결심 하였다. 일본 체육의 과학화가 놀라웠고, 체육학의 접근법이 한국과는 매우 달랐고 너무 많이 발전 된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1967년 1년간 동구여상 교사생활을 마치고, 1968년 정월부터 모교 진명에서 1년간 체육교사 생활을 하였다. 여러 은사님들과 함께 교직생활을 하다보니, 좋은 점도 있었고 어려운 점도 있었다.

중 1 때 가르쳤던 학생 중 신은경교수, 조은미교수 그리고 신상미교수는 현재 이화여대 체육대학에서 함께 든든한 동료교수가 되어 지내고 있다. 1년간 모교에서의 교사생활을 접고, 1969년 일본 유학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지금은 한류 열풍이다 뭐다해도 한국을 좋아하는 일본인들이 많지만, 그 당시만 해도 한국인을 대하는 태도가 곱지 않았다. 그러나 그 곳에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배구로 다졌던 나의 체력과 호된 훈련 과정에서 얻은 인내와 극복 정신이었다.

나는 일본 유학 생활에서 학문적으로 성장 할 수 있었다. 일본 여자 체육 대학에 3학년으로 편입하여 다시 대학 공부를 하였다. 하야미 아쓰시 교수 연구실에 소속 되어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하였다.

그 연구실은 인체해부학 및 인류학 연구실이었다. 현재 내가 가르치고 있는 해부학, 인체미학 과목은 하야미 교수님 연구실에서 공부한 덕택으로 생각한다. 하야미 교수님은 학문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매우 존경스러운 훌륭한 분이시다. 한번은, 연구실에 그 학교 교무과장님이 찾아왔다. 하야미 선생님께서 교수로 승진하시는 서류를 계속 올리지 않고 마다하셔서 설득

하러 오셨다고 한다. 오랜 시간 동안 설득을 시도 하였지만, 아직 자격이 안 된다고 거절하시는 하야미 선생님을 보았다. 결국 교무 과장은 그대로 그냥 돌아갔다. 그곳에서 나는 학문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교훈도 얻게 되었다. 나는 그 연구실에서 “단면 시에 일어나는 뇌파의 변화와 운동의 영향”에 대한 학부 논문을 썼다. 논문 쓸 때 잠을 안 자고 연구 피험자가 되어 주었던 친구들은 아직도 계속 연락하며 지내고 있다. 그 중에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리듬체조 교수를 비롯하여 각자 전문 분야에서 아직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일본여자체육대학을 졸업하고, 그 후 나의 시야는 현해탄을 건너가는데 만족하지 않고 더 넓은 태평양을 건너가기를 원했다. 원하는 것은 기도로서 해결하였다.

드디어 1971년 태평양을 건넜다. George Peabody 사범대학교 대학원에서 M.A (석사) 과정과 Ed. S (교육 전문가 학위) 그리고 Ed. D (박사) 과정을 마쳤다. 넓은 들이 많고, 나무가 많고, 대학과 교회가 많았던 Nashville, Tennessee 에서 미국 유학 생활을 하였다.

세상을 보는 넓은 안목과 서양인의 질서속의 기다림을 배웠다. 아무리 급해도 줄을 서서 참고 기다리는 것을 배운 것은 큰 소득이었다.

Peabody 대학원에서 장애인을 위한 특수체육을 공부하였다. 세금을 거두어 사회복지에 쓰는 미국 사람들은 인간을 아끼고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 중복 장애로 인하여, 사람 구실을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거둔 세금을 사용하는 것이다. Peabody 대학교는 특수교육과 특수체육의 프로그램이 잘되어 있었다. 신체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을 촉진시켜주고 교육 및 재활과 치료의 목적으로서 체육 프로그램을 장애인에게 적용시키는 것이다.

한국에 최초로 1977년에 대학 교육과정에 특수체육 전공을 설립하게 된 것은 Peabody 대학원에서 특수체육을 전공 한 덕분이었다.

### | 사회생활 |

1976년 8월에 이화여대 교단에 서게 되었다. 이화여대에 재직하자마자 배구부를 창단 했고 배구선수들을 양성 하였다. 지금도 배구 지도 교수로서 배구와의 생활은 계속하고 있다.

물론, 내가 가르치는 전공과목은 특수체육과 해부학이고 교양 과목으로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체미학을 가르치고 있다. 이와 같이 교직생활을 하면서, 주어지는 교외 사회 활동에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모두가 다 중요한 일들이기 때문이다. 배구선수생활 덕분에 세계 배구연맹(FIVB)



▲ 2005 아테네올림픽 과학기술대회강연

부회장을 역임했고 지금은 FIVB 이사로 활동 중이다.

지난 2005년 9월에는 Islamic Womens Game이 이란, 테헤란에서 열렸다. 나는 배구 총 감독관(General Supervisor) 으로 초청받아 참가하였다. 제 3세계의 아랍 여성들이 하잡(스카프)을 쓰고 스포츠를 어느 정도 할 것인가에 흥미를 갖고 참가 하였다. 그들은 변해 가고 있었다. 하잡은 그들의 스포츠 활동에 방해를 주지 않고 있으나, 그러나 많은 아랍국가 가운데 이란은 여성의 사회적 활동과 참여에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인상 깊었던 일중에 하나였다. 그리고 국제적 활동 중에는 세계 대학 스포츠 연맹(FISU) 의 학술위원(CESU) 으로 선출되어 활동하고 있다. 스포츠는 유럽 국가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다. FISU도 예외는 아니다. 2년에 한번씩 후보자들 가운데 선거를 하여 선정된다. 아시아 여성은 나 혼자이므로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된다.

2005년 1월에는 인스부르크에서 회의가 있었다. 세계대학생들을 위한 스포츠 교육에 대한 것을 주로 다루고 있다. 또는 아시아 여성스포츠 연맹(AWG) 집행 위원회에는 아시아 여성 스포츠의 발전을 위한 기구로써 2년에 한번씩 각 아시아 국가 여성 체육인 대표가 모여서 선거를 하게 된다.

2005년 5월에 예멘에서 회의를 가졌고 투표도 있었다. 이렇게 국제적으

로 내가 활동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초창기의 여성체육인으로서 개척자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경쟁상대가 드물었던 때에 시야를 넓혔던 덕분이라고 본다. 지금은 많은 여성 리더들이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무한 경쟁시대에 도래했기 때문에 탁월한 능력과 실력이 있더라도 리더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국내에서도 대한 올림픽 위원회(KOC) 부위원장과 KOC 올림픽아카데미위원장의 중책이 맡겨져 있고, (사)한국여성체육학회장과 대한배구협회 부회장을 하고 있다. 하나라도 게을리 할 수 없는 직책들이다.

만약 내가 이 모든 일들을 성공적으로 잘 수행하고 있다는 평을 듣는다면, 그것은 오로지 기도와 운동선수생활 경험에서 오는 단련된 체력과 정신 때문일 것이다.

내 생활신조는 그 저 “열심히 살자” 이다.

매년 새 수첩에 쓰는 글귀는 “올해도 열심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다. 무엇이 되겠다고 목적을 정해 놓고 그것을 향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살다보면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어느 위치에 서있게 되는 사람도 있다. 나는 후자에 속하는 편이다. 이기겠다는 생각보다는 열심히 시합에 몰두하면 결과가 승리로 이끌어지게 된다. 오늘을, 이 시간을 아깝게 소중하게 생각하며, 기도로써 간구하고, 열심히 살아 갈 것이다.

#### 홍양자 동문

- 한국올림픽위원회(KOC)부위원장
- KOC 올림픽아카데미위원장
- (사)한국여성체육학회 회장
- 대한배구협회부회장
- 세계배구연맹(FIVB)이사
- 세계대학스포츠위원회(FISU)학술위원(CESU)
- 아시아여성스포츠연맹(AWG)집행위원



## 김현숙 (제54회)

2002년 SBS 추석프로 방영(한국을 빛낸 사람들)  
고려대 의대 졸업  
미국 윈드송 방사선과 병원장

###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다

#### 단돈 1백달러 갖고 도미, 15년만에 거대 병원 원장이 되다 (Windsong 방사선 병원 원장)

세계적 방사선 병원으로의 꿈  
미국 윈드송(Windsong) 방사선과 병원 김현숙 원장

미국 뉴욕주 버펄로시에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 매우 잘 알려진 병원이 있다. 전체 뉴욕주에서 가장 많은 환자들이 찾는다는 '윈드송 방사선과 병원(Windsong Radiology PC)'. 건물 면적만 해도 2천8백 평에 달하는 이 병원의 원장은 아담한 체구를 가진 동양계 여성. 바로 한국인 김현숙 원장(진명 54회 졸업생)이다. 30여 년 전 미국으로 건너가 1987년 윈드송 병원을 건립한 그녀는 뉴욕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 가운데 한 명이 됐다.

#### | 단돈 1백 달러 갖고 도미, 15년만에 거대 병원 원장 |

고려대 의대를 졸업한 김현숙 원장. 미국에서는 '닥터 성'이라 불리는 그녀는 버펄로 인근 지역에서는 이미 대단한 유명인사다. 윈드송 병원을 내원하는 환자는 하루에 7백여 명, 1년이면 20만 명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숫자다.

버펄로 외곽 주민은 물론이거니와 거리가 꽤 먼 펜실베이니아주에서도 먼 거리를 무릅쓰고 환자들이 찾아온다. 미국의 유력 의료잡지인 <Diagnostic Imaging(다이어그노스틱이미징)>에 따르면 윈드송 병원은 '전 미국에서 가장 외래환자가 많은 10대 방사선 클리닉' 중 8위, 뉴욕주에서는 단연 1위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지역정부 및 의료계, 대학으로부터 받은 상도 한두 개가 아니다. 미국 암협회상, 앰허스트 여대의 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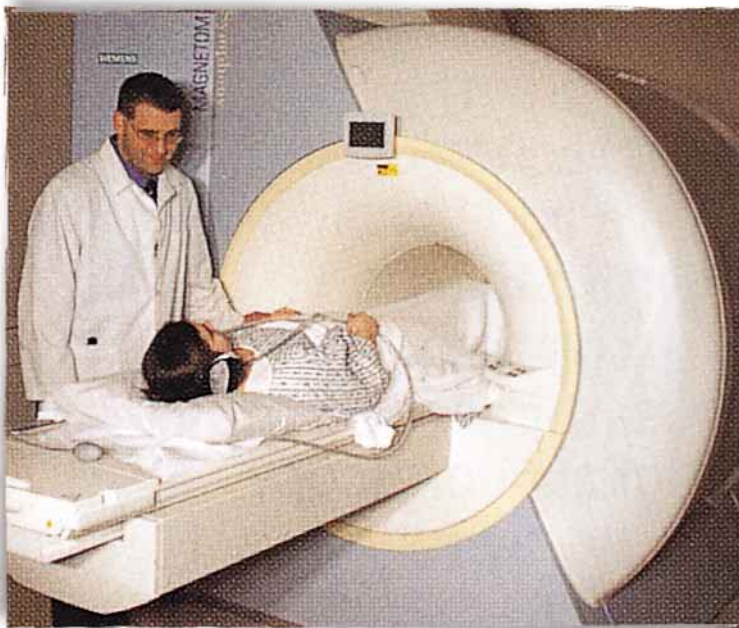
▲ Call(716) 631-2500 for an appointment at any of our locations.  
(전 미국에서 외래환자가 많은 윈드송병원 전경)

상, 지역봉사상, 사업가에게 수여하는 권위있는 ‘언스트 & 영(Emst & Young)’ 상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야 할 수 없을 정도다.

“미국에 온 후 인턴으로 일하다가 5년 후 레지던트와 펠로우십을 끝내고 버펄로 시스터즈 체리티 병원에 근무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겨울에 얼마나 춥고 눈도 많이 오던지 오래 살 곳이 아닌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그게 1년, 또 1년이 지나면서 벌써 30년이 돼버렸네요”

그 후 체리티 병원에서 세인트 조셉병원으로 옮긴 그녀는 묵묵하면서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으며 환자들을 돌봤고 점차 환자들이 늘어나기 시작

했다. 1년 동안 무려 3배가 늘어나자 병원측은 그녀에게 ‘파트너십’을 부여했다. 그때부터 그녀는 병원의 발전을 위해 여러가지 제안을 하기 시작했다. 환자들에게 X레이 결과를 당일에 알려줌으로써 환자의 편의를 도모하자는 것. 하지만 보수적인 의사들은 그녀의 제안을 거절했다. 그렇게 하려면 주말에도 병원 문을 열어야 하고 신규 장비의 도입 문제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답답해하던 차에 남편 성준제씨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다.



▲ 최첨단의 장비 구비



▲ 원도송 병원에 근무하는 12명의 의료진들

“남편은 놀랍게도 ‘그러면 당신이 직접 개원해보지 그러느냐’고 말하더군요. 하지만 의료장비며 건물구입이며 돈이 많이 들텐데 어떻게 하느냐고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남편 얘기를 듣고 한번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남편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망해도 내 탓을 하지 말라고요.”

대학시절 만나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을 한 남편 성준제 씨는 김원장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그는 한국에서 연세대를 졸업, 미국에서 MBA를 거쳐 CPA를 취득하고 버펄로의 KPMG라는 회계회사에 근무하고 있었다.

부부는 당시 그들의 전 재산이었던 조그만 아파트를 팔아 할렘가에 있던 문 닫은 피자가게 부지를 사들였다. 병원 이름은 ‘할렘 래디올로지 P.C.’ 개업 첫날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무려 31명의 환자가 내원했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아예 환자들은 병원 밖까지 길게 줄을 늘어서기 시작한 것이다. 몇 개월 뒤에는 인근에 병원을 더 개업해야 할 상황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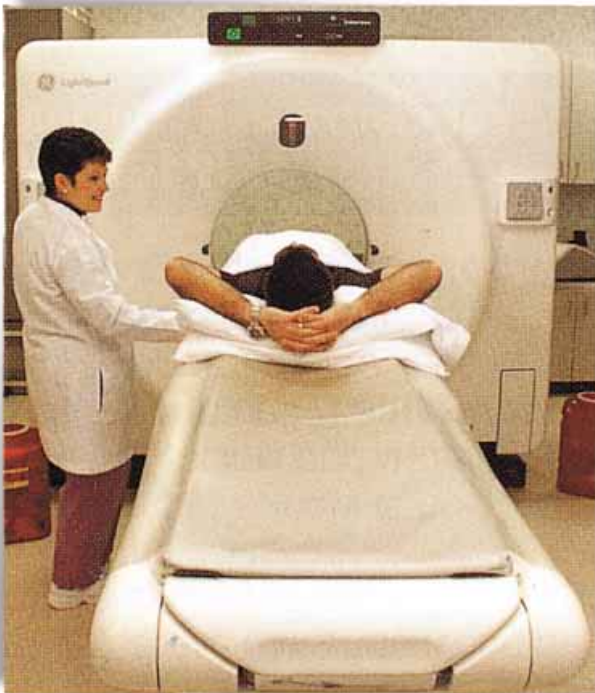
이르렀다. 늘어만 가는 환자 수와 병원의 경영을 아내 혼자 다 감당하기 힘들자 남편 성씨가 자신의 일을 그만두고 본격적인 병원 매니지먼트에 뛰어들어 지금은 윈드송 병원그룹의 회장직을 맡고 있다.

### 모교와 버펄로 대학에 거액의 장학금 기증

윈드송 병원의 특징은 철저한 환자 중심의 시스템, 그리고 직원을 가족처럼 여기는 분위기다. 우선 환자들은 X레이 검사 결과를 당일에 알 수 있다. 여타 병원에서는 촬영 필름을 다른 전문의에게 보내기 때문에 길게는 2주일이나 걸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윈드송에 근무하는 12명의 전문의들은 모두 뛰어난 의술을 자랑하고 있고 장비 역시 최상으로 갖추고 있어 그 어느 병원보다 빠른 진료와 처방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직원들에 대해서도 김원장은 '패밀리'의 개념을 도입했다. 생일날이면 어김없이 파티를 열어주고 특별 상여금도 주었다. 또 정기적인 피크닉과 연말파티 등을 통해 가족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다. 직원들이 환자들에게 한결같이 친절하고 정성을 다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김 원장은 모교에 대한 애착과 긍지도 남다르다. 1년에 두 번 열리는 고대 교우회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은 물론 몇 년 전에는 버펄로 지회장을 맡기도 했다. 고대 교우회 버펄로 지회는 미국에서 새 학기가 시작되는 9월과 구정 때 모임을 갖는데 유학생, 현지 이민자 등을 모두 포함하여 한번에 30~40명 가량이 모임에 참석한다.



김 원장은 지난 2000년에는 버펄로 대학에 1백만 달러의 장학금을 기부했다. 대학과 지역 정부에서는 '모범 이민자'라는 칭송을 주었고 그녀의 병원은 자랑스러운 한국인의 위상을 떨치는 중요한 발판이 되고 있다. 또한 그녀는 모교인 고려대에도 상당한 액수의 장학금을 기부했다. 이러한 장학금 기부에 대해 김원장은 '당연히 할 일'이었다고 말한다.

"남편은 중학교 졸업 후에 장학금으로 쭉 공부를 했어요. 저 역시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게 아니었고요. 그런 만큼 우리 부

부는 장학금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병원만 운영하면서 편안히 먹고 살 수도 있지만 저희가 학창시절 동안 받았던 고마움을 외면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어요?"

김 원장은 윈드송 병원을 메이요 대학병원과 같은 대형병원으로 키우고 싶은 바람을 가지고 있다. 현재 그녀의 딸이 방사선과를 전공, 뉴욕대의대를 거쳐 펜실베이니아 의대에서 레지던트로 근무하고 있는 만큼 그녀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이러한 소망 이외에도 또 하나 바라는 것이 있다. 바로 봉사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여유가 되면 지속적으로 학교에 장학금을 기부하고 싶어요. 그리고 버펄로 의대 병원에서 암으로 죽어가는 노인들을 돌보는 호스피스 활동을 하면서 집 없이 아이들과 힘들게 살아가는 여성들을 돕는 자원봉사 활동도 곧 할 계획입니다.”

김 원장의 삶은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제안한 ‘의료인의 선서’에 나오는 그대로의 모습이었다. 양심과 위엄으로 의술을 베풀고,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 번째로 생각하며, 종교와 국적·정당 등의 사회적 지위를 초월하여 인류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바로 그런 ‘아름다운 삶’ 말이다.

글 | 이남훈 기자

사진 | 오상준(고려대 정보공학과 93학번, 버팔로대 유학중)

세계속의 한국인 2003 Summer



## 문정희 (제55회)

현대문학상, 소월시문학상, 정지용문학상 수상

Naji Naaman's Literary Prizes 2004 공동 수상자로 선정

### 먼 길

나의 신 속에 신이 있다.  
이 먼 길을 내가 걸어오다니  
어디에도 아는 길은 없었다.  
그냥 신을 신고 걸어왔을 뿐

처음 걷기를 배운 날부터  
지상과 나 사이에는 신이 있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뒤통거리며  
여기까지 왔을 뿐.

새들은 얼마나 가벼운 신을 신었을까  
바람이나 강물은 또 무슨 신을 신었을까

아직도 나무뿌리처럼 지혜롭고 든든하지 못한  
나의 발이 살고 있는 신  
이제 벗어도 될까, 강가에 앉아  
저 물살 같은 자유를 배울 수는 없을까  
생각해 보지만

삶이란 비상을 거부하는  
가파른 계단

나 오늘 이 먼 곳에 와 비로소  
두려운 이름 신이여!를 받음해본다.

이리도 간절히 지상을 걷고 싶은  
나의 신 속에 신이 살고 있다.

-양귀비꽃 머리에 꽃고- (시집중에서)

## | 문학적 자서전 |

당당하고 호쾌한 득음을 위하여

- 집시와 날라리가 아니면 당당하고 호쾌한 그 무엇으로 득음하고 싶었다. 결국 쓰고 또 쓰는 길밖에 없지 않은가.

### ▶ 떠나온 고향과 부모 그 그리움 사이로 스며든 문학

열한 살의 여자아이가 세상을 향해 홀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나는 아무튼 그 나이에 혼자서 부모 곁을 떠나 유학길에 올랐다. 큰 부자는 아니지만 그 부근에서는 비교적 토호였던 아버지의 교육열은 일찍이 오빠들을 서울로 끌어올린 후였다.

나는 고향인 보성의 시골 초등학교 4학년을 마치고 광주 서석초등학교로 전학했다. 그리고 새로 전학간 이 도시 학교에서 아직 어리벉벉한 시골뜨기 소녀는 멋도 모르고 써낸 무슨 글짓기 대회에 띄어 하니 당선되어 큰 상금을 받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 나는 대번에 글 잘 쓰는 애로 부각되었고 그후 그런 상은 몇 번인가 더 주어져서 주위를 깜짝 놀라게 했다.

기실 나의 어린 영혼에는 이미 외로움이 깊이 스며 들었고 눈물 많은 아이로서 밤마다 일기를 쓰고 시를 끄적이고 있었다. 고향과 부모를 떠나 온 외로운 공간에 자연스럽게 문학이 들어온 것이었다. 음악 선생님은 어린이 합주반 지휘를 맡기고 싶어하기도 했고 그림에도 칭찬을 받았지만 나는 장차 문학가가 되겠다고 굳게 마음을 굳혔다.

그러나 전남여중에 진학하고 나서 나는 당황했다. 내가 쓰는 시는 시가 아니라 동요나 동시 수준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고독”이니 “이별”이니 “노을에 떨고 있는 소녀”니 하는 엄청난 문귀가 들어 있는 상급생 언니들의 작품에 은근히 겁이 났던 중학 시절이었다. 그래도 그때 많은 책을 읽었다. 중학교 2학년 때 서울로 전학을 했다. 나는 오빠와 합류했다. 오빠는 서울대학교에 미국 미네소타대학을 수학한 엘리트였다. 그리고 그해 가을 아버지의 부음을 받고 고향에 내려갔다.

마당가 큰 감나무를 돌아 아버지의 관이 힘센 마을 사람들의 손에 돌려나갈 때 열네살의 소녀로서는 너무 일찍 생에 대한 처절한 허무를 느꼈다. 그러나 진실로 나의 외로움과 목메임은 그 다음에 두고 두고 찾아왔다. 아버지는 어린 딸을 두고 떠나면서 오빠들에게 “사범대학이나 약대를 보내라”고 유언하셨다고 한다.

그러나 그후 진명여고에 진학한 1학년 가을, 나는 뜻하지 않은 소식에 또 한 번 놀라게 된다.

여름방학 숙제로 써낸 <형광등>이라는 시가 이화여대 주최 전국 여고생 백일장에 입상된 것이었다. 나는 상급생 언니들 속에 끼여서 즉흥 백일장에 출전했고 그날 즉흥부에서 다시 장원에 당선되었다.

나는 갑자기 진명에서도 글 잘쓰는 애로 부각되어 연이어 성균관대학에 가서 또 장원에 당선되었다.

학교에서는 확고부동하게 인정받는 학생이 되었고 그후 졸업때까지 스무 번이 넘는 문학상을 받았다. 나는 이 고교시절을 기념하기 위해 <꽃숨>이라는 여고생 최초의 시집을 내기도 했다.

▶ **천재병을 앓으며 오만한 날개를 퍼덕이던 대학시절.. 그리고 등단**

동국대 백일장 장원의 인연과 시집 <꽃숨>의 제목과 서문을 써주신 미당 선생님의 주선에 따라 동국대에 진학했다. 아버지의 유언과 집안의 반대를 물리치고, 또한 대학 전학년 장학 특혜를 제시했던 어느 문과 대학을 물리치고 미당 문하를 선택한 결과였다. 진명에서는 졸업 때 최고특기상으로 학교마크가 달린 금목걸이를 주었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문학수업을 기대했다. 그러나 대학시절은 그리 행복하지 못했다.

미당의 총애와 문학분위기는 더없이 좋았지만 나는 이미 유명해져서 멋내고 연애하고 잘난 체하기에 바빴다. 괜히 천재병 비슷한 것을 앓으면서 관념어와 추상명사로 무성한 대학의 숲에서 오만한 날개를 퍼덕거렸다.

대학 4학년 초여름 새로 창간한 <월간 문학> 신인상에 작품 <불면>으로 당선 데뷔했다.

그러나 데뷔를 계기로 문학으로 깊이 침잠하려던 나는 졸업과 함께 여성지 기자로서 사회의 첫출발을 하면서 삶을 관념이 아니라 현실로서 끌어안게 되었다.

더구나 돌연한 결혼은, 말하자면 너무나 문학적이어서, 어이가 없을 지경이었다.

신촌에서 하숙생활로 시작한 신혼은 그냥 별거승이었다. 지금도 그 시절이 비현실처럼 떠오른다. 한편 그지없이 아름답기까지 하다.

눈오는 날, 그의 첫 월급 만팔천원 가운데 4천원을 주고 우크렐라라는 네 줄짜리 악기를 사서 “부베의 연인”이니 “맨발의 청춘” 등 당시 유행하는 노래들을 키며 밤마다 시를 썼었다.

그리고 두어 달 후 나는 한 여자중학교에 취직이 되어 세상 속으로 환원되었다. 일 년쯤 뒤였던가, 내 소녀 시절의 문학적 재능과 오만한 처녀 시절을 기억하는 한 선배가 원고 청탁을 했을 때 나는 그 앞에 만삭의

여자가 되어 나타났다. 그의 눈가에 일어나던 경련을 나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그래도 나는 열심히 글을 쓴 셈이다. 단칸방이었기에 혹시 자다가 불을 켜면 다른 사람이 깰까봐 기억자로 된 군용 카키색 후렛쉬를 하나 사다 놓고 그 불빛 아래서 뭔가를 끝없이 끄적이곤 했다. 낮에는 직장에서 시달렸지만 후렛쉬 불빛 아래 배를 깔고 누우면 집중이 되고 행복했다. 첫시집 <문정희 시집>을 냈다. 그리고 열심히 시를 쓰는 한편 시극도 썼다. 기실 고교 시절 나의 당선작 가운데는 소설부 장원도 있었고 희곡 부에서 당선을 한 것도 있었다. 나에게 굳이 시만이 익숙한 형식은 아닌 것이었다.

시극 <나비의 탄생>을 쓰면서 많은 설화들을 읽었다.

이 시극은 <현대문학>에 발표되었고 동시에 지금은 없어진 명동 예술극장무대에 올려지게 되었다. 중국의 연리수기(連理樹記)에 나오는 얘기로서 한국 중국 일본에 공통으로 퍼져 있는 이야기였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유독 그것이 우리나라에 와서, 여인의 흰옷자락이 나비가 되었다는 꼬리가 붙은 대목이었다. 나는 바로 이것을 시극으로 형상화시켰었다.

야간학교 흐릿한 불빛 아래 깨알처럼 시를 쓰고 그것을 <땃뉘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묶어 시 시극집 <새떼>를 펴냈다. 이 시집으로 제 21회 현대문학상을 받았다. 데뷔 7년 만의 일이었다.

### ▶ 예술에서 반복과 답습이란 있을 수 없다

한편 문인극에 출연하여 카페 테아트르 무대에 배우가 되어 서보기도 했지만, 시대는 암울하고 삶은 고달팠다. 두 아이를 두고 야간 학교 교사생활을 하는 힘들고 산문적인 시기였다. 더구나 <새떼>에 수록된 3편의 시가 검열에 걸려 삭제 딱지가 붙어 반송된 적도 있었다. 나는 유신 이후 제한된 표현에 대한 답답함과 부자유한 사회 현실에 깊은 회의를 갖기 시작했다.

신님을 입으로 부르짖고 죽어간 소녀 관순의 자유혼과 열정을 쓰기로 작정하고 아우내 장터 일대를 답사했다.

그리고 특별한 문학세계의 변모없이 습관적으로 시를 쓰고 그것이 적당량 모이면 시집을 내는 것에 속으로 반발했다. 그래서 그후 약 8년 동안 시집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문제는 아니었다. 나의 이

오만은 결국 아무 효과도 내지 못하고 주위의 기대를 저버리는 결과와 소외만을 가져왔다.

나는 진명여고를 끝으로 교사생활을 마감하고 동국대에서 <노천명시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시대는 드디어 80년대 오월 광주로 이어졌다. 암울한 잿빛과 위기의식 속에 오래 버르던 먼 여행길에 올랐다.

외교관이었던 오빠의 도움이 있었지만 한 잡지사와의 계약으로 난생처음 외국 땅을 밟은 것이었다. 인도 방글라데시 버마 네팔 그리고 태국을 거쳐 서남아에서 동남아로 이어지는 이 여행 동안 나는 내 육체와 정신 속에 잠들고 있던 모든 감성의 세포가 한꺼번에 눈을 뜨는 충격을 받았다.

여행중 내내 나를 따라 다니는 “군인들이 학생들을 쏘죽이는 나라”에서 온 작가로서의 슬픔에 몸을 가눌 수가 없었다. 굶주린 거지들의 무소유와 시간과 숫자에 대한 무개념을 체험했다. 정치와 종교 그리고 무한한 시간들이 쌓여서 만든 충격적인 색깔과 성속(性俗)들과 영원성의 문제에 찬란히 눈물을 흘렸다.

“오랫동안 나는 잘못 살았구나.”

뜨거운 땅에 입맞춤하고 몸서리치며 일어섰던 그해 여름 이후 나는 아름다운 허무감 속에서 내내 어지러웠던 그 여행을 지금까지도 그리워하고 있다.

나는 더 크게 더 넓게 일어서기로 했다. 그리고 그동안 썼던 시집 원고를 넘기고 어린 아이 둘을 데리고 뉴욕으로 갔다. 남편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뉴욕대학교 대학원 종교교육과의 석사과정에 입학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유학은 힘들었다. 첫째 너무 외로웠고 너무 고달팠다. 언어는 부족했고 뉴욕이라는 황무지는 어느 누구도 단숨에 익명으로 내동댕이쳐버려서 나는 날마다 망연자실했다.

내 나라와 두고온 모국어에 대해 진실로 깊은 의미와 사랑을 절감했다. 그러나 그 뉴욕대학이 있는 그리니지 빌리지와 소호를 중심으로 비로소 세계 예술의 본고장에서만 맛볼 수 있는 빛나는 천재 예술과 문화와 실험을 보면서 조금씩 눈떠가고 그 마력에 빨려들어갔다.

빠줄리니·고다르·베르히만·빔벤더스·타르코프스키 구로자와 아키라·나기사 오오시마·밀로스 포먼, 그리고 여류인 니나 베르트물러와 부로드웨이와 오프오프 부로드웨이...소호의 급진적 실험과 메트로폴리탄뮤지엄의 장엄한 전통에 넋을 잃었다.

예술은 그 어느 것이건 세계적인 것이 아니면, 단 하나의 유일한 자기 우주가 아니면 나머지는 말짱 헛것이라는 것도 톡톡히 목격했다. 오직 새로운 것, 처녀림을 가진 것만이 살아남았다. 반복과 답습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 예술의 준엄성이었다.

뉴욕의 2년은 실로 나를 다시 한 번 태어나게 만든 기간이었다. 내 나라와 내 자신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 것도 진실로 귀한 체험이었다. 페미니즘에 대한 이론적인 체계에 접한 것도 그때 뉴욕에서였다. 귀국에 앞서 다시 긴 여행길에 올랐다. 유럽의 11개국을 도는 긴 장정이었다.

▶ 어머니를 잃은 뒤 8년 만에 시집 <혼자 무너지는 종소리>를 내며 일어서다

드디어 2년 만에 귀국하였다. 그동안 나라 떠난 사이에 입은 경제의 불안정 속에 나는 어머니를 잃었다. '만인이 우러러보는 인물이 되소서'라는 세상의 그 어떤 어머니보다도 더욱 끔찍하게 나를 키워준 소중한 어머니였다.

고통 속에 두고간 시집 원고를 다시 조금 손질하여 출판했다. 그런 일 밖에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것이 <혼자 무너지는 종소리>였다. <새떼> 이후 거의 8년 만에 선보이는 시집이었지만 뚜렷한 진경을 보였다고보다는 그 동안의 나의 삶이 말해주듯 다양한 이야기가 실린 시집이었다.

그리고 이어서 뉴욕에서 쓴 시들로 시집 <짚레>를 묶었다. 10년 동안 고심하던 장시 <아우내의 새>도 드디어 발표했다.

관념적이고 이상화된 역사 속의 대상이 아니라 신념을 몸으로 태워 버린 용기의 불꽃에다 앵글을 맞추고, 관순이라는 한 소녀의 짧은 생애뿐만 아니라 장시 형태에 대한 또 하나의 시도를 꺾히기도 했었던 작품이었다.

뉴욕으로 떠나기 전에 역시 <현대문학>에 발표했던 시극 <도미>가 극단 「가교」에 의해 공연되었고 이어서 동승동 문예극장 소극장에서 앵콜 공연되기도 했다.

<도미>는 삼국유사 제 48종(綜)에 나오는 도미를 소재로 쓴 시극이었다. 백제의 이름난 목수 도미를 예술가의 상징으로 설정하고 개루왕이 그의 눈을 뽑는 것을 감감한 자유의 박탈로 묘사했다. 절대 권력 아래서 실명한 예술가 도미와 개루왕에게 아부하는 전형적인 인간인 시녀에게 메피스토퍼처럼 비중을 둬으로써 오늘날의 사회부패와 부조리를 비판하며 진실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자 했다.

문학사상사에서 시선집 <우리는 왜 흐르는가>를 발간한 것도 그즈음이다. 이어서 도서출판 나남에서 시집 <하늘보다 먼곳에 매인 그네>를 펴냈다. 내 삶의 편린들과 언어와의 고투가 내 나름대로 얽힌 시집이었으나 나의 시집은 어느 유파나 계열에도 끼지 못했다.

언제나 그렇지만 나는 삶이 답답할 때는 여행을 꿈꾼다. 마침 인종분쟁지 스리랑카 취재 제의를 문화방송으로부터 받고는 스리랑카로 향했다. 타미르인과 싱할리족과의 끝없는 분쟁은 영국 지배가 남긴 후유증이었다. 스리랑카는 따뜻한 불국토였지만 캔디의 홍차밭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참혹한 저임금은 나의 정신에 또 하나의 충격을 가했다.

늙음과 나이에 대한 강박관념을 유난히 짙게 갖고 있던 나는 생각끝에 서울여대의 박사과정에 들어가서 새로이 학구열을 불태웠다. 이 뒤늦은 공부는 많은 인내를 체험케했고 드디어 3년 만에 <서정주시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건강을 많이 손상시켰다.

연이은 두 번의 대수술로 인해 나는 인생관에 많은 수정을 가했다. 그 사이 연시집을 하나쯤 갖고 싶던 차에 들꽃세상에서 <제 몸속에 살고 있는 새를 꺼내주세요>라는 연시집을 펴내 주었다. 또한 그 즈음 페미니즘 수필집 <당당한 여자>를 펴냈는데 뜻하지 않게도 이 수필집은 많은 호응을 받았다.

그리고 미래사에서 기획한 한국 대표시인 100인선에 뽑히어 시선집 <어린 사랑에게>가 출간되었다. 이 시선집은 지금까지도 꾸준히 일 년이면 한두 차례 판을 거듭하고 있어서 보기 드물게 나의 시에 대한 궁지와 독자와의 교량에 큰 기쁨을 안겨주고 있다.

그런데 웬일인지 나의 정신은 최근 피폐할 대로 피폐하고 건강은 좋지 않았다. 문학은 말이 재료인데 그 말 자체가 모두 때묻어 보였다. 언어에 대한 깊은 불신에 빠졌다. 문학도 세상도 저만치 두고 나를 깊이 갈무리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좀더 자유로워져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기 위해서 삶을 극도로 단순화시켰다. 원고와 여행말고 현재 나를 매혹시키는 것은 없었으므로 나는 당분간 거기에만 마음을 두기로 했다. 이상한 환멸과 피해의식들을 훌훌 털어버리고 싶었다. 그런 가운데도 국립극장의 의뢰로 대전 엑스포의 기념 공연작품 창극 <구운몽>을 썼다. 고료가 조금 많았지만 원고지와 탐과 과중한 노동으

로 언더리를 쳤던 여름이었다. 그래도 많은 것을 다시 배우고 또 나를 확인하기도 했다. 구운몽은 김소희작창 안숙선 소리로 엑스포의 오프닝에 발표되었고, 다시 예술의 전당에서 앵콜 공연되었다. 그리고 금년 초 김만중의 달에 국립극장에서 또다시 재공연되었다.

서울 정도 600년 기념 세계의 도시 시리즈의 일환으로 실크로드의 종착지인 터어키와 카리브 해의 멕시코 유적과 자메이카 등을 텔레비전팀과 함께 여행하기도 했다.

고대 도시 이스탄불과 에페소스와 파묵칼레 그리고 아즈텍의 태양의 피라미드와 케살코아틀과 마야의 예술혼에 나는 소름이 돋았다.

변방문화와 세계문화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았다. 민족적이니 한국적이니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의문을 제기했다.

### ▶ 아이오와에서 얻은 찬란한 자유혼과 자신감

언제나 나는 시를 토렘처럼 끌어안고 살았지만 나의 시는 너무 목청이 트여서 매력없는 사람같다는 생각을 절절히 했다. 나의 그런 정통과가 싫었다. 집시와 날라리가 아니면 당당하고 호쾌한 그 무엇으로 득음하고 싶었다. 결국 쓰고 또 쓰는 길밖에 없지 않은가.

원고지 위에서 해결하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오랜 경험으로 알았다.

벼루가 늘 젖어 있는 사람만이 일필휘지 할 수 있는 것이다. 생각만 하고 베풀기만 하고 있다가 어느 날 한 획을 그으려고 하면 거기에서 명필이 나올 수는 없는 것이다.

나는 그래서 또 다시 원고지 앞에 앉았다. 사마천 얘기도 쓰고 처용애기도 쓰고 고산자 얘기도 쓰고... 말하자면 남자의 얘기를 썼다. 사랑시 이전에 남자는 나의 아킬리즈 건이었다.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들을 모두 극복하고 싶었다. 그들은 또한 내 안에 숨어 있는 나의 이상이며 바로 내 자신이기도 했다.

민음사에 시집을 넘기고 교정 준비를 하다가 아이오와대학 국제 창작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었다.

오, 아이오와! 나는 거기에서 확고하게 두 가지를 얻었다.

하나는 찬란한 자유혼이었다. 생명이 원하는 대로 자연그대로 무한히 유쾌하게....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감이었다. 언제나 남보다 너무 길어서 거추장스

러웠고 이상하게 뒤뚱거렸던 알바트로스, 나의 이 못생긴 날개는 기실  
 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너무나 귀찮은 것이었다.  
 아이오와에서 돌아와 시집 <남자를 위하여>를 내고, 그리고 지금 몇 달  
 동안 내내 책상 앞에 앉아 있다.  
 내 자유혼과 모처럼의 자신감으로 결국 내가 순교할 곳은 바로 이 원고  
 지 말고 어디라.

문정희 동문

- 1947년 전남 보성출생.
- 동국대 국문과 및 동대학원 졸업.
- 서울여대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1995년 아이오와 대학 국제창작 프로그램 참가.
- 1969년 「월간문학」신인왕으로 등단.
- 1975년 현대 문학상 수상.
- 시집 : 문정희 시집. 새때, 짚레, 혼자 무너지는 종소리, 아우내의 새,  
하늘보다 먼 곳에 매인 그네, 남자를 위하여
- 시극 : 구운몽, 도미
- 영역시집「windflower」(New York:Hawks Publishing, 2004)가  
미국에서 출간되었고, 스페인어, 일어, 히브리어 등 8개국어로 번역, 소개됨
- 현대문학상, 소월시문학상, 정지용문학상 수상
- Naji Naaman's Literary Prizes 2004 공동 수상자로 선정
- 동국대 석좌교수.

배구협회부회장



## 김 경 희 (제55회)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이사장  
서양화가

### | 학력 및 경력 |

- 1966년 2월 진명여자고등학교 졸업
- 1970년 2월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졸업
- 1983년 6월 OTIS PARSONS ART INSTITUTE of L.A. 서양화가 수료
- 1985년 6월 City University of Los Angeles 대학원 졸업 (서양학과 석사)
- 1994년 10월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이사 취임
- 2000년 12월 26일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상임이사 취임
- 2001년 1월~ 현재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이사장
- 2001년 4월 21일 자랑스런 진명인상 수상

### | 활동사항 |

- 1986년~ 현재 대한민국 미술협회 회원, 서양화가로 활동중  
9회의 개인전과 300여회 국내외 그룹전에 참여  
활동중

### | 자랑스런 진명인상 수상 |

건국대학교 재단이사장과 서양화가로서 남다른 교육관과 봉사정신으로 교육계 및 문화발전에 크게 공헌하여 동문들의 귀감이 됨으로 2001년 자랑스런 진명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본인이 사양하여 프로필만 실습니다



## 박명숙 (제57회)

98 자랑스런 진명인상 수상  
경희대학교 무용학과 현대무용 교수

현재 경희대학교 무용학과 현대무용 교수로 재직중인 박명숙(57회)은 최근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세계현대 춤 사전'(International Dictionary of Modern Dance)에 등재됐다.

세계오페라사전, 세계발레사전 등 예술사전 시리즈로 유명한 미국 게일 리서치(Gale Research)산하 세인트 제임스(St. James) 출판사가 발간한 이 사전은 A4판 900여 페이지의 방대한 분량으로 8월 영국과 미국에서 출판되었는데, 모던댄스의 개념을 컨템포러리와 구분, '이사도라던컨 이후 미국과 독일 등지에서 발전된 춤 형태'로 규정하고 이들 무용가의 이력, 연보, 평론 등을 함께 실었다.

34개국의 무용가 400명이 등재되었으며, 아시아권에서는 일본 4명, 중국 3명, 대만 1명, 인도 3명이며 우리 나라 무용가가 7명으로 가장 많이 올려져 있다.

**“저는** 5살 때부터 음악, 미술, 무용에 대해서 배웠었기 때문에 그다지 특별히 계기가 되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 예술인 무용은 어느덧 몸의 일부처럼 생활화되었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무용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진명학교를 다닐 적에는 진명 무용단이 전국에서 알아줄 정도로 매우 위상이 높아서 62년 진명여중에 입학해 발레단에 입단해서 많은 경험을 쌓고,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때 받은 교육과 경험들이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지도교사 : 김정옥 선생님).

진명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받은 교육(무용뿐만 아니라 예절교육까지도)은 졸업 후에도 제 인생의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랑스런 진명인상'을 받게 되었을 때 무척이나 기뻐했습니다.

또 하나의 기쁨이 있다면 무용 창작과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행복한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박명숙 교수는 이화여자대학교 무용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한양대학교에서 이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1980년부터 88년까지 뉴욕대학교 대학원 무용과 박사과정을 이수하였고 머스 커닝햄, 마사 그레이엄, 앨빈 에일리 현대무용학교에서 수학을 하기도 하였다.

1975년 작품 <슈퍼스타 예수그리스도>(육완순 안무)의 막달라 마리아役に 출연한 후, 1982년 <몇 개의 정적>(박명숙 안무), 1987년 <시간기행>(박명숙 안무), 1990년 <고구려의 불꽃>(박명숙 안무) 등 70여 작품에 무용수로 출연하였고, 1976년 처녀 안무작인 <미친 혼> 발표 후 1989년 <그날새벽>, 1993년 <혼자 눈뜨는 아침>, 1996년 <에미> 등 50여 작품을 안무했다.

1978년 「박명숙 현대무용단」을 창단하고, 1981년 뉴욕 카네기 홀에서 첫 번째 해외공연 작품(Invocation for the Dead Spirit)을 가졌으며 같은 해 경희대학교 무용학과 교수로 취임했다. 1986년 무용단 명칭을 '박명숙 서울현대무용단'으로 개칭, 매년 정기적인 활동 등 150여 회의 국내 공연과 미국, 소련, 동유럽, 일본, 동남아시아 등에서 40여 회의 해외공연을 가졌다. 이 서울현대무용단은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16일까지 문예회관 대극장



에서 한국무용협회가 주최한 서울국제무용제에 조성희 안무의 <거미줄에 걸린 꽃잎>으로 대상과 안무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서울국제무용제는 국내에서 가장 권위있는 무용계 행사로, 서울현대무용단은 한국무용협회의 지원을 받아 11월 22일과 23일 천안 학생회관과 춘천 문예회관에서 수상작 공연을 하였다. 작품 <거미줄에 걸린 꽃잎>은 판소리 <심청가>의 이야기를 빌고 있는데, <심청가>가 갖는 특유의 연상과 수사에 있어 황당할 만큼 자유스러운 민중들의 사유와 낙관적인 해학정신의 희·비극성을 전통의 춤과 외국 무용 언어의 적절한 조화, 전통 마당극의 형식에서 볼 수 있는 열린 무대 개념의 도입, 현대적 기법 활용 등의 과감한 형식적 해체와 통합으로 형상화한 작품이었다. 그밖에도 86년 아시안게임, 88년 서울올림픽 개회식 엠블레춤 <태초의 빛>을 안무하였으며, 1996년 대전 엑스포, 1997년 '97 세계 연극제를 비롯한 20여 회의 국제 행사 안무를 통해 활약한 바 있다.

1981년 대한민국 무용제에서 '개인 연기상', 1986년에는 '코파나스상' 과 아시안게임 문화예술축전 무용제에서 '최우수작품상'(작품 <풀잎환상>),



1991년 서울무용제에서 ‘대상, 안무상, 연기상, 음악상’(작품 〈황조가〉), 1993년과 1995년에 ‘올해의 예술인상’(The Federation of Korean Artistic and Cultural Organization of U.S.A. 수여), 1995년 ‘이사도라 무용 예술상’을 수상하였으며, 1998년에는 문화관광부가 수여하는 ‘98 예술가의 장한 어머니 상’을 박명숙 교수의 모친 김대순 여사가 수상하였다. 또, 1999년 2월에는 기독교문화예술원 선정 기독교문화 대상의 무용 부문 수상자로 결정되었다.

박명숙 교수는 현재 서울 예장로타리클럽 창립회원으로서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사단법인 한국현대무용진흥회 부이사장, 한국현대무용협회 이사, ITI(International Theatre Institute) 한국본부 상임이사, 국제바놀레 안무자 대회(International De Bagnolet Pour les Oeuvres Choregraphiques Seine-Saint-Denis)의 National Selection Panel 심의위원, 한불문화친선협회 이사 등으로 활약하고 있다.

공역서로는 〈무용, 연극요법〉(1980)이 있고, 역서로는 〈이사도라와 에세넨〉(1988), 〈포스트 모던댄스〉(1991), 〈댄스 핸드북〉(1993), 〈무용 감상법〉(1998)이 있다.

### | 평론가의 평 |

“박명숙은 우리 현대무용계에 살아 숨쉬는 새로운 사조다. 지나친 과욕과 기교의 허세를 버리고 진지한 자세로 내일을 향하고 있었다. 잘 다듬어진 그의 육체와 기교는 그가 찾고자 하는 예술 세계를 전달하는데 조그마한 무리도 따르지 않았다. 자신의 깊은 내면세계를 너무도 열심히 그리고 침착하게 추구하고 있었다.”

장광렬, 객석, 1985. 1

“그의(박명숙) 주변엔 언제나 작가, 시인, 화가, 음악가들이 진을 치고 앉았고 일단의 지식인들이 지적 긴장을 유발하고 있다. 이런 환경은 그의 타고난 방랑벽과 예술가 기지기가 어울리면서 늘 그의 작품에 투영되고 있다. 그의 작품 상당수가 소설이나 시, 설화 등 문학물을 바탕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소재 구하기의 차원보다는 문화 교양적 배경으로부터 형성된 성향의 한 측면으로 이해되며 무대 장치의 아름다움이나 소품들의 효과적인 활용능력 역시 어릴 때부터 받은 음악, 미술 교육 혹은 그의 주변 인물들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무대에 서기 보다는 안무와 교육에 더 열중하고 있지만 무용수로서의 그를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초기 작품의 하나인 **초혼**(招魂, 1981)

과 육완순의 지저스크라이스트 수퍼스타(1973~1993)에서의 막달라 마리아를 떠올릴 것이다. 막달라 마리아 역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15년 이상을 추다가 80년대 후반 비로소 후배에게 물려준 것인데 그의 여린 얼굴과 부드러운 몸선이 유연한 감정처리와 맞물려 가녀린 순수와 에로티시즘을 동시에 피어올리던 적역중의 적역이었다. 초혼은 여러 종류의 춤을 몸에 익힌 사람이 아니면 결코 만들거나 추어낼 수 없는 작품으로 국내는 물론 뉴욕을 비롯한 외국 무대에서 이른바 「한국적 현대무용」을 인식시키는데 중요한 몫을 했다. 오늘날 그가 더 이상 초혼을 추지 않는 것은 유감이지만 남도창과 아쟁, 해금의 느릿하고 진한 슬픔이 처절한 춤사위에 배어드는 아름답고 인상적인 작품이었다. 박명숙의 작품 경향에 대해 흔히 여성적 서정주의니 페미니즘 무용이니 하는데 대체로 타당성 있는 지적이다. 여성 문제를 다루는 무용가들은 많이 있지만 그의 경우는 유독 섬세하고 감정이 깊은 편이어서 자주 서정적이라는 이야기를 듣는다. 어쨌거나 박명숙의 여성성은 갈수록 폭이 넓어지고 측면이 다양해지고 있다. 분야마다 갈라지고 찢어지던 한 동안의 경향에서 서서히 벗어나 다시금 토털의 시대를 향하고 있다는 징표가 우리 예술계에서도 여기저기 보인다. 그럴 때 살아남아 역할 할 수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는 박명숙일 것이다. 그의 다채로운 교양 배경과 토탈적 감수성이 더욱 복합적으로 작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종호, SPACE, 1997. 10

“박명숙(초혼, Invocation for the Dead Spirit(1981))은 대부분 공통적으로 현대무용에서 보게 되는 표현의 초점, 동작, 그리고 무대 공간의 이용과 함께 천천히 손을 내뻗고, 펴고 그리고 약진을 하면서 전통적인 한국 무용의 핵심을 이룬 정지를 유지하였다.” Dunning Jennifer, The New York Times, 18 August 1985.

“그의 춤의 장식성은 죽음 결혼식과 장례식(1986)에서 환생을 예고했으며,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 초야 신부를 우울하게 또는 즉물적으로 그리기도 했다.” 김영태 춤, 1987. 6

“박씨의 춤 앵글사 하이얀 고깔(1988)은 자신의 언어를 전달시키는 강인한 마음, 섬세하고 부드러운 신체와 함께 매력있는 댄서로서 모두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Orita Katsuko, 五反田簡易保險木一ル, 1988. 2. 20

“인류가 꿈꾸는 그런 보편성을 극장 무용의 무대 형상화 행간에서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은 그날 새벽(1989)이라는 작품이 보편성과 현대성을 비교적 쉽게 전달시킬 만한 선명성을 지녔다는 말이 될 것이다.”

이상일 춤, 1989. 7

“그날 새벽(1989)에서는 그대가 그것을 의도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단순히 아름다움보다 좀 더 원형적인 숨결을 느꼈고 아울러 무대 따로 객석 따로가 아닌 그런 한 호흡의 열기와 힘을 맛보았지요. ... 관객을 잠시도 긴장으로부터 풀어주지 않으면서 때론 해체되고 때론 균집을 이루며, 해모수의 질서와 파괴를 유희의 추방을, 그리고 악의 태동과 주몽의 전국을 춤추는 남녀 무용수들의 건각과 뜨거우리만치 강렬한 춤사위는 바로 그 자체가 커다란 감동과 연결되었습니다.”

문정희, 춤, 1989. 7

“박명숙의 혼자 눈뜨는 아침(1993)은 흑백의 장치와 조명이 드물게 세련미를 갖추고 있고, 우아하고 세련된 춤 동작으로 이 여성의 문제를 풀어내 보여준다. 스토리 텔링이 아닌 춤, 즉 인체의 율동의 묘미를 주제와 더불어 살려낸 성공작이었다.”

김경애, 월간 에세이, 1993. 8

“박명숙의 페미니즘 작품 혼자눈뜨는 아침(1993)은 현대 도시 여성이 처한 가혹한 현실과 모순을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Segal, Lewis, L.A. Times, 8 July 1995.

“이 공연 에미(1996)에서 박명숙의 안무와 구성은 에피소드 단위대로의 '춤의 풀어놓기'를 시도하면서 녹음을 통해 분열적이고 반복적인 독백을 삽입시키거나, 작고하 칸토르의 실험극에서 본 듯한 가벼운 행진곡풍의 음악을 타고 슬로모션적 몸동작을 되풀이해서 보여주면서 익명화된 인간사의 자극성을 떠올려 준다.”

김태원, 공연과 리뷰, 1996. 겨울

“단순한 소재 구하기의 차위보다는 문화 교양적 배경으로부터 형성된 성향의 한 측면으로 이해되며 무대 장치의 아름다움이나 소품들의 효과적인 활용능력 역시 어릴 때부터 받은 음악, 미술 교육 혹은 그의 주변 인물들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의 다채로운 교양 배경과 토탈적 감수성이 더욱 복합적으로 작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종호, SPACE, 1997. 10

“에미(1996)에서 보여준 박명숙의 페미니즘은 전혀 다른 시각에서의 해답을 제시하고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박명숙이 제시한 새로운 시각은 출산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못 이룬 자신의 꿈을 자식에게 전수함으로써 자신의 아이덴티를 유지하고자 하는 여인의 본능인 동시에

사랑으로서 새로운 생명을 키워가는 모성에 대한 자각인 것이다. 두 번째로 이 작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에미」를 통해서 박명숙 무용의 캐릭터가 한결 명백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의 무용은 연극적 효과를 통한 이야기의 전달을 주요한 특징으로 한다.”

이근수, 무용예술, 1997. 1

“박명숙의 유랑(1999)은 댄스 씨어터 형식이었다. 아울러 춤의 열정을 가장 크게 부각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고, 다양한 연출효과도 얻을 수 있다.”

문애령, 객석, 2000. 1

“한국 전통의 유교적인 '종속적 인간사회'에서 살아온(현재에도 유교적인 할머니 세대의 가치관은 한국에서 상식의 토대이지만) 여성인생이 박명숙의 주제 에미(2001)였다.

이런 주제는 여성사(女性史)로서도 사회적인 관점에서도 깊은 의미를 지닌 무거운 작품으로, 쉽게 선택하기는 어려운 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박명숙은 그것을 '자기 자신'과 '현대'를 엮어 가는 수법으로 낯설지 않게, 이해하기 쉽게, 진솔하게, 관객에게 흡수되어 가는 작품으로 요리해 놓았다.”

Harada Hiromi, DANCE ART, September 2001.

“박명숙의 이브(2003)는 '이브를 위한 만찬'은 아니다. 얼룩진 세상의 낭만보다는 인내와 시련을 감내하는 오늘의 이브 상을 춤으로 희화한다.”

김영태, 몸, 2004. 3.

“역사는 단지 기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고, 그때 당시의 사람과 그 다음 세대의 사람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삶의 기억 즉, 문화 속에 잔재하는 것이다. 기록은 변조할 수도 있고, 또 달리 해석해 볼 수도 있지만 기억으로 인한 문화와 전통은 자의적인 것이고 생활적인 것이므로 급속한 변조가 어렵다. 그렇게 문화적 기억으로서 문자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예술의 가치와 역할에 무용이 동참했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로 그녀의 (박명숙) ‘고구려에 대한 무용이야기’라 할 수 있는 위의 4작품을 들 수 있다. 이미 소재 면에서 의미와 가치가 분명한 박명숙의 4부작은 그 창작 방법과 형식에서 무용사적인 의미와 가치가 결정되는 것인데, 창작 방법에 대한 안무자 자신의 의견도 자세히 자료화되어 있는 편이다.

안무자의 창작 방식은 안무자 자신이 ‘무용은 ... 해야 하다’는 개인적이고도 주관적인 무용의 개념에서 비롯된다. 그런 시각에서 그녀가 가지고 있는 무용에 대한 생각은 두 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하나는 무용은 가능하**

면 쉽게 관객들과 같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용이 '영화화' 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녀에게서 영화화의 의미는 관객이 작품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난해하다거나 지루해 하지 않고 작품 속에 몰입되어 안무자와 무용수, 관객이 혼연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한다.

결국 영화적이거나 극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면 일단 이해하기 쉬워져 관객의 저변확대에도 큰 역할을 한다는 생각에서 연유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그녀의 무용에 대한 개념은 작품이 대형화되고 또 스펙터클함은 당연히 무대 주변 환경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그러한 주변 예술의 수준에 따라 무용 작품의 완성도가 차이나게 된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그녀의 제자들로 구성된 단체(현, 서울현대무용단)는 무용을 만들고 공연하기 위해 필요한 무용 이외의 주변 예술의 협력을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무용계에서 유명하다.**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사회 소외계층이라 할 수 있는 여성문제를 다룬 작품은 **종군 위안부를 소재로 한 에미(1996)와 한국사회에서 여자로서의 삶과 정체성 찾기를 그린 혼자 눈뜨는 아침(1993)** 등이 있었다. 이러한 작품들을 만드는 과정을 서술한



것에서 나타나는 것은 극적인 무용을 만들려는 그의 작품 창작 방식을 어떻게 진행시키는가 하는 것이다. 안무가 자신이 말하는 작업 과정은 먼저, 무용수들과 끊임없는 토론을 하고 무용수들에게 어떤 고정된 춤을 강요하지 않고 가능하면 **자유롭게 무용수 개인의 춤의 성격이 드러나도록 허용했다는 것이다.** 이는 무용의 완성도를 위해 이미 세밀하게 계획되고 또 계획된 대로 실행되어야만 의도한 작품의 메시지를 전달 할 수 있게 되는 공연예술의 특성으로 본다면 위험한 시도일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춤 이외의 전달매체로 정해진 캐릭터와 역할을 감당하게 한다는 간접적 제시일 수도 있다. **그녀의 무용 작업에서 독특한 것 중 하나는 시라는 감수성을 이미지와 결합하는 것이다.** 그러나 작업의 시작에는 김영태 시인이 있다. 그녀는 김영태 시인의 시 종이꽃, 나물에게, 일식, 풀잎환상, 몇 개의 정적, 에텐의 인간, 시간기행, 결혼식과 장례식, 잠자며 걷는 사람, 잠자며 걷는 나무 등을 무대에 올렸다.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초혼**을 기억한다.

**카네기 홀에서의 공연때문이기도 하고 '현대적 한국춤'**이라는 평가 때문이



기도 한데, 왜냐하면 초혼과 더불어 그녀의 이름에 붙어 다니는 작품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스타이기 때문이다.** 1975년 처음 무대에 올려진 이 작품에서 그녀는 **막달라 마리아** 역을 맡아 **20년 동안 200회 이상 춤을 추었다.** 오랫동안 이 역할을 하는 가운데 개인적으로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으며 성숙해지는 그녀, 막달라 마리아의 외면과 내면을 관객들은 무용수 자신과 함께 경험했으므로 그를 지금까지 최고의 막달라 마리아로 불러주는 사람이 많다. 그녀는 1978년 요로 무용단을 창단해 1986년 서울 현대무용단으로 개칭했다.

서울 현대무용단을 민간단체로서의 짧지 않은 경륜에 걸맞게 수백회의 국내외 공연을 하고 개성 있는 안무가와 무용가를 많이 배출한 한국 현대무용을 대표하는 단체 중 하나이다. 이 무용단은 **다른 무용단과는 달리 스승인 그녀의 동작이나 안무 방식 그리고 무용의 유형이 동일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공연을 할 때 자신들이 무용 이외의 분야에서 배운 기획, 분장, 의상, 무대 예술 등의 전문성을 살려 자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무용계에서 유명한 단체인데 이러한 독특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은 제자들에게 춤 추기만 고집하지 않고 주변 예술, 의상, 기획, 음악, 분장 등 창작을 위한 필요하고도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인식시킨 그녀의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에 따르면 일단, 대본이 나오면 그것에 대한 토론을 한다. 그러한 작업이 한두 달 계속된다.

그 사이 테크닉 클래스는 따로 진행한다. 여기서 물론 작품의 처음과 끝은 있지만 절대 순서대로 만들지는 않는다. 그러나 무용 만들기의 과정이 언제나 같은 과정을 거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원칙을 정해 놓는다고 해서 지킬 수 있는 것도 물론 아닐 것이다.

그러나 **단체를 이끄는 사람 자신이 늘 단원들의 개성을 발견하고 격려하려는 의식이 있고 자유로움이 예술 창작의 기본 환경이며 그 자유가 즐거움을 동반한 고단한 연습을 바탕으로 한 것이어야 한다는 체험에서 나온 교육철학과 단체 운영 방침이 오늘의 서울 현대무용단을 있게 했다는 생각이다.** 한국의 역사와 사회 현상에 대해 깊이 천착하면서 무용을 가능하면 쉽게 관객들과 같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녀의 무용관이 한국 무용계에 한 유형으로 자리 매김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할 영특한 인재들이 그녀의 주변에서 계속 배출되기를 희망한다.” 한혜리, 문화예술, 2004. 9

“바람의 집(2004)은 박명숙의 가상공간이다. 삼각 철제 축대 위아래 그들은 느린 것, 빠른 것, 보이는 것, 안보이는 것, 즉 나와 타자들이 공존한다. 바람은 이 모든 혼돈과 질서로 통합된다. 박명숙 안무 추상적 밑그림에서 삶의변형 변주는 한 테두리로 다가온다. 코스춤은 밝고 공존하는 지체들은 미니스커트 밖의 다리 노출이 그렇듯 애로틱하다. 그들은 모두 껌데기이며 나와 타자를 의식하는 또는 부정하는 생존의 가건물이다. 그 교



류에서 김영미 같은 국외자도 있다. 혼자 눈뜨는 아침부터 박명숙 안무는 진실과 가식의 알레고리를 춤으로 다졌다. 노인의 회상에서 10대 소녀 때 나를 만났었다. 세상은 그러므로 뒷산에 울창한 대바람 소리였다. 혼돈과 진정의 군무는 그러나 철저히 일인칭이다. 일인칭이 만드는 화음이 김영미의 비애처럼 삶의 조망을 무력화시킨다.”

김영태, 몸, 2004. 11

“박명숙 안무 바람의 집(2004)은 박명숙류 현대 춤 특유의 연극적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는 작품이다. 바람소리, 비행기 소리 등 현대의 다양한 소음과 결합된 뉴에이지 음악에 마네킹과 유령 등을 이용한 놀이를 이용한 춤사위를 통해 현대의 지루하고 부조리한 상황을 아기자기하게 그려냈다.”

김승현, 춤, 2004. 11

## 박명숙 동문

- 1950년 8월 5일 서울 출생
- 1968년 진명여자고등학교 졸업
- 1972~76년 이화여자대학교 무용 학사, 대학원 무용 석사
- 1975~77년 이화여대, 경희대, 상명여대, 연세대 무용과 강사 역임
- 1981~ 경희대 체육대 무용학과 교수
- 1981~ 현재 박명숙 서울현대무용단 예술총감독  
[現]한국현대무용협회 이사
- 1981년 대한민국무용제 개인상
- 1986년 예술가상, 코파나스상  
제10회 아시안게임 문화예술 축전 무용제 최우수작품상
- 1988년 제8회 서울장애자 올림픽대회 장애자 올림픽 기장, 우정상
- 1989년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수여 표창장
- 1991년 서울무용제 안무상 대상
- 1993년 Tom Bradley LA시장 감사장, '93 올해의 예술인상
- 1995년 이사도라무용예술상, 한국현대무용진흥회, LA시장 감사장
- 장성길 LA한인회 회장 감사패, 올해의 예술인상, 주지사 감사장
- 1977~현재 한국컨템포러리무용단 공연 및  
박명숙 현대무용단 공연외 다수 출연
- 세계 현대 춤 사전에 등재됨.
- 1998년 자랑스런 진명인상 수상

박명숙 서울현대무용단의 춤 「에미」



## 이 선 희 (제58회)

부장판사(대전·수원·서울동부·서울지방법원)  
사법연수원 교수  
現 변호사(법률사무소 개업)

### | 나의 어린 시절 |

나는 부모님(고 이원우, 고 이상순)의 6남매중 넷째로 대구 동구 지저동(현재 동촌비행장)에서 태어났다. 선친께서는 대구 동촌 천석군의 막내 아드님으로 태어나 글 밖에 모르시던 분이셨다. 세상이 바뀌어 토지개혁으로 대부분의 토지가 경작자의 소유가 되고, 남은 토지도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대구 비행장으로 편입되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되셨다.

‘이왕 고생하는 거 서울로 가자. 옛날부터 자식을 낳으면 한양으로 보내줬는데, 아이들 잘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선친께서는 내가 7살 때, 솔가하여 상경하셨다. 서울로 이사와서 일주일씩 굶기도 할 정도로 고생을 많이 했으나, 알뜰히 챙겨주시고 보살펴주시는 부모님 덕분에 가난한 것 말고는 참으로 행복했다.

특별한 기술이 없으신 부모님께서서는 우리 형제들을 사람답게 키우느라 온갖 고생을 다 하셨다. 어릴 때 어떤 사람이 나를 식모(요즘 가정부)로 보내라는 얘기를 들으시고 선친께서는 너무 슬퍼하시며 ‘하는 데까지 하다가 정 안되면 같이 죽자. 양젓물 한 그릇이면 끝난다. 내 자식을 왜 남의 종이 되어야 하느냐. 나도 내 자식이 주인이 되어 당당하게 살길 바라며 자식을 낳았는데 형편이 안 된다’고 포기할 수 없다, 하시며 끝까지 지켜 주셨다.

어린 시절 가난한 동네에서 살면서, 가난하지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도 많이 보았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남을 속이고 비굴하게 살고, 때로는 자기가 낳은 아이들(특히 여자아이들)조차 남의 집살이를 시키고 흑간 외국으로 입양보내는 걸 보면서, 현실이 너무도 암담하여 ‘이렇게 산다는 건 너무하다’는 생각을 했다. 적어도 (나는) ‘저렇게 살고 싶

지 않다. 최소한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절박한 생각에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했다. 그 때는 남존여비사상이 팽배한 때였고, 남자가 아닌 여자가 '어떻게 하면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니, 특출한게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한 가지 어려서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걸 매우 좋아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책 읽는 걸 매우 좋아했다. 책을 읽으면 구차한 현실에서 벗어나 내가 꿈꾸는 세상을 만날 수 있고, 내가 모르는 새로운 것을 알게 되어 너무나 행복했고, 또 책 속에서 앞으로 내가 갈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되어 책이란 책은 보이는 대로 읽었다. 그리고, 뭔가 새로운 걸 보면 절대로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가난해서 학교에 다니지 않아 숙제 걱정도 없이 11살까지 잘 놀았다. 어느날 작은 오빠가 교회에서 운영하는 금호공민학교(초등학교과정)가 있다는 걸 알려줬다. 이 말을 들은 선친께서는 내 손을 잡고 학교에 갔다. 11살이면 보통 4학년이어서, (고찬영)교장선생님께 '4학년에 넣어 달라'고 하셨더니, '학교 문 앞에도 와 본 일이 없는 아이를 어떻게 4학년에 넣어달라고 하느냐'고 하셨단다. 그때, 선친께서 '당신 교육자 맞냐? 이 애 나이가 4학년이어야 하는데, 교육자라면 아이의 장래를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이 아이가 커서 뭐가 될지 아느냐, 이 아이의 앞길을 열어 두어야 될 게 아니냐'고 하시며 4학년에 넣어 달라고 떼를 쓰셨단다. (교장선생님께서서는 4학년은 무리라며 3학년에 입학시켜 주셨다) 이러한 사정애기를 담임선생님을 통해 들은 나는 난생처음으로, 선친께서 평소 엄하시고 말씀이 없으셨지만, 속으로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신다는 걸 깨닫고 그 뜻에 어긋나지 않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을 하였다. (아버지의 한 말씀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밥을 굶으면 쓰러질까 봐, 비가 오면 신발이 새서 갖가지 이유로 결석을 죽먹듯 하면서도 우여곡절 끝에 졸업을 하게 되었으나, 중학교는 갈 형편이 못되었다. 공부를 계속하고 싶어서 담임선생님께 '돈이 안드는 (중학교과정을 가르치는) 학교'를 알려 달라고 말씀드려,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배성여자고등공민학교를 알게 되었다. 부모님을 설득하여 그 학교에 간신히 들어갔으나 등록금이 문제였다. (정식중학교보다는 훨씬 싸으나 가정형편상 그것도 부담이 되었다) 전교 1등을 하면 등록금이 면제된다는 말에 열심히 공부해서 드디어 2학년 1학기 때 전교 1등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해 여름방학 때 전학 간 친구를 따라서 다시 협성고등공민학교(그 학교에선 열심히 공부하면 경기여자고등학교까지 갈 수 있었다)로 옮겨 등록금 걱정은 계속 되었다.

## | 나와 진명 |

다른 애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로 가는 걸 보고 선친께 말씀 드렸더니 ‘너도 형편이 되면 진명여학교에 보내고 싶다’고 하셔서 이 세상에서 진명학교가 최고인 줄 알고 그 때부터 진명학생이 되는 꿈을 꾸게 되었다. 그런데, 내가 중학교 가는 그 해 진명여중이 사상 최초로 미달이 되어 ‘나도 입학금만 있었으면 가는 건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으나 내색도 않았다.

광화문에 있는 협성고등공민학교로 전학을 온 후, 어느날 나는 진명학교가 있다는 효자동을 물어서 전차(그 때는 전차가 있었다)를 타고 진명여자중학교 교무실을 찾아갔다. 제일 가운데 앉아 계시는 분(나중에 보니 신도식 교감 선생님이셨고, 우리 동기 신운호의 부친이시다)께 가서 진명학교에 편입할 수 있는지 여쭙 보았더니, ‘어느 학교에 다니느냐’고 물어 보시고, 웃으시면서 지금은 안 되고, 검정고시를 거쳐 고등학교 입학 시험을 치르고 들어오라고 하셨다. 그 때부터 틈만 나면 진명학교 부근(주로 문방구)을 기웃거리며 진명교복을 입은 학생들을 훑쳐보았는데, 모두들 너무 멋져 보였다.

중3때 담임선생님께서 등록금도 제대로 못 내는 가정형편을 보시고 ‘(그 당시 졸업하면 최고의 대우로 취직이 되는)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를 가라’고 권하셨지만, 선친께서는 ‘진명여고에 갈 수 없느냐’고 하셨다. 담임선생님께서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 하시니까, 벌써 합격한 것처럼 기뻐하셨다. 드디어 진명여고 입학 시험을 치르는데, 박용경 교장 선생님께서 제일 가운데 앉으셔서 학생들 면접을 보셨다. 그 때까지 나는 지위가 높은 사람은 모두 남자일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연세도 높으신 여자 선생님이라 (그때는 교장 선생님인 줄은 몰랐다) 깜짝 놀랐다. 그 때 ‘遡及’이라는 한자문제를 내시고 어떻게 읽는지, 무슨 뜻인지 물으셨는데, 솔직히 모른다고 대답을 했으나, 이것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고 합격자 발표날까지 불안하였다.

(또, 그 해 진명여중 졸업생이 600명이고, 진명여고 입학정원은 특기생을 포함하여 480명인데, 응시생은 약 1100명이었다) 그러나, 합격자명단에 내 수험번호(1002번)가 있는 걸 보고 너무 기뻐서 경복궁 옆길을 달려가다가 혹시 잘못 본 게 아닌가 싶어 합격자 발표문을 보고, 또 보고, 네 번이나 확인을 하고서야 집으로 달려가는데, 경복궁 보도블럭의 다이아몬드안에 내 발이 쓱쓱 들어가 기분이 참 좋았다. 기뻐하시는 부모님을 보고 조금 효도했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막상 입학하고 보니, 학교서열이 4위여서 너무 속이 상해 공부를 게을리 했다. 어느날 (윤홍로) 국어선생님(나중에 단국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셨고, 우리동기 윤희숙의 오빠이시다)께서 수업에 들어오셔서 갑자기 나를 호명하시더니 ‘불만이 많은 거 같은데 5분 시간을 줄 테니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뭐든지 해 보라’고 하셨다. 불만이 가득 차 있던 터라 폭포수처럼 ‘지금이 어느 땐데 그저 (남자 중심의 삶에) 순종·헌신하는 것만 가르치느냐? 우리도 남자 못지않은 독립된 인간으로 살 수 있게 가르쳐야 되지 않느냐?’고 열변을 토했다. 그 다음시간이 강당집회였는데 서관에서 삼일당으로 가는데 이은영이라는 친구가 ‘너 배짱 좋다. (진명출신이 대부분이고) 타교생이 몇 명 안 되는데 뭘 믿고 그런 얘기를 하나?’ (요즘말로 ‘왕따 당하려고 작정하지 않았느냐’는 뜻이었다)는 얘기뿐, 다른 친구들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반응이 없어 속이 상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보니까 그렇게 방황하는 친구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켜 봐 주는 것 또한 ‘사랑’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고1 겨울방학 때부터 본격적으로 대학교입시에 도전할 생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고등학교 등록금도 제 때 못내는 가난한 형편에 대학교를 갈 수 없을 게 뻔하지만 ‘단지 돈이 없어서 원하는 대학교 못 간다’는 게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대학을 가든 못 가든 합격하고 나서 안가면 그래도 조금 덜 억울할 것 같아 최선을 다해 보기로 했다. (누구는 부자 부모를 만나고, 누구는 가난한 부모를 만나는데, 그건 태어나는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없는, 주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데, 돈이 없는 부모를 두었다는 것 때문에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포기해야 된다는 건 너무하다는 생각뿐이었다)

## | 판사의 꿈 |

(우선 판사의 꿈을 갖게 해주시고 1980년부터 2005년까지 25년 가까이 판사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 1) 故 황윤석 판사님의 영향

어릴 때 학교도 안 다니고 뛰어놀던 어느날 어른들께서 판사 얘기를 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되었다. 그 당시 황윤석 판사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셔서 왜 돌아가셨는지 등등 많은 얘기들을 하셨다. 그때 판사, 특히 여자판사 얘기를 들으면서 판사라는 직업에 대해 막연하게 동경을 하게 되었다. 그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는 알지 못하고 그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을 돕는 존경받는 직업이라는 생각에 나도 나중에 판사가 되고 싶다는 막

연한 꿈을 갖게 되었다. (그 때는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다. 내가 말하면 우리집 형편을 아는 사람들은 나를 돈키호테로 취급을 하거나, 비웃을 게 뻔했기 때문이었다)

## 2)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으로 진학

드디어 대학입시철이 되어 다들 어느 대학에 갈지 고민하는데 나는 입학금·등록금이 없는 데다가, 아들도 아닌 딸을 대학까지 보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시대였고 딸은 적당히 가르쳐서 좋은 데 시집보내면 된다고 생각하던 때였고, 설사 여자아이가 대학을 가더라도 그건 학문하려는 게 아니라 좋은 곳에 시집보내기 위해 간판(졸업장)을 따려는 목적이 대부분이어서 여자대학의 가정관리학과가 인기학과였다. 또, 여자가 너무 똑똑하면 팔자가 세다는 편견도 있었다. 집에서도 반대가 심했다. 생각다 못해 고3 (문병욱)담임선생님께 말씀드리니,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이태영 학장님께서 '좋은 학생을 보내주면 자신의 후계자로 키우겠다'고 하니 가 보라고 하셨다. 내가 가고 싶은 대학교는 아니었지만 우선 등록금 걱정이 없다고 하는데다가 내가 열심히만 하면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원하는 판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입학했으니 전액 장학금을 주지 않아서 언제까지 학교를 다닐 수 있을지 늘 고민이었다.

대학교 1학년 때인가 고민 끝에 문병욱 선생님을 찾아 뵙고 사정을 말씀드리니까 박용경 교장선생님께 말씀을 드려 우리나라 3.1운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던 스코필드박사님의 장학금을 받아 한 학기 등록을 마칠 수 있었다. 며칠 후 교장선생님께서 나를 국립의료원으로 데리고 가셔서 그 곳에 입원해 계시는 스코필드박사님을 만나게 해 주시려고 하셨으나, 그 때 박사님께서 많이 위중하신 상태이어서 잠든 모습만 뵙고 돌아왔는데 얼마 후 영면하시는 바람에 감사하다는 말씀도 못 드려 아쉬웠다. 직접 뵙고 감사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지만 그분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억하고, 유익한 일꾼이 되는 것이 진짜 감사드리는 것이라는 생각에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

## 3) 어디서 못나서 진명이 지나?

1975년, 국사과목을 실수하는 바람에 과락을 맞아 사법시험에 불합격했는데, (그 해 국사과목이 처음 시험과목으로 추가 되어 국사과 교수님 강의노트를 빌려 예상문제를 준비했는데 그 중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문제가 바로 시험에 나오자 너무 기뻐서 내리 1시간 30분동안 답안을 썼다. 그리고 30분 남기고 검토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예상하지 못했겠는가? 무언가 함정이 있지 않음

까?’ 생각하니, 내가 강화도수호조약 연대를 10년 착각한 것 같아 앞에 쓴 걸 모두 X자로 지우고, 30분 동안 정신없이 고쳐 썼더니 39.66점으로 과락이 되었다. 그해 국사과목이 40점만 되어도 합격할 수 있었는데 너무 아쉬웠다. 사법시험과 나는 인연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에 많이 방황을 했다.

그러나, 나중에 판사를 하면서, 판사라는 직업은 천둥번개가 쳐도 정신을 잃지 않고 마음이 흔들려선 안 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때는 과락 때문에 불합격했다는 생각에 힘들었지만 3년 동안 사법시험 준비를 더 하면서 최대한 나를 비우려고 노력하였다. 그 모든 경험이 나중에 겸손하게 판사직을 수행하게 해 준 것 같았다) 동기인 전효숙이 합격하여, 선생님들 뵈면 면목이 없었다. 그래도 인사는 가야 될 것 같아 박용경 교장선생님을 찾아 갔다. 저를 보시자마자 ‘어디가 못 나서 진명이 지나’고 호통을 치셨다. ‘저렇게 깊이 믿고 사랑해 주시는데, 내가 과연 최선을 다했는가’ 하는 생각에 고개만 푹 숙이고 있다가 죄송하다는 말씀만 드리고 나왔다. 그 후로 사법시험공부를 하다 방향이 될 때면 선생님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진명교육을 받은 내가 판사를 하면 그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공부에 전념하려고 노력했다.

## | 판사의 길 |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80년 서울가정법원 판사로 임관받아 2005. 2. 21까지 25년 가까이 판사로서 재직하며 진명교육의 진정한 가치를 많이 생각했다. 교훈처럼 진실한 가운데 마음을 열고 협조하면서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으면 이 세상은 훨씬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 또, 강당집회때 해주신 말씀들이 그 때는 듣기 싫어 몸을 비틀고 줄기도 했으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모두 피와 살이 되는 귀한 말씀임을 깨닫게 되었고, 머리로 알고 있던 말씀을 가슴으로 깨닫고 손발로 실천하려고 노력했다. 돌이켜 볼 때 진명에서의 교육이 나의 모든 것의 기초가 되었다는 생각에 세월이 흐를수록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게 된다. 덕분에 25년 가까이 판사생활을 하면서 칭찬은 더러 들었으나, 남의 지탄을 받지 않는 것 같다.

1980년부터 판사로, 1997년부터는 부장판사로, 2001년부터 4년간은 사법연수원 교수로 지내며 판결과 법조 후배 양성에 진력하면서 참으로 숨가쁘게 살아왔다. 한마디로, ‘영일이 없다’는 말을 절감했다. 판사일을

하면서 1주일에 1번씩 재판을 하고, 거의 매일 1건 이상의 판결을 써야 하는데, 머리로 그리 명석한 편이 아닌데다가 최소한이나마 가정관리는 해야되는 형편이라(시어머님, 친정어머님 모두 작고하셔서, 가정부를 쓸 수밖에 없어 어려움이 많았다) 진짜로 몸이 아프면 도저히 일을 해 나갈 수가 없는 형편이었다. 때로는 시가 쪽 결혼식에 안 나타난다고 판사라고 건방지다는 오해를 받아도 참을 수밖에 없었다.

하루가 24시간 밖에 안 되는데 할 일은 얼마나 많은지 밥먹고 잠자는 시간 말고는 거의 일에 매달렸다. 그러면서도, 내가 판사일을 하면서 명판사, 좋은 판사 소리는 못 들어도 좋지만, 적어도 나에게 재판받는 사람이 판결·법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억울한 일을 당하지는 않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에 작은 소리조차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러니 시간은 늘 부족했다. (지금도 걷는 것보다 뛰는 게 마음이 편하다) 여성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정관리, 특히 육아는 참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였다. 내 경우도 보수를 조금만 더 준다는 데가 있으면 말도 없이 사라지는 가정부를 붙잡고 살아가려니, 아이들이 커서 ‘(나에게) 전화만 걸 수 있어도 좋겠다’, ‘라면만 끓일 줄 알면 좋겠다’는 생각 뿐이었다. 아이들 TV 인형극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기록 보따리를 싸들고 집으로 달려가 아이들이 잠든 시간에야 파김치가 된 몸으로 정신을 가다듬으며 판결문을 쓰느라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다. 큰 아이를 낳고 충분히 쉬지도 못하고 밤에 판결문을 쓰다보니 얼굴이 퉁퉁 붓기도 했었다. 그 때, 남자 부장 판사님은 그런 나를 늘 못 마땅해 하시고, 자기관리를 잘 못해서 아이 낳고 몸이 퉁퉁해 졌다고 타박을 하셨다. ‘남편 잘 만나 살면되지, 여자가 왜 사서 고생이냐, 나는 판사 며느리 안 얻는다’ 고도 하셨다.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갖가지 거짓말을 해도 인내하면서 신(神)과 당사자들만이 아는 진실을, 모래밭에서 사금(砂金)을 캐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 가려내 판결을 했을 때, 어려운 수학문제를 푼 것처럼 기분이 좋았다. 판결 선고를 듣고 나가는 당사자의 ‘다행이다’ 하는 표정, 때로는 빙긋 웃으며 나가는 표정을 보면서, 새삼 판사라는 중책을 잘 감당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판사일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2001년 1월 친일을 한 이재극(왕족이었다)의 손부가 친일의 대가로 받은 부동산(이미 국가소유로 된)에 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에서 법이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각하 판결을 한 것과 소년사건에서 자격증을 따서 잘 살게 인도한 일(홍○○, 진○○ 등)이다.

## 이 선 희 동 문

- 1969년 진명여고(제58회) 졸업
- 1973년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10기 수료
- 1980년 판사로 임관되어 서울, 인천, 서울남부, 서울고등법원에서 근무
- 1997년 부장판사로 승진하여 대전, 수원, 서울동부, 서울중앙지방법인 부장판사로 근무
- 사법연수원에서 교수로 근무
- 2005년 3월 서울 서초동에서 사법연수원 교수를 끝으로 법관직을 명예퇴직한 후 변호사로서 법률사무소 개업



## 전미숙 (제66회)

무용인  
국립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원장

### 98 자랑스런 진명인상 수상

(미국 게일 리서치(Gale Research) 산하 세인트 제임스(St. James)가 발간한 세계 현대춤 사전에 등재됨)

### 세계적 무용인의 길로 나를 이끈 진명의 교육

**나는** 외동딸이었던 탓에 부모님의 배려로 유치원 때부터 무용을 접하게 되었으나, 열살 때 서울로 이사오면서 그만두었다. 중학교(신광) 시절에는 수학과 문학 분야에 관심이 깊었으나 진명여고에 입학하면서 예술적 분위기의 학교행사(강당 집회시 자주 부르던 우리집, 보리수, 선구자 등의 합창과 보수연, 백일장, 무용공연 등)을 접하면서 관심이 달라졌다. 특히 무용 특별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들의 활발한 활동은 나로 하여금 무용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갖게 했고, 그것을 계기로 나는 무용반에 들어갔다. 지금은 퇴임하신 박영란 선생님과 현재 수원대 교수로 계시는 최성이 선생님께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 삼일당 무대에 섰던 일, 보충수업시간에 무용학원에 가기 위해 교무실에서 선생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춤을 추었던 일을 생각하면 그것들이 얼마나 어설펠까 하는 생각에 지금도 웃음이 나온다. 그 외에도 진명여고 시절의 많은 추억과 소중한 배움의 기억은 내가 무용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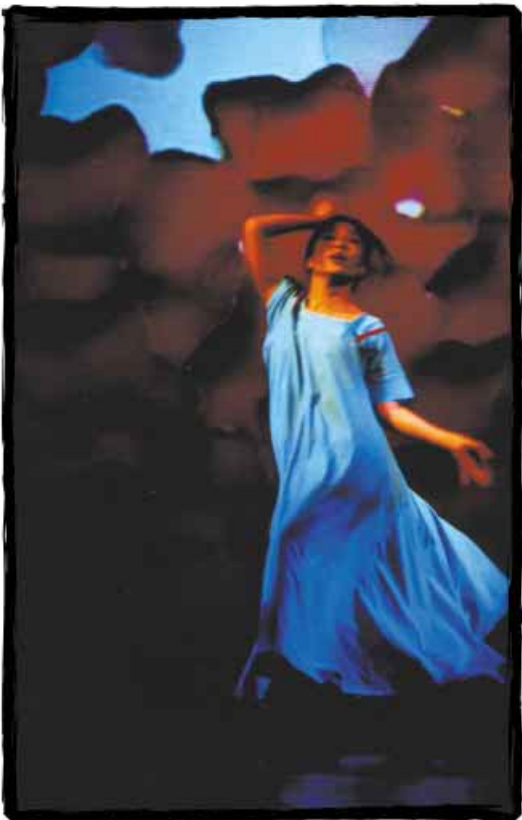


그 후 이대 무용과에서 육완순 교수님에게 현대 무용을 배웠고, 졸업과 동시에 현대무용단 '탐'

에 입단해 본격적인 무용인으로서의 길을 걸으면서 대학원에 진학해 공부를 계속했다.

동구여상에서 전임강사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83년, 늘 꿈꾸던 모교 진명에서의 교사생활을 시작했다. 1년에 불과한 짧은 시간이었지만 스승으로서의 자격과 책임을 배울 수 있었던 보람있는 시간이었다. 진명여고와의 인연을 아쉽게 마감한 후 수원대학교와 숙명여대에서 강사활동을 했고, 서울예술고등학교에서도 무용전문인을 가르친 바 있다.

현대무용단 ‘탐’에서의 활동은 나에게 바르고 역량있는 무용가가 될 수 있는 힘을 준 곳이라 할 수 있다. 탐의 예술감독인 조은미 선생님(현 이화여대 현대무용 교수) 역시 진명여고(63회) 선배로서 대학졸업 후 지금까지 20여년을 함께 해오면서 무용은 물론 교육자, 사회인으로서도 나에게 가장 큰 힘을 주신 분이다. ‘탐’에서 여러 작품에 무용수로 활약하면서 실력을 쌓을 수 있었던 나는 지난 87년에는 대한민국 무용제에서 <얼굴찾기>로 안무, 개인연기상을 수상했고, 평론가들이 선정한 우수작, 안무상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89년에는 첫번째 개인발표회를 갖고 <소리10-떠도는 노래>, <예감> 등을 안무했으며 90년도에는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수여하는 해외연수 장학생으로 뽑혀 1년 동안 영국 런던 킨텀퍼리리 스쿨에서 수업을 받았다.



귀국 후 영국에서의 인상을 그린 <객(客)>이라는 작품과 <웨딩 탱고>를 안무해 호평을 받았으며, 93년에는 나의 자화상을 작품화했던 <58년 개띠>를 안무해 문화체육부(현 문화관광부)에서 제정한 제1회 오늘의 예술가상을 받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그 해 여름 뉴욕 Bates에서 열리는 댄스 페스티벌로의 연수기간은 나에게 나름대로 무용을 재정비할 기회를 갖게 했으며, 94년에는 늦은 선택이긴 했지만 결혼을 함으로써 또 다른 각도의 삶을 시작했다. 96년 오랜 사회경험을 바탕으로 주변의 인간관계에서 빚어진 일들을 사회적 측면에서 바라 본 <개, 꿈 그리고 국화>라는 작품을 안무해 제1회 올해의 평론가상을 수상했고, 이어 <나비, 비>와 나의 결혼생활의 에피소드와 무게를 담은 <암꽃>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9월부터는 세계를 겨냥한 진정한 예술인을 육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국립한국예술종합학교에



서 일하게 되어 나 자신에게 새로운 다짐과 함께 다소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도 한다.

현재 대학교수 등 무용관련 활동가 중 진명여고 출신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대해 진명여고 출신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끼면서 나는 가끔 진명여고의 교육에 대해 생각해 본다. 문명의 혜택과 자유를 한껏 누릴 수 있는 미국보다 다소 자기중심적이고 전통을 중요시하는 유럽에서 현대무용의 작품성향이 더 깊어 있고 인간을 바탕으로 한다는 평가를 받는 것일까. 나는 그 차이는 바로 교육에서 시작된 것이며 교육의 결과가 아닐까 반문해 본다. 진명여고의 교육이 힘들었다는 얘기가 동창들간에 자주 오르내리지만 그 때 외치던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나왔던 노래 소리와 넘치지 않게 짜임새 있었던 교육이야말로 오늘날 많은 예술가들을 만들어 준 힘이 되었음에 다시 한번 진명에서의 배움에 감사를 드린다.

▲ 작품 <나비, 비>(1996년 발표)

전미숙 동문

- 진명여고 졸업(66회)
- 이대 무용과 졸업(육완순 교수에 사사)
- 「탐」에서 무용수로 활동
- 1987년 대한민국무용제에서 작품 「얼굴찾기」 개인연기상 수상
- 1989년 개인발표회 「소리10-떠도는 노래」「예감」안무
- 1990년 영국 런던 컨템퍼러리 스쿨에서 공부
- 1993년 「58년 개띠」 안무 · 오늘의 예술가상 수상
- 1993년 Bates(뉴욕)에서 열린 댄스페스티벌로의 연수기간 무용을 재정비한 시기
- 1994년 결혼
- 1996년 「개, 꿈 그리고 국화」 제1회 평론가상 수상  
「나비, 비」「암꽃」
- 2004년 국립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원장 - (현재)



## 유지나 (제68회)

영화평론가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연극영상학부 영화영상전공 부교수

스크린쿼터 연대 이사장

### “페미니즘은 저에게 종교이고 열정이고 존재의 근거입니다”

#### 교육공로훈장 (Palmes Academiques)을 받은 유지나 동문 (프랑스)

##### | 학창시절에서 프랑스 유학까지 |

학창시절에 나는 영화란 관심 밖이었다. 오히려 어린 시절부터 언니 오빠가 읽던 프랑스 소설에 매력을 느꼈던 터라 자연스럽게 이대 불문학과에 진학하였다. 프랑스문학을 좋아하다 보니 고등학교 때 불어를 열심히 공부하였고, 대학도 불문과를 선택하게 된 것이다.

“영화를 하게 된 과정이 아주 복잡해요. 대학에 들어가 철학도 함께 공부를 했는데, 매우 심취를 했건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공허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다 만난 게 인류학이었어요. 특히 영상인류학에 심취하면서 자연스럽게 다큐멘터리에 매력을 느꼈죠. 그래서 영상인류학을 공부하기 위해 프랑스에 유학을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프랑스 유학을 꿈꾸며 아르바이트를 해서 유학자금을 모으던 나는 ‘눈이 번쩍 뜨이는’ 일이 생겼다. 영화진흥공사에서 영화아카데미 1기를 모집하는데, 학비 전액 면제에 학업 우수자는 유학을 보내준다는 매력적인 제안이 붙어 있었다. 나는 오로지 프랑스로 가서 영상인류학을 공부하기 위해 그곳에 지원을 했고, 수석으로 합격을 했다.

##### | 프랑스 유학중 한국영화 보며 페미니즘에 눈 떠 |

비록 유학에 대한 영화아카데미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지만 그곳에서의 1년은 내가 영화로 전공을 바꿀 수 있는 충분한 계기가 되었다. 나는 그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 7백만원을 들고 파리로 유학을 떠났다.

“유학이란 게 다 고생스럽지만 가장 힘들었던 것이 책을 살 돈이 없다는



▲ 유지나 교수의 연구실엔 영화관련 서적과 비디오가 빼곡이 꽂혀 있다.

거였어요. 돈이 없어 값비싼 책은 못사고 복사를 했는데, 제가 약시라서 그게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프랑스나 외국에 가면 복수를 하는 심정으로 꼭 서점에 들러 책을 한아름씩 사요. 시간이 없을 땐 가장 큰 서점에 가서 제목과 목차만 주르륵 보고 골라 1시간 만에 몇백달러어치를 살 때도 있었어요. 한달 월급을 다 쓴 적도 있으니까요.”

나는 6년여의 공부 끝에 91년 프랑스 파리 7대학 영화기호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왔을때는 단순한 영화평론가가 아니라 시네페미니스트가 되어 있었다. 그건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에 있을 때에는 깊이 느끼지 못했던 우리 사회 여성관의 문제점을 프랑스에서 한국영화를 보며 절실하게 확인했기 때문이다.

유학 당시 나는 프랑스 영화를 소개하는 아르바이트도 했지만 반대로 낭트 영화제에서 임권택 회고전의 기획과 진행을 담당하는 등 한국영화를 프랑스에 소개하는 일도 했다. 그런데 한국 영화 감독을 초청해 기자회견을 하면 프랑스 기자들이 한결같이 묻는 질문이 있었다.

“예를 들어 영화 ‘개 같은 날의 오후’의 경우 ‘한국여자들은 저렇게 두들겨 맞습니까’ 하고 물어요. 영화 ‘씨받이’의 경우 ‘사랑하는 사람까지 저렇게 강간적으로 섹스를 합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면 한국 남자들은 그 대답을 못하죠. 사실이 그렇다고 말할 순 없잖아요. 거기서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크게 피해를 본 경험은 많지 않았다. 가부장적이지 않은 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모두 여학교를 나와 남녀차별을 겪을 일도, 가부장적 사고관을 세뇌받을 일도 없었기 때문이다. 잠시 영화아카데미에서 남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차별을 느끼긴 했지만 바로 프랑스로 유학을 갔기 때문에 큰 갈등을 겪지는 않았다. 나에게 페미니즘은 싸워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몸에 밴 것이었다.

“페미니즘은 여성이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모든 여성은 태어나면서부터 다 페미니스트예요.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아니라 하인이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살아가면서 가부장제에 조금씩 길들여지다가 죽기 직전에야 그 사실을 깨닫게 되죠. 페미니즘운동은 그걸 빨리 깨닫도록 하는 것인데, 나는 그게 빨랐을 뿐이죠.”

한국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프랑스에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는 돌아오자마자 한국영화에 대해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왜 영화는 한국 여성의 리얼리티와 접속하려 하지 않는가’ ‘유치한 남성 판타지 속에 갇혀 그들만의 리그를 하는데 언제까지 그 게임을 계속할 것인가’ 하고, 나의 한국영화에 대한 논쟁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지난해엔 ‘남성 판타지로부터의 탈주’ ‘여성의 주체성을 찾기 위한 영화평론가 유지나의 매혹적인 글쓰기’ 라는 부제를 단 ‘유지나의 여성영화산책’ 을 펴내기도 했어요.

“이따금 숨이 막혀요. 도대체 언제까지 어디까지 논쟁을 해야 하나 싶어 공허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아직 이 일을 그만둘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10여년 전, 내가 처음 페미니즘으로 무장한 채 목소리를 높였을 때 뒤에서 수군거리며 나를 힐난하는 남성들의 목소리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난 비겁하게 뒤에서 몰래 비난하는 건 완전히 무시해요. 자신 있으면 얼굴과 이름을 내놓고 당당하게 하자는 거죠. 누구든지 상대하겠다는 입장이예요. 하지만 누구 하나 당당히 나서서 그렇게 한 사람이 없었어요.”

굳이 페미니스트라는 잣대를 들이대지 않더라도 한국사회에서는 여성이기에 겪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벌어진다. 역시 한국에 돌아와 사는 이상 예외는 아니어서, 성희롱을 당한 적도 여러 번 있었다.

“후배들이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나는 이렇게 충고해요.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차분하게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 같은 남자들이 보기에도 문제라고 생각할 정도로 객관적으로 정리를 해놓으라고. 그런 일은 반드시 또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그때 아주 차분한 목소리를 사람들이 다 있는데서 왜 그런 일이 잘못되었는지를 설명하라고 해요. 그럼 그 남자는 다시는 같은 행동을 못해요.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물론 그렇게 해도 해결이 안되면 법정소송까지 가야겠죠.”

### | 한국사회에서 여성이기에 겪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 |

그는 영화평론을 통해 페미니즘을 전파할 뿐 아니라 페미니스트 계간지 '이프'편집인으로, '여성 관객 영화상' 준비위원장으로, '안티미스코리아' 격려(심사)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여성해방 계릴라 프로젝트에 헌신하고 있다. 최근엔 여성계의 화두가 된 호주제 폐지운동에도 적극 가담하고 있다. "저는 가장 보람있는 게 '안티미스코리아'가 이젠 소수인권운동가들을 위한 페스티벌로 정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스코리아선발대회가 최소한 공중파방송에서 방영되지 않게 된 데에 아주 큰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사실 미인대회는 시대에 뒤떨어진 거잖아요."

"페미니즘은 나에게 종교이고, 열정이고, 존재의 근거"예요. 그녀의 지난한 싸움들이 그걸 증명하는 듯했다. 그는 여성운동을 하면서 "버리면 얻는게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했다. 여성운동을 통해 생각이 같은 동료들을 만났고, 그들과 서로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하며 끈끈한 사상적 네트워크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 | 도발적인 당당함으로 남성 위주 사회에 저항하는 영화평론가 유지나 |

영화 마니아가 아니더라도 영화평론가 유지나를 모르는 사람은 많지 않다. 푹 부러지게 생긴 여자가 방송에 나와 '영화에 관한 한 내가 최고다'

라는 자신감 넘치는 말투로 속사포처럼 이야기를 쏟아내는 것을 보고 있으면 '저 여자는 누굴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들 만큼 강한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좋다' '싫다'를 밝히는 그녀의 당당함은 사람들에게 묘한 매력을 느끼게 한다.



▲ 제2차 CCD파리총회에서 우리나라 스크린쿼터제도에 대해 발제하고 있는 유지나 교수.

그녀의 당당함은 영화평론에 한정되지 않는다. 어쩌면 영화평론은 그녀가 여성운동을 펼치는 매개체일 뿐이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녀는 끊임없이 직설적으로 남성 중심적인 한국사회에 대해 시비를 걸고, 자신의 생각을 당당하게 펼친다. 그녀가 프랑스에서 돌아와 '시비'를 걸기 시작한 게 91년이니 벌써 10년도 훨씬 넘었건만

그녀의 칼날은 여전히 날카롭기만 하다. 도대체 '그녀의 도발적일 정도의 당당함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일까' 하는 궁금증을 풀기 위해 그녀를 만났다.

동국대학교 영화영상학과 교수실을 찾았을 때, 그녀는 며칠 후에 있을 세

미나에서 쓸 영상자료를 편집하기 위해 제자와 함께 비디오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약간 헝클어진 머리에 강렬한 붉은색 스페인풍 셔츠를 입은 그녀는 온몸으로 제스처를 써가며 빠르지만 딱 부러지게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잠시 후 그녀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 당당함과 직설적인 화법이 인상적이었다.

유지나를 이야기하려면 아무래도 아버지에 대한 부분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다. 아버지 고(故) 유두연 선생은 일본에서 불문학과 영상미학을 전공한 엘리트로 50~60년대를 대표하는 영화인의 한 사람이다. 유지나 역시 불문학을 전공한 후 영화계에 뛰어들었으니 아버지의 길을 뒤따라간 셈이다. 직·간접적으로 아버지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유두연 선생은 굴곡진 삶을 살았다. 영화평론가로, 시나리오 작가로 영화 감독으로 활동하며 명성을 쌓던 그는 전재산을 투자해 영화 ‘파멸’을 제작했지만 제목이 불온하다는 이유로 영화는 검열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공론에서는 제목을 바꾸라고 했지만 지식인 감독으로서 자존심이 강했던 그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영화는 개봉되지 못했다. 그로 인해 가세가 급격히 기울 것은 물론 유두연 선생은 그 충격으로 쓰러지고 말았다.



▲ 제자와 함께 영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유지나 교수.

“서라벌에 예대에서 강의를 하다가 쓰러지신 후 집에서 요양을 했는데, 주로 제가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때 아버지로부터 영화와 관련해 어떤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었어요. 함께 장기를 두거나 화투를 치는 게 고작이었죠(웃음). 오히려 초등학교 때라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아버지는 몸도 제대로 못 쓰는 웃기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몸도 제대로 못 쓰는 아버지에게 사람들이 끝없이 찾아왔고, 그들은 한결같이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그녀에게 일깨워주었다. 그래서 그녀는 ‘훌륭한 사람인 아버지를 이렇게 만든 것은 영화’라며 영화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사람들은 종종 영화 속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찾으려고 할 때가 있다. 등장 인물의 작은 습관 하나, 말투 하나, 감정도사에서도 닮은 꼴을 찾으므로 지리한 일상 속에서 영화 같은 삶을 꿈꾸는 것이다. 그렇다면 유지나가 꿈꾸는 영화 같은 삶은 무엇일까. 그녀에게 영화들 속에서 자신의 캐릭터와 가장 맞는 주인공이 누구인지 물어보았다. 그러자 그녀는 영화 ‘피아노’의 여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감수성과 ‘리타의 전설’의 리타처럼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은 테러리스트 같은 인물을 동경한다고 했다. 그녀다운 대답이었다.

“전 분열적인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마더 테레사 수녀처럼 헌신적인 삶을 살며 세상을 구원하려 하고 주위 사람을 돌보는 삶을 존경하는 한편으로는 마돈나의 파워풀한 여성성을 동경해요. 그래서 만약 지금 영화평론가가 안되었다면 ‘사랑의 집짓기 해비타트 운동’으로 유명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거나 마더 테레사 수녀 같은 삶을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마더 테레사 수녀와 같은 삶을 살기엔 지금 해야 할 일이 많아 보였다. ‘평소엔 여자 연예인들의 선정적 이미지만 탐닉하다가 몰래카메라 사건만 터지면 전통적인 요조숙녀론을 들이대는 남자 중심의 이중적 메커니즘’도, ‘연기 못하는 스타에게 수억원을 지불하는 한국영화의 짜증스런 공허함’도 여전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장 스크린 퀴터 사수를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야 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지금 영화배우 문성근의 뒤를 이어 스크린퀴터 문화연대 이사장으로 있다.

#### ■ 유지나 교수가 추천하는 여성을 위한 영화

- 올란도(1992년작, 감독 셸리 포터)
- 안토니아스 라인(1995년작, 감독 마린 고리스)
- 리타의 전설(2000년작, 감독 폴커 슐렌도르프)
- 서클(2000년작, 감독 자파르 파나히)
- 방랑자(1985년작, 감독 아네스 바르다)
- 폭군 이반(1945년작, 에이젠슈타인)
- 안개기둥(1986년작, 감독 박철수)
- 그대안의 블루(1992년작, 감독 이현승)

## 유지나 동문

## | 학력사항 |

- 1976년~1979년 진명여자고등학교(68회)
- 1979년~1983년 이화여자대학교 불어불문학 학사
- 1983년~1985년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불어불문학 석사
- 1985년~1986년 파리제7대학교대학원 영화분석 석사
- 1986년~1991년 파리제7대학교대학원 문학 박사

## | 경력사항 |

- 한국영화학회 · 영상문화학회 이사
- 스크린쿼터 문화연대 국제연대 위원장
- 동국대 예술대 연극영상학부 영화영상전공 부교수
- 1990년~ 세계영화백과사전 편찬위원
- 1993년~ 영화자료원 자문위원
- 1994년 1월~ 공연윤리심의위원회 심의위원
- 1996년 6월~ 한국영화연구소 부소장
- 1999년 9월~ 한국영화인회의 공동의장
- 2000년 3월~ 여성영화인모임 준비위원회 준비위원
- 2002년 5월~ 제2기 영화진흥위원회 위원
- 2002년 8월~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제2대 이사장

## | 수상내역 |

- 2000년 제21회 청룡영화상 영화평론상
- 2005년 프랑스 교육공로훈장



## 허성녀 (제68회)

아프리카 차드 선교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수녀님이 종신서원하실 때 한평생 지고가겠노라 택하신 말씀입니다

### 43세의 젊은 나이로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다 선종한 68회 허성녀수녀님의 가룩한 뜻을 기린다

사하라사막 남쪽 끝자락에 있는 가난한 나라 차드.

작년(1998년) 한달간 차드를 방문했을 때 문명세계의 끝에 있는 듯한 보잘  
것 없는 나라 그 까만 사람들과 만남의 기쁨, 친교의 기쁨을 체험할 수 있  
었습니다.

까망지만 미소로 환한 그들의 얼굴은 이제 저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얼굴  
이 되었습니다.

이제 떠날 때가 되었음을 실감합니다.

빠리를 거쳐 8월 15일 새벽에 차드땅을 밟게 될 것 입니다.

= 중      략 =

(1999년 7월 25일자 편지글)

「사막의 열풍에서 부르신 하느님」

지난 토요일(5월 2일) 아침, Paris에서 TGV를 타고 Lille로 돌아올 때,  
TGV 안에서 차드의 트럭 - 장거리여행 때 달리 교통수단이 없이 짐을 가  
득 실은 트럭 위에 사람들이 올라 탐-을 생각하며, 극과 극의 문명 앞에서  
목이 메어 왔습니다.

절대 빈곤! 그리고 그 더위! 올해는 유난히 '이상 더위'라 하더군요. 살갓을 파고드는 그 열풍을 막으려고 잠옷을 물에 적서 입고, 온 몸을 물수건으로 덮은 뒤 겨우 잠이 들었는데.

그만 배탈이 나버려 찬물도 못 먹고 뜨거운 물잔을 들고 앉아 갈증을 달래며 며칠 지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중에는 젊은 폴란드 신부님도 있어요. 차드에 온 지 1년이 채 안되었는데, 시청각 기기를 구입한다고 모자도 안 쓴 채, 땀별 40℃이상 되는 속을 몇 시간 헤매었나 봅니다. 저녁 때 공동체로 돌아왔는데, 갑자기 열이 오르더니 몇 시간만에 운명하셨답니다. 모든 이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이틀 후 교구에서는 긴급 공문을 발송,

그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은 우리에게 소중한합니다. ① 외출 시 반드시 모자를 쓸 것 ② 계속해서 물 마시는 것을 잊지 말 것 ③ 오전 9:00~오후 4:00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절대 하지 말 것'

사는 것 자체가 비장하죠? 전 많이 슬펐습니다. 이 편지를 읽으면서요. 프랑스로 돌아와 폭신한 요 위에서 하루를 꼬박 중간에 깨는 일 없이 잘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서 끼이끼이 한참 울었지요. 몸은 돌아왔으나, 마음은 차드를 못 떠나 자꾸만 차드로 돌아갑니다.

막상, 차드로 오기 전에 지냈던 두려움과 의구심이 사라졌습니다. 맑게 개인 하늘처럼 제 마음은 평온합니다. 한 달을 돌아보며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저를 차드로 불러내어, 열풍 속에서 사랑을 속삭여 주셨습니다.” 라고요.

이곳은 열풍의 계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침과 밤으로는 신선해요. 낮 12시 무렵부터 오후 4시까지는 그늘에서 42℃, 햇볕아래서는 50℃를 넘기 시작했습니다.

= 중      락 =

(1998년 5월 8일 편지글 중에서)

예, 저는 어느 수녀님 말씀대로 차드에 코가 꿰었네요. 공동체를 채울 사람이 없어, 저희 지구장은 Catalogue 뒤지며 사람을 찾고 있고요.



하느님 크시니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시리라며 기도하는 형편에 탁월한 건강으로 서서히 무난히 차드 생활에 젖어드는 저로서는 뒤돌아 볼 여유 없이 앞으로 앞으로 발자국을 내디딜 뿐입니다. 지나가면, '수녀님' 부르며 반가이 웃어주는 아이들에게 누이처럼, 엄마처럼, 친구처럼 응답하고픈 마음으로 코가 꺾어가고 있습니다. 국적 다르고, 피부색 다른 수녀님들과 웃고, 농담하고 때론 얼굴 시뻘개지며 논쟁하면서도 자매애로 서로 사랑스러워 하고 있으니 “차드 지구가 뿌리내릴 때까지 버티어줘야지” 하는 기특한 심정이 되어 가고요. 주교님도 발음하기 어려운 제 이름을 토박토박 부르며 반겨주시는 다정함을 보이시니, 이 찌그만 수녀 있는 것만으로도 족하신 듯합니다.

= 중      략 =

(2003년 5월 4일 편지글 중에서)

차드지구는 10월초

재무를 맡았던 폴란드 수녀님이 귀국하고 스페인 전 재무수녀님이 오셨었는데 열풍계절에 혈압이 190에서 200까지 올라 차드기후를 못 견디고 서둘러 귀국하셨기에 Marga가 재무 일을 잠시 돌보고 있습니다. 누군가 오기를 기다리면서요.





올 9월에도 한명의 프랑스 수녀와 한명의 스페인 수녀를 맞습니다.  
 저는 농업학교일에 맞들일수록 점점 촌 아줌마로 까맣게 그슬리고 머리는  
 하얘지구 있습니다.  
 맞들일 수 있다는 건 좋은 일입니다. 흐뭇함으로 마음이 넓어지는 듯도 하  
 니까요.  
 그러나 더위 탓인지 발끈대는 신경질, 고약함 등으로 마음 상하는 일이 잦  
 았지요. 요즘 손수녀님께서 두고간 우리말 불교 관련 책을 읽으며 마음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텐진 빠모의 마음공부를 읽으며 읽으면 읽을수록 나를 비우고 예수 성심과  
 일치 융합하게 원하는 마음이 신선하게 솟아나오고 내적 생활을 그토록 강  
 조하신 소피 수녀님 생각이 자주 납니다.  
 지금쯤은 신선해져야 하는데도 더위가 가슴을 부려 혁혁대고 있습니다. 올  
 해도 강우량이 적습니다. 나무는 점점 사라져 사막화 현상이 진행되고 다가  
 올 열풍계절의 더위는 끔찍하지 않을까 지레 겁먹습니다. 그래도 서로 더욱  
 더 사랑함으로써 기쁨 충만해지면 그로써 모든것이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 중      략 =

(2004년 11월 16일)



선종 11일 앞두고 한국관구의모든 수녀님께 보낸 편지

사랑하는 우리의 벗, 허성녀 까밀라 수녀님.

43세의 젊은 나이로 홀연히 하느님의 부름을 받아 세상을 떠난지 1년이 되었습니다. (2004년 11월 24일) 일주기를 맞은 지금 우리는 슬픔과 충격보다는 오히려 알짜배기로 살았던 허수녀님의 43년간의 삶에 대해 하느

님과 인간을 열심히 사랑하며 치열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다 간 허 수녀님의 거룩한 일에 대하여 감사와 부러움을 수녀님을 더욱 그리워합니다.

수녀님은 한 수도자로서 선교사로서 사하라 남쪽 끝자락 차드에서 가졌던 기쁨과 아픔, 사랑과 기도가 담긴 편지글을 모아 수녀님을 생각하는 소박한 편지글을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막의 열풍에서 들려오는 하느님의 음성에 이끌리어 차드로 가기로 결정했고 차드의 가난과 원시와 순수함을 사랑하며 살았던 5년간의 선교활동은 작은 키에 깡마른 체구로 까만 사람들과 만나는 기쁨과 사랑이 일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더 크게 느껴집니다.

수녀님.

우리에게도 현실에 안주하기 보다

감동이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밖에 없는 것처럼 시간을 아껴쓰고

모든이를 용서 할 수 있는 은혜를 전구해 주세요.

2005년 11월 27일 관구장. 김숙희수녀

순수! 정의! 공평! 사랑!

작은 키, 까무잡잡한 얼굴에 곱슬머리 여고 시절이나 교사가 되어서나 수녀님이 되어서나 언제나 순수하고 정의롭고 공평한 사랑을 베풀던 ‘그 모습 그대로’ 기억하겠습니다. 타인에게는 지나칠 정도로 관대하면서도 자신에게는 얼마나 엄격했는지 거의 결벽에 가까울 정도였던 수녀님의 성품. 진명에서의 제자가 같은 수녀원에 들어왔을 때 눈 길 한 번 더 안주시던 공

평한 수녀님. 하지만 그 제자는 자라서 수녀님의 그 맘을 다 알고 헤아릴 수 있는 속내깊은 제자가 되었답니다.

세계 어디서나 e-mail로 소식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세상에서 2-3시간을 걸어서 학교까지 가야하는 열악한 이국 땅에서 그 곳 원주민들은 하루에 한끼를 먹고 사는 데 왜 우리들은 3끼를 먹고사느냐며 수녀들에게 그 곳 사람들과 하나가 되길 원했던 수녀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버리고 그 곳에 동화되려 했던 뜻에 따라 육신도 머나 먼 차드 땅에 고이 묻히셨지만 수녀님의 삶은 영원히 우리 들 가슴에 살아 숨쉬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수녀님 평안히 잠드소서.

(동료 교사였으며 진명동창이었던 68회 졸업생 배경숙  
현 진명여고 재직중임)

허성녀 동문

- 진명여고 졸업 (68회)
- 이화여대 불어교육과 졸업
- 진명여고 불어교사 6년 역임
- 성심여고 교사 역임
- 성심수녀회 입회 (1988년 3월 19일)
- 아프리카 차드에서 선교 및 봉사활동
- 현지에서 풍토병으로 선종 (2004년 11월 24일)
- 2005년 4월 21일 자랑스런 진명인상 수상





## 김 순 덕 (제69회)

동아일보 여성최초 논설위원

대한 언론상 · 논설부문수상 (14회, 2005. 12. 15)

### 나의 여고시절

**언제** 이렇게 나이가 먹어버렸나 싶다. 내가 진명여고생이었던 시절이 눈에 선한데 어느새 중년의 아줌마가 돼버렸다니. 한밤중에 책장에서 내 옛날 일기장을 발견한 딸애가 한참을 읽다가 내가 방에 들어오는 걸 보고는 “한심한 중딩이었군!” 하며 책 나가버린 적이 있다. 그애가 지금 고1이다. 목동에서 진명여고가 인기폭발이라기에 그쪽으로 이사하자니까 무섭다며 싫다고 했다. 똑똑한 학생들 틈에 끼어들었다 뒤처질까 겁났던 모양이다.

내가 진명에 입학하던 1977년엔 안타깝게도 인기 만점 학교라 할 수 없었다. 고교평준화 이전에는 만며느리학교로 이름을 떨쳤다는데, 뽕뽕이 세대인 우리는 결코 백조가 될 수 없는 미운오리새끼 대접을 받았던 것 같다. 시내 한복판의 공동학군에 자리 잡고 있어서 만며느리감이 되든 못되든 각계각층의 학생들이 몰려온 까닭이다. 그때도 지금처럼 과외가 성행한데다, 현직교사가 과외 교습하는 것까지 합법적인 시절이어서 몇몇 선생님들은 교내 지도보다 바깥 활동에 분주하곤 했다.

그래도 좋은 선생님들이 있어 학교생활의 기억은 오래 남는다. 고2때 담임이던 권오인 선생님은 당시만 해도 몇 안 되는 총각선생님이었다. 교실을 배정받자마자 60명 전체와 함께 비누칠 대청소를 하고 페인트칠을 한 것부터 시작해서, 중간고사 때 내내 아이들 긴장하라고 까만 ‘독수리 니트’를 입고 오는 쇼맨십을 발휘하기도 했고, 체육대회 때는 학생들 하나하나 사진도 찍어주었다. 전교생의 질투를 받을 만큼 선생님은 우리 반에 전심전력을 다하셨다.

그중에서도 특히나 두고두고 고마운 점은 나의 잠재력을 발견해 준 분이 바로 선생님었다는 점이다.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은 자신을 알아주는 이를 만날 때 없던 힘도 솟게 된다. 선생님은 밤에 우리 집에 전화를 해서 “자는거 아니냐. 일어나서 공부해라” 해주셨다. 그래서 지금도 딸의 담임선생님을 만나면 간곡히 부탁드리곤 한다. 나도 내게 관심 가져주는 선생님을 만나서 부쩍 컸다고. 아이들에게는 선생님 말씀이 가장 큰 자극이 되는 법이니까 가끔 한마디라도 던져 주십시오.

출신학교의 교풍은 자신도 모르게, 뽕뽕이든 아니든 배어나오는 모양이다. 진명 출신이라고 하면 남들은 내가 꽤 괜찮은 품성을 갖췄는 줄 안다. 만며느리 학교에서 함부로 배우진 않았을 거라고 믿는 것 같다. 진명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게 살아야겠다 싶다. 평균수명이 점점 길어진다니까 어쩌면 개교 150년이 될 때까지도.

## [동아광장/김순덕 칼럼]

### 민주주의가 울고 있다.

참 희한하다. 지구 반대편에 참여민주주의를 유독 강조하는 나라가 또 있다. 15일 대통령 소환투표를 치른 베네수엘라는 대통령이 나서 참여를 역설해온 국가다. 민주주의는 원래 1인1표를 지닌 국민의 참여를 전제로 한다. 지당한 사실에 역점을 둘 땐 대개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같은 참여정부의 국민된 입장에서, 대통령직을 잃을 뻔한 위기를 이겨낸 우고 차베스를 보는 심정은 복잡하다. 참여만 비슷하면 차라리 좋겠다.

#### ▶ 그들은 왜 차베스를 선택했나

차베스에겐 ‘차비스타’, ‘볼리베리안 서클’이라는 열렬한 지지자들이 있다. 1999년말 그가 만든 새 헌법은 정부조직으로 입법 사법 행정 외에 선거감시기구와 ‘시민파워’ 까지 두었다. 이들은 대외민주주의를 경멸한다. 컬럼버스에서 이어진 소수 백인세력이 부와 권력을 독점해온 과거사 때문이다.

차베스의 성공은 인구의 70%가 넘는 빈민층의 참여 덕분이었다. 분노와 증오정치의 폭발력을 간파한 그는 ‘호화별장에서 흥청대는 기름 부자’,

‘약탈적 과두집단’ 같은 수사로 주류세력을 공격했다. 나라는 양극화됐다. 불화와 편 가르기가 그의 정치이념이라고 미국 하버드대 리카르도 하우스만 교수가 평했을 정도다.

개혁과 분배를 최우선으로, 국가와 시장에다 연대까지 더한 ‘제4의 길’을 내건 차베스 집권 6년. 그들은 과연 잘살게 됐는가.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에 따르면 당선 2년 만에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950년대 수준으로 떨어졌다. 중산층의 국가탈출이 시작돼 2000년에만 15만명이 미국 플로리다로 떠났다. 반(反)시장적 개혁에 투자가 멈췄다. 자본유출을 막겠다며 2003년초 정부가 환율개입을 시작하자 화폐가치는 폭락했다. 작년엔 인플레이가 30%였다. 빈곤층은 500만명이 늘었고 지지율이 30%대까지 추락했다.

그런데 차베스는 대통령 불신임투표에서 살아났다. 비결이 궁금하지 않은가. 유가폭등이 일등공신이다. 국민투표 실시 결정 이후 넉 달간 차베스는 세계 5위 산유국의 석유 수입을 빈곤층에 ‘게릴라 복지’로 퍼부었다. 무상 교육 의료 식료품까지 지원했다. 58%의 대통령신임 찬성은 여기서 쏟아졌다. 그게 1인1표의 민주주의다. 인간은 이렇게 간사하다. 자신에게 손해 잡히는 혜택이 주어진다면 반대와 지지가 바뀌는 건 순식간이다.

과거 부패했던 주류세력은 차베스의 헌정질서 파괴를 비판할 뿐,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그들 주장대로 차베스는 개헌과 개혁입법, 사법개혁을 통해 국회와 법원 중앙은행까지 장악했다. 빈곤층에 쓴다며 국영석유기업(PDVSA)의 수입을 내놓도록 한 것도 위헌소지가 있다. 국민투표 청원에 서명한 공무원의 목을 자르고 투표전날 언론사 사찰까지 했다.

그게 대수인가. 빈민의 구세주인데. 헌법과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한 대통령이되 차베스는 분명 민주선거로 선출됐고 재신임됐다. 그렇다면 도대체 민주주의는 뭐란 말인가.

대통령이 무서운 건 이 때문이다. 좌파 대통령 한 사람의 신념이 나라를 바꾸는 현실을 베네수엘라의 차베스가 보여준다. 국민이 선택했다는 이유에서다.

### ▶ 이제는 대통령이 무섭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이념으로, 때로는 말실수처럼 밝혔던 일들이 하나하나 실현되고 있다. 사회전방위에 지배세력 고체를 이룬 데 이어, 위헌소지가 있는 법률들이 개혁입법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이전 기억속의 잘못된

까지 물을 태세다. 대통령 못해먹겠다던 그가 국민을 충격과 불안에 몰아 넣은 것이 성공의 잣대가 될 수 있다면 노 대통령은 충분히 성공했다.

그러나 1인1표의 민주주의는 권력의 획득을 정당화했을 뿐, 권력의 남용까지 허락하지 않았다. ‘참여세력’을 뒷심삼아 헌법을 흔들고, 법에 의한 지배와 사유재산권 언론자유 등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외면하는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의 수장이랄 수 없다.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illiberal democracy)의 선출된 독재자일 뿐이다. 집권세력이 한때 타는 목마름으로 불렀다는 민주주의, 그 민주주의가 지금 그들에게 유린당해 울고 있다.

## [동아광장/김순덕 칼럼]

### 막심이와 어머니

막심 고리키의 소설 ‘어머니’ 얘기가 아니다. 막심이는 불효막심한 내 딸의 호칭이다. 딸은 내신전쟁 때문에 고통받는 척하지만 막심 고리키가 누군지 모를 만큼 책과 담쌓고 살아서 논술시험인들 잘 볼지 걱정되는 ‘저주 받은 89년생’이다.

한편으론 다행이다 싶기는 하다. 진짜 막심의 어머니처럼 엄청난 포용력과 사명감이 있느냐고 따진다면 할 말 없어서다. 이맘때면 늘 마스크를 장식해온 훌륭한 분들의 높고 높은 어머니 은혜를 따라갈 경쟁력도 없다. 은혜는 커녕 죽기 전에 어머니라고 불러볼 수나 있을지 모르겠다.

누구나 자기세대가 가장 불행하다고 믿는 법이지만 실험용 모르모트를 낳은 엄마들은 더 불행하다. 자기가 중간고사 못 봐놓고 엄마 때문에 89년에 태어나 이고생이라고 주장하는 막심이들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유치원부터 여자 수 적다고 대우받고 자라 건방이 하늘을 찌르는 딸을 둔 엄마는 더 불쌍하다.

#### ▶ “엄마 때문이라니까!”

특히나 엄마들을 돌게 만드는 건 내 속으로 나온 나 닮은 딸이 제 엄마를 우습게 여길 때다. 공부나 잘하면서 잘난 척하면 참아주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다 엄마 때문이라고 주장할 땐, 안 그래도 중년의 정체성 위기를 겪고 있는 엄마들은 왜 사나 싶어진다.

공부 잘하는 옆집 아이 가리키며 “재 좀 봐라” 했다가 딸한테 “재네 엄마는 서울대 나왔잖아”라고 핀잔만 들었다는 패전담은 보통에 속한다. 친구 같은 엄마가 되고 싶었는데 엄마를 몸종으로 여기는 건 물론이고 모든 잘못된 핑계를 엄마한테 대는 통에 선제공격적 모녀전쟁이 일상이라는 이들도 수두룩하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건 이게 우리만의 현상은 아니라는 점이다. 영국에선 엄마와 딸의 언쟁이 5일에 두 번꼴로, 한 번에 15분씩 벌어진다는 조사도 있다. 모자간에 나홀에 한 번, 6분 정도라니 엄마와 딸의 애증은 세계 공통인 모양이다. 같은 여자여서 피차 너무나 감정적인 데다 엄마에겐 딸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나이고, 딸 또한 가장 만만한 사람이 엄마여서다.

이런 전쟁에서 판관이 지는 사람은 대개 엄마들이다. 첫째는 괜히 딸의 신경 거슬렀다가 성적이 떨어지거나 유서라도 발견할까봐 겁나서고 둘째는 딸이 엄마를, 또는 딸이 제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엄마가 딸을 사랑하는 것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이를 뻔히 아는 영악한 딸들은 엄마를 이용하고 또 착취한다. 억울한 엄마들은 너 같은 딸 낳아서 꼭 요만큼만 당해보라고 악을 쓰고.

이 대목에서 고백하자면, “엄마 때문에 미친다니까”와 같은 ‘엄마 탓하기’는 지금 중년의 엄마들이 그 옛날 열심히 써먹던 무기였다. “너 같은 딸 낳아서...” 악담 역시 이젠 노인이 된 엄마로부터 술하게 들어왔다. 테크놀로지가 아만 세상을 뒤바꿔놓는대도 엄마와 딸은 영원히 안 변하는 애증관계인 거다.

### ▶ 있는 그대로 봐주기

위대한 어머니를 둔 훌륭한 사람이 아니어도 지금의 내가 되기까지 내 엄마의 작용을 부인할 수 없다. 거꾸로 내가 이 모양인 현실이 엄마 때문만은 아닌 것도 분명하다. 같은 배(服)에서 나와 똑같이 길렀어도 형제자매가 얼마나 다른지는 자식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절감한다. 부모가 어떻게 기른 대도 자식이 타고난 한계를 넘기 힘들다는 뇌신경과학자들의 연구는 보통 엄마들에겐 고마운 소리다.

어머니 덕분이라는 겸양은 미덕이되 엄마 탓이라는 핑계는 안 통했으면 좋겠다. 내 불효막심어도 내 몸에서 태어나준 것만으로도 평생 할 효도 다했다. 더 이상 바라는 건 어머니 아닌 엄마의 욕심이다.

김순덕 동문

| 학력사항 |

- 1980년 진명여자고등학교(69회)
- 1984년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 경력사항 |

- 1983년 12월 동아일보 편집국 입사
- 1984년 6월 동아일보 생활부
- 1989년 7월 동아일보 편집부
- 1992년 6월 동아일보 기획특집부
- 1994년 1월 동아일보 문화부
- 1997년 3 동아일보 문화부 차장대우
- 1999년 3월 동아일보 문화부 차장
- 1999년 8월 동아일보 생활부 차장
- 2000년 5월 동아일보 이슈부 차장
- 2000년 11월 동아일보 편집국 차장
- 2002년 7월(현) 동아일보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 김 인 숙 (제71회)

1983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단편 「상실의 계절」 당선으로 등단  
2003년 27회 이상문학상 수상  
소설가

### | 자전적 에세이 |

비우고 싶은 내 삶과 내 글

‘짜야만 할 것이 통곡할 만큼 절박했던 시절을 회상하며’

그때 내 글은 ‘나’로 인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시대’로 인해 부끄러웠다.  
내게 주어졌던 삶, 그건 소망과는 달랐지만, 그래도 그건 내 삶이고 내 글이었다.

### | 시조백일장에서 작가의 꿈을 그리던 고교 시절 |

아직 고등학생일 때, 나는 학교 문예반에서 시조 수업을 받았다. 당시 우리 문예반의 담당 선생님이 시조시인이셨는데, 그분의 특별수업 덕분에 우리 문예반 학생들은 당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시조백일장을 휩쓸고 다녔다. 여고생이 시조를 쓰는 일이 그리 신나는 일일수는 없었으나 수업을 빼먹는 재미 때문에 나 역시, 때때로 시조백일장에 참가했다. 가을 땡벌 아래, 고궁의 뜰에 주저앉아 쓰던 시조들이 지금도 떠오른다. 끄끙거리 써놓고는 3434 3434 3543 운율이 맞았나 다시 글자 수를 헤아려보던 기억도. 그러한 대회에서 나는 간혹 장려상 같은 것을 받기도 했는데, 지금 떠오르는 것은 상장을 받을 때의 기쁨보다 고궁에 쏟아지던 햇살이다. 고궁은 완전히 열려 있는 공간이었으나,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그 열린 공간 안에서 닫혀 있었다. 햇살이 멀미나게 고궁의 뜰 위로 내리쬐었다. 그곳에서 무료하고, 지루한 시간이 흘러갔다.

글을 쓰는 것을 싫어하지는 않았으나, 나는 그렇게 고인 듯 흘러가는 시간들이 싫었다. 나는 자유롭게, 활동적으로 그리고 화려하게 살고 싶었다. 글쓰기가 내 특기 중목이기는 했지만, 그것이 내 삶의 소망인 적은 없었다. 나는 방송국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PD가 무얼하는 직업 인지는 모르면서,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그 소망이 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신문방송학과에 진학을 했지만 기자가 되겠다는 생각은 없었다. 가급적이면 무대와 가까운 곳. 스포트라이트의 언저리에 있고 싶었다. 스포트라이트는 엉뚱한 곳에서 왔다. 머리 위에서가 아니라, 갑자기 등 뒤에서 쏟아져 오듯 내게 작가라는 이름이 그렇게 밝혀졌을 때, 내 모습은 바로 그 1년 전 시조백일장에서 3434 운율을 맞춰 상이나 타기를 바라던 문예반 여고생에서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다. 느닷없는 작가 호칭에 놀라, 나는 당해년도 나와 같이 신춘문예에 당선을 했던 사람에게 이렇게 묻기도 했다.

### | 신춘문예하고 백일장이 다른 건가요? |

백일장의 가장 큰 재미는 하루 수업을 빼먹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혹시 상이라도 타게 되면 좀더 기분이 좋게 될 뿐, 그걸로 끝이었다. 그러나 작가가 된다는 것은 이제 시작을 의미했다. 박수와 스포트라이트의 시작이 아니라, 박수가 끝난 뒤부터 찾아오는 정적의 시작..... 그 다음에는, 나를 바라보는 시선들만 남았는데 그 시선 중에 가장 가혹한 것은 여전히 어리둥절한 눈을 두리번거리고 있는 나의 것이었다. 어찌면 누구도 더 이상은 나를 바라보지 않았을지 모르나, 그 후 나는 단 한순간도 나를 들여다보는 시선을 거둘 수가 없었다. 내 시선이, 나에게 가혹했다.

### | 가장 행복했던 글쓰기는 '나 홀로'를 독자로 쓰여졌을 때 |

나는 지금도, 나이가 아주 많아서 등단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부러운 마음이 든다. 그들은 통장의 잔고가 아주 넉넉한 사람들처럼 보인다. 혹은 여름 내내 장작을 마련해 놓았다가 이제 헛간 가득한 장작의 첫 토막을 꺼내 켄 불을 때기 시작하는 사람처럼도 보인다. 내가 작가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배운 것은 내 가난이었고, 그로 인한 부끄러움이었다. 헛간에 장작을 쌓을 사이도 없이, 길거리에서 주은 토막 하나라도 있으면 일단 때고 봐야 했다. 좋게 말하면 성실성으로도 평가되는 20년 동안의 내 글쓰기는, 그러나 실은 늘 빈곤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더 채우지 못하고, 더 세계 때지 못한 채 군데군데 그늘음이 배어 있는 그 글들이, 가난한 아궁이 속의 재처럼 나를 괴롭혔다.

글쓰기가 내게 가장 행복했던 시절은, 그것이 오직 나 혼자만을 독자로 하여 쓰여졌을 때였다. 그러니까 등단 직전, 그저 내가 원하는 스토리들만 쓰고 있었을 때, 나는 누구의 시선도 염려하지 않았고, 내가 땀방이 그 저 내 몸 하나만을 따뜻하게 만들면 그만이었다. 당시 원고지 앞에서 나는 자유로웠고, 적어도 나 자신에 관한 한은, 완전히 표현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후, 나는 통속작가가 된다는 것과 좋은 작가가 된다는 것의 구분에 대해 두려움을 느꼈고, 나 자신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의 경계에

대해 겁을 먹었다. 한 편의 글을 써놓고, 혹은 쓰다가 말고, 나는 때때로 내게 물었다. 행복한가? 그러나 그다지 행복하지 않았다. 그런 시간들 속에, 혼자 걸던 노을녘의 거리가 또 떠오르고, 백일장을 치르던 고궁의 가을 땡벌이 떠올랐다.

### | 비우지 못한 채 재를 쌓는 게 인생이고 또한 글쓰기 |

얼마 전부터 나는 중국에서 살고 있다. 외국 생활이 이번이 처음인 것은 아니다. 꼭 10년 전에도 나는 외국에서 산 적이 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도 그렇지만, 10년 전에도 역시 바닷가 동네였다. 한국을 떠나면 무료해지는 일상도 똑같아서, 특하면 하는 일이란 게 바닷가 산책이었다. 10년 전, 남태평양에 맞닿은 바닷가 해변에 앉아서 나는 그때까지 내 안에 쌓여 있던 환멸과 노여움을 잊었다. 환멸이나 노여움보다 더 절실한 것은 그리움이었다. 나는 내가 살던 곳의 모든 것을 그리워했고, 심지어는 내가 살던 곳에서 겪었던 외로움까지도 그리워했다. 어느 날은 푸른 바닷물이 내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 내 안에 쌓인 모든 것을 휩쓸고 다시 속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았다.

텅 빈다는 것..... 그때 내가 받은 느낌이 아마 그러했을 것이다. 텅비어 있는 곳에, 내가 써야 할 것 같은 것, 내가 남김없이 나를 드러내야 할 것 같은 것 그리고 비로소 어이, 어이 소리 지르며 누군가에게 절실히 이야기하자고 청해야 할 것 같은..... 그런 기분들이 들어찼다. 소진만 하면서 살아온 듯한 삶에, 어찌면 그 흔적들이, 그 흔적의 재투성이가 내게는 전부일지 모른다는, 어찌면 그렇게 내 헛간이 가득 차있는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다.

그때에도 나는 아마 내게 물었으리라. 행복하지 않은가? 그렇다. 아니다라는 대답 대신 써야만 한다는 대답만 들렸다. 시드니에서의 1년반 생활을 청산하며 이삿짐을 꾸리면서 썼던 글이, 그 후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내 생의 첫 번째 문학상을 안겨주었다. 이번엔 누구도 내게 ‘경계하시오’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전보다 더 경계해야만 했다. 또 떠나지는 않을 테니..... 이제 환멸과 노여움과 그리움까지 끌어안고 여기에 불박혀 있을 터이니.....

그러나 그 후 10년, 나는 다시 또 외국에 나와 있다. 10년 전 그때처럼, 다시 한 번 텅 비는 느낌을 기대했을 것일까. 새벽 해가 뜨기 전에 바닷가 산책을 나가, 바닷가에서 일출을 맞는 것이 요즘의 내 일상이다. 나는 아직 해 뜨기 전의 바다에 대고 말한다. 어서 들어와, 내게로 들어와.....

내 안에 빈틈없이 들어와..... 나를 비워주겠니.....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어, 나이만큼 영리하거나 교활해져서 나는 나를 비우는 것이 다름 아닌 나라는 것을 안다. 그리고 생애 가장 불가능한 일중의 하나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도 안다. 그러나 어떠한가..... 비우지 못한 채 재를 쌓는 일도 또한 인생이라면, 그것이 결국 또한 글쓰기이기도 할 터이니.....

### | 데모 군중 속에서 보도블록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던 날 |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기억의 여러 갈피들 속에서 잊혀진 줄 알았던 장면 하나가 떠올라 자꾸만 나를 붙잡는다. 그때가 몇 년도였을까. 지금은 그게 몇 년도에 일어났던 일인지도 잘 모르겠다. 매일같이 사람들이 스스로의 몸을 불에 태우던 그해, 나는 아직 갓난아이를 남의 집에 맡기고 그야말로 오랜만의 외출처럼, 거리로 나왔다. 그날 열사의 목록에 이름이 오르게 되었던 사람은 누구였던가. 차도를 장악한 시위군중들 사이에서 빠져나와 나는 인도턱의 보도블록에 쭈그러 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써야만 할 것'이 그토록이나 절박하던 시절을 살기도 했다. 그때 내 글은 '나'로 인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시대'로 인해 부끄러웠다. 이제는 해묵어버린 듯한 그런 기억이 지금 새삼 떠오르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내게 주어졌던 삶. 그것은 소망과는 달랐지만, 그래도 그것이 내 삶이었고 내 글이었다는 걸 지금 이렇게 서둘러 말해도 되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원컨대, 텅 비는 것보다 오히려 비워지지 않게 하기를, 잊기보다는 잊혀져가는 것까지 모두 끌어안고 더 천천히, 더 느리게 갈 수 있기를..... 언젠가, 그게 아주 오랜 후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느리고 완만한 언덕 위에서 나를 내려다볼 수 있기를..... 원컨대.....

## 수 필

### 제목 : 가벼움의 미학

냄비 두 개, 후라이팬 하나, 칼과 도마와 가위, 그리고 빗자루와 세숫대야. 이것이 중국에 도착 한지 일주일만에 내가 장만했던 살림의 전부였다. 바로 그 전날 나는 가구가 딸린 집을 구했다. 여관에 머물며 급하게 구한 집이라, 월세가 비싸기는 했지만 중국의 집이란게 얼마나 험할까 걱정했던 예상과는 다르게 실내장식이 매우 따뜻한 느낌을 주는 집이었다. 집주인은 방 두 개짜리 좁은 아파트를 구석구석 보여주었는데,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처지라 나는 집주인이 내게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그때 집주인은 내가 쓰게될 그의 가구들을 보여주었다. 세탁기와 에어컨만 빼놓고는 필요한 가구는 전부 있었다. 가구 딸린 집이라 비싼 월세를 지불하는 것이니 그의 가구들을 내가 쓰게된다는 것에 의문이 있을 건 없었다. 그러나 그 내용물까지도 내가 쓰게되리라는 것은 몰랐다. 내가 시내의 까르푸에 들러 장만한 그 알량한 살림살이를 들고 말하자면 이사를 갔을 때, 집주인은 그야말로 내게 받은 돈을 챙겨 몸만 빠져나갔다. 집을 계약할 때 그릇도 쓰겠냐 묻길

래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고 그건 싫다고 했더니 씽크대 속만 비웠다. 침실에는 침대도 있고 시트도 있고, 시계와 액자 장식물들이 그대로 있었다. 화장실에는 쓰레기통과 변기를 닦는 솔, 그리고 욕실용 슬리퍼도 있었다. 거실에는 커다란 인형과 큰 화분이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고, 주인이 놓고 간 액자 속에는 그 집 첫머리 아이의 사진까지 있었다. 침대야 어쩔 수 없지만, 남이 쓰던 시트까지 쓰고 싶지는 않아서 이튿날 침대 시트를 새로 산 것 이외에 더 이상 살림을 장만할 것이 없었다. 텅 비어있는 씽크대 속을 채울 필요도 없었다. 한국에서 떠나올 때, 플라스틱으로 된 피크닉 세트를 가져왔는데 그 속에 밥그릇이 네 개 국그릇이 네 개 접시도 큰 것 작은 것 네 개, 또 컵이 네 개나 있었다. 새 집에서 먹게된 첫 끼니, 저녁식탁 앞으로 다가온 아이가 ‘엄마, 우리 소풍왔어?’라고 말하며 기막혀하긴 했지만, 무슨 상관이라. 삼단 백 두 개만 들고 온 이국 살림 일주일째에,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은가.

살림을 늘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은 여차피 한국으로 돌아갈 때에는 버리게 될 물건들이라는 생각 이외에도, 예정 없는 이국 살림에 너무 정붙이듯 살지는 말아야겠다는 생각 때문이기도 했다. 침대 시트도 가장 싼 것으로 샀고, 꼭 필요한 세탁기도 사지 않았고, 청소기 대신에 빗자루를 샀다. 아이가 인형 그림이 그려져 있는 자기 방의 커튼을 못 견뎠지만, 커튼을 바꾸지도 않았다. 며칠이 지나면서, 피크닉세트의 플라스틱 그릇들로만은 전자레인지 쓸 수가 없어서 사기그릇 몇 개를 사고, 쓰레받기 정도는 있어야하지 않겠나 해서 쓰레받기를 하나 더 산 것 이외에는 그야말로 전혀 살림을 늘이지 않았다. 아이가, 우리들의 소풍은 언제나 끝나는 거냐고 짓군게 물어오곤 했지만, 그러나 나는 그 간소한 살림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다. 옷장 속에는 반드시 필요한 옷들만 있었고, 신발장에는 몇 켤레의 신발밖에는 없었다. 무엇보다도 행복한 건 씽크대 속이다.

한국에 있을 때 그 많던 그릇들, 몇 년에 한번도 꺼내쓸 일이 없으면서 자리가 비좁을 때마다 이리 옮기고 저리 옮겨야했던 셋트류의 식기들, 그것들이 얼마나 짐스러운 것이었는지가 비로소 피부에 와 닿는 기분이었다. 어느날 씽크대 속을 정리하다말고, 나는 혼자 중얼거렸다.

뭐야, 이렇게해도 살아지잖아.

내 씽크대 속은 너무나 알랑했지만 그래도 부족한 것이 없었다. 한국에서 나는 왜 그렇게 많은 짐을 이고 살았던 것일까. 기회 있을 때 중국으로 옮겨오려고 따로 챙겨놓았던 전기 튀김기며, 갈비 구워먹는 그릴, 압력전기밥솥 따위들이 하나도 아쉽지 않았다. 소리 대신 불이 켜지는 전화기며, 커피콩

가는 분쇄기도 아쉽지 않고, 심지어는 청소기나 세탁기도 아쉽지 않았다. 그리고 보면 한국의 어느 창고에나 쭈셔 박아놓고 온 내 살림중에는 없어도 그만인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다.

지난 연말, 5개월 가까이 내 집에서 먹고 자며 살림을 도와주던 아주머니를 내보냈다. 아이하고 단 둘이 사는 살림에 처음부터 일빠주는 아주머니가 필요했던 건 아니었다. 중국에 처음 온 한국사람들이 조선족 가정부를 두는 것은, 가사일 때문이 아니라 통역의 필요 때문이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중국생활이 5개월쯤 되니 가게에서 물건 사는 정도는 남의 도움 없이도 할 수가 있고, 은행이나 우체국에도 혼자 갈 수 있게된 터라 더 이상은 함께 살면 서까지 받아야할 통역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다. 아주머니가 함께 있던 5개월 동안 그야말로 손 끝에 물 한방울 안 대고 살았으니, 다시 가정주부로 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는가. 그러나 나는 신이 났다. 아주머니가 있는 동안 몸은 편해도 마음은 편치 않았던 것이, 종일 손님과 함께 있는 기분이었기 때문이다. 그것만이어도 좋을텐데, 어떤 때는 내 집에서 내가 손님같았다. 아주머니가 나가고 난 뒤, 비로소 내 맘에 맞게 그릇들을 다시 정리하고 화분의 위치도 바꾸었다. 난생 처음으로 김치도 내 손으로 담그고, 목욕탕에 쭈그러 앉아 한시간씩 손빨래를 하는데도 그게 싫지 않았다.

문제는 그 때문이었을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살림이 늘어가고 있었다. 발수건 갈아두던 목욕탕 앞에 러그를 사다 깔고, 콜라병이나 간장병 부셔서 쓰던 물병 대신에 작은 것, 큰 것, 물병을 사다놓고 뚜껑 사라지고 바닥의 코팅이 벗겨진채로도 몇 달동안이나 탈 없이 쓰던 냄비를 버리고 냄비 하나 후라이팬 두개 더 사고, 탄탄한게 예뻐 보이는 유리컵도 샀다. 내킨 김에 종지도 사고, 반찬통으로 쓰던 아이 초코렛 통을 전부 들어내고는, 귀가 잘 맞는 반찬통들도 샀다. 마음 속에서는 멈춰라, 멈춰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았다. 며칠 전에는 시내까지 나가서 토스터기를 샀는데, 그때도 멈춰라, 멈춰라 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나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가지각색의 예쁜 식기와 주방 가전들 앞에서 나는 거의 황홀경에 빠진 듯 했다.

한국에 있을 때부터 나는 예쁜 그릇과 예쁜 주방 가전에 항상 마음을 빼앗겼다. 오랜 망설임 끝에 뭘 하나 사기만 하면 그게 과일깎는 칼 하나더라도 그날 하루가 행복했다. 그런 내게 보라는 듯이, 예쁜 것들이 너무나 많았다. 아아, 저 냄비 하나만 더 샀으면... 저 유리그릇 하나만 더 샀으면... 그리고 저렇게 예쁜 접시라니!

나를 멈추게 하려고 하늘이 도우시는 건지, 그날 시내 가장 좋은 백화점에서 사가지고온 토스터기가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비정상적이다. 빵이 다 타버리든 말든 자동으로 튀어오르지를 않는 것이다. 잠깐 망심했다가는

불나기 딱 쉽게 생겼고, 타지 않게 신경을 쓰고 있자니 후라이팬에 구워먹는 것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일이 되어버렸다. 오직 '너무 예쁘게 생겨서' 산 토스터기였다. 교환이 문제될 건 없겠지만, 그 먼 곳까지 일부러 가고 오며 차비 쓰고 시간 쓸 생각하면 도무지 타산이 맞지 않는 일이다.

내 작은 욕심들을 부당하다고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정도의 욕심에 까지 죄의식을 느껴가며 청빈하게 살고 싶은 것도 아니다. 나는 다만 가벼워지는 것, 내 생의 불편한 무게를 줄이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다. 완전히 가벼워지기 위해서라면, 내 몸에서 떼어내야 할 것들이 살이든 욕망이든 수도 없이 많겠지만 그러지를 못하니 일단 그릇부터 줄이면서 자족해보는 것도 나쁜 일은 아니다. 가진게 없으니 어디로든 떠나는 일은 얼마나 쉬운가. 적어도, 아직은 말이다.

〈이상 문학상 수상 : 2003년-바다와 나비〉

김인숙 동문

- 1963년 서울 출생
-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졸업
- 1983년 조선일보 신춘문에 단편 「상실의 계절」 당선으로 등단

| 소설집 |

함께 걷는길, 칼날과 사랑, 유리구두, 브라스밴드를 기다리며

| 장편소설 |

핏줄, 불꽃, 1979년~1980년 겨울에서 봄사이, 긴 밤, 짧게 다가온 아침, 그래서 너를 안는다, 시드니 그 푸른 바다에 서다, 먼길, 그늘 깊은곳, 꽃의 기억, 우연 등

| 장편소설 |

- 1995년 제28회 한국일보 문학상 수상작 : 먼길
- 2000년 45회 현대 문학상 수상작 : 개교기념일
- 2003년 27회 이상 문학상 수상작 : 바다와 나비

# 진명 100년, 인물 100년 편집후기

편집장 고미자 (48회)

1959년 2월 3.1당(진명강당) 낙성 후 첫 졸업식을 치를 때 울며 졸업생 대표로 답사를 하던 생 각이 문득 납니다. 또 4.6배판의 「진명」이란 제호로 1호 신문이 나오기까지 제1호 기자로 문교 부장관(이선근 박사)택에 원고청탁을 가던 일부터 서대문에 있는 동아출판사에서 신문 재교, 3교를 교정보며 늦게 귀가할 때 야릇한 흥분이 지금 다시 살아남은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 진명인(人)의 인물사를 만든다는 제의와 함께 회장단 회의에서 수필집보다는 인물사쪽 이 좋겠다는 의견을 모아 일을 착수하였습니다.

진명인(人)으로 훌륭한 삶을 살아오신 선·후배님들은 시대적으로 여성사(史)에 길이 남을 선구적인 분들이었습니다.

당시에 남성들도 어려워하는 사법고시 합격에서부터 세계를 일주하며 그림을 그렸던 최초의 서양화가도 있었으며 시조 부흥운동에 여성으로 흥일점 활동한 시조시인 등 그야말로 여성들의 선구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일본은 을사늑약을 강제로 맺고 우리 민족에게 압박을 가하였으며 우리의 모든 것을 모조 리 빼앗을 때 내 민족, 내 겨레의 얼을 굳건하게 지키셨던 엄귀비와 당시의 교장선생님과 선생님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쌓으신 교육의 힘이 없었던들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은 편리한 망각의 동물이라 누가 말하던가요.

세월의 뒤안길에 잊혀져가는 분들을 향해 우리 세대에는 모르는 분이라고 부정하거나 외 면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모교의 훌륭한 교육의 손길로 진명의 덕성스런 정신적 토대 위에 굳게 다져져 영롱한 결 실을 맺은 30여분의 일생과 업적을 기리며 아직 많은 활동을 더 하실 분들에게는 더욱 더 삶에 본보기가 될 훌륭한 성과가 있기를 기원하며 1년동안 준비하는 중에도 조금도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30여분의 업적이 진명의 졸업생이란 이름으로 세상밖으로 나갑니다.

부디 찬찬히 살펴봐주시고 훌륭한 일을 하신 분들께 격려와 박수를 보내 주십시오.

끝으로 이 책을 만드는 데 적극지원한 11대 사공인숙회장의 많은 노고를 치하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2006년 3월

## 참고 자료

1. 엄순현 귀비 : 진명 75년史
2. 엄준원 교조(초대 교장) : 진명 75년史
3. 이세정 (3代) : 진명 75년史 일해 이세정 그 교육과 발자취
4. 나혜석 (3회) : 진명 75년史 프리다 칼로와 나혜석 그리고 까미유 끌로델
5. 김오남 (17회) : 연천군지. 편집부
6. 노천명 (20회) : 한국현대 시인 연구 「16」 노천명 편
7. 박용경 (21회) : 진명 75년史
8. 손호연 (30회) : 호연연가, 유족자료제공
9. 김재순 (34회) : 경력만 신습니다.
10. 이윤자 (35회) : 주부교실 중앙회 자료 제공
11. 황윤석 (36회) : 황의돈님이 제공한 유족의 논문자료
12. 한양순 (36회) : 1주기 추모 기념집 「고인의 글 모음집 중에서」
13. 한운복 (39회) : 본인 제공 자료. 편집부
14. 이현중 (39회) : 본인 제공 자료. 편집부
15. 김희진 (41회) : 한국전통매듭
16. 이복자 (41회) : 태목전집 XII
17. 우복희 (46회) : 현당 우복희 정년 기념 논제집
18. 황연대 (46회) : 기사보도 발취 · 본인의 자료 제공
19. 박정란 (48회) : 본인 제공 자료.
20. 조경자 (49회) : 대한체육회 제공 자료. 대담자료(학창시절)
21. 박정자 (50회) : 연극인 박정자(김미도 지음)
22. 윤순희 (50회) : 본인 제공 자료.
23. 김청자 (52회) : CD 자료집에서
24. 홍양자 (52회) : 본인 제공 자료.
25. 김현숙 (54회) : 퍼펄로에서 보내온 자료집에서(신문 · 잡지에서 발취)
26. 문정희 (55회) : 소월시 문학상 「키 큰 남자를 보면」에서
27. 김경희 (55회) : 경력만 신습니다.
28. 박명숙 (57회) : 본인 제공 자료.
29. 이선희 (58회) : 본인 제공 자료.
30. 전미숙 (66회) : 본인 제공 자료.
31. 허성녀 (68회) : 본인 제공 자료.
32. 유지나 (68회) : 기자와의 대담 실음.
33. 김순덕 (69회) : 동아일보 칼럼. 본인 제공 자료.
34. 김인숙 (71회) : 「바다와 나비」 문학사상사 27권에서 발취

## 진명100년 인물 100년

---

인 쇄 일 | 2006년 3월 15일

발 행 일 | 2006년 4월 20일

발 행 인 | 사공인숙

편집위원 | 고미자 이신자 이동주

발 행 처 | **진명여고 총동창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2-13 성지하이츠1

오피스텔 1715~1717호

Phone : 02)553-5456(rep.)

F a x : 02)553-5457

Homepage : [www.jma.or.kr](http://www.jma.or.kr)

제 작 |  **중영문화사**

서울 용산구 원효로 1가 12-15 중앙빌딩

Phone : 02)717-5511(rep.)

F a x : 02)717-5515 / 5542

E-mail : [K068@chol.com](mailto:K068@chol.com)

Homepage : <http://www.jmci.co.kr>

정 가 | 30,000원

---

